

2007년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 (2)

연구 책임자 : 곽 충 구

연구 보조원 : 김 수 현

조사 지역 :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7년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및 전사 용역’에 관하여
위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7년 12월 20일

연구책임자 : 곽충구

2007년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 (2)

목 차

1. 조사 과정	3
2. 전사 원칙	9
3. 전사 자료	
제 1 편 구술발화	13
제 2 편 어 휘	129
제 3 편 음 운	182
제 4 편 문 법	213
4. 제출 자료(별첨)	
(1) 지역어 현지 조사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 전량	
(2) 전사된 지역어 조사 질문지 원본 및 제보자 조사표	
(3)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4)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5) 보존용 48,000hz 웨이브 파일, 작업용 16,000hz 웨이브 파일, 전사 trs 파일	
(6) 지역어 조사 사진 파일(제보자 및 보조제보자 얼굴과 전신, 조사장면, 조사 장소, 마을 전경, 조사 항목 등)	
(7) 보고서 100부 및 원본 파일	
(8) 구술 발화 발간용 파일	

1. 조사 과정

1.1 조사 지점 개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지에는 약 50여 만을 헤아리는 한인이 살고 있다. 이 한인들은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하여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서 중앙아시아로 옮겨와 사는 사람들이다. 이들 한인 또는 그들의 선대는 대체로 함경도에서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의 연해주로 이주하여 살던 사람들이다.

‘2007년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에서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을 조사 지점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우슈토베, 크즐오르다, 따라즈에는 고려인이라 불리는 다수의 한인들이 집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한국어 중에서 절멸 위기에 놓여 있는 육진 지역어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육진 지역어는 매우 보수적이어서 고어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데 중앙아시아에서 이 육진 지역어를 구사하는 화자는 매우 드물다. 이 지역어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조사는 몇 가지 점에서 매우 의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하나는 절멸 위기의 육진 지역어를 채록하여 영구히 보존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 지역어 조사 자료가 국어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고 또 19세기 이후에 전개된 유이민의 역사와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 문화를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제보자인 한 **** 할머니는 중앙아시아에서 육진 지역어를 구사하는 몇 사람 중의 한 분이다. 1872년 아무르 강가에 세워진 한인촌 사말리(블라고슬로벤노예)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다음 부친을 따라 시베리아의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지금은 중앙아시아에 정착하여 살고 있다. 할머니는 하바로프스크, 블라고슬로벤노예, 블라고베신스크, 야꾸트 아마단, 볼쇼이니베르, 노보트로이츠크, 알마아띠에 이르기까지 구소련의 극동과 시베리아의 여러 지역을 전전하면서 삶을 이어왔다. 부친은 사말리에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금광 채굴을 위하여 시베리아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지내다가 한인들이 사는 중앙아시아로 이주하였다. 제보자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잠시 우리말을 배웠을 뿐 그 이후는 전문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러시아 학교에 다니며 러시아어로 공부하였다. 할머니는 오직 가정에서 어머니로부터 우리말을 배웠을 뿐이다. 제보자의 모친은 늘 민족어를 배우고 쓸 것을 강조하였다 한다.

한 **** 할머니가 말하는 한국어 어휘량은 매우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 할머니를 제보자로 삼은 것은 절멸 위기에 처한 중앙아시아 육진 지역어 화자를 달리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또 언어에 대한 식견이 높았기 때문이다.

1.2 조사 기간

2007. 7. 29.~2007. 8. 14.(출장 기간: 2007. 7. 27.~8. 15.)

7월 27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밤 10시에 도착(현지 시간)

7월 28일 ***** 산 씨 집에서 * * 박 교수와 조사 일정 제보자 협의

7월 29일 ***** 산 씨 집에서 아파트로 이동. 오후에 제보자와 상견례
자유대담 및 구술발화 조사

7월 30일 구술발화 조사

7월 31일 구술발화 조사 및 어휘 항목 조사

8월 1일 구술발화 보충 조사 및 어휘 항목 조사

8월 2일~5일 어휘 항목 조사

8월 6일 어휘 항목 보충 조사, 어휘 항목 조사, 음운 항목 조사

8월 8일 음운 항목 보충 조사 및 음운 항목 조사

8월 9일 음운 항목 조사 및 문법 항목 조사

8월 10일 음운/문법 항목 보충 조사, 문법 항목 조사

8월 11일 문 일리나 기본 어휘 조사

8월 12일 오전: 보충 및 확인 조사
오후: 한인 이주 70주년 기념 공연 참석

8월 14일 문 *** 보충 조사

8월 15일 귀국

1.3 제보자

(1) 주제보자

- 이름: 한 (Han Matveevna)
- 성별: 여
- 나이: 85세(1923년생)
- 출생지: 러시아 연해주 하바로프스크(Khabarovsk)
- 거주지: 카자흐스탄 알마티
Almaaty Khazaxstan)
- 선대거주지: 러시아 블라고슬라벤노예(Vlagoslovenoye), 블라고베신스크,
야쿠트 알단, 볼쇼이 니베르, 노보트로이츠크, 알마티.
- 직업: 없음
- 경력: 사무원
- 학력: 대학 졸업
- 병역: 해당없음
- 제보자 소개 과정: 카자흐스탄 국제정치세계대학 한국어과 교수인 교수

의 추천으로 조사를 시작함. 조사 전 한국에서 육진 지역어 화자를 여러 명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고, 현지에 도착한 후 위 제보자를 소개받아 면담한 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 제보자의 특기 사항: 제보자는 블라고베신스크에서 한인 초등학교 1년 과정을 이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어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제보자는 이른바 ‘가정방언’(family dialect)으로서의 한국어를 배우고 익혔는데 주로 가정에서 모친과 대화를 하는 경우에만 한국어를 썼다. 주로 도시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러시아어를 구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질문지의 조사 항목 중 어휘 항목은 조사하기가 어려웠다. 84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명료하고 언어 감각이 뛰어나나 농사 경험이 없고 너무 오랜 동안 러시아 문화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조사 항목을 모두 조사하기는 어려웠다. 일부 선택식 질문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하기도 하였으나 어휘 항목에서는 응답형을 얻어낼 수 없었다. 그러나 음운 문법은 빈칸 없이 모든 항목을 조사할 수 있었다. 문법 항목은 자연발화에 유의하여 자연발화에서 나타난 어형을 메모해 두었다가 기록해 넣기도 하고 일부는 러시아어 문장을 주고 그것을 한국어로 옮기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기도 하였다.
- 제보자의 음성 특징: 고령이지만 목소리가 낭랑하고 발음이 명료한 편이나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이중언어사용자이기 때문에 러시아어에 영향을 받아 그 조음적 특징이 나타난다. 게다가 한국어 구사가 서툴기 때문에 구술발화의 전사에서 애로 사항이 많았다. 그러나 언어 감각이 뛰어나 ‘ㅈ’의 경우 치조음과 경구개음을 구분해 주기도 하였다. 주요 음성특징으로 ‘ㄹ’은 권설적인 [l]로 발음하고 어간말의 유음은 [r] 또는 [ɾ]로 발음하여 중부방언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또 ‘ㅊ’은 치조음과 경구개음으로 조음한다. 이것은 육진방언의 전통을 이은 것이다. 그리고 반모음 [w]는 [v]로 발음하기도 하고 음절말의 ‘ㅇ’도 [ŋ]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러시아어의 자음체계에 동화되었기 때문이다. 모음 역시 조음위치가 중부방언의 그것과는 다르다.

1.4 조사자

- (1) 이름 : 곽충구(서강대학교 교수)/ 김수현(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생)
- (2) 조사 일시 : 2007년 7월 29일~8월 14일
- (3) 조사 장소 :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알파방크 97호(조사자 숙소)
- (4) 조사 내용

- ① 구술발화 파일(9개): AKZ_AM_01~AKZ_AM_09
- ② 어휘 파일(19개): AKZ_AM_10~AKZ_AM_12, AKZ_AM_14~AKZ_AM_28, AKZ_AM_30
- ③ 음운 파일(5개): AKZ_AM_31~AKZ_AM_32, AKZ_AM_34~AKZ_AM_36
- ④ 문법 파일(3개): AKZ_AM_37, AKZ_AM_39, AKZ_AM_40
- ⑤ 보충 조사 파일(5개): AKZ_AM_13(구술발화 보충), AKZ_AM_29(어휘 보충),

AKZ_AM_33(음운 보충), AKZ_AM_38(음운, 문법 보충),
AKZ_AM_41(전 항목 보충)

연번	파일	녹음 시간	조사 항목	제보자	조사자	조사일
1	AKZ_AM_01	1:48:37	구술발화(이주사, 고향 이야기)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7. 29.
2	AKZ_AM_02	24:19	구술발화 1.1.~1.2.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7. 30.
3	AKZ_AM_03	1:03:02	구술발화 1.3.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7. 30.
4	AKZ_AM_04	44:07	구술발화 1.4.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7. 30.
5	AKZ_AM_05	56:01	구술발화 1.5.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7. 30.
6	AKZ_AM_06	1:06:12	구술발화 1.6.~1.7.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7. 30.
7	AKZ_AM_07	54:40	구술발화 1.8.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7. 30.
8	AKZ_AM_08	36:23	구술발화 1.8.~1.9. 1.2.보충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7. 30.
9	AKZ_AM_09	1:44:32	구술발화 1.8.3.~1.9.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7. 31.
10	AKZ_AM_10	1:52:45	어휘 20101~20401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7. 31.
11	AKZ_AM_11	1:02:06	어휘 20402~20533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7. 31.
12	AKZ_AM_12	42:11	어휘 20601~20707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7. 31.
13	AKZ_AM_13	03:15	구술발화 보충조사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8. 1.
14	AKZ_AM_14	1:53:53	어휘 20708~20823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8. 1.
15	AKZ_AM_15	2:00:54	어휘 20824~21101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8. 1.
16	AKZ_AM_16	1:35:11	어휘 21102~21235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8. 1.
17	AKZ_AM_17	2:00:53	어휘 21236~21426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8. 2.
18	AKZ_AM_18	21:47	어휘 21427~21443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8. 2.
19	AKZ_AM_19	2:02:18	어휘 21501~21716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8. 2.
20	AKZ_AM_20	27:21	어휘 21717~21742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8. 2.
21	AKZ_AM_21	28:18	어휘 21801~21853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8. 2.
22	AKZ_AM_22	2:11:55	어휘 21854~22136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8. 4.
23	AKZ_AM_23	1:17:07	어휘 22201~22258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8. 4.
24	AKZ_AM_24	2:04:37	어휘 22301~22379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8. 4.

25	AKZ_AM_25	2:51:28	어휘 22401~22727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8. 5.
26	AKZ_AM_26	19:00	어휘 22727-1~22736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8. 5.
27	AKZ_AM_27	1:39:28	어휘 22801~23027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8. 5.
28	AKZ_AM_28	1:09:57	어휘 23101~23221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8. 5.
29	AKZ_AM_29	20:40	어휘 보충조사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8. 6.
30	AKZ_AM_30	2:09:28	어휘 23222~23441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8. 6.
31	AKZ_AM_31	1:32:19	음운 31001~31052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8. 6.
32	AKZ_AM_32	1:50:12	음운 31053~32039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8. 6.
33	AKZ_AM_33	09:34	음운 보충조사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8. 8.
34	AKZ_AM_34	2:23:39	음운 32040~32162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8. 8.
35	AKZ_AM_35	1:44:21	음운 32163~32258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8. 8.
36	AKZ_AM_36	3:08:17	음운 32259~32362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8. 9.
37	AKZ_AM_37	3:17:32	문법 40101~40618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8. 9.
38	AKZ_AM_38	16:29	음운, 문법 보충조사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8. 10.
39	AKZ_AM_39	2:06:25	문법 40701~41034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8. 10.
40	AKZ_AM_40	36:13	문법 41101~41116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8. 10.
41	AKZ_AM_41	1:21:57	전 항목 보충 및 확인조사	한****	곽충구 김수현	2007. 8. 12.
합계		56:46:11				

1.5 전사

(1) 1차 전사(2007년 9월~10월)

구술발화 : 곽충구, 김수현

어휘 : 김수현

음운 : 김수현

문법 : 김수현

(2) 1차 점검(2007년 11월)

구술발화 : 곽충구, 김수현

어휘 : 곽충구, 김수현
음운 : 곽충구, 김수현
문법 : 곽충구, 김수현

(3) 2차 점검(2007년 12월)

구술발화 : 곽충구, 김수현
어휘 : 곽충구, 김수현
음운 : 곽충구, 김수현
문법 : 곽충구, 김수현

2. 전사 원칙

2.1 구술 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하였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형태음소 전사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형, 활용형, 파생어, 합성어 내부의 형태소 경계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단, 형태소 내부는 음소 전사를 하였다.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발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안에 한글 또는 음성 기호로써 발음을 표시하였다. 특히, 이 지역어의 경우 /ㅈ, ㅊ, ㅍ/이 치음 또는 치조음으로 발음되는 까닭에, /자저조주/와 /자저쵸쥬/를 구별하여 전사하였다. /자/ 계열로 전사한 /ㅈ/은 치음 또는 치조음을 나타내고, /자/ 계열로 전사한 /ㅈ/은 경구개음을 나타낸다. /ㅊ/과 /ㅍ/의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따랐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

하였다.

-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안에 기록하였다.
- ⑤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 ⑦ 실물은 존재하나 러시아 어로 답변한 경우, 조사지역의 방언형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로 표시하였다.
- ⑧ 조사지역에서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어형을 제시하고 그 쓰임을 확인한 후 그 방언형 앞에 “→” 표시를 하였다.
- ⑨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신구형은 응답형 뒤에 (+신), (+구)로 표시하였다.
- ⑩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다),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 ⑪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존)으로 표시하였다.
- ⑫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노), (+유)로 표시하였다.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되(+) 안에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 ② ‘이’와 ‘으’의 중간음은 ‘니’로 전사하였다. 예: 괴래, 괴별. 그러나 본래의 음가를 지닌 경우

도 있다. 예: 짐식(짐승-이)

③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④ 상승조, 하강조, 저장조를 동반하는 긴 소리는 동일 모음을 반복 표기하였다. 예: 해했다(하였다).

⑤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 등으로 표시하였다.

3. 전사 자료

제1편 구술 발화

1.2. 일생 의례

- 10201 @ 아매 어저께 저기 음:. 사말리에서 이십삼년에 태어나신 거죠? 스물세해애?{할머니 어저께 저기 음. 사말리에서 1923년에 태어나신 거죠? 1923년에?}
- 10201 # 내 내기르 스물세해애 났지. 그래 거기서 떠나기르 아무래 여섯살에 떠나다니 그게. {내 태어나기를 1923년에 태어났지. 그래 거기서 떠나기를 아무래도 여섯 살에 떠나고 보니 그것이}
- 10201 @ 그게.{그것이}
- 10201 # 스물아홉에 아무래 떠났지, 사말리셔.{1929년에 아무래도 떠났지, 사말리에서}
- 10201 @ 그렇겠쥬.{그렇겠쥬}
- 10201 # 예. 여섯살에 떠나다니니. 음.{예. 여섯 살에 떠나고 보니. 음}
- 10201 @ 예. 그리구: 우: 블라보베신스크.{그리고 블라고베신스크}
- 10201 # 예. 블라가베신스크에 와 있을적에.{예. 블라고베신스크에 와 있을 적에}
- 10201 @ 그 때가 뗏살때임둥?{그 때가 몇 살 때입니까?}
- 10201 # 그 때 닐곱살에 고레핵폴 갔습지 머.{그 때 일곱 살에 한인 학교에 들어갔지요 뭐}
- 10201 @ 닐곱살에.{일곱 살에}
- 10201 # 닐곱살에 고레핵폴 갔지.{일곱 살에 한인 학교에 들어갔지.}
- 10201 @ 그 때 블라보.{그 때 블라고베신스크}
- 10201 # 블라가베신스까 하.{블라고베신스크 응}
- 10201 @ 예.{예.}
- 10201 # 블라가베신스크 있을 적이.{블라고베신스크에 있을 적에}
- 10201 @ 인, 인세르 가신거죠?{이사를 가신 것이죠?}
- 10201 # 다 이새르 갔습지.{다 이사를 갔지요.}
- 10201 @ 예. 인세르 가구.{예. 이사를 가고}
- 10201 # 그래 마마 거기서 고레핵교셔 아아덜 끝이는 식모질 했지 머.{그래 어머니가 거기서 학생 아이들 음식을 만드는 식모의 일을 했지 뭐.}
- 10201 @ 그렇다구 했쥬.{그렇다고 했쥬.}
- 10201 # 예. 식모질 했스끄마.{예. 식모질을 했습니다.}
- 10201 @ 예. 으음. 그러면은 거기서: 어: 얼마르 사셨습둥?{예. 음. 그러면 거기서 얼마 동안 사셨습니까?}
- 10201 # 거기서 에따 고레핵교셔 한해르 글으 니르구 그담에 마우재해교셔 삼년 니르구. 그래다나니 사년 살았습지.{거기서 음 한인 학교에서 한 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학교에서 3년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 4년 살았지요.}
- 10201 @ 예. 음:. 그러면, 예. 하바, 하바로프스크는 언제 가셨습둥?{예. 음. 그러면 예 하바로프스크는 언제 가셨습니까?}
- 10201 # 하바로프스크에서는 내 나기 전에 하바로프스크에서 거기서. 나기, 나기는 옴판 내

나기는 하바로프스크에서 났지 머. 기랜거 워 그 났다구서르 그거 글으 글으는 사말리 와서 나 가졌습지 머.{하바로프스크에서는 내 낳기 전에 하바로프스크에서 거기서. 낳기는 원래 내가 낳기는 하바로프스크에서 낳았지 뭐. 그런데 낳았다고서 그거 문서는 사말리에 와서 가졌지요 뭐.}

10201 @ 예. 그러니까 하바로프스크에서.{예. 그러니까 하바로프스크에서}

10201 # 우리 우리 아버지 뻘뻘 다: 어떤가하니까더 어디메 어디 가서 오래: 살디 못하구 살다 살다 못 살았습꾸마.{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 예 어떠한가 하면 어디 어디 가서 오래 살지 못하고, 살다가 살다가 (오래) 못 살았습니다.}

10201 # 한 이티 살구는 또 다른 데르 가구. 한 삼년 살구 또 다른 데르 가구. 기래다나니 거저 그냥 땡기다나니 우리 집에 이런 이런거 아무 것두 없었습꾸마.{한 이태 살다가 다른 데로 가고. 한 삼 년 살고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렇다 보니 그저 계속 다니다 보니 우리 집에는 이런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10201 # 거저 니부자리 우티르 가지구 떠나셔는 거기워서 집우 거저 허줄:한 집우 싸가지구서르 한 이티 한 삼년 살구는 또 아버지 갑:꾸마. 또 먼데르 갑:꾸마. 또 다른 데르 갑:꾸마. 기래다니 언매 돌았는지 모릅꾸마. 여기가 조끔 있구 더기가 조끔 있구.{그저 이부자리 옷을 가지고 떠나서는 거기 가서 집을 그저 허술한 집을 사가지고서 한 이태 한 삼 년 살고서는 또 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갑니다. 또 먼곳으로 갑니다.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그렇다 보니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여기 가서 조금 있고 저기 가서 조금 있고}

10201 # 개 오래: 오래: 산게 이 쉼베레 가서 쉼베레 가서 어쩐가하니까더. 예 전재이, 전재이 마은한해 전재이 나대냈슴둥?{그래 오래 산 것이 이 시베리아에 가서 시베리아에 가서 어떤가 하니까 예. 전쟁이, 전쟁이 1941년에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까?}

10201 # 기래다나니 거기 물았아 있었습꾸마.{그래서 거기 아주 눌러앉아 있었습니다}

10201 # 기래 전재이 곰만 마감이 나니 아버지 여기르 왔습꾸마.{그래 전쟁이 금방 끝이 나니 아버지가 여기로 왔습니다.}

10201 @ 아:, 아:.{아, 아}

10201 # 마흔닐곱해.{1947년에}

10201 @ 그렇쥬. 예:{그렇쥬. 예}

10201 # 예. 예.{예. 예.}

10201 @ 음:. 그러니까 하바로프스크에서는 여기선 아매 나, 나아서.{그러니까 하바로프스크에서는 여기선 할머니 낳아서}

10201 # 예. 그래서 사말리.{예. 그래서 사말리}

10201 @ 여기서 사말리르 가서.{여기서 사말리로 가서}

10201 # 예, 사말리르 가서.{예, 사말리로 가서}

10201 @ 몇세 때 사말리 갔슴둥?{몇 세 때 사말리로 갔습니까?}

10201 # 그 때 그저 어른아:르 데리구 왔지 머. 조오꼬만거 아무 것두 모르는 거. 기래 여섯 살까지 있었지 머.{그 때 그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지요. 조그만 것 아무 것도 모르는 것. 그래 여섯 살까지 있었지.}

10201 @ 음:. 아아, 하바, 하바로프스크에서 나셨군요.{아아, 하바로프스크에서 나셨군요}

10201 # 나기는 하바로프스크에서 났습지. 기랜거 그저 어른아 조오꼬만한 거 실꾸 대비 사말리에 와서 거기 와서 이룩기 아무 때 났다구서 몸글으 가졌습지 머.{나기는 하바로프스크에서 났지요. 그런데 그저 어린아이 조그만 것을 싣고 다시 사말리에 와서, 거기 와서 이렇게 아무 때 났다고 신분증명서를 가졌지요 뭐.}

10201 @ 아아, 몸글으 가졌다구요.{아아, 신분증명서를 가졌다고요?}

10201 # 예:. 거기. 아아 나문 글으 몸글으 해주대님등? 그거, 그거 사말리 와서 가졌습지. 하바로프스크에선 나가지구서르.{아이가 태어나면 신분증명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거 사말리에 와서 가졌지요. 하바로프스크에서는 낳아 가지고서}

10201 # 그래 우리 아버지 그래다나니 자꾸 떠나댕기다나니 하바로프스크에서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습꾸마.{그래 우리 아버지 그러하다 보니 자꾸 떠나 다녀서 하바로프스크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0201 # 그래구 우리 마마 그냥: 해롭아했습꾸마. 거저 구십, 구십살으 거의 살મે서두 번:한 날이 없었습꾸마. 그냥: 해롭아했습꾸마. 그래 마마 그랩더구마. 내 야듭살에 매실으 나가서 밭으 나가서 일했짐. 곡식으 기슴매구 무슨 시무구 가스리무 그거 거두구. 그 답에 동삼이무 그 삼우, 삼우 짜서 그거 무스 형젧으 맨드르메 그래구. 나무밭에 가서 낭그두 해 가지구 오구. 고저 그래다나니 요만:이 놀새 없구 핵교 문이 어떻게 여는지 그것두 모르구. 그래구 예레덫살에 식지부 왔습지 며.{그리고 우리 어머니 계속 앓았습니다. 그거 구 십, 구 십 살을 거의 살면서도 건강이 좋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냥 앓았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내가 여덟 살에 항상 나가서 밭으로 가서 일했지요. 곡식 김을 매고 무슨 곡식인가 심고 가을이면 그것을 거두고. 그 다음에 겨울이면 그 삼을, 삼을 짜서 그거 무슨 천을 만들며 그리하고. 숲에 가서 나무도 해 가지고 오고. 그저 그렇다 보니 요만큼도 놀 사이가 없고 학교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열여덟 살에 시집을 왔지요 뭐.}

10201 @ 그게 시베리이쥬? 시베리에서 그랬쥬?{그것이 시베리아쥬? 시베리아에서 그랬쥬?}

10201 # 예. 예. 그래 예레덫살에 식집 사말리에서 와서 쉬집온 날부터 마마 해롭아한게 상제 날 때까지 그냥 해롭아했습꾸마. 게 거저 빠빠 거저 여기르 싣구 가구 더기르 싣구 가구. 그래다나니 어디메 가서 오래 안 있었습꾸마.{예. 예. 그래 열여덟 살에 시집을 와서 사말리에서 와서 쉬집온 날부터 어머니 앓은 것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앓았습니다. 게 그저 아버지 그저 여기로 싣고 가고 저기로 싣고 가고. 그러다 보니 어디 가서 오래 안 있었습니다.}

10201 @ 예. 으음. 으음. 그러:면은 시베리아 야꾸츠, 고로트 야꾸츠로 가셨다구 그랬습지? {예. 음, 음. 그러면 그러면 시베리아 야꾸츠 야꾸츠시로 가셨다고 그러셨지요?}

10201 # 예, 야꾸쯔키에 와 있었지 며. 시베리 야꾸찌에 와 있었지 며. 예.{예, 야꾸트에 와 있었쥬 뭐. 시베리아 야꾸트에 와 있었지 뭐. 예.}

10201 @ 거기서 결혼으 하시구.{거기서 결혼을 하시고}

10201 # 예.{예.}

10201 @ 스집우 가지구.{시집을 가지고}

10201 # 거기서 식집우 가구 내 거기서 아: 두울으 나구, 예. 마흔세해 마흔닐곱해. 그래 마흔 닐곱해에 여기르 아아르 데리구 왔지, 두울 다. 쪼오꼬만 거 다.{거기서 시집을 가고 내가 거기서 아이 둘을 나고, 예. 1943년 1947년에 그래 1947년에 여기를 아이를 데리고 왔지, 둘 다 조그만 것들 다 데리고 왔지.}

10201 @ 글쎄, 마흔닐구패에 알마띠르 온게 아니쥬.{그 때 1947년에 알마티로 온 것이 아니쥬?}

10201 # 여기르 알마띠르 왔지.{여기로 알마티로 왔지.}

10201 @ 알마띠로 오셨슴둥?{알마아띠로 오셨습니까?}

10201 # 여기르 웬: 처음에 아니 오구, 어 노바뜨로이즈까라는 데르 왔습지 며. 노바뜨로이즈까라는 데르 왔지.{여기로 맨 처음에 안 오고, 응 노보트로이즈까라는 데로 왔지요}

뭐. 노보트로이즈까라는 데로 왔지.}
 10201 # 거기서 빠빠 베질으 하다나니.{거기서 아버지가 벼농사를 지었지}
 10201 @ 베질으 하셨다구 그랬죠?{벼농사를 하셨다고 그랬죠?}
 10201 # 예.{예.}
 10201 # 그래 내 애끼 글으 닐기자구 빠빠 여기르 더기 쉰두해 왔습지 머.{그래 내 동생 공부
 부를 시키려고 아버지가 여기로 저기 1952년에 왔지요 뭐.}
 10201 @ 아아 글으 니르자구.{아이가 공부를 하려고}
 10201 # 예. 예. 가 대해교, 더 이사대해교르 마감했습꾸마.{그 아이 대학교, 저 의과대학교를
 마쳤습니다.}
 10201 @ 아아 그렇습둥?{아, 그렇습니까?}
 10201 # 예. 예. 예.{예. 예. 예.}
 10201 @ 아, 아, 으음, 으음. 그러면은 그 ... 마마 계셨구 빠빠 계셨구 고담에 아매 계셨구.
 애끼.{아, 음, 음. 그러면 그 ... 어머니가 계셨고 아버지가 계셨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계셨고. 동생.}
 10201 # 애끄.{동생}
 10201 @ 애끼, 애끼:. 그: 남자 애끼?{동생, 동생. 남동생?}
 10201 # 없었습꾸마.{없었습니다.}
 10201 @ 없었구.{없었고}
 10201 # 없었습꾸마.{없었습니다.}
 10201 @ 따님만?{따님만?}
 10201 # 예, 혼자 있었쓰꾸마 거저. 내 어떤가하니까더 내 아:덜 두울으 데리구 왔습지 머. 내
 식지부 간 게 남자 아니 데리구. 혼자 여길 아아르 데리구 오구. 기래구 애끼 있구 마
 마 있구 빠빠 있구 기래 있습지 머.{예, 혼자 있었습니다 그저. 내가 어찌하였는가 하
 면 내가 아이 둘을 데리고 왔지요 뭐. 내 시집을 갔지만 남편은 안 데리고 오고. 혼자
 여기를 아이를 데리고 왔지. 그리고 동생 있고, 어머니 있고, 아버지 있고 그렇게 있
 었지요 머.}
 10201 @ 음:.{음.}
 10201 # 개.{그래}
 10201 @ 가만있자.{음, 가만 있자.}
 10201 # 동상 그르 니르구.{동생 공부를 하고}
 10201 @ 네, 누구 동, 뉘기 동상?{네, 누구 동생? 누구 동생?}
 10201 # 내 동새.{내 동생}
 10201 @ 아매 동사이?{할머니 동생?}
 10201 # 내 동새 예. 내 동새 있었습꾸마.{내 동생. 예. 내가 동생이 있었습니다.}
 10201 @ 그러니까 여기에 예, 노바뜨로이즈카.{그러니까 여기에 예, 노보트로이즈카}
 10201 # 예, 나바뜨로이즈카?{예, 노보트로이즈카?}
 10201 @ 예, 노바뜨로이즈카 여기에 오실 때애 식귀, 식귀가 뉘귀 뉘귀 있었습둥?{예, 노보
 트로이즈카 여기에 오실 때 식구, 식구가 누구 누구 있었습니까?}
 10201 # 노바뜨로이즈카에 우리 식귀 마마, 빠빠, 동새, 내, 아: 두울으 데리구.{노보트로이즈
 카에서는 우리 식구가 어머니, 아버지, 동생, 나, 아이 둘을 데리고 있었고}
 10201 @ 마마, 빠빠, 고담?{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
 10201 # 동새, 내 동새, 예. 기래구 내. 아아 두울으 데리구.{동생, 내 동생 그리고 나. 이이
 둘을 데리고 있었고}

10201 # 이꾸즈까에서 내 어때 아:르 두울으 데리구 내 여길 들어왔는가 하무, 내 남편이 너무 화체서 그래 내 아아르 데리구 여길 왔습지.{이꾸즈까에서 어째 아이 둘을 데리고 내가 여길 들어왔는가 하면, 내 남편이 너무 여자를 좋아해서 그래 내가 아이를 데리고 여기를 왔지요.}

10201 @ 화체서?{'화체서'}

10201 # 화체서. 그저, 여기 가무 안간이 있구 더길 가무 안간이 있구.{남편이 여자를 좋아해서. 그저, 여기 가면 첩이 있고, 저길 가면 첩이 있고.}

10201 @ (웃음).

10201 # 화체서, 너무 화체서 집에 드대냈습꾸마. 집에 드대냈습꾸마.{남편이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0201 # 기대나니, 내 아덜 두울으 데리구 여기르 어시집으르 왔습지 머.{그러다 보니, 내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여기 부모님 집으로 왔지요 뭐.}

10201 @ 아아, 그래서. 아, 어시집우루:.{아아, 그래서. 아, 부모님 집으로}

10201 # 예:. 어시집.{예. 부모님 집}

10201 @ 그러니까. 아, 화체서가 무슨 말임둥?{그러니까. 아, 화체서가 무슨 말입니까?}

10201 # 화체서 그게, 안간 마이 하는 거 사름우 화친다구 하압지 머.{화체서 그건 바람 많이 피우는 것을 사람을 화친다고 하지요 뭐.}

10201 @ 아, 화친다구.{아, 화친다구}

10201 # 예. 화친다구, 화체서.{예. 화친다구, 화체서}

10201 @ 안까니, 안까니 만응 거.{첩, 첩이 많은 것}

10201 # 예. 어느 녀자르 내애노태니쿠.{예. 어느 여자를 내놓지 아니하고}

10201 @ 그러니까 예: 이쪽으로 노바트로이즈까로 오실 때는: 마마, 빠빠, 하구 따님, 딸 두울이, 딸 두울이 이꾸 아매 계셨구 동새애는 녀잠둥 남젠둥?{그러니까 예 이쪽으로 노보트로이즈까로 오실 때는 어머니, 아버지 하고 따님, 딸 둘이 있고, 할머니 계셨고 동생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10201 # 녀자꾸마.{여자입니다.}

10201 @ 아, 녀자라구 하셨지.{아, 여자라고 하셨지.}

10201 # 예예.{예.}

10201 @ 아. 음. 그러면은 예:, 아 동새: 음: 아매 이거 배움둥? 이거 고려글짜 배움둥? 아이 배움두?{아. 음. 그러면, 아 동생. 음. 할머니 이거 배우십니까? 이거 한글 배우십니까? 안 배우십니까?}

10201 # 아이 배우꿈. 배와두 내 이거 글째르 모릅꾸마. 모릅꾸마.{안 배우지. 배워도 나는 이 글자를 모릅니다.}

10201 @ 아아, 마마, 빠빠, 동새, 그담에{아아, 어머니, 아버지, 동생, 그 다음에}

10201 # 그담에.{그 다음에}

10201 @ 아매, 그담에.{할머니, 그 다음에}

10201 # 아아 두울이.{아이 둘}

10201 @ 예, 아아 두울이.{예, 아이 둘}

10201 # 예.{예.}

10201 @ 자녀 두울이.{자녀 둘}

10201 # 예.{예.}

10201 @ 자녀어.{자녀}

10201 # 예.{예.}

- 10201 @ 예. 이렇기 썼습꾸마. 아아. 아이구!, 그러며는 어어: (웃음), 그러며는 하바로프스크에서 사말리루 사말리에서 예:.{예. 이렇게 썼습니다. 아아. 아이구! 그러면 어. (웃음) 그러면 하바로프스크에서 사말리로 사말리에서 예.}
- 10201 # 사말리서 있다가서 고담에 블라가베신스크에 와서 예.{사말리에 있다가 그 다음에 블라가베신스크에 와서}
- 10201 @ 블라가베신스크루 해서 야꾸츠.{블라가베신스크로 해서 야꾸츠로}
- 10201 # 블라가베신스크에서 야꾸츠끄르 아니 왔습꾸마. 블라가베신스크에서 이, 있습꾸마. 이 부술기 조오꼬만 이룽기 셔는데, 그게 스판짜다나니 그게 어떤가하니까데 벌쇼이니베르, 벌쇼이니베르, 거기 와서 내 거기 와서 어, 뿌리치드 얼뜨이...{블라가베신스크에서 야꾸츠로 오지 않았습니다. 블라가베신스크에 있습니다. 이 조그만 기차 이렇게 셔는데, 그게 어떤가 하나면 발쇼이 니베르 내가 거기 와서...}
- 10201 @ 옳습꾸마.{맞습니다.}
- 10201 # 거기 와서 우리 한 이티 있었습꾸마. 한 이티. 내 셋째 뺨으 넷째 뺨으 마감하구 괴래구 쉼베르 왔습지 며.{우리 가족이 거기 와서 한 두해 있었습니다. 내가 3학년, 4학년을 끝내고 그리고 시베리아로 왔습니다.}
- 10201 # 쉼베리 와서 다섯째 뺨으 여섯째 뺨으 그담에 마감꺼지 열꺼지 열째뺨꺼지 마감으 있었지.{시베리아에 와서 5학년, 6학년 그 다음에 끝날 때까지, 10학년까지 끝내고 있었지.}

1.3. 생업 활동

- 10302 @ 예: 어제, 저기 예: 파파 베, 베질으 하셨다고 그랬죠?{예 어제, 저기 예. 아버지께서 벼농사를 하셨다고 그랬죠?}
- 10302 # 예. 베질했습지.{예. 벼농사를 지으셨죠.}
- 10302 @ 예. 베질으 하셨죠?{예. 벼농사를 하셨죠?}
- 10302 # 예. {예.}
- 10302 @ 그 베질을 어떻게 하는지 차암부터.{그 벼농사를 어떻게 하는지 처음부터.}
- 10302 # 차암부터 내 그거.{처음부터 내가 그것을.}
- 10302 @ 나아랑 말씀해주옵소.{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 10302 # 차암부터 내 모르옵꾸마. 그거, 어떤가하니까더 내 빠빠 그 밭에 나가 그렐 적에 우리네는 나가 일 아니 하다나니, 그, 그거 거저 가슬에 베르 거저 쳐 해:가지구 들에오니 그저 바이르 땀었습지 머.{처음부터 나는 모릅니다. 그것이 왜 그리냐면, 내 아버지가 밭에 나가 일하실 때 우리는 나가서 일을 안 했고, 가을에 벼를 쳐서 가지고 들어오면 그저 방아를 찧었죠 뭐.}
- 10302 @ 응...{응...}
- 10302 # 끄래구, 어떤가하니까더 녀름에는 밭써 베 이만씨 클, 크내네는 우리 빠빠 어떤가하니까더 우리네르 끄래 트랙에다가서 무스그 왜:두 시무구, 이 해가부:리두 시무구 끄래무 그거 가서 가슬에 거뒀습지 머. 내.{그리고, 어떤가 하면 여름에 벌써 벼가 이만큼씩 클 때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가 하면 우리들을 그래, 두렁에다가 무슨, 오이도 심고, 해바라기도 심고, 그러면 그것을 가을에 거뒀죠 뭐. 내가.}
- 10302 @ 음...음.{음...음.}
- 10302 # 그거 가서 거들적에는 무스그 내 팔, 내... 나바뜨로이즈까에서 있으멘서르 쉼파릴 물구 땡겼습꾸마. 내.{가서 그것을 거들 적에는 무슨 내 밭구, 내... 노바뜨로이즈까에서 있으면서 소밭구를 물고 다녔습니다. 내가.}
- 10302 @ 아...{아...}
- 10302 # 내 쉼파리 물구 가서느, 그거 가서 거더가지구셔느 파레 그 파레다가서르 싣구 또 집으루 오구 그랬습꾸마.{내 소밭구를 물고 가서는, 그거 가서 거두어 가지고 밭구에다가 싣고 또 집으로 오고 그랬습니다.}
- 10302 @ 아아... 음...음...{아아... 음...음...}
- 10302 # 끄래 거기서 아, 음... 나: 먹은 사람들이 끄랬습꾸마. 안, 네 어드메서 쉼파리르 물구 땡기는거 배웠는가 하구. 끄래다나니 여기서 배웠지 어드메서 배웠겠는가. 그거.{그래 거기서 아, 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너 어디서 소밭구를 물고 다니는 거 배웠냐하고. 그래서, 여기서 배웠지 어디서 배웠겠는가 그것을.}
- 10302 @ (웃음).
- 10302 # 쉼파리 어떤잼둥. 보오. 한늬르 보두두 못하구 알두두 못했다구. 여기르 오니까더 쉼파리르 빠빠사 그전에 촌에서 사다나니까더 빠빠 그거 쉼르 매워:서 나르 갈치워 주두만.{소밭구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보오. 한 평생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여기로 오니까, 소밭구를, 아버지야 그 전에 시골에서 살아서 아버지가 소에 그것을 매워서 나에게 가르쳐 주더구먼.}
- 10302 @ 음:{음.}

10302 # 네 이거 이래가지구셔르 내인데르 오너라. 괴래가 집에 와서 또 이거 이래무 쉼
뻗게라.{너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오너라. 그래 집에 와서 또 발구를 소에게
서 벗겨라.}

10302 @ 음.{음.}

10302 # 괴래다나니 괴래 거저 빠빠게서 배와가지구 쉼파리 몰구 땡졌습지.{그래서 그렇게
그저 아버지에게 배워서 소발구를 몰고 다녔죠.}

10302 @ 음: 그런데 처음에: 이 밭, 밭에다 물으 물으 넣구{음. 그런데 처음에 이 밭에다 물
을 넣고}

10302 # 물으 물으 놓구 괴래구 그거 베르 시몹드마.{물을 넣고 그리고 그것, 벼를 심더군
요.}

10302 @ 씨, 씨르{씨, 씨를}

10302 # 씨, 씨르 시문지 그거 무스거이 이룽기 다른거 시문제 그건 내 모르겠습꾸마.{씨, 씨
를 심은 것인지 무언가 이렇게 다른 것을 심었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10302 @ 음:{음.}

10302 # 아무래 씨르 시몹습지 머.{아무래도 씨를 심었죠.}

10302 @ 음: 음. 음.{음. 음. 음.}

10318 # 괴래 거저 가보무 녀름에 가서 조끔 우리네 가서느 봄이 떠나가구 녀름이 데무 가보
무 베 밭씨 이만:이 크구. 그 다음에 이만:하구 고다음에느 음. 거저 가을에는 물으
싸:악 그거 내보넵드마. 물으 내보내구 거기서 그담에느 그거 더기 재빌르 낚으 가지
구 싹 그거 베넵드마.{그래 그거 가 보면, 여름에 가서 조금, 우리들이 가서는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되어 가보면 벼가 벌써 이만큼 크고. 그 다음에는 이만하고 그 다음
에는... 음. 그거 가을에는 물을 싹 내보내더군요. 물을 내보내고 거기서 그 다음에는
그거, 저기 스스로 낚을 가지고 그것을 싹 베어내더군요.}

10318 @ 아, 낚으 가지구{아, 낚을 가지고}

10318 # 예. 낚으 가지구 빼었습지 머.{예. 낚을 가지고 베었죠 뭐.}

10318 @ 음. 그럼 낚을루 베에서 빼:서{음. 그럼 낚으로 베어서 베어서}

10318 # 단으 묶어서. 단으 묶어서 그 다음에느 그거 어드메서 어똥기 가서 어드메 가서 괴
랬던디 거저 집우루 베르 실어왔습지 머.{단을 묶어서, 단을 묶어서 그 다음에는 그거
어디서 어떻게 가서, 어디에 가서 그렇게 했는지 그거 집으로 벼를 실어왔죠 뭐.}

10318 @ 음.{음.}

10318 # 베르 실어오무 고담에느 그거 고저 이... 바이르 해:가지구셔르 바이에다가 찢었습지
머. 재빌르 낚그, 나 나무 밭, 밭빠이에다셔르 떠가지구셔르 괴래구 살았지 머.{벼를
실어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방아를 해 가지고서, 방아에다가 찢었죠 뭐. 스스로 나
무, 나무로 만든 디딜방아에다가 찢어 가지고서 그러면서 살았지 뭐.}

10318 @ 음. 그러면은 그: 벼단을 읊길 때 술기를 찢음둥? 파리를 찢음둥?{음. 그러면 그 벼
단을 읊길 때 수레를 찢습니까? 발구를 찢습니까?}

10318 # 아무래 파리르 찢습지 머. 술기 없었습꾸마.{아무래도 발구를 찢죠 뭐. 수레는 없었
습니다.}

10318 @ 음:{음.}

10318 # 예.{예.}

10318 @ 음: 음.{음. 음.}

10318 # 그거 가을으 어떻게 하는거 내 다 가서 못봤습꾸마.{그것, 가을걷이를 어떻게 하는지
내 다 가서 못봤습니다.}

10318 @ 음:{음.}

10318 # 가슬 어떻게 하는가 못봤습꾸마. 내 거저 땡길적에느 거저 이기 왜 대, 왜 대애구: 해, 해가부리돼구: 감제랑 괴래 팜, 그거 있, 그거 베: 가슬할때보구 조끔 일찍이 그거느 괴래대니무 가져오구 빠빠 거기서 괴랜저 그거 못봤습꾸마.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가을걸이를 어떻게 하는지 못 봤습니다. 내가 그냥 다닐 적에는 그거 이것이 오이 되고 해, 해바라기 되고, 감자랑 파면 그래 그것이 있고. 그것을 벼 가을걸이할 때 보고 조금 일찍이 그렇지 않으면 가져오고, 아버지 거기서 그렇게 한 것, 그것은 못봤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가을걸이를 하는지.}

10318 @ 음:{음.}

10318 # 그거 베르 들에오무 괴래무 거저 그거 가지구셔르 거저 바이르 떨어서 쌀으 그거 파는거 팔구 어, 싸래기느 그거 밥우 해먹구 괴래구 고저 살았습지.{그저 벼를 들에오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거 방아를 찧어서, 쌀을 파는 것은 팔고, 어, 싸라기는 그거 밥을 해먹고 그러고 그거 살았쥬.}

10318 @ 음:{음.}

10318 # 괴래 살다가서 거기서 빠빠 거기서 어떤가하니까더 이티르 일했습꾸마.{그래 살다가 아버지께서 거기서 어찌했는가 하면 2년을 일했습니다.}

10318 @ 음:{음.}

10318 # 이티르 일하구 고담에느 여기루 왔습지.{2년을 일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알마티)로 왔쥬.}

10318 @ 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빠빠:가 어디, 어디에서 그 베질을 하신검둥?
{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가 어디, 어디서 그 벼농사를 하신 것입니까?}

10318 # 노바트로이츠까라는 데서{노바트로이츠까라는 곳에서}

10318 @ 아: 네 그렇쥬. 예. 노바트로이츠까에서 {아. 네 그렇쥬. 예. 노바트로이츠까에서}

10318 # 예. 예. 거기서. 거기서 베질으 하다나니 괴래 그담에 여기루 왔습지 머.{예. 예. 거기서. 거기서 벼농사를 지었고, 그래 그 다음에는 여기(알마티)로 왔쥬 뭐.}

10304 @ 음. 그 때 그 일을 할 때 썼던 쟁기는 무슨 무스거 있었습둥? 낫이 있었구{음. 그 때 벼농사를 할 때 썼던 농기구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낫이 있었고}

10304 # 예. 낫이 있구 괴래구 이, 그거 이 고레말, 거, 마우재말인지 그게: 이게 까자끼 말인지 치끄메니(+ 팽이 종류, 러시아 어) 치끄메니 항게 [***] 음. 강채이보구 이룽기 강채이 이룽대임두? 고건 이룽게 항거 그거 가지구셔 일했드마 흠으 이래서.{예. 낫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고려말인지 러시아말인지 그게 카자흐말인지 치끄메니, 치끄메니 한 게 [x곡팽이x] 음. 삼보다 이렇게, 삼은 이렇지 않습니까? 그건 이렇게 한 거 그것을 가지고 일하더군요. 흠을 이렇게 해서}

10304 @ 아: 음: 음. 치끄.{아. 음. 음. 치끄.}

10304 # 치끄메니라 함드마.{치끄메니라 하더군요.}

10304 @ 치끄메니.{치끄메니}

10304 # 예.{예.}

10304 @ 음. 음.{음. 음.}

10304 # 괴래구 고저 우리느 가서 그 기슴 매는거 우리 빠빠가 이, 그거 호미르 호미르 호미르 해가지구셔르 조오꼬만 호미르 해가지구셔르 기슴맷습지 머.{그리고 그거 우리는 가서 그 김 매는 것을, 우리 아버지와, 이, 그것 호미를, 조그만 호미를 가지고서 김을 맷었쥬 뭐.}

10304 @ 음. 광차이 있었구.{음. 삼이 있었고.}

10304 # 예.{예.}

10304 @ 호미 있었구.{호미 있었고.}

10304 # 예.{예.}

10304 @ 예. 치끄메니 있었구.{치끄메니 있었고.}

10304 # 예. 기래구 그게 어딘가하이 차아재(+ 포크)라능게 모두 있구.{예 그리고 그게 어딘가 하면 포크라는 것이 또 있고.}

10304 @ 아: 음. 음. 차아재.{아. 음. 음. 포크}

10304 # 예. 이롭게 이, 이르게 거 쉼까지 이르게.{예, 이롭게, 이 이런 것이, 쇠살 이런 거}

10304 @ 음. 음.{음. 음.}

10304 # 허베, 허비우는게.{후비, 후비는 것}

10304 @ 음. {음.}

10304 # 차아재.{포크}

10304 @ 음. 또 무스게 무스거 있겠슴둥?{음. 또 무엇, 무엇이 있겠습니까?}

10304 # 기래구는 무스게 없었습꾸마.{그러고는 (다른) 무엇이 없었습니다.}

10304 @ 음. 음.{음. 음.}

10304 # 개 거저 무스거 거기서 흙으랑 그거 그랬는거는 거저 거반: 그거 치끄메니라는거 가지구서 거저 이래 학 파압드마. 이래 파가지구서르 그담에 이룩기 이런거, 이러 이런 거 해놓구서르 그, 거기다가서르.{그저 무엇인지, 거기서 흙을 다룬 것은 그저 거의 그것 치끄메니라는 것을 가지고 그저 이렇게 확 파더군요. 이렇게 파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것, 이런 것을 해놓고서 거기다가}

10304 @ 음:{음.}

10304 # 시머가지구서르.{심어가지고서}

10304 @ 음: 이롭게 예: 씨를 뿌려서{음. 이롭게 예, 씨를 뿌려서}

10304 # 예.{예.}

10304 @ 예. 요 정 요롭게 크면 고걸 뽑아서.{예. 요 정(도) 이렇게 크면 그것을 뽑아서}

10304 # 뽑아서 그래 뽑아서 없는 또 다른 데르 이룩기 물으, 물이 있는 데다 이리 이룩기 뽑으스, 뽑아놓습드마. 뽑아놓구 이래 뽑아놓구.{뽑아서 그래 뽑아서 없는(곳에), 또 다른 데에 이렇게 물을, 물이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뽑아 놓더군요. 뽑아 놓고 이렇게 뽑아 놓고.}

10304 @ 뽑아놓구.{뽑아 놓고}

10304 # 예.{예.}

10304 @ 음. 손을루 뽑았슴둥?{음. 손으로 뽑았습니까?}

10304 # 손을루 손을루{손으로, 손으로}

10304 @ 음:{음.}

10304 # 다른 기계 아무것두 없습지 머.{다른 기계가 아무것도 없었죠 뭐.}

10305 @ 음. 그럼 그 밭에 물으 어트게 대었슴둥?{음. 그럼 그 밭에 물을 어떻게 댔습니까?}

10305 # 밭에 무루 이룩기 이따가하니까더 도라~ 합드마. 도라:해서 큰: 거기 큰 도라이있는 거다 그거 조오꼬만 도랑덜이르 이룩기 밭으 보내 이롭게 해서 기래, 그거 열으무 그 거 밭으루 물이 들어오게 그래 햅드마.{밭에 물을 이렇게, 어딘가 하면 도랑을 짓더군요. 도랑을 지어 큰, 거기 큰 도랑이 있는데 거기서 조그만 도랑들을 이렇게 밭으로 보내서 이렇게 해서. 그래, 그것을 열면 그것이 밭으로, 물이 들어오게 그렇게 하더군요.}

10305 @ 어, 어. 음.{어, 어. 음.}

10305 # 괴래 가슬에 그 물으 다: 내보내무 어떤가 그 조오꼬만 도라셔 큰 도라셔 조꼬만 도라 맨드니 물으 싹 괴래다나니 거기두 물꼬기 가뜩, 가뜩 있습드마.{그래 가슬에 그 물을 다 내보내면 어떤가 하면 그 조그만 도랑에서, 큰 도랑에서 조그만 도랑을 만드니 물을 싹 (빠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도 물고기가 가득 있더군요.}

10305 @ 그렇습둥? 허허. 아.{그렇습니까? 허허. 아.}

10305 # 예. 괴래 그 물고기는 이름 내 모르겠습꾸마. 거저 그거 물고기 있으니 우리 빠빠는 물고기르 즐겁어하다나니 거저 그거.{예. 그렇게 그 물고기의 이름을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것 물고기가 있으니 우리 아버지는 물고기를 좋아하시니까 그저, 그것을}

10305 @ 음.{음.}

10305 # 구거 주워서 끓에서 끓에두 잡숫구 굽어두 잡숫구. 밥에 밥 해애미두 하압드마.{그것을 주워서 끓여서, 끓여도 드시고 구워도 드시고. 밥에 밥 반찬도 하더군요.}

10306 @ 으:음. 음. 그럼 밭에 이:, 이 풀이 많이 나무.{으음. 음. 그럼 밭에 이 풀이 많이 나면}

10306 # 풀이 나무 고저 그거: 풀두 어떤가하니까더 땡기멘서 그 풀으 다른 풀으 이릉기 손을루 뽑습드마.{풀이 나면 그저 그것을, 풀도 어떤가 하면 다니면서 그 풀을, 다른 풀을 이렇게 손으로 뽑더군요.}

10306 @ 음.{음.}

10306 # 예. 손을루 뽑습드마.{예. 손으로 뽑더군요.}

10306 @ 음. 음. 땡번 뽑 뽑습둥?{음. 음. 땡 번을 뽑습니까?}

10306 # 그거 모르겠습꾸마. 그거 땡번 뽑는둥.{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땡 번 뽑는지.}

10306 @ 음.{음.}

10306 # 거저 그랩드마. 어: 오늘느 가서 기슴맨다가압드마. 기슴맨다가 예. 기슴맨다가압드마.{그저, 그렇게 했었쥬. 어, 오늘은 가서 김을 맨다고 하더군요. 김을 맨다고 예. 김을 맨다고 하더군요.}

10307 @ 음. 음. 그러 응: 그리구 어: 응. 물이 없는 밭에다는 무스거 심었, 심으셨습둥?{음. 음. 그럼. 응. 그리고 물이 없는 밭에다는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10307 # 물이 없는 밭에다가 무스거 시문거. 우리 빠빠 우리네르 맥이래르 해가부르 시무구 어, 감제르 시무구 왜두 시무구 까지두 시무구. 그르구 감제두 시무구 까지르 시무구 고저 으, 너름에 동삼 먹을거 괴래 시몏지. 괴래 시몏지 머.{물이 없는 밭에다가 무엇을 심은 거, 우리 아버지 우리 식구를 먹이려고 해바라기도 심고 감자도 심고 오이도 심고. 그리고 감자도 심고 가지를 심고 그거, 음, 여름에 겨울에 먹을 것을 그렇게 심었지. 그렇게 심었지 뭐.}

10307 @ 으음.{으음.}

10307 # 그거 어 빠, 그거 밭으 가무 [x빠안습드마x] 고저 이른거 이, 무스그 그거 무, 베르 시무느라구 괴래니께 꺾에 이렇게 조금 흙이 나 따, 따이 있으무 그거 또 파가지구서 거기다가 또 조금 시무구 또 더런데 가서 또 조금 시무구 개다나니 가슬에느 가서 여기다 빠빠 시무구 더기다 시몏구 어떤 맨 다 빠빠 재빌르 다 닛어빠립드마. 내 그거 어드메다 시몏는지 모르겠다 닛어빠렸다 그랩드마. (웃음) 괴래네느 괴래네느 거기 사름들이 괴래더구마. 왜르 시문데두 왜르 가서 뜯대네느 어떠 가슬에 가서 어구우: 이게 한마뜨문 이게 왜(+[vɛ]) 이거 싹 어저느느 늠었다구 하압드마.{그거 밭을 가면 [x빠짐이 없더군요x] 그저 이런 거, 무엇을 그거, 벼를 심느라고 그러니까 꺾에 이렇게 조금 흙이 있는 땅이 있으면 그것을 또 파가지고서 거기다가 또 조금 심고, 또 저

런 데다가 또 조금 심고 그렇게 하니까 가을에는 가서 여기에다 아버지가 심고, 저기 에다가도 심었고, 어떤 때는 다 아버지 자기가 심은 곳을 다 잊어버리더군요. 내가 그 거 어디에다 심었는지 모르겠다 잊어버렸다 그러더군요. (웃음)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오이를 심은 데도 오이를 가서 뜯지 않고, 가을에 가서 이게 하마 터면 이게 오이 이거 짝 이제는 늙었다고 했었죠.}

10307 @ (웃음).

10307 # (웃음).

10307 @ 오래. (웃음) 으음. 그러면은 예: 그 옥슈꾸 이런 거 아니 시뻘습둥?{오래. (웃음) 으음. 그러면은 예, 그 옥수수 이런 것은 안 심었습니까?}

10307 # 옥슈꾸두 시뻘습지 머.{옥수수도 심었죠 뭐.}

10307 @ 음.{음.}

10307 # 예. 옥슈꾸두 시뻘습드마.{예. 옥수수도 심었더군요.}

10307 @ 음. 옥슈꾸라구 했습둥? 수끼라구 했습둥?{음. 옥수수라고 했습니까? 옥수수(수끼)라고 했습니까?}

10307 # 옥슈끼라 하압드마.{옥수수라 하더군요.}

10307 @ 옥슈끼라.{옥수수라.}

10307 # 예. 옥슈끼라 하압드마.{예. 옥수수라고 하더군요.}

10307 @ 음.{음.}

10307 # 옥슈꾸.{옥수수}

10307 @ 음:{음.}

10307 # 메옥슈끼라 하압드마.{메옥수수라 하더군요.}

10307 @ 음.{음.}

10307 # 예. 그저 그저 가슬에 뜯어서 삶아먹는거 그저 메옥슈끼라 하압드마.{예. 그저 그저, 가을에 뜯어서 삶아 먹는 것을 메옥수수라 하더군요.}

10307 @ 으음.{으음.}

10307 # 찰옥슈끼느 아니 시뻘습지.{찰옥수수는 심지 않았죠.}

10307 @ 아:{아.}

10307 # 게 그저 거 가슬에 그저 여 조금 뜯어먹자구셔르 뜯어먹자구 많이 아니 시뻘지 머. {그저 그저 거 가을에 그것을 조금 뜯어먹자고 많이 안 심었지 뭐.}

10307 @ 음.{음.}

10307 # 어떤가이 옥슈꾸쌀으두 아니 하구 고저: 가슬에 거저 뜯, 뜯어서 삶아먹으무 고저 그 거{어떤가 하면 옥수수쌀도 아니 하고, 그저 가을에 그냥 뜯어서 삶아 먹으면 그저 그것을}

10307 @ 으음. 그럼 참왜나 고구마 보리 이런거 아니 시뻘습둥?{으음. 그럼 참외나 고구마, 보리 이런 것은 심지 않았습니까?}

10307 # 예. 차, 아 참애르 시뻘습꾸마. 참애르 어떤가하니까더 이, 고레참애 요룽기 왜 같은 거 크대닌거 그저 고레참애르 시뻘됐습꾸마.{예. 아, 참외를 심었습니다. 참외를. 어떤가 하면 이, 고려참외라고 이렇게 오이 같은 것, 크지 않은 것, 그것 고려참외를 심었습니다.}

10307 @ 음. 그 맛이 어떻습둥?{음. 그 맛이 어떻습니까?}

10307 # 맛이 예, 달구 이, 이 참애, 이 이 여기 참애 이룽기 이런거 같그 파는거 그거보구 그게 맛이 더, 더 낫습꾸마.{맛이 예, 달고 이 참외, 이 여기 참외 이렇게 이런 거 가루 파는 것, 그것보다 고려참외가 맛이 더 낫습니다.}

10307 @ 아: 그거보구 더 낫습둥?{아. 그것보다 더 낫습니까?}

10307 # 예. 더 낫습꾸마.{예. 더 낫습니다.}

10307 @ 으음.{으음.}

10307 # 그건 어떤가하니 마마 그랩드마. 그거 이게 고려참애라 하압드마. 고려참애.{그건 어떤가 하면 어머니가 그러더군요. 이것이 고려참외라고 하더군요. 고려참외.}

10307 @ 아: 그렇구나. 아: 음.{아. 그렇구나. 아. 음.}

10307 # 괴래구 어떤데다가 조끔우 슈박두 시무구.{그리고 어떤 데다가는 조금 수박도 심고.}

10307 @ 아!{아!}

10307 # 슈박두 조끔 시무구.{수박도 조금 심고.}

10307 @ 으음. 음. 음. 그러면은 보리나 밀이나 그 콩 기자이 이런거 아니 시밧습둥?{으음. 음. 음. 그러면은 보리나 밀이나 콩, 기장 이런 것은 심지 않았습니까?}

10307 # 그런건 아니 시밧습꾸마. 예. 그런건 아니 시밧습꾸마.{그런 것은 심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건 심지 않았습니다.}

10307 @ 코, 코{콩, 콩}

10307 # 콩두 아니 시밧습꾸마.{콩도 심지 않았습니다.}

10307 @ 아 그렇습둥?{아 그렇습니까?}

10307 # 예. 아니 시밧습꾸마. 거저 정말 이거 거저 이 웬: 그거 먹을거 그저 감:제 웨: 거저 옥슈끼: 괴래구 어, 더기 이 까지. 거저 괴래 이 그런거 거저 시밧지 머. 괴래 파:두 조끔 시무구{예. 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말 이거 그냥 이 맨 그거 먹을 것들이고 그거, 먹을 거는 그저 감자, 오이, 그저 옥수수 그리고 저기 가지 그저 그래, 그런 것을 그저 그래 그런 것들을 그저 심었쥬 뭐. 그리고 파도 조금 심고}

10307 @ 아: 파두{아. 파도}

10307 # 파이 예.{파, 예.}

10307 @ 예. 파이 음. 음. 보리두 아이 시밧습둥?{예. 파. 음. 음. 보리도 심지 않았습니까?}

10307 # 아니 시밧습꾸마.{심지 않았습니다.}

10307 @ 밀두 아니 시밧습둥?{밀도 심지 않았습니까?}

10307 # 아니 시밧습꾸마.{심지 않았습니다.}

10307 @ 음.{음.}

10307 # 그건 대 어떤젼둥 모릅꾸마.{그건 줄기가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10307 @ 으음. 예.{으음. 예.}

10307 # 사말리셔느 마마 내 마마 시밧으니 괴래 거기셔느 예, 베질두 하구 괴래구 어, 음. 예, 그거 무시기 어. 아츰에 내 생각한게 아 여기르 와시니 밧썰 닛엿빠렸습꾸마. 무스그 시밧는가이 음.{사말리에서는 어머니, 내 어머니 심었으니, 그래 거기서는 벼농사도 하고 그리고 어, 음. 그것 무엇인지. 내가 아침에 생각한 것을 여기 와서 밧썰 잇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심었는가 음.}

10307 # 보리두 시무구 괴래구 어, 어. 음. 보리. 괴래구 기장쌀이있대님둥? 그룽기{보리도 심고 그리고 어. 음. 보리. 그리고 기장쌀이 있지 않습니까?}

10307 @ 음.{음.}

10307 # 기자 그것두 혹시 모루구 괴래구 어, 이룽기 찰쌀이 노오란 찰쌀으 그거 그건 어똥기 찰쌀이 노란 찰쌀두 시무구 괴래구 채밀이두 시무구. 오. 채미리.{기장. 그것도 혹시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찰쌀, 노란 찰쌀을, 그것은 어떻게, 노란 찰쌀도 심고 그리고 밀도 심고. 밀.}

10307 @ 아. 음.{아. 음.}

10307 # 채밀이 시머서 그거 가슬에 괴래서 그 갈그 내애프다. 갈그 내 채밀갈그 내서 떡이랑 굽어먹지 머.{밀을 심어서 그것을 가을에 가루를 내더군요. 가루를 내서 밀 가루를 내서 떡과 함께 구워먹지 뭐.}

10307 @ 아 그랬습둥?{아 그랬습니까?}

10307 # 예.{예.}

10307 @ 아:{아.}

10307 # 거기서느 아, 사말리서느 어떤가이 콩두 시무구 무스거 여러가지르 그거 다 시몹드마.{거기서느, 사말리에서는 어떤가 하면 콩도 심고, 무슨 여러 가지를 그거 다 심더군요.}

10307 @ 아.{아.}

10307 # 괴래 여러가지 다 댜다구. 괴래길래 마마느 괴랬꾸마. 여기와서 이, 이 여기 따에서 그냥 읍애 댜기메 감제랑 싸아 잡수메 그랬습꾸마. 야: 사말리 만:치 감제 맛있는 데 없다구. 거기느 어떤가하니까더 무시기던지 싹 그룽기 잘댜다구셔르. 호박으 시무지 무슨 참, 참애르 시무지 베질 하지. 무스그든지 싹 시몹습지 머.{그래 여러 가지가 다 댜다고. 그러길래 어머니는 그랬습니다. 여기 와서, 여기 땅에서 그냥 읍겨 다니며 감자랑 사서 잡수시며 그랬습니다. 야. 사말리만큼 감자 맛있는 곳이 없다고. 거기느 어떤가 하면 무엇이든지 싹 그렇게 잘댜다고서. 호박을 심었지 무엇을, 참외를 심었지 벼농사를 하지. 무엇이든지 모두 심었쥬 뭐.}

10307 @ 음.{음}

10307 # 괴랜거 그런거 싸먹는 법이 없습지 머. 싹 체거 거저 괴래 먹었습지 머. 괴래다나니 음. 콩두 시머서 괴래 코오 그것으 괴래 거더서느 기름두 짜구 괴래구 어, 음 그거 참, 어 어찌 참, 그... 어찌, 참기름있대님둥? [***]{그래서 그런 것을 사서 먹는 법이 없쥬 뭐. 모두 자기 것을 그냥 그렇게 먹었쥬 뭐. 그렇다 보니 음. 콩도 심어서 그래 콩. 그것을 그렇게 거뒀서 기름도 짜고 그리고 어, 음. 그것. 참기름 있지 않습니까? [***]}

10307 @ 으음.{으음.}

10307 # 그런거 그것두 시머서 거기서 재빌루 짜구.{그런 것, 그것도 심어서 거기서 스스로 짜고.}

10307 @ 으음.{으음.}

10307 # 그랬습지 머.{그랬쥬 뭐.}

10307 @ 그러니까 사말리에서는 그, 곡식들이{그러니까 사말리에서는 그, 곡식들이}

10307 # 예.{예.}

10307 @ 예. 곡식이 다 잘댜습꾸마.{예. 곡식이 다 잘댜습니다.}

10307 # 싹 잘댜었습꾸마.{모두 잘댜습니다.}

10307 @ 아. 잘댜었구나. 음.{아. 잘댜었구나. 음.}

10307 # 예. 괴래구 이, 멀기랑 그 무스거 음. 더기: 음. 그런거느 이 싹 이룽기 어뽕기 재빌르 시무대애니 거저 밭에서 예 그거 나간게 그룽게 길역애 구름이랑 그, 돌배라 하압드마.{예. 그리고 이 머루와 그 무슨 음. 저기. 음. 그런 것은 이 모두 이렇게 어떻게 스스로 심지 않으니 그냥 밭에서 예 그거 나간 것이 그룽게 길가에 구름(+ 귀룽나무의 열매)과 그, 돌배라 하더군요.}

10307 @ 으음.{으음.}

10307 # 그거 시무대애니쿠 괴랜게 싹 그룽게 맛있드마.{그것은 심지 아니하고 그런 것이 모두 그렇게 맛있더군요.}

10307 @ 아하.{아하.}

10307 # 짹. 달구 맛있구.{모두 달고, 맛있고.}

10307 @ 음. 음. 음. 음. 그러면은 사말리에서:는 어: 고치 같은 거 시뻘슴둥?{음. 그러면은 사말리에서는 고추 같은 것은 심었습니까?}

10307 # 짹 시무대니꾸.{모두 심고 말고.}

10307 @ 어.{어.}

10307 # 고치같은거 짹 시뻘지 머.{고추같은 것 모두 심었지 뭐.}

10315 @ 음. 음. 그면 어뜨게 농새를 지었슴둥?{음. 음. 그러면 어떻게 농사를 지었습니까?}

10315 # 그거는 모르겠습꾸마 어떻게 농새르 지었는지. 거저 그런, 그건 짹 재빌르 시머서 짹 재빌르 거저.{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그냥 그런, 그것은 모두 자기가 심어서 모두 자기가 그냥}

10317 @ 으음. 사말리:에서 이릉게 그, 무슨 식물 꽃이 같은거 봤슴둥? 낭기 꽃이 머 그런것들.{으음. 사말리에서 이릉게 그, 무슨 식물의 꽃 같은 것을 봤습니까? 나무에서 피는 꽃 뭐 그런 것들.}

10315 # 꽃이.{꽃}

10315 @ 생각나는대로 말씀해 주옵소.{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0315 # 꽃이 어떤 꽃이 어떤 꽃이 잇었는가하니 음. 그릉기 이릉기 무스 시무는 거 그런 꽃이 모르겠습꾸마 그거. 마마 만날 그렸습꾸마. 파리느 시뻘다구. 파리.{꽃이, 어떤 꽃이, 어떤 꽃이 잇었는가 하니 음. 그렇게 이릉게 무엇을 심은 거, 그런 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어머니는 만날 그렸습니다. 파리는 심었다고. 파리.}

10315 @ 아하.{아하.}

10315 # 파리 시무구 괴래구. 음. 무슨 꽃인가하니까더 마마 말 말하드만. 무슨 꽃들이 잇었다대두 나느, 나느 거기 사말리서 못봤습꾸마. 어떤 꽃인지 무스거엄두 예.{파리를 심고. 그리고 음 무슨 꽃인가 하면 어머니가 무엇이랴 말을 하더구면, 무슨 꽃들이 잇었다고 해도 나느, 나느 거기 사말리에서 못봤습니다. 어떤 꽃인지 무엇인지. 예.}

10315 @ 작아서.{작아서}

10315 # 예. 작아서 모르겠습꾸마.{예. 작아서 모르겠습니다.}

10315 @ 예. 예. 어려서 예. 어제: 말씀하신 건 천지꽃이 하나 말씀하셨죠?{예. 예. 어려서 예. 어제 말씀하신 것은, 진달래 하나 말씀하셨죠?}

10315 # 천지꽃이느 그거는 밭에 재빌르 시무대니꾸 고저 밭에 천지꽃이 났습지 머.{진달래는, 그것은 밭에 스스로 심지 았고, 그저 밭에 진달래가 뻗쥬 뭐.}

10315 @ 음. 재빌르 나는 것들은 어뜨게 잇었슴둥?{음. 저절로 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잇었습니까?}

10315 # 어뜨게 잇었는지 사말리서 어떤 꽃이 잇었는지 모르겠습꾸마.{어떤 것이 잇었는지, 사말리에 어떤 꽃이 잇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0315 @ 음.{음.}

10315 # 예.{예.}

10315 @ 음.{음.}

10315 # 그건 모릅꾸마.{그것은 모르겠습니다.}

10315 @ 영게서, 영게서는 머.{여기에서, 여기에서는 뭐.}

10315 # 영게선 영게서 나는거 꽃이느 그, 고레, 고레말루느 내 그거 꽃이 이름 모릅꾸마. 고려말루느 모릅꾸마. 짹 그거 마우재꽃이. {웃음} 모릅꾸마. 개다나니 여기서느 그런 꽃의 짹 이릉기 여기 밭에다 시뻘드마.{여기서는, 여기서 나는 것, 꽃은 그 고려, 나는

고려말로 그 꽃 이름을 모릅니다. 고려말로 모릅니다. 모두 그것은 러시아 꽃. (웃음)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는 그런 꽃을 모두 이렇게 여기 밭에다가 심더군요.}

10315 @ 음.{음.}

10315 # 우리 예, 쉼베리 있을적에는 이쿠데 그건 거느 집안에다 시뻘뻘했습꾸마.{우리 시베리아에 있을 적에는 야쿠트 그것은 집 안에다 심었습니다.}

10315 @ 음.{음.}

10315 # 이룽기 고치두: 이런 요런 그릇에다가서 집안에다 시무구 괴래구 꽃두 거저 한가지가 이런가지 거저 싹 꽃 집안에다 조금 시뻘지 머.{이렇게 고추도 이런, 요만한 그릇에다가, 집 안에다 심고 그리고 꽃도 그저 한 가지, 이런 종류 그저 싹 꽃을 집 안에다 조금 심었지 뭐.}

10315 @ 음. 음.{음. 음.}

10315 # 밭에, 음. 바깥에다가 못 시뻘했습꾸마. 아니대엿꾸마 칩아서.{밭에, 음. 바깥에는 못 심었습니다. 안 됩니다. 추워서.}

10315 @ 칩아서.{추워서.}

10315 # 칩아서. 예. 괴래다나니 예, 여기 꽃 여기로 와니 오니까는 무스그 꽃이 여러 가지 많습드마. 여러 가지 많애두 그저 고려말루 그제 어뜰, 그 꽃이 어 이럼이 무시긴지 모릅꾸마. 싹 마우재 이름 들어 아지.{추워서. 예. 그렇다 보니 여기 꽃, 여기(알마티)로 오니까 무슨 꽃이, 여러가지 많더군요. 여러 가지 많아도 그것이 고려말로 그것이 어떤, 그 꽃이, 이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모두 러시아 이름만 들어서 알지.}

10318 @ 음. 그: 그 베질을 해서 베를 예, 집에 가져와서 예, 그걸 어떻게 예, 털었습둥?{음. 그, 그 벼농사를 해서 벼를 집에 가져 와서 그것을 어떻게 털었습니까?}

10318 # 바이르 땡었습지 머. 바이.{방아를 찼었쥌 뭐. 방아}

10318 @ 아니, 바, 바이를 땡기 전에{아니 방, 방아를 찼기 전에}

10318 # 바이르 땡기 전에는{방아를 찼기 전에는}

10318 @ 예.{예.}

10318 # 집에 들에다가셔르 이룽기 예, 무스그 이런거 맨듭드마. 괴래 거기다 거저 골라다 거저 거기다가셔르 어 음. 거기다 부서놓구셔르 그, 거기서 떠 떠내메셔르 괴래구. 어떤 가하니까더 집에 이룽기 음. 그제 바~:이라든지 무스그 방까니 방까니라든지 그런데다가셔르 이룽기 구시 같으게 크다:살게 햅드마. 괴래 거기다 거저 그래다가셔르 싹 부리와놓구셔르 거기서 가져다가 바이다가 찼구 찼구 고저 그랬습지.{집에 들여와서 이렇게 예, 무엇인지 이런 것을 만들더군요. 그래서 거기에다 그냥 골라다가 그냥 거기에다가 어, 음... 거기에다 부어 놓고 거기에서 떠내면서 그랬쥌. 어떤가 하면 집에 이렇게 음. 그것이 방아라던가 무슨 방앗간, 방앗간이라던가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구유 같게 커다랗게 하더군요. 그래 거기에다가 그냥 그렇게 해다가서 싹 부려 놓고서 거기에서 방아에다 찼고, 찼고 그저 그랬쥌.}

10318 @ 으음: 그러니까 어: 베르 빼:셔.{으음. 그러니까 어. 벼를 베어서.}

10318 # 예.{예.}

10318 @ 이룽게 묶어서.{이렇게 묶어서.}

10318 # 예.{예.}

10318 @ 술기에다.{수레에다가.}

10318 # 술게다 아니.{수레에다가 안 (싣고).}

10318 @ 파레다.{밭구에다.}

10318 # 파레다 실어가져다가.{발구에다가 실어서 가져다가.}

10318 @ 실어서.{실어서.}

10318 # 파레다가 거기 그거 이룽기 거기서 이룽기 매는거 그제 딸르 메리니짜(+ 러시아 어, '연자방앗간'의 의미) 아무래 있었지 메린, 거기 가서 이그 짝 부시워서 부시워서 집으
루 가져오지 머. 거저 그거 베탄 가져오지 머 이룽기.{발구에다가 거기에 그것을 이렇
게 거기에서 이렇게 매는 거, 그것이 따로 메리니짜가 아무래도 있었지 메리니짜, 거
기 가서 이것 짝 털어서 털어서 집으로 가져오지 뭐. 그냥 그거 베탄 가져오지 뭐 이
렇게.}

10318 @ 아: 그래 어트게 부시웁둥?{아. 그래 어떻게 텅니까?}

10318 # 어떻게 부시웁둥? 거기 거기 그거 내 모릅꾸마.{어떻게 터는지 그제, 거기, 그것은 내
가 모릅니다.}

10318 @ 음:{음.}

10318 # 모릅꾸마.{모릅니다.}

10318 @ 음:{음.}

10318 # 내 그제 마우재말루느 마자 하자무 거저 메리니짜 가서 그제 빠리말라바(+ 러시아
어, '맷돌로 갈다, 빵다'의 의미) 한다 하지 머.{내 그냥 러시아말로 마저 하자면 그제
연자방앗간에 가서 그것을 돌로 빵는다고 한다 하지 뭐.}

10318 @ 으음. 빠리{으음. 빠리}

10318 # 빠리말라바 이룽다구 메리니짜 가서{연자방아로 간다고 이렇다고, 연자방앗간에 가
서}

10318 @ 음: (웃음).{음. (웃음)}

10318 # 에 쌀으 내그 이 쌀(+ [s'ar]) 그그, 그 어떤가하니까더 이룽기 우리네는 빠빠 그거
으이, 베르 이룽기 묶어서 단으 묶어서 거기까지 이룽기 거저 그거 부시워가지구 오
웁지 머. 이룽기 쌀으 아니 내가지구.{에, 쌀을 내고 이 쌀, 그 어떤가 하면 이렇게 우
리집은 아버지가 그거, 벼를 이렇게 묶어서, 반을 묶어서 거기 가서 이렇게 그냥 그것
을 털어가지고 오셨지요. 이렇게 쌀을 안 내고.}

10318 @ 음:{음.}

10318 # 괴래 거저 그제 베르 가져오무 그제 쌀으 내는건 집에서 그제 바이르 땡어서 쌀으
냈짐.{그래 그냥 그제 벼를 가져 오면 그제 쌀을 내는 거는 집에서 그제 방아를 찧어
서 쌀을 냈지.}

10318 @ 으음. 음. 이, 요새는 어트게 그, 이 부시웁둥?{으음. 음. 요새는 어떻게 텅니까?}

10318 # 극췌 그제 어떻게 부시웁둥? 그제 내 모:릅지 머.{극췌, 그것을 어떻게 터는지 그제
나는 모르췌 뭐.}

10318 @ 즉금으?{지금으?}

10318 # 즉금으느 모릅꾸마. 어저느 이룬데 도시와서 오래있다나니 촌에서 그런거 일하는거
그제 모릅꾸마.{지금으느 모릅니다. 이제는 이런 데, 도시에 와서 오래 있다 보니 시골
에서 그런 거, 일하는 거, 그제 모릅니다.}

10318 @ 으음.{으음.}

10318 # 어떻게 괴래는거.{어떻게 그러는 거.}

10318 @ 예. 아매는 그러면 그: 영게 와서{예. 할머니는 그러면 그, 여기에 와서}

10318 # 예.{예.}

10318 @ 예. 영게 알마띠로 오셔서는 예: 무스걸 하섰음둥?{예. 여기 알마티로 오셔서는 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10318 # 여기와서 촌, 여기와서 도시에 와서 거저 이, 기관일으 거저 댕기매 했지 머.{여기와서, (시골에서) 여기와서, 도시에 와서 그냥 기관 일을 그냥 다니면서 했죠 뭐.}

10318 @ 기관?{기관?}

10318 # 예.{예.}

10318 @ 아: 기관. 음.{아. 기관. 음.}

10318 # 괴래다나니 초, 촌일이느 어저느 짝 닛엇빠렸습지 머.{그렇다 보니 시골 일은 이전 모두 잊어 버렸죠 뭐.}

10318 @ 음.{음.}

10318 # 모름꾸마. 촌일으 조금 했, 조금 그거 어, 나바뜨로이즈캐르 빠빠 베질으 할적에 내와서 조금 촌일으 했지. 괴래구 모름꾸마.{모릅니다. 시골 일을 조금 해서, 조금 그거, 노보트로이즈크로 와 아버지가 벼농사를 할 적에 내가 와서 조금 시골 일을 했지. 그리고 모릅니다.}

10318 @ 음. 예. 빠빠 하시는것만{음. 예. 아버지 하시는 것만}

10318 # 예.{예}

10318 @ 쪼금 보셨구.{조금 보셨고.}

10318 # 조금 예.{조금 예.}

10318 @ 예. 예. 음. 음.{예. 예. 음. 음.}

10324 @ 동삼에 그 냇날에{겨울에 그 옛날에}

10324 # 예.{예}

10324 @ 저쪽 사말리에서부터 저기 예 야꾸트 에 여기서 사실 때 동삼에 그: 낭그는 어디서 해왔, 어드매서 해왔습둥?{저쪽 사말리에서부터 저기 야꾸트, 여기서 사실 때 겨울에 나무는 어디서 해왔습니까?}

10324 # 나무밭에 가서 낭그해 가지구 오지. 나무 밭에 가서. 어떤가하니까더 이꾸츠카란테느 어떤가 나무밭에 가뜩하압꾸마.{숲에 가서 나무해 가지고 오지. 숲에 가서. 어떤가 하면 야꾸트라는 데는 어떤가 하면 숲에 (나무가) 가득합니다.}

10324 @ 아아.{아아.}

10324 # 예. 괴래구 산두 많구. 괴래 거저 어, 재빌르느 녀리 돈, 돈 녀름에느 어떤가하니까더 우리네르 마마 우리 재빌르 그 이꾸츠카루 와실 적에 금, 금:밭에 댕기다나니 괴래 거기는 사람들이 많게 사대애넌꾸마. 산에 가뜩하압꾸마. 괴래 산에 그 낭그들이 봄에 그게 떨어, 떨어디구 더, 더 마사데 디구 괴랜거 가서 줏어 녀름에느 그거 뻗습꾸마. 동삼에느 어떤가하니까더 우리네느 동삼에 빠빠 그 잇을 적에 알단에 그, 나, 아 아후츠키빠리보드 잇을 적에느.{예. 그리고 산도 많고 그래서 그냥 어, 여름에는 어떤가 하면 우리들을 어머니가, 우리가 스스로 야꾸트로 와 있을 적에 금광산에 다니니까 그래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다. 산에 (나무가) 가득합니다. 그래 산에 그 나무들이 봄에, 그게 떨어지고 부서지고, 그런 것을 가서 주워 여름에는 그것을 뻗습니다. 겨울에는 어떤가 하면 우리들은 겨울에 아버지가 그 있을 적에, 알단에 그 야꾸트에 있을 적에느}

10324 @ 음.{음.}

10324 # 물가에서 봄이무 얼음이 내려갈 적에 낭그두 많이 내려가압꾸마.{물가에서 봄이면 얼음이 내려갈 적에 나무도 많이 내려갑니다.}

10324 @ 아. 그렇습두?{아. 그렇습니까?}

10324 # 예. 괴래무 아춤에 빠빠 닐어나서 일쁘가니 이르 이르 할라 가기 전에 일쁘가니 닐어나서 환으 가지구 그거 가서 매가지구셔느 자꾸 딜에웁꾸마.{예. 그러면 아침에 아

버지가 일어나서 일찍 일을, 일을 하러 가기 전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룻배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매어 가지고서 자꾸 들여옵니다.}

10324 @ 음.{음.}

10324 # 이룽기 물억에다가 가져다가 이래 가지구 박아 놓구 박아 놓구 괴래무 재빌르 그거 툭, 툭우 가지구 케구. 그다음에는 빠빠 동새와서 패구. 괴래 그건 동삼에 때애구{이렇게 물가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박아 놓고, 박아 놓고 그러면 스스로 그것을 툭을 가지고 (나무를)쳐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 동생이 와서 패고. 그래 그것은 겨울에 때고}

10324 @ 으음.{으음.}

10324 # 녀름에느 그저 땡기메 이룽기 이게 나뭇가지랑 그런거 나무발에 가서 좇아서 거저 괴래 때구.{여름에는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나뭇가지랑 그런 것을 숲에 가서 주워서 그냥 그렇게 때고}

10324 @ 음.{음.}

10324 # 동삼은 괴래 [x개기x] 우리 마마 사말리 있을 적에두 녀름에느 녀름에느 베실(+ 'ㅂ' 은 [v], 'ㅅ'은 [z])하구 동삼에느 발 나무발에 가서 낭그 하지.{겨울은 그렇게 지내고. 우리 어머니가 사말리에 있을 적에도 여름에는 벼농사를 하고, 겨울에는 밭, 나무 발에 가서 나무 하지.}

10324 @ 으음.{으음.}

10324 # 가을이무 어, 새깁이날 새깁이 돌아오무 새르 치디.{가을으면 어, 새 꼴을 베는 날이 돌아오면 새를 베지.}

10324 @ 새깁이?{새 꼴?}

10324 # 새깁이.{새 꼴}

10324 @ 음.{음.}

10324 # 새르 어, 쉼가 말이랑 맥이쟈구셔르 새르 치지 머.{새를 어, 소와 말에게 먹이자고 새를 베지 뭐.}

10324 @ 새르.{새를}

10324 # 예.{예.}

10324 @ 음. 새, 새르 뭐한다구 그랬습둥?{음. 새, 새를 뭐한다고 그랬습니까?}

10324 # 예. 새르 툴라 간다구 하압지.{예. 새를 베러 간다고 하죠.}

10324 @ 아, 툴라 간다구.{아. 베러 간다고.}

10324 # 예. 새르 툴라.{예. 새를 베러}

10324 @ 툴라간다.{베라간다.}

10324 # 예. 가을이무 새 칠일, 새 티느 날입꾸마.{예. 가을이면 새 베는 일, 새 베는 날입니다.}

10324 @ 아. 아:{아. 아.}

10324 # 새깁이날이무 새 툴라 땡기지 머.{새 꼴을 베는 날이면 새 베러 다니지 뭐.}

10324 @ 음. 음.{음. 음.}

10324 # 괴래무 그 동삼에 그거 가지구셔르 어떤가하니 말두 맥이구 쉼두 맥이구{그러면 그 겨울에 그거 가지고서 어찌하는가 하면 말도 먹이고, 소도 먹이고}

10324 @ 음.{음.}

10324 # 괴랩지 머.{그래지요 뭐.}

10324 @ 음.{음.}

10324 # 괴래구 말파레다 말파리르 해가지구셔르 동삼이무 나무할라 나무발으 그랩드마. 마

마는 그랩드마. 나무밭으 나무할라 땡졌다구셔르 동삼이무 괴래 그 낭그 해가지구셔르 집에 와 그거 때애구{그리고 말밭구에다가, 말밭구를 해가지고서 겨울이면 나무하러 숲을 그렇게 하더군요. 어머니는 그러더군요. 숲을, 나무하러 다녔다고서 겨울이면 그래 그 나무 해가지고서 집에 와 그거 때고.}

10324 @ 으음. 음.{으음. 음.}

10324 # 개구 우리 즉금 으 더기 어저느 자라셔 그 야꾸츠카에서 와이실 적에느 거기느 낭기 어떤가하니까더 어 재빌르 대 하대닐구 고 우... 싸셔 싸셔 낭글르 파는 사름들이 있구. 괴래구 석탄으 파는 사름들 있구. 괴래 거저 거반 거반 석탄 땡지 머. 석탄 때구 괴래구 낭그느 거저 조금. 냉기 값이 있다나니까 조금 괴래구. 그담에느 석탄으.{그리고 우리 지금은 저기, 이제 자라셔 그 야쿠트에 와 있을 적에느, 거기느 나무가 어떤가 하면 어, 스스로 (나무)하지 아니하고, 고, 우... 사셔, 사셔, 나무를 파는 사름들이 있고. 그리고 석탄을 파는 사름들이 있고, 그래 그냥 거의, 거의 석탄을 땡지 뉘. 석탄 때고 그리고 나무는 그냥 조금, 나무 값이 비싸니까 조금 사고. 그 다음에는 석탄을 (땡지)}

10324 @ 음. 싸셔 때구 {음. 사셔 때고}

10324 # 싸셔 때었습지 머. 예. 석탄 때애, 싸셔 땡지 머.{사셔 땡조 뉘. 예. 석탄 사셔 땡조 뉘.}

10324 @ 무슨 탄?{무슨 탄?}

10324 # 석탄으 석탄으 석탄으 석탄으.{석탄을, 석탄을, 석탄을, 석탄을}

10324 @ 아, 석탄으.{아, 석탄을}

10324 # 예, 석탄으 싸셔.{예, 석탄을 사셔}

10324 @ 예.{예.}

10324 # 땡습꾸마.{땡습니다.}

10324 @ 음. 아 석탄이 많았었습둥? 거기에 야꾸츠에?{음. 아 석탄이 많았었습니까? 거기 야꾸트에?}

10324 # 예예. 예. 예. 예.{예예. 예. 예. 예.}

10324 @ 음. 음. 음.{음. 음. 음.}

10324 # 사말리셔느 석탄이 없었습꾸마.{사말리에서는 석탄이 없었습니다.}

10324 @ 예. 예.{예. 예.}

10324 # 예. 거저 어, 동삼이무 나무밭에 가서 낭그 해가지구 와셔.{예. 그냥 어, 겨울이면 숲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와셔}

10324 @ 음.{음.}

10324 # 괴래구 거반 거저 이게 그거 어, 옥슈끼 많이 시무무 그것두 때애구. 괴래구 그, 베르 베르 그거 참애 참애랑 시무무 고거있대님둥? 베 그거 거저 단 묶어 가져다가셔르 그거 또 때애구 그랬습지 머.{그리고 거의 그냥 이게 그거 어, 옥수수 많이 심으면 그것도 때고 그리고 그 벼를, 벼를 그것을 참외, 참외도 심으면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벼, 그것을 그냥 단을 묶어서 가져다가 그거 또 때구 그랬조 뉘.}

10324 @ 으음. 음. 음.{으음. 음. 음.}

10325 @ 동삼에 그, 무스걸 많이 잡셨습둥?{겨울에 그, 무엇을 많이 드셨습니까?}

10325 # 동삼에 무스그 사말리셔느 무스그 많이 먹었는가하니 거저 밥이 먹었지 머.{겨울에 무엇을, 사말리에서는 무엇을 많이 먹었는가 하면, 그냥 밥을 먹었지 뉘.}

10325 @ 해엠우.{반찬을}

10325 # 해엠우느 해엠우느 내 즉금 잘 모르겠습꾸마. 무스그 해엠우 고저 어저... 어, 어떤가

하니까더 김치 거저 김치{반찬은, 반찬은 내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반찬을 그
저, 이제... 어, 어쩐가 하면 김치 그냥 김치}

10325 @ 으음.{으음.}

10325 # 김치 괴래구 어쩐가하니까더 밥우 먹구 저녁이무 어뜬 적에느 감제르 시며, 감제르
삶아서 놓구. 다 놓구. 김치르 놓구. 감제 김치 먹으무 그게 웬: 맛있는 게구. 괴래구
옥슈꾸 옥슈꾸 그거 어, 초가슬에느 그거 삶아 먹구. 그다음에느 그거 이릉기 다, 다
동삼오무 바이에다 떨어서 그거 쌀으 내애프다. 괴래다나니 옥슈구죽으 해먹지 머.{김
치 그리고 어쩐가 하면 밥을 먹고 저녁이면, 어떨 때는 감자를 심어, 감자를 삶아서
놓고, 감자를 놓고 김치를 놓고. 감자 김치를 먹으면, 그게 가장 맛있는 것이고. 그리
고 옥수수, 옥수수 그거 어, 초가슬에느 그것을 삶아 먹고, 그 다음에는 그거 이렇게
다 겨울이 오면 방아에다가 찢어서 그거 쌀을 내더군요. 그러니 옥수수죽을 해먹조
 뭐.}

10325 @ 아:{아.}

10325 # 옥슈꾸죽으 해먹었지 머.{옥수수죽을 해먹었지 뭐.}

10325 @ 음. 음.{음. 음.}

10325 # 괴래구 채밀 시머서 그거 갈기라내네느 어쩐가하니까더 어, 어 거기서 사말리셔느
녹떠르 시무구 무스그 코, 열콩두 시무구 이게 괴래다나니 이릉기 오구래두 해먹는다
구.{그리고 밀을 심어서 그거 가루를 내면 어쩐가 하면 어, 거기서 사말리에서는 녹두
를 심고, 무슨 콩, 강남콩도 심고, 이게 그러하고 보니 이렇게 새알심도 해먹는다고.}

10325 @ 아: 예. 아.{아. 예. 아.}

10325 # 그거 오구, 오구래르 해 먹는 그것두 멍실이 있습드마. 예. 이 오구래 해 먹는 멍실
이{그거 새알심을 해 먹는 그것도 멍질이 있더군요. 이 새알심 해 먹는 멍질이}

10325 @ 음.{음.}

10325 # 괴래무 큰, 그때느 찢으 삶아서 오구래르 해서 많:이 오구래르 하애프다. 괴래 한대
애쎄 그거 먹기 괴래 오구래르 먹습지.{그러면 큰, 그 때는 팔을 삶아서 새알심을 해
서, 많이 새알심을 하더군요. 그래 한 대쎄씩 그거 먹기, 그래 새알심을 먹조.}

10325 @ 예.{예.}

10325 # 괴래구 옥슈꾸죽으 먹구 괴래구 감제 삶았구 밥으 해먹구 그렇지 머.{그리고 옥수수
죽을 먹고 그리고 감자를 삶았고 밥을 해 먹고 그렇지 뭐.}

10325 @ 음. 음.{음. 음.}

10325 # 괴래구 사말리치들으느 어쩐가하니까더 이 고렷사람이 원도사람들으느 이, 마우재떡
으 굽우줄으(+ '굽-+-을#줄+-으') 몰랐습꾸마.{그리고 사말리 사람들은 어쩐가 하면
이 고려사람, 원동 사람들은 이, 빵을 구울 줄을 몰랐습니다.}

10325 @ 으음.{으음.}

10325 # 우리 사말리치들으느 썩 이 마우재떡 굽는 그거 어이, 그런 베치카(+ 러시아 어, 뜻
은 '벽난로') 그거 해놓구셔르 그냥 마우재떡으 굽어먹었습꾸마.{우리 사말리 사람들은
모두 이 빵 굽는 그것을 그런 베치카 그거 해놓고서 그냥 빵을 구워 먹었습니다.}마

10325 @ 예.{예.}

10325 # 예.{예.}

10325 @ 그 아매 말씀하신 마우재떡이라는게{그 할머니 말씀하신 빵이라는 것이}

10325 # 예.{예.}

10325 @ 흘레프(+ 러시아 어, 뜻은 '빵')를 말하는거죠?{빵을 말하는 것이죠?}

10325 # 흘렘. 예. 흘레프 흐레프.{빵. 예. 빵, 빵.}

10325 @ 흘레프.{빵.}

10325 # 예.{예.}

10325 @ 아.{아.}

10325 # 예. 즉금 이 여기서두 이 흘레프있대님등? 기래 그게 마우재떡이라 했지 며. 마우재떡 그거.{예. 지금 이 여기서도 이 흘레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을 빵이라 했지 뭐. 빵 그거.}

10325 @ 아. 알겠습꾸마.{아. 알겠습니다.}

10325 # 예.{예.}

10325 @ 아아. 음.{아아. 음.}

10325 # 개다나니 어떤가하니까더 이 원도사름들이 마우재떡으 굽우줄으 몰랐습꾸마.{그렇다 보니 어떤가 하면 이 원동에서 온 한인들이 빵을 구울 줄을 몰랐습니다.}

10325 @ 음.{음.}

10325 # 기래 우리 이, 마마 어떤, 그냥 굽었네느 젊아 사말리치스 사름들으느 이 떡으 굽우줄 안다구셔르 떡으 떡이 잘 덴다구 떡이 잘 굽는다구.{그래 우리 이, 어머니가 어떤가 하면, 그냥 구웠으면 젊어서 사말리에서 온 한인들은 이 빵을 구울 줄 안다고서 빵을, 빵이 잘 된다고, 빵 잘 굽는다고.}

10325 @ 저 아매께서{저 할머니께서}

10325 # 예. 예.{예. 예.}

10325 @ 예. 마마께서{예. 어머니께서}

10325 # 마마. 예.{어머니. 예}

10325 @ 예. 음.{예. 음.}

10325 # 기래기 마마 여기바셔(+ '와셔'의 [w]를 [v]로 발음) 있으멘셔르 재비집이 있으멘셔르 바깥에다가 재비, 그거 에 부스개라 맨들었습꾸마. 재빗거 떡으 굽는거. 재빌르 마마 맨들었습꾸마.{그러기에 어머니 여기 와서 있으면서 자기 집 바깥에다가 자기, 그것을 에, 부엌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자기 빵을 굽는 거. 스스로 어머니가 만들었습니다.}

10325 @ 아: 아.{아. 아.}

10325 # 기래 떡으 굽어 놓으무 사말리셔느 그거 동삼이무 떡으 많이 굽어서 얼구매 얼거 놓구 먹어 먹었습꾸마. 얼거 놓구.{그래 빵을 구워 놓으면 사말리에서는 그거 겨울이면 떡을 많이 구워서 얼리며, 얼려 놓고 먹어, 먹었습니다. 얼려 놓고.}

10325 @ 아.{아.}

10325 # 떡으{빵을}

10325 @ 떡으 굽어서{빵을 구워서}

10325 # 예. 굽어서 그거 이룽기 바깥에다가 내다가 그 사라(+ '광')있대님등? 그거 구셰(+ '구시+ -에') 그거 홀 바깥에다가 내놓오내네느 그게 어업꾸마. 기래 언 떡으 그냥 그거 한 땃:새두 먹구 한 열홀으두 먹구 그러구 굽어서{예. 구워서 그것을 이렇게 바깥에다가 내다가 그 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떡구유에 그것을 바깥에다 내놓으면 그것이 업니다. 그래 언 빵을 그냥 그것을 한 땃새도 먹고 한 열홀도 먹고 그렇게 구워서}

10325 @ 아아: 굽어서 그냥 음.{아아. 구워서 그냥 음.}

10325 # 밥우느 그거 밥운 해서 거저 그날으 먹구. 이트 저거 그 이튿날에두 먹을만한 먹구. 아 떡으느 굽어서 땃새두 있구 옛새두 있구 기래메 먹었습지 며.{밥은 그거 밥은 해서 그냥 그 날 먹고 그 다음 날에도 먹을 만하면 먹고 아, 떡은 구워서 땃새도 있고, 옛새도 있고 그러면서 먹었죠 뭐.}

10325 @ 아. 그 왜 마우재떡을 왜 그 열, 열렸슴둥? 바깥에다.{아. 그 왜 빵을 왜 그 열렸습니까? 바깥에다}

10325 # 거저 집에다 이래 두내네는 그게 곰티 많이 이내 나지 머. 이내 곰티 나지 머. 이, 여기 즉금 떡두 이 싸서 한 사나알이 있으무 떡이 발써 곰티내나대임둥? 괴래다나니 마우재떡으는 열거서 괴래.{그냥 집에다 이렇게 두면 그게 곧 곰팡이 많이 나지 뭐. 곧 곰팡이가 나지 뭐. 이, 여기 지금 빵도 이 사서 한 사나알 있으면 빵이 벌써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빵은 열려서 그렇게.}

10325 @ 음. 음. 알겠습꾸마. 아. 음. 무끼 동삼에 이 무끼르 무스거 해앰을 해먹디 안 했음둥?{음. 음. 알겠습니다. 아. 음. 무를 겨울에, 이 무로 무슨 반찬을 해먹지 않았습니까?}

10325 # 어, 거저 우리 우리집에서는 그런 무스 해앰 그룽기 아니 먹습. 거저 무꾸 김치두 하구.{어, 그저 우리, 우리 집에서는 그런 무슨 회(膾)를 그렇게 안 먹습니다. 그저 무 김치도 하고}

10325 @ 음.{음.}

10325 # 괴래구 어, 배채 김치두 하구.{그리고 어, 배추 김치도 하고}

10325 @ 으음.{으음.}

10325 # 괴래 거저 보통 거저 예, 그 배채르 시머서 음. 시래기르 해서 동삼이무 거저 시락장물의 거반치 거반 시박자 시락장물이지 머. 시락장물이.{그래 거의 보통 거의 예, 그 배추를 심어서 음. 시래기를 해서 겨울이면 거의 시래기국을 거의 거의 시래기국이지 뭐. 시래기국}

10325 @ 예. 시락장물이.{예. 시래기국}

10325 # 예. 시래기.{예. 시래기}

10325 @ 음. 음. 음. 아 시락장물이.{음. 음. 음. 아 시래기국}

10325 # 예.{예.}

10325 @ 음.{음.}

10325 # 시락장물이.{시래기국}

10325 @ 음. 이거 아주 맛있습꾸마.{음. 이거 아주 맛있습니다.}

10325 # 예?{예?}

10325 @ 시락장물.{시래기국}

10325 # 예.{예.}

10325 @ 맛있습꾸마.{맛있습니다.}

10325 # 맛있습꾸마 시락장물. 예, 그렇꾸마.{맛있습니다 시래기국. 예, 그렇습니다.}

10325 @ (웃음).

10325 # 괴래 내 내 여기와서 조금 딸르 있어서르 나는 그룽게 시락장물의 그룽기 소온이 아니하다나니 끓이는게 드물게 끓입꾸마. 게 마마 있는 데루 가내네는 마마 그랬꾸마. 그냥 내 오늘 시락장물의 했다. 시락장물 먹구야 속이 시원:나다.{그래 내가 내가 여기 와서 조금 따로 있어서 나는 그룽게 시래기국을 그룽게 원하지 않으니 드물게 (시래기국을) 끓입니다. 거 어머니 있는 데로 가면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그냥 나는 오늘 시래기국을 했다. 시래기국을 먹고 나서 속이 시원하다.}

10325 @ 예.{예.}

10325 # 시락장물 먹구야.{시래기국 먹고 나서}

10325 @ 속이 시원:아구{속이 시원하고}

10325 # 예. 속이 시원:아다구 그랬꾸마.{예. 속이 시원하다고 그랬습니다.}

10325 @ 예. (웃음) 음. 음.{예. (웃음) 음. 음.}

10325 # 괴래 거저 장 거저 자이 자~이 지레에 고치자~이 거저 자~이{그래 그냥 장, 그저 장, 장, 간장에, 고추장, 그저 장}

10325 @ 고치자이{고추장}

10325 # 예.{예.}

10326 @ 음. 음. 그래 예: 그러면 사말리:하구 야꾸츠에서는 예: 무스거 가지구 밤에 불을 켜 습둥? 불을 켜 습둥?{음. 음. 그래 예, 그러면 사말리하고 야꾸트에서는 예 무엇을 가지고 밤에 불을 켜 습니까?}

10326 # 사말리셔느 어떤가하니까더 그때 이런 전기 없더나니까더이 예. 괴래구셔르 그거 잘 산 집에서느 음. 게 초, 어 촛불이두 하구 괴래구 어떤가 기름우 괴래메셔 기름우 괴래구셔르 이룽기 소캐르 가지구 이룽기 그거 소캐 가지구 괴래 가지구 기름우 괴래셔 거저 이거 이거 요런, 요런 그릇에다가 괴래 불으 해가지구 이룽게.{사말리에서는 어떤가 하면 그 때는 이런 전기불이 없었으니까 예. 그리고 그거 잘 사는 집에서는 음. 촛불도 켜고 그리고 어떤가 하면 기름을 그렇게 하면서 기름을 고이게 해서(따라 부어서) 이렇게 솜을 가지고 이렇게 그거, 솜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름을 그렇게 해서 그저 이거 이런 그릇에다가 그렇게 불을 해가지고 이렇게}

10326 @ 하아. 음.{하아. 음.}

10326 # 괴래 그것두 촛불이구. 괴래 우리 사말리 집에서는 이런, 이런, 이렇게 없었습꾸마. 이런 뉘리 뉘리차이 없었습꾸마. 차이다가셔르 이룽기 홈옴... 조애, 조애이르 조애르 불었습드마 이룽게 조애르.{그래 그것도 촛불이고. 그리고 우리 사말리 집에서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유리, 유리창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찻잔에다가 이렇게 종이, 종이를 붙였더군요. 이렇게 종이를}

10326 @ 으음. 차에다{으음. 찻잔에다}

10326 # 예.{예.}

10326 @ 예.{예.}

10326 # 예.{예.}

10326 @ 음. 그렇게 해서{음. 그렇게 해서}

10326 # 네.{네.}

10326 @ 예. 불우 불우 밤에{예. 불을, 불을 밤에}

10326 # 불우 불우느 밤에 예, 거저 그거 촛불이 촛불이 마만 마만 그랩드마. 촛불이 괴래구 어, 더기 잘산집에서느 어떤가하니까더 등잔불이{불을 붙은 밤에 예, 그냥 그거, 촛불, 촛불 어머니는 그러더군요. 촛불 그리고 어, 저기 잘 사는 집에서는 어떤가 하면 등잔 불}

10326 @ 음.{음.}

10326 # 등잔불이{등잔불}

10326 @ 음. 그 예: 겨릅드으 아이켰음둥?{음. 그, 예, 겨릅등을 안 켜 습니까?}

10326 # 그건 모르겠습꾸마. 아이 켜 습꾸마.{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안 켜 습니다.}

10326 @ 이룽게 삼 있잼둥?{이렇게 삼이 있지 않습니까?}

10326 # 예.{예.}

10326 @ 예. 삼 껌질으 이룽게 뻗게:내문 그 안에 하:안 대가 있잼둥.{예. 삼 껌질을 이렇게 벗겨 내면 그 안에 하얀 대가 있지 않습니까?}

10326 # 아니 했습꾸마. 그거 없었습꾸마.{아니 했습니다. 그거 없었습니다.}

10326 @ 아:{아.}

10326 # 나 내 사말리에서느 그건 헨거 뎡거 없었습꾸마.{나, 내가 사말리에서 있을 때 그것은 한 거, 뎡 것은 없었습니다.}

10326 @ 아: 그렇습둥?{아. 그렇습니까?}

10326 # 예.{예.}

10326 @ 그러면 요 그릇에다가 기름을 넣구{그러면 여기 그릇에다 기름을 넣고}

10326 # 여.{예.}

10326 @ 소캐르{숨을}

10326 # 예. 부베서 괴래서{예. 비벼서 그렇게 해서}

10326 @ 부베서{비벼서}

10326 # 고거 그렇게 줄으{그것을 그렇게 줄을}

10326 @ 꽃아서{꽃아서}

10326 # 예.{예.}

10326 @ 불을{불을}

10326 # 불으 켜지. 고거 거저 요, 요룽:게 가서 불으 거저.{불을 켜지, 그것을 그냥 이, 이렇게 가서 불을 그냥.}

10326 @ 예.{예.}

10326 # 예.{예.}

10326 @ 불을 켜다고 해, 했습둥? 불을 켜다고 했습둥?{불을 '켜다'고 했습니까? 불을 '켜다'고 했습니까?}

10326 # 불으 켜다구 했, 불으 켜, 불으 켜다구 했습꾸마.{불을 '켜다'고 했, 불을 '켜', 불을 '켜다'고 했습니다.}

10326 @ 아 켜다구 했습둥?{아 '켜다'고 했습니까?}

10326 # 켜다구 했습꾸마.{'켜다'고 했습니다.}

10326 @ 아:{아.}

10326 # 불으 켜다구{불을 '켜다'고}

10326 @ 그제 기름은 무슨 기름임둥?{그것이 기름은 무슨 기름입니까?}

10326 # 기름 유. 거기다 괴래구 그런거 거저 기름이 이 물기름이지 머 이거. 예, 이거 콩기름이나 콩기름 거반 콩기름 그랬지. 괴래구 이 더기 음.{기름 유. 거기다가 그리고 그런 거 그제 기름, 이 물기름이지 뭐 이거. 예, 이거 콩기름이나, 콩기름 거의 콩기름을 가지고 그렇게 했지. 그리고 이 저기 음.}

10326 @ 도, 도투 기름이나 이런거 아이 켜습둥?{돼지 기름이나 이런 것은 안 켜습니까?}

10326 # 아니 켜습꾸마.{안 켜습니다.}

10326 @ 아:{아.}

10326 # 아니 켜습꾸마.{안 켜습니다.}

10326 @ 음.{음.}

10326 # 괴래구 어떤가하니까더 즉금으 이거 어, 어, 까끄(+kak, 러시아 어, 생각이 안나 더 듣는 말) 어... 쪼끔 잘 산 집에서느 어떤가하니까더 그제 예, 음.{그리고 어떤가 하면 지금은 이거...어 어떻게... 조금 잘 사는 집에서는 어떤가 하면 그제 예, 음.}

10326 @ 촛불으.{촛불을}

10326 # 촛불 아니구.{촛불 아니고}

10326 @ 으음.{으음.}

10326 # 어... 그거느 고거느 어떻게 말해줍두. 고려말루 어떻게 해애시무 못괴래겠네. 음... {어, 그것은, 그것은 어떻게 말해줄까요. 고려말로 어떻게 말했으면 못 하겠네. 음.}

10326 @ 어, 무스걸루 만들었습둥? 잘사는{어,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잘 사는 집에서는}

10326 # 잘산 집에는 니, 니리, 니, 이런, 이런게 요 요 요런게 뉘털르 한 게르 게이 이룽기
요만이 긴기.{잘 사는 집에는 유리, 이런 것이 유리로 한 게. 이렇게 이만큼 긴 것이.}

10326 @ 음.{음.}

10326 # 괴래구 그거 아래느 이, 이룽기 허, 어... 무스글루 어똥기 그릇으 하는거 그 그런걸
루 이룽기 램빠, 램빠, 램빠 그거.{그리고 그것, 아래는 이, 이렇게 무엇으로 어떻게
그릇으로 하는 것을, 그런 것으로 이렇게 램프, 램프, 램프 그것.}

10326 @ 으음!{으음!}

10326 # 그러그(+ '그러구'이나 거의 '-'로 들림) 거기다가셔르 무스거 괴랜가니까더 께라신
(+ 러시아 어, 뜻은 '등유') 께라신{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무엇을 그렇게 했는가 하면
등유, 등유}

10326 @ 음.{음.}

10326 # 께라신 부서셔 아, 램빠불이라(+ '램빠'가 [bramp'a]로 발음 됨) 합드마.{등유를 부어
서 아, 램프불이라 하더군요.}

10326 @ 음. 아:{음. 아.}

10326 # 괴랜거 고려말루느 어똥게 하디 우리 마마느 괴래 어, 램빠불이라구, 램빠불이라구.
{그런 것을 고려말로는 어떻게 말하지 못하고 우리 어머니는 그래 어, 램프불이라고,
램프불이라고.}

10326 @ 아, 예. 그 고려말이 없었습꾸마.{아. 예. 그 고려말이 없었습니다.}

10326 # 없었습둥?{없었습니까?}

10326 @ 그 말은 램빠불입꾸마.{그 말은 램프불입니다.}

10326 # 램빠불입둥?{램프불입니까?}

10326 @ 아 램빠불으{아 램프불을}

10326 # 괴래, 글쎄 우리 마마느 괴래 램빠불이. 그거 어떤가하니까더 이룽기 램빠 이룽기 이
이마:니 이룽기 이룽기 이룽, 얄구 아래느 이마:니 이룽구. 괴래구 우우느르 올라가매
예.{그래, 글쎄 우리 어머니는 그래 램프불이, 그것이 어떤가 하면 이렇게 램프, 이렇
게 이만큼 이렇게 얄고, 아래는 이만큼 이렇고 그리고 위로는 올라가며 예.}

10326 @ 요룽게 요룽게 아, 예.{이렇게 이렇게 아, 예.}

10326 # 예. 예. 괴래 그거 그거어 글거 케무 뵤:하구 그 낫구{예. 예. 그래 그것, 그것을 커
면 환하고 좀 낫고}

10326 @ 으음.{으음.}

10326 # 괴래구 고저 촛불이 그거느 거저 약:간 거저 메지:끼 약:간 거저 괴래{그리고 그거
촛불 그것은 그거 약간 그거 약간 그거 그래}

10326 @ 음.{음.}

10326 # 괴래다나니 그, 우리네느 어려서 조오끄만 그게 글 니르는 사름이 없다나니 거저 초
지낙에 약간 그거 케구셔느 이내 잣지.{그렇다 보니 그, 우리는 어려서 조그말 때, 그
게 공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초저녁에 약간 그것을 켜고서는 이내 잣지.}

10326 @ 잣지{잣지?}

10326 # 예. 예에 이내 잣지 머.{예. 예. 이내 잣지 뭐.}

10326 @ (웃음).

10326 # 일찍이 늙어 잣지 머. 괴래 어떤적에는 괴래 어찌다가 그 램빠불 조끔있으내네 우리
마마느 그랬습꾸마. 그거이 그 기림이 오래 괴래무 없어진다구셔르 너 오래 앓아 있
디 마라. 일쁘가니 늙어 자라.{일찍 누워 잣지 뭐. 그래 어떤 적에는 그래 어찌다가

그 램프 불이 조금 있으면은 우리 어머니는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 기름이 오랫동안
켜놓으면 없어진다고, 너 오래 앉아 있지 마라. 일찍 누워 자라.}

10326 @ 예.{예.}

10326 # 그렇지 머.{그렇지 뭐.}

10326 @ 예. (웃음) 옛날에 다 그랬습꾸마.{예. (웃음)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10326 # 예. 그랬습짐.{예. 그랬죠.}

10326 @ 예. (웃음){예. (웃음)}

10326 # 기래다나니 예, 이 그담에는 사, 사말리셔 떠나서 이 노시아 초, 촌으 그담에는 이게
썩이 전기불입지 머.{그렇다 보니 예, 이 그 다음에는 사, 사말리에서 떠나서 이 러시
아 시골을 그 다음에는 이것이 모두 전기불이쥬 뭐.}

10326 @ 아하. 그 때 던깃불이 있었습등?{아하. 그 때 전깃불이 있었습니까?}

10326 # 있었습꾸마. 예 있었습꾸마. 전깃불이 있었습꾸마.{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전깃
불이 있었습니다.}

10326 @ 전깃불?{전깃불?}

10326 # 예.{예.}

10326 @ 던깃불이라 했음등?{던깃불이라 했습니까?}

10326 # 전깃불이라{전깃불이라}

10326 @ 전깃불이라 했음등?{전깃불이라 했습니까?}

10326 # 전깃불이라구 했습지. 전깃불이라구 했습꾸마.{전깃불이라고 했쥬. 전깃불이라고 했
습니다.}

10326 @ 예. 전깃불이{예. 전깃불}

10326 # 예. 옳기 머, 어느게 어떻게 옳은지 우리네는 전깃불이라구 함드마.{예. 옳게 뭐, 어
느 것이, 어떤 것이 옳은지 우리 집에서는 전깃불이라고 하더군요.}

10326 @ 아아.{아아.}

10326 # 예.{예.}

10326 @ 전깃불이{전깃불}

10326 # 예.{예.}

10326 @ 으음. 전깃불이{으음. 전깃불}

10326 # 예. 게 그것두 오래 케무 돈이 많이 든다구 너네 오래 케디 말라구.{예. 게, 그것도
오래 켜면 돈이 많이 든다고 너희들 오래 켜지 말라고.}

10326 @ 예.{예.}

10326 # 어떤가 우리 식귀 어, 우리 식기 앓, 우리머, 우리 집 마마게 아들레 없었습꾸마. 우
리 간나 서이 있다나니까더 아: 아버지 뻘뻘 호분자 일했지 머. 마마 일 아니 했지.
기래다나니 그냥 만날 그거어 어, 무스그든지 돈이랑 많이 쓰지 쓰지 말라구 기래다
거져 자꾸 어.{어떤가 하면 우리 식구, 어 우리 식구, 우리 집 어머니에게 아들이 없
었습니다. 우리 계집아이 셋이 있으니까 아, 아버지 혼자 일 했지 뭐. 어머니 일 안
했지. 그렇다 보니 그냥 만날 그것 어, 무엇이든지 돈을 많이 쓰지 말라고, 그래서 그
냥 자꾸 어.}

10326 @ 네.{네.}

10326 # 고렷사름을루 그, 어떻게 말하겠는가. 헤푸게 헤푸게 쓰디 마쟈구셔르{고려 사람으로
그, 어떻게 말하겠는가. 헤프게, 헤프게 쓰지 말자고서}

10326 @ 예.{예.}

10326 # 헤푸게 쓰지 마쟈구셔르 개더구마. 오래 케지, 오래 앉아 있디 말아라 부르 일쁘가니

죽에라. 오래 앉아 있디 말아라. 부르 일뜨가니 죽에라.{헛게 쓰지 말자고서 그러더
군요. 오래 켜지 말고, 오래 앉아 있지 말아라. 불을 일찍 꺼라. 오래 앉아 있지 말아
라. 불을 일찍 꺼라.}

10326 @ (웃음) 저두 그랬습꾸마. 저두 어릴 때 다 그랬습꾸마.{(웃음) 저도 그랬습니다. 저
도 어릴 때 다 그랬습니다.}

10326 # 그러무 그렇습지 머.{그러면 그렇쵸 뭐.}

10326 @ 얼른 꺼, 꺼라 죽에라.{얼른 꺼, 꺼라, 죽여라.}

10326 # 예.{예.}

10326 @ 불을 죽이구 눕어 자라.{불을 끄고 누워 자라.}

10326 # 아 예. (웃음).{아. 예. (웃음)}

10327 @ 예. 허허. 아매 그러면 쉼, 쉼을 길러 보셨습둥?{예. 허허. 할머니 그러면 소, 소를
길러 보셨습니까?}

10327 # 예. 쉼 길렀습꾸마. 마매 쉼, 마마 쉼 길렀습꾸마. 게 예.{예. 소를 길렀습니다.
어머니가 소를 길렀습니다.}

10327 @ 그거 어뜨게 길렀는디 내, 내기 좀 해 주옵소.{그것을 어떻게 길렀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10327 # 어뜨게 길렀는지 모르겠습꾸마. 어뜨가하니까더 이 예, 예 이룽기 우리 이 아호츠빠
르보드 있을 적에는 어뜨게 마마 아침에 일뜨가:니 일어나서 쉼, 쉼으 짜구. 그담
에 쉼 내보냈꾸마. 기래 쉼 모는 사람이 있습드마. 기래 그 사람이 으, 받으르 그
거 쉼 받으르 내가구 오분:할렐으 있다가 저녁이무 또 대비 들에오구 그랩드마.{어
떻게 길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뜨가 하면 예, 이렇게 우리가 야쿠트에 와서 있을 적
에는 어뜨가 하면, 어머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소를, 소젖을 짜고, 그 다음에는
소를 내보냈습니다. 그래 소를 모는 사람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으로 그
것을, 소를 받으로 내 가고, 하루종일 있다가 저녁이면 또 다시 들에오고 그렇게 하더
군요.}

10327 @ 음.{음.}

10327 # 기래구 그 사람우 어, 그거 쉼 기래 보는겨 한달에 돈으 얼마씩 거둑드마.{그리고
그 사람은 어, 그것을, 소를 그렇게 보는 것이, 한 달에 돈을 얼마씩 거두더군요.}

10327 @ 음.{음.}

10327 # 기래 그 돈 물구 고저, 아침이무 쉼 내보내구 동삼 저녁이무 들에오구. 동삼이무
거저 쉼, 쉼간에 있어가이 거저 그거, 쉼 친거 그거 거저 맥이구 기래구 동삼에는
쉼간에 그 쉼 있구.{그래 그 돈을 주고 그거, 아침이면 소를 내보내고, 겨울 저녁이면
들여오고, 겨울이면 그냥 소, 외양간에 있으니 그냥 그것을, 소를 친 것을 그거 그냥
먹이고 그리고 겨울에는 외양간에 그 소가 있고.}

10327 @ 음.{음.}

10327 # 봄이 오무 밭썌 봄이 돌아오무 더기, 밭 밭에 이룽기 풀이 조금 나자하무 밭썌 그
사람이 있습꾸마.{봄이 오면 밭썌 봄이 돌아오면 저기, 밭에 이렇게 풀이 조금 나려하
면 밭썌 그 사람이 있습니다.}

10327 @ 음.{음.}

10327 # 쉼 모, 쉼물루 쉼물러 사람이. 기래무 거저 이 아침에 여섯시만:하무 밭썌 쉼 내
보넵꾸마.{소를 몰러 사람이, 그러면 그거 이 아침에 여섯시 정도 되면 밭썌 소를 내
보넵니다.}

10327 @ 음.{음.}

10327 # 게 저녁에 또 다숫시 여섯시만하무 쉼르 들에웁드마.{그래 저녁에 또 다섯시 여섯시 정도 되면 소를 들여오더군요.}

10327 @ 음. 음.{음. 음.}

10327 # 그렇게 해서{그렇게 해서}

10327 @ 음.{음.}

10327 # [x개왓x], 대애지들으느 거저 대:지굴에 해가지구 고저 어, 음 무스그 쌀물이라 하무 그거 쌀이라 씻구 고저 감제두 고저 나는 거 감제두 삼구 어튼 적에느 그 호박두 삼구 그래 삼아서 거기 거, 대애지들으 맥했지 머.{돼지들은 그냥 돼지우리에서 키워 가지고 그저 어, 음 무슨 쌀물이라 하는데, 그것은 쌀을 씻고 그저 감자도 삶고 어떤 적에느 그 호박도 삶고 그렇게 삶아서 거기 그 돼지들을 먹였지 뭐.}

10327 @ 아아. 그럼 쉼는 무스거 줬슴둥?{아아. 그럼 소는 무엇을 줬습니까?}

10327 # 새르 새르 풀으 풀이 이마:니 나무 가서 새르 터가지구셔르 그거 그거 말리워서 동삼이무 그거 맥입지 머.{새를, 새를, 풀을, 풀이 이만큼 나면 가서 새를 쳐가지고 그것을 말려서 겨울이면 그거 먹이죠 뭐.}

10327 @ 음.{음.}

10327 # 새르.{새를}

10327 @ 아까 말씀하신.{아까 말씀하신}

10327 # 예.{예.}

10327 @ 음. 음. 뭐 이: 도티 도, 도티터르 뭐 이르것 다른거.{음. 음. 뭐. 이 돼지, 돼지처럼 뭐 이런 것, 다른 것.}

10327 # 다른거느 무스그 다.{다른 것, 무엇을 다}

10327 @ 먹던거 아이 줬음둥?{(사람이) 먹던 것은 안 줬습니까?}

10327 # 그런거느 그, 그렇기 무스그 주대넙드마. 쉼르 이기.{그런 것은 그, 그렇게 무엇을 주지 않더군요. 소를 이}

10327 @ 음.{음.}

10327 # 게 즉금우느 여기 와서 예, 그래니 무스그 으음. [x감비꼬:무라x]라는거 그런거 무스그 준다하드만 우리네느 그전에느 거저 우, 어뎜가 아침에 나가 예, 쉼르 새르 저라. {지금은 여기 와서 예, 그러니 무엇을 [x감비꼬무라x]라는 거, 그런 거, 무엇을 준다고 하던구면, 우리 집은 그전에 그거, 어뎜가 하면 아침에 나가 소에게 새를 줘라.}

10327 @ 으음.{으음.}

10327 # 점심 저녁에느 저녁에 또 새르 주구 고저 그랩드마. 그래구 물으 맥이구 그래구 으, 쉼르 어튼 적에느, 그저 그 새르 주는건만 알앗디 난 다른거 못봤꾸마. 대애지느 거저 이것두 주구 저것 두구 삶아 맥이메 개구, 거 새두 어뎜가하니까더 쉼르 더 쉼르 집에서 있으무 새두 그게 동삼에 많이 간다구셔르 우리네르 빠빠 데리구 땡기메셔르 녀름이무 노는 날에두 어, 노는 날에 우리네르 데리구 가서 새르 가서 채빌르 채웠습꾸마.{점심 저녁에느, 저녁에 또 새를 주고, 그저 그렇게 하더군요. 그리고 물을 먹이고, 그리고 소를, 어떤 때는 그저 새를 주는 것만 알았지 나는 다른 것은 못 봤습니다. 돼지는 그냥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삶아서 먹이며 그리고 거 새도 어뎜가 하면, 소를, 소가 집에 있으면 새도 그것이 동삼에 많이 (베러)간다고 우리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면서 여름이면 노는 날에도, 노는 날에 우리들을 데리고 가서 새를 가서 스스로 베었습니다.}

10327 @ 으음.{으음.}

10327 # 새르 조금 쳐가지구셔느 집에 집우루 가져다가 그래 짧은 거느 조금 작게 그래다나

니 마마 만날 일 한 사람이 한나다나니 만날 돈으 그거 해푸게 아니 쓰느라구셔르 그
래 재빌르 그거 그래가지구 땡기매.{새를 조금 베어가지고서 집에, 집으로 가져다가
그래 삶은 것은 조금 작게, 그렇다 보니 어머니가 매일 일 한 사람이 하나뿐이니 매
일 돈을 그거 해푸게 안 쓰느라고 그래 스스로 그것을 그래 가지고 다니며}

10327 @ 으음.{으음.}

10327 # 그래 벅엿습꾸마.{그렇게 먹었습니다.}

10327 @ 으음.{으음.}

10327 # 그래 여기와셔느 그거 쉼두 아니 치구{그래 여기 와서는 그거 소도 기르지 않고}

10327 @ 여기요. 영게서는 아니 하시구.{여기요? 여기서는 소를 안 기르시고.}

10327 # 여기, 여기서느 안 쉼르 아니 치구. 쉼두 아니 치구 닭두 아니 치구 대애지두 아니
치구.{여기, 여기서느 소를 안 기르고. 소도 안 기르고, 닭도 안 기르고, 돼지도 안 기
르고.}

10327 @ 음. 닭 닭두 아니 치구.{음. 닭도 안 기르고.}

10327 # 예. 닭두 아니 치구.{예. 닭도 안 기르고.}

10328 @ 음. 그러문 그거: 쉼가 잠우 자는 곳은 무스거라 했음둥? 쉼 밤에 잠, 잠자는 데는
무스거라 불렀음둥?{음. 그러면 그것, 소가 잠을 자는 곳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소 밤
에 잠자는 데는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10328 # 예, 쉼칸이 쉼칸이 쉼칸이{예, 외양간, 외양간, 외양간}

10328 @ 쉼칸이{외양간}

10328 # 예.{예.}

10328 @ 그 집 안에 있었음둥? 밖에 바깥에 있었음둥?{그것이 집 안에 있었습니까? 바깥에
있었습니까?}

10328 # 밖에 있었습꾸마. 바깥에 있었습꾸마.{바깥에 있었습니다. 바깥에 있었습니다.}

10328 @ 아 바깥에 있었음둥?{아, 바깥에 있었습니까?}

10328 # 바깥에 딸르 {바깥에, 따로}

10328 @ 아.{아.}

10328 # 딸르 쉼칸으 딸르 이룽기 막아놓구 막아놓구 이룽기 그거, 고저 낭글르 이룽기 막아
놓구 고담에느 쉼칸에 이룽기 짙습드마. [x자끈x]. 문우 해놓구 이제, 녀름에느 거저
그냥 열어놓구 동삼에느 그거, 쉼 그저 그칸에 있구 그래구 우, 우리 그 야꾸츠까에
있을적에느 쉼르 어띠는가하니까더 이룽기 우리집이 이룽기 있대님둥? 집우 짙은
데.{따로 외양간을 따로 이렇게 막아 놓고, 막아 놓고 이렇게 그거, 그저 나무로 이렇
게 막아 놓고, 그 다음에는 외양간을 이렇게 짓더군요. 문을 해놓고 이제, 여름에는
그냥 열어 놓고, 겨울에는 그거, 소 그저 그 칸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야꾸트에 있
을 적에는 소를 어찌 했는가 하면, 이렇게 우리 집이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지은 곳}

10328 @ 음.{음.}

10328 # 그 집이 집 겘에다가셔르 이룽기 한쪽에다가 쉼칸으 이룽게 짙어, 지입드마. 빠빠 쉼
칸으 이룽기 짙어서 덩우라르 칩디 말라구.{그 집이, 집 겘에다가 이렇게 한 쪽에다가
외양간을 이렇게 지어, 짓더군요. 아버지가 외양간을 이렇게 지어서 덩도록, 춥지 말
라고.}

10328 @ 아. 덩우라르{아. 따뜻하라고}

10328 # 예.{예.}

10328 @ 예. 그: 부수께 바루 옆에 있었대엠둥?{예. 그. 부엌 바로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10328 # 아니 없었습꾸마. 없었습꾸마. 부수께 없었습꾸마. 쉼칸에느 부수께 없었습꾸마.{아니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부엌에 없었습니다. 외양간에는 부엌이 없었습니다.}

10328 @ 아:{아.}

10328 # 없었습꾸마.{없었습니다.}

10328 @ 음. 요기 부수께 있고 예: 사람이 자는 정지가 있구{음. 여기 부엌이 있고 예, 사람이 자는 방이 있고}

10328 # 예.{예.}

10328 @ 예. 쉼은{예. 소는}

10328 # 쉼은 바깥에다가{소는 바깥에다가}

10328 @ 반대쪽에{반대 쪽에}

10328 # 예. 바깥에 나가서 쉼칸에 딸르 나가{예. 밖에 나가서, 외양간에 따로 나가}

10328 @ 아, 바깥에 나가서 딸르{아, 바깥에 나가서 따로}

10328 # 바깥에 나가서 딸르 예.{바깥에 나가서 따로 예.}

10328 @ 음. 그러문 쉼, 쉼: 쉼에 밥을 줄 때{음. 그러면 소, 소에게 밥을 줄 때}

10328 # 거저 그, 이렇게 쉼칸에 해놓구{그냥 그, 이렇게 외양간에 해놓고}

10328 @ 어디다 췌슴둥?{어디에다 췌십니까?}

10328 # 거기 이룽기 구시 같으게 이룽게 해놓구 고저 괴래 그기다 홀: 이룽기 새르 후울 이룽기 주내네는 그저 먹습드마.{거기에, 이렇게 구유 같게 이룽게 해놓고 그저, 그렇게 거기에다 확 이룽게 새를 확 이룽게 주면 그저 먹더군요.}

10328 @ 음. 밑에는 무스거를 깔았음둥?{음. 밑에는 무엇을 깔았습니까?}

10328 # 밑에두 그, 밑에두 고저 그거 쉼 먹다가셔르 새랑 그룽기있대님둥? 그거 거저 이룽기 이 밤우 자구나무 이쪽에 그거, 쉼 밤에 그 오줌이랑 괴랜거 고저 쉼 치우구셔르 떡 그거 마른거 놓습드마. 새르{밑에도 그, 밑에도 그저 그거 소가 먹다가 새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저 이렇게, 이 밤을 자고 나면 이쪽에 그것을, 쉼 밤에 그 오줌을 싸 놓은 것을 쉼 치우고서 떡하니 그거, 마른 것을 놓더군요. 새를}

10328 @ 음.{음.}

10328 # 마른 새르 테놓습드마.{마른 새를 쳐서 놓더군요.}

10328 @ 아아.{아아.}

10328 # 그랩드마.{그렇게 하더군요.}

10328 @ 예.{예.}

10328 # 예. 마른거{예. 마른 거}

10328 @ 예. 그럼 쉼 사말리에서 이룽게 쉼: 바깥에다가 이룽게{예. 그럼 소를 사말리에서 이렇게 소를 바깥에다가 이렇게}

10328 # 예.{예.}

10328 @ 매놓틴 아, 아이 하섯슴둥?{매놓지는 않으셨습니까?}

10328 # 매놓, 아니 놓습드마. 거저 쉼 내 우리 사말리에셔느 마마 쉼 없었습꾸마.{매놓지 않더군요. 그냥 소를 내, 우리 사말리에서는 어머니에게 소가 없었습니다.}

10328 @ 음.{음.}

10328 # 우리 즉금 그, 더기 세:베리 가서 예, 이 아호츠끼빠리보드라는 데 거기와서 쉼 있었습꾸마.{우리 지금 그, 저기 시베리아에 가서 이, 야쿠트라는 데 거기 와서 소가 있었습니다.}

10328 @ 음.{음.}

10328 # 예. 거기와서 있었습꾸마.{예. 거기 와서 있었습니다.}

10328 @ 음.{음.}

10328 # 개 거저 거기서느 칩다나니까더 어떤가더 쉼칸으 집곶에다가셔르 이룽기 이 한쪽으
느 이 집 지붕, 집우 이기 그구 괴래구 시 시 쉼칸으 이 쉼 쉼모타느 이룽기 맨들구
셔 집안을르 이룽기 문우 해놓습구. 쉼칸으르 댕기구 괴래구 쉼르 바깥으루 내놓구
괴래{그래 그냥 거기서는 추우니까 어떤가 하면 외양간을 집 곶에다가 이렇게 이 한
쪽은 이 집, 지붕, 집을 이개 그것이고 그리고 외양간은 이 외양간 언저리는 이렇게
만들고 집안으로 이렇게 문을 해놓고, 외양간으로 다니고 그리고 소를 밖으로 내놓고
그래}

10328 @ 아:{아.}

10328 # 예. 괴래 마마 바깥을루 아니 나가 들어갔습꾸마. 쉼칸으{예, 그래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외양간을}

10328 @ 음.{음.}

10328 # 지 집안 안으르 문우 열구 들어가셔 아침에 나가 그거 쉼르 동삼이무 쉼 쉼르 쳐서
젖으 짜가지구 거길 들어오구 괴래구 쉼느 바깥으르 내보낼 적에는 바깥으 집 문을르
바깥으르 나가구 그랬습지 머.{집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셔 아침에 나가 그것을, 소
를 겨울이면 소, 소를 길러서 젖을 짜 가지고 거기를 들어 오고 그리고 소는 밖으로
내보낼 적에는 바깥을 집 문으로 바깥으로 나가고 그랬쥴 뭐.}

10328 @ 음. 아 쉼느 바깥을르 이룽게{음. 아, 소는 바깥으로 이룽게}

10328 # 예.{예.}

10328 @ 문에서 나가구 마마께서는{문에서 나가고 어머니께서는}

10328 # 마마느{어머니는}

10328 @ 집 아래서{집 아래서}

10328 # 집 집안을르 예.{집, 집 안으로 예.}

10328 @ 쉼칸을루{외양간으로}

10328 # 쉼칸으루 들어가기 그룽기 문우랑 맨들구 그랬습꾸마.{외양간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문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10328 @ 음. 으음. 음. 음. 음.{음. 으음. 음. 음. 음.}

10330 @ 그 음. 사말리나 이런데서 야꾸즈에서 예, 그 쉼:를 싸다가 이룽게 기르는 경우두
있구 돈이 없어서 쉼르 못싸구 남우집 쉼르 쉼르 가져다가 이룽게 예, 길궂{그, 음.
사말리나 이런 곳에서 야꾸트에서 그 소를 사다가 이룽게 기르는 경우도 있고, 돈이
없어서 소를 못 사고 남의 집 소를 가져다가 이룽게 예, 기른 것은}

10330 # 기른거 없었습꾸마.{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10330 @ 그런거 없었음등?{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10330 # 그룽게 없었습꾸마.{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10330 @ 아.{아.}

10330 # 예. 거저 돈이 없어서 쉼르 못 사무 거저 쉼젓으 가서 싸다 먹지 쉼느 잘 알디 못했
습꾸마.{예. 그냥 돈이 없어서 소를 못 사면 그냥 소 젖을 가서 사다 먹지 소는 잘 알
지 못했습니다.}

10330 @ 으음. 음. 음.{으음. 음. 음.}

10332 @ 소를 이룽게 부릴 때에 무스거라 말을 했습등? 밭에서 이룽게 일을 할 때에 소 잔
등을 탁탁 이개 때리문서 뭐라구 그랬습등? 빨리 가라 예.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소를 이룽게 부릴 때에 무엇이랴 말을 했습니까? 밭에서 이룽게 일을 할 때 소
잔등을 탁탁 때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빨리 가라 예.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10332 # 쉼 쉼 쉼 몰아라 하압드마.{소, 소를, 소를 몰아라 하더군요.}

10332 @ 예. 몰아라.{예. 몰아라.}

10332 # 예. 쉼 몰아, 쉼 몰아 쉼 몰아라.{예. 소를 몰아, 소를 몰아, 소를 몰아라.}

10332 @ 예. 몰아라.{예. 몰아라.}

10332 # 몰아라.{몰아라.}

10332 @ 근데, 그럴때 무스거라구 말을 아이 했음둥? 쉼게다?{그런데, 그럴 때 무엇이라고 말을 안 했습니까? 소에게다?}

10332 # 쉼게다 무시게다 무스그 말으 하는지 쉼 거저{소에게다 무엇에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소를 그저}

10332 @ 빨리 가라.{빨리 가라.}

10332 # 빨리 가거라. 기래니무 쉼 집 어, 더기 어저느 쉼 집우루 온다 거저 그랩드마. 쉼 집우루 온다.{빨리 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소를 집 저기 이제 소가 집으로 온다 그저 그러더군요. 소가 집으로 온다.}

10332 @ 아 쉼 집우루 온다.{아. 소가 집으로 온다.}

10332 # 온다. 예. 그게 구 사람이 집 몰구, 몰구 오대님둥? 기래무 쉼 재빌르 이리, 제 우리 집우루 이렇기 지나가무 재빌르 이렇기 집우루 들어옵드마. 재빌르 들어옵꾸마.{온다. 예. 그게 그 사람이 집(으로 소를) 몰고, 몰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가 스스로 이리, 우리 집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스스로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스스로 들어옵니다.}

10332 @ 어.{어.}

10332 # 기래무 기랬꾸마. 마마 더거 가서 문우 열어 놓아라. 쉼 집우루 온다.{그러면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저거 가서 문을 열어 놓아라. 소가 집으로 온다.}

10332 @ 음. 그눔이{음. 그눔이}

10332 # 예.{예.}

10332 @ 재비, 예...{스스로, 예.}

10332 # 기래무 재빌르 제 쉼집 들어옵지 머, 집우루 예.{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소 집으로 들어오죠 뭐, 집으로 예.}

10332 @ 제집우루 들어오구.{제 집으로 들어오고.}

10332 # 제집우루 들어옵꾸마.{제 집으로 들어옵니다.}

10332 @ 아: 음.{아. 음.}

10332 # 기래 거저 아침이무 문우 홀 열면으 쉼 재빌르 나옵꾸마. 개 나오무 거저 으, 마마 기래무 빨리 나가거라 나가거라. 기래 홀 홀 그거 어, 대비 문우 홀 열어 놓으무 쉼 발써 재빌르 나갑꾸마. 거기르 쉼무리르 거기르 가압꾸마. 기래구 [x구다자니x] 저녁이무 그 사람이 발써 이렇기 몰아가지구 오옵꾸마. 오네느 쉼들이 이, 이렇기 이렇기 집들 있대님둥? 기래무 쉼 재빌르 이렇기 오다가두 제집우 재빌르 돌아들어 들어오옵꾸마.{그래 그냥 아침이면 문을 열면 소가 스스로 나옵니다. 그래 나오면 그저 어머니가 그러면 빨리 나가거라 나가거라. 그래 그거 어, 다시 문을 열어 놓으면 소가 벌써 스스로 나옵니다. 거기로, 소 무리가 있는 곳으로 거기를 갑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그 사람이 벌써 이렇게 몰아가지고 옵니다. 오면은 소들이 이, 이렇게 이렇게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가 스스로 이렇게 오다가도 제 집을 스스로 돌아서 들어 옵니다.}

10332 @ 음. 어 신통한{음. 어 신통한}

10332 # 예예. 그럼꾸마. 기래무 고저 쉼 발써 그, 그 사람이 여저느 쉼 몰아가지구 온다

하무 딱 압꾸마. 쉼엔이 나가서 우리 나가 셔구 있으무 귀래무 거저 이, 재빌 그거 문
우 열어 놓으무 쉼 재빌르 이롭게 들어옵꾸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저 소가 벌
써 그, 그 사람이 이제 소를 몰아가지고 온다 하면 딱 압니다. 주인이 나가서, 우리
나가서 서 있으면, 그러면 그저 이, 스스로 그것이, 문을 열어 놓으면, 소가 스스로 이
렇게 들어옵니다.}

10332 @ 음.{음.}

10332 # 들어오무 고저 마마 그거 쉼 매아가지구셔르 젓으 췌어서 젓으 짜가지구셔느 그담
에느 거저 무스그 조끔 새르 췌나 무스그 어췌나 그랩드마.{들어오면 그저 어머니가
그저 소를 매서 젓을 췌어서 젓을 짜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무엇을 조금, 새를 췌
나 무엇을 어췌했나 그러더군요.}

10332 @ 음.{음.}

10332 # 아, 동삼에느 거저 그 고저 그냥 쉼칸에 그냥 있다나니꺼더 거저 물두 거기다가 매
다 물으 멕이구 고저 새두 주구 고저 그럽드마.{아, 겨울에는 그냥, 그 그저 그저 외
양간에 그냥 있으니까 그저 물도, 거기다가 매서, 가져와 물을 먹이고, 그저 새도 주
고 그저 그렇더군요.}

10332 @ 으음. 음. 음. 음.{으음. 음. 음. 음.}

10333 @ 근데 쉼:가 예 색깔이 어떻습둥? 색이 쉼 이 몸뚱이 색깔이 어떻습둥? 노랑입둥? 검
덩입둥?{근데 소가 예, 색깔이 어떻습니까? 색이 ,소의 몸 색깔이 어떻습니까? 노랑입
니까? 검정입니까?}

10333 # 어, 이. 여러 가지입지 머. 어떤 쉼느 이렇기 거어면 게두 있구 허어연 것두 있구 이,
이렇기. 어떤 쉼느 거저 양 영 노:오랑구 어떤 쉼느 검:언 쉼두 있구.{어, 이. 여러 가
지췌 뭐. 어떤 소는 이렇게 검은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고 이, 이렇게. 어떤 소는 그
냥 아주 노랑고, 어떤 소는 검은 소도 있고.}

10333 @ 거:면{검은}

10333 # 예.{예.}

10333 @ 예. 으음.{예. 으음.}

10333 # 여러 가지 있습디 머.{여러 가지가 있췌 뭐.}

10333 @ 음. 그래 어떤: 놈이 제일 많애, 많했습둥? 색이?{음. 그래 어떤 놈이 제일 많았습니
까? 색이?}

10333 # 노, 노 노란색 노란췌 많, 더 많게 말하구. 노란췌{노, 노란색, 노란 소가 많다고 더
많이 말하고. 노란 소}

10333 @ 예. 췌. 음.{예. 소. 음.}

10333 # 췌.{+ [fwe]}{소.}

10333 @ 예?{예?}

10333 # 췌, 췌.{+ [fwe]}{소, 소.}

10333 @ 예. 췌.{예. 소.}

10333 # 예. 췌.{+ [fwe]}{예. 소.}

10333 @ 으음. 으음. 음. 췌{으음. 으음. 음. 소.}

10333 # 췌.{+ [fwe]}{소}

10333 @ 으음. 음.{으음. 음.}

10331 @ 근데, 소 여기다가 이롭게 그 코 있대님둥?{근데, 소에 여기다 이롭게 그 코 있지
않습니까?}

10331 # 코 망우 췌습꾸마. 아니 췌습꾸마.{코에 망을 췌습니다. 안 췌습니다.}

10331 @ 아니 켜슴등?{안 켜습니까?}

10331 # 어쩐가, 예. 사말리셔느 예 그거 쉼 암쉼느 그런게 없었습꾸마.{어쩐가 하면, 예. 사말리에서는 예, 그거 소 암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10331 @ 아.{아.}

10331 # 아:{아.}

10331 @ 아:{아.}

10331 # 남자 쉼느 그거 밭에 나가 일하다나니 이룽기 끼대냈습꾸마.{수소는 그것이 밭에 나가 일하니까 이렇게 끼지 않았습니다.}

10331 @ 아아: 수쉼.{아아. 수소.}

10331 # 예. 수쉼느.{예. 수소는.}

10331 @ 예. 그 수쉼 수쉼를 다른말로 무스거라 했음등? 둥굴이?{예. 그 수소, 수소를 다른말로 무엇이라 했습니까? '둥굴이'?}

10331 # 둥, 예. 둥굴쉼.{둥, 예, '둥굴쉼'}

10331 @ 예, 둥굴쉼{예, '둥굴쉼'}

10331 # 둥굴쉼{황소}

10331 @ 아: 둥굴쉼 이, 이 둥굴쉼란말은 어디서 예,{아. '둥굴쉼' 이, 이 '둥굴쉼'란 말은 어디서 예}

10331 # 사말리서 들었습꾸마.{사말리에서 들었습니다.}

10331 @ 아. 사, 사말리에서{아. 사, 사말리에서}

10331 # 예. 우리 마마 사말리치다나니 마마 그거 둥굴쉼라 하압드마. 그래무 사말리치지.{예. 우리 어머니는 사말리 사람이다보니 어머니는 그것을 '둥굴쉼'라 하더군요. 그러면 사말리 사람의 말이지.}

10331 @ 예. 아매는 머리 핑장히 둥습꾸마. 그 그거 다 기억을 어트게 하압등? 다 그걸 기억을{예. 할머니는 머리가 핑장히 좋습니다. 그, 그것을 다 기억을 어떻게 합니까? 다 그것을 기억을}

10331 # 어떻게 알겠슴등?{어떻게 알겠습니까?}

10331 @ 둥, 머리 머리가 아주 둥, 둥습꾸마. 좋습꾸마. 그러니 골이 예. (웃음).{좋, 머리,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 머리가 예. (웃음)}

10331 # 그 모르겠습꾸마.{그, 모르겠습니다.}

10334 @ 음. 음. 그럼 소는 여기 이룽게 예: 머리에 무스거 났슴등? 뿔이 없었슴등?{음. 음. 그럼 소는 여기에 이렇게 예, 머리에 무엇이 났습니까? 뿔이 없었습니까?}

10334 # 없었습꾸마.{없었습니다.}

10334 @ 뿔이.{뿔이.}

10334 # 쉼르 쉼뿔이.{소, 소뿔.}

10334 @ 예 쉼뿔이.{예, 소뿔.}

10334 # 쉼뿔.{소뿔.}

10334 @ 쉼뿔이.{소뿔.}

10334 # 예. 쉼들이 쉼뿔이 있었지 머.{예. 소들이, 소뿔이 있었지 뭐.}

10334 @ 음.{음.}

10334 # 예. 둥굴쉼두 뿔이 있구 이, 암쉼두 뿔이 있구.{예. 황소도 뿔이 있고 이, 암소도 뿔이 있고.}

10334 @ 예.{예.}

10334 # 쉼뿔이.{소뿔.}

10334 @ 쉼이.{소쉼.}

10334 # 예. 쉼이.{예. 소쉼.}

10334 @ 거, 예헤 슷쉼 뭐라구 한다구 그러셨죠 아까?{거, 수소를 뭐라고 한다고 그러셨
쉼? 아까?}

10334 # 둥굴쉼, 둥굴쉼.{황소, 황소.}

10334 @ 둥굴쉼.{황소.}

10334 # 예예. 둥굴쉼.{예. 황소.}

10334 @ 예.{예.}

10334 # 쉼.{소.}

10334 @ 예, 그놈을 좀 예, 끄서오너라 그러면 무스거 끄서오너라 그럼둥? 저 바깥에 나가서
예, 그놈을 좀 이렇게 예, 끄스구 오나라 이렇게 말씀해보옵소.{예, 그 놈을 좀, 끌어
오너라 그러면 무엇을 끌어 오너라고 합니까? 저 밖에 나가서 그놈을 좀 이렇게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해보십시오.}

10334 # 예.{예.}

10334 @ 네 나가서 무스걸 끄서 오너라 이럼둥?{너 나가서 무엇을 끌어 오너라 이렇게 합니
까?}

10334 # 끄서 오, 우리 마마는 끄서오란말 아니하구 나가서 무스거 쉼:오너라.{끌어 오, 우리
어머니는 끌어 오라는 말은 안 하고, 나가서 무엇을 쥐어 오너라.}

10334 @ 아아: 둥굴쉼르.{아아. 황소를.}

10334 # 무스그 둥굴쉼르 아, 둥굴쉼르 아함...{무엇을, 황소를 아, 황소를 음...}

10334 @ 쉼에오너라. 끄서오너라.{쥐어 오너라. 끌고 오너라.}

10334 # 끄서, 끄서오란 말 아니하구 그저 둥굴쉼르 그저 어떻게{끌어, 끌어 오라는 말은 안
하고, 그저 황소를 그저 어떻게}

10334 @ 몰구 오나라.{몰고 오너라.}

10334 # 음. 몰아가지구 오너라.{음. 몰아가지고 오너라.}

10334 @ 몰아가지구 오나라.{몰아 가지고 오너라.}

10334 # 몰아가지구 오나라.{몰아 가지고 오너라.}

10334 @ 무스거를{무엇을}

10334 # 쉼르 몰아가지구 오나라.{소를 몰아 가지고 오너라.}

10334 @ 아. 둥굴{아. 황소}

10334 # 둥굴쉼르 몰아가지구 오나라.{황소를 몰아 가지고 오너라.}

10334 @ 예. 둥굴쉼르 몰아, 예.{예. 황소를 몰아, 예.}

10334 # 몰아가지구 몰아가지구 몰아가지구.{몰아 가지고, 몰아 가지고, 몰아 가지고.}

10334 @ 예. 몰아가지구.{예. 몰아 가지고.}

10334 # 예. 몰아가지구 오나라.{예. 몰아 가지고 오너라.}

10335 @ 예. 음. 음. 쉼 그놈두 무슨 예, 나이 먹으른 어, 니빨이 좀 빠짐둥?{예. 음. 음. 소
그 놈도 무슨 예, 나이를 먹으면 어, 이빨이 빠집니까?}

10335 # 그건 모르옵지 머.{그것은 모르쉼 뭐.}

10335 @ 아:{아.}

10335 # 어떤가하니.{어떤지.}

10335 @ 쉼르 으음, 나 나아는 어트게 이렇게 그, 어 아암둥?{소를 음, 나이는 어떻게 이러
게 그, 압니까?}

10335 # 그것두 으, 마마 그것으 괴래서 알았지 머. 괴래무 어쁜적에는 아침에 마마 쉼르 괴

랬꾸마. 내 쉼르 몰아가지구 나가무 어, 오늘으 아무래 우리 쉼 새끼르 가졌다 그랩드
마.{그것도 으, 어머니가 그것을 그래서 알았지 뭐. 그러면 어떤 때에는 아침에 어머니가
소를, 그랬습니다. 내가 소를 몰아서 나가면 어, 오늘은 아무래도 우리 소가 새
끼를 가졌다고 그러더군요.}

10335 @ 음. 음.{음. 음.}

10335 # 괴래무 그날을 그날으 이릉기 덮어놓구셔르 아무때 아무때 예, 쉼 새끼르 난다 그랩
드마.{그러면 그 날을, 그 날을 이렇게 짚어보고서 아무 때, 아무 때 소가 새끼를 난
다고 그러더군요.}

10335 @ 아. 아. 다 마마께서 다 예.{아. 아. 다 어머니께서 다 예.}

10335 # 예. 마마 그랬지 머.{예. 어머니가 그랬지 뭐.}

10335 @ 예. 알으셨음둥?{예. 아셨습니까?}

10335 # 예. 게 거저 아, 아침이무 그거 쉼르 더, 더기 봄에 나가 잇어 아침에 쉼르 몰아가지
구 나가는데 마마 그냥 괴랬지 머. 마마 그저 일쁘가:니 일어나서 다숫시 여숫셰' 닐
어나서 쉼젓 짜서 쉼르 몰아 내가지구 몰아보내지 머. 몰아나가, 몰아 거, 쉼티 쉼: 예
엠. 음. 어. 쉼몰이 쉼몰이르 몰아가지구 나갈 적에 어든 적에 그걸 마마 들어와서 그
랬꾸마. 오늘으 우리 쉼 아무래 새끼르 가졌다.{예. 게, 그냥 아, 아침이면 그거 소를
저, 저기 봄에 나가 잇어 아침에 소를 몰아가지고 나가는 데 어머니가 그냥 그랬지
뭐. 어머니가 그저 일찍이 일어나서 다섯 시, 여섯 시에 일어나서 소젓을 짜서 소를
몰아 내가지고, 몰아 보내지 뭐. 몰아 나가고, 소 예엠. 음. 어. 소몰이, 소몰이를 몰아
가지고 나갈 적에, 어떤 때에 어머니가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오늘은 우리 소가 아무
래도 새끼를 가졌다.}

10335 @ 음.{음.}

10335 # 괴래무 아무때 새끼르 낳겠다.{그러면 어떤 때에 새끼를 낳겠다.}

10335 @ 음.{음.}

10335 # 그렇꾸마.{그렇습니다.}

10335 @ 으음. 음. 음.{으음. 음. 음.}

10335 # 괴래 밭써시 들어올 째:이무 머 괴랩지 머. 너느 나가서 쉼르 몰아가지구 들어오나
라.{그래 밭써 들어올 때가 되면 어머니가 그러지요 뭐. 나가서 소를 몰아가지고 들어
오너라.}

10335 @ 으음.{으음.}

10335 # 괴래무 재빌르 쉼 재빌르 들어오는게 거저 거. 두에서 거저 쉼 두에 거저 물어오웁
지 머.{그러면 제 스스로 소가 스스로 들어오는 데 그저. 뒤에서 그저 소 뒤에서 그저
함께 따라오죠 뭐.}

10335 @ 으음.{으음.}

10337 @ 넷날에 사말리나 뭐 이런 데에서, 돈이 없어서.{옛날에 사말리나 뭐 이런 곳에서,
돈이 없어서.}

10337 # 예.{예.}

10337 @ 남우 집에 가서.{남의 집에 가서.}

10337 # 예.{예.}

10337 @ 일으 하구.{일을 하고.}

10337 # 예.{예.}

10337 @ 예, 얻어 먹구.{예, 얻어 먹고.}

10337 # 예.{예.}

10337 @ 돈우 받구.{돈을 받고.}

10337 # 예.{예.}

10337 @ 그런 사람이 있었습둥?{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10337 # 그런 사람이 잇었는지 어떤지 우리네는 어, 이렇기 크기 크기 잘 살아, 사대네두 뉘
에 집에 가서 일으 아니 했습꾸마.{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어떤지, 우리 집은 이렇게
크게, 크게 잘 살지 않아도 뉘 집에 가서 일을 안 했습니다.}

10337 @ 음.{음.}

10337 # 일 아니하구 괴래구 어, 그거 가서 일해서 무슨 돈으 받는거 그런거 아니 모릅꾸마.
{일 안 하고 그리고 어, 그거 가서 일해서 무슨 돈을 받는 것을, 그런 것은 아니, 모
릅니다.}

10337 @ 음.{음.}

10337 # 뉘: 집우 가 일 아니 했습꾸마.{뉘 집을 가서 일을 안 했습니다.}

10337 @ 음. 그 사말리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습둥?{음. 그 사말리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
까?}

10337 # 그런 사말리서 그런사람덜이 잇었습꾸마.{그런 사말리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
다.}

10337 @ 아:{아.}

10337 # 예. 조금 잘 사는 사람덜이 이렇기 일꾼으 일꾼으 두구 잇었습꾸마.{예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꾼을 두고 있었습니다.}

10337 @ 아: 일꾼으.{아. 일꾼을.}

10337 # 일꾼으 예. 일꾼으 두구 잇었습꾸마. 괴래 그 일꾼이 식귀 없는거 거저 호분자 있는
사람이.{일꾼을 예. 일꾼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일꾼이 식구가 없는 그저 혼자
있는 사람이.}

10337 @ 그렇쥬.{그렇쥬.}

10337 # 예. 일꾼이 없는 게. 괴래 또 그 일꾼이 호분자 와서 거저 어떤가하니까더 어쁜집이
어쁜집에서는 어똥기 그 일꾼으 고거 괴래는 더기 지, 집에다 두느, 두는가하니꺼더
가슬할쥬에.{예. 일꾼이 없는 사람. 그래 또 그 일꾼이 혼자 와서 그저 어떤가 하면
어떤 집, 어떤 집에서는 어떻게 그 일꾼을 두었는가 하면 저기, 집에다 두는가 하면
추수할 적에.}

10337 @ 음.{음.}

10337 # 일이 많:아무 괴래무 일꾼으 그거 얻어가지구셔르 괴랬지 머. 일꾼으.{일이 많으면,
그러면 일꾼을 얻어가지고서 두었지 뉘. 일꾼을}

10337 @ 으음. 음. 그, 그런 사람우 머슴이라구 아이했습둥?{으음. 음. 그, 그런 사람을 머슴
이라고 안 했습니까?}

10337 # 거저 일꾼이라 하압드마. 일꾼이라.{그냥 일꾼이라 하더군요. 일꾼이라.}

10337 @ 아 일꾼이라구.{아, 일꾼이라고.}

10337 # 예. 일꾼이라구 하압드마. 일꾼이라 하압드마. 어똥 다른 말으 모릅꾸마.{예. 일꾼이
라고 하더군요. 일꾼이라 하더군요. 어떻게 다른 말을 모릅니다.}

10339 @ 으음. 그러문 남에 따, 따알 가져다가 이롭게 농사질으 하구 그, 땅 췌에니게 돈을
주는거 그런건 없었습둥?{으음. 그러면 남의 땅, 땅을 가져다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 땅 주인에게 돈을 주는 것,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10339 # 괴런게 사말리서는 없었습꾸마.{그런 것이 사말리에서는 없었습니다.}

10339 @ 아. 사말리에서 없었습둥?{아. 사말리에서 없었습니까?}

10339 # 없었습꾸마.{없었습니다.}

10339 @ 아.{아.}

10339 # 없었습꾸마. 거저 사말리셔느 정말 조금 이계, 이룽기 어드메서 다 사말리치 애니구 어드메서 이룽기 오, 나그네 홀 대 오내네느.{없었습니다. 사말리에서는 정말 조금 이계, 이렇게, 어디서, 다 사말리 사람이 아니고, 어디서 이렇게 오, 나그네가 오면.}

10339 @ 음.{음.}

10339 # 녀름에 있기두 없구 괴래구 식귀두 없구 그런 사름이 잇으무 괴래 조끔 잘 사는 사름덜이 가지다가서 일으 시깁지 며.{여름에 있을 데도 없고 그리고 식구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 조금은 잘 사는 사람들이 데려다가 일을 시키지요 뭐.}

10339 @ 음.{음.}

10339 # 그런건 잇어두 이, 네 따아 가서 가지구셔르 일으 해아서 그거 그사름우 췌엔으르 열매르 주구 재빌르 열매가지구 그런게 없었습꾸마. 사말리셔느.{그런 것은 잇어도 이, 뉘 집 땅에 가서, 가지고서, 일을 해서, 그것을, 그 사람을 주인으로 쳐서 열마를 주고, 스스로 열마를 가지고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사말리에서는.}

10339 @ 아. 그렇습둥?{아. 그렇습니까?}

10339 # 예. 사말리셔느 없었습꾸마.{예. 사말리에서는 없었습니다.}

10339 @ 으음. 음.{으음. 음.}

10340 @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없었습둥? 예:, 그 이붓집 있대님둥? 곁에 췌에집{그러면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예, 그 이웃집 있지 않습니까? 옆의, 옆의 집}

10340 # 예.{예.}

10340 @ 예. 그 사름하구 예, 나하구 같이 오늘 일을 하구 예. 돈을 아이 받구 그리구 내일은 또 그 췌에집 가서 일을 또 해주구 하는 그런건 없었습둥?{예. 그 사람하고 예, 나하고 같이 오늘 일을 하고 예. 돈을 받지 않고 그리고 내일은 또 그 옆의 집에 가서 일을 또 해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10340 # 그런건 없었습꾸마.{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10340 @ 음.{음.}

10340 # 없었습꾸마. 없었습꾸마.{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10340 @ 으음.{으음.}

10340 # 우리 마마 예, 정말 괴렸스 그랬꾸마. 그랩드마. 우리 정말 구차이 살았다구.{우리 어머니 예,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더군요. 우리 정말 가난하게 살았다고.}

10340 @ 으음.{으음.}

10340 # 어떤가하니까더 어띠 마마 빠빠 일쪽 아무래 상세나구 괴래구 마마네 식귀 딸이 여섯이 아들이 한 분이 딸이 여섯이 따, 괴래구 아들이 한 분이.{어떤가 하면 (내 어머니의)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이 아무래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 쪽 식구 딸 여섯, 아들 한 분, 딸이 여섯, 그리고 아들이 한 분.}

10340 @ 예.{예.}

10340 # 오래 우리 마마 오래비 한분 잇었습꾸마.{우리 어머니에게 오빠 한 분 있었습니다.}

10340 @ 예.{예.}

10340 # 괴래다나니 이 마마 마감이 여스섯째분이 마감 딸이 대나니까이 막띠 막디대나니, 막디대나니까더 괴래더이 오라비가 같이 그냥 일으 했답꾸마.{그렇다 보니 이 어머니가 여섯 번째 막내 딸이 되니까, 막내가 되니, 막내가 되니까 그렇다 보니 오빠하고 같이 그냥 일을 했다더군요.}

10340 @ 아.{아.}

10340 # 괴래두 구차이 살아두 뉘: 집에 가서 일으 아니 했답더구마.{그래도 가난하게 살아
도, 누구 집에 가서 일을 안 했다고 하더군요.}

10340 @ 아.{아.}

10340 # 어떤가이 재밋거 거저 매실하니 재밋거 가서 거저 그거 우, 무스 보리 시문거 고 채
밀 시문거 곡석으 시문거 옥슈꾸 시문거 감제 시문거 기슴매구 그거 거두구 그다음에
느 다가, 다 가슬이무 그거 어...{어떤가 하면 자기 것, 그거 가꾸니 자기 것을 가서
그저 그것을, 무슨 보리를 심은 것, 그 밀을 심은 것, 곡식을 심은 것, 옥수수를 심은
것, 감자를 심은 것, 김을 매고, 그것을 거두고, 그 다음에는 가을이면 그것을 어...}

10340 @ 거두어서.{거두어서.}

10340 # 거두구 괴래구 거저 그거 동삼우 그거 재빌르 괴래구 괴래구. 그거 어, 형것으 까는
거 그거 음.{거두고 그리고 그냥 그것을 겨울이면 그거 스스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 천을 짜는 것, 그것 음.}

10340 @ 베르.{벼를.}

10340 # 아니, 베 아니구.{아니, 벼 아니고.}

10340 @ 음.{음.}

10340 # 음.{음.}

10340 @ 삼우.{삼을.}

10340 # 어이, 삼우 삼우 짜메 그 재빌르 그거 형것으 맨들매 괴래매 괴래매서 살아두 뉘: 집
에 가서 일으 아니 했답더구마.{예, 삼을, 삼을 짜며, 그 스스로 그거 천을 만들며, 그
러며, 그러면서 살아도 뉘 집에 가서 일을 안 했다더군요.}

10340 @ 아.{아.}

10340 # 남우 일으 아니 하구 거저 재밋거 거저 괴래가지구셔르 게, 재밋거 재밋거 시문거
그거 가지구 동삼우 나구 또 그 녀름우 또 그래 먹으메 살았답더구마.{남의 일을 안
하고 그저 자기 것을 그저 그렇게 해 가지고서 게, 자기 것, 자기가 심은 거, 그거 가
지고 겨울을 나고, 또 그 여름을 또 그래 먹으면서 살았다더군요.}

10340 @ 으음. 녀름에{으음. 여름에}

10340 # 예. 녀름 동삼 거저 싹 재밋거 녀름 동삼 싹 재밋거 가지구셔르 그래, 아무래 구채이
살아두 뉘: 집우 가서느 일 아니 했답더구마.{예. 여름, 겨울에 그냥 모두 자기 것을,
여름, 겨울에 모두 자기 것을 가지고서 그래,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뉘 집을 가서는
일 아니 했다더군요.}

10340 @ 어.{어.}

10340 # 예.{예.}

10340 @ 음. 음.{음. 음.}

10340 # 괴래구 어떤가하니 사말리 중국따에 가참다나니까더 그전에 마마느 새애기 적에 그
랩드마. 예:, 친척이 그냥 있구 괴래다나니 어쁜 사름들으느 이 물건가 찼는게 중국따
에 나가서 중국따, 강 내 그, 가: 건네가무 중국이랍드마.{그리고 어떤가 하면 사말리
가 중국 땅에서 가깝고 보니 그 전에 어머니가 처녀일 적에 그랬다더군요. 여기 친척
이 그냥 있고 그렇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 물건 값이 싼 게, 중국 땅에 나가서, 중
국땅, 강, 강을 건너가면 중국이라더군요.}

10340 @ 음.{음.}

10340 # 괴래 가서 그거 물건이랑 가져오무 마마게 친척이 잇었는가 이 사름우 무스그 처멧
감:우 가 싸자, 싸다 주:구 이사름우느 괴래 괴래다나니 마마 상세날때까지 이룽기 있
습드마. 요런 요런 요런게 여기 비늘이 여기 비늘이 있었다. 여기 비늘이 있었다. 아

무개 이거 음. 중국파에 가서 싸다가 나르 이거 준게라 하멘서르 괴래 있었습꾸마.{그래 가서 그거 물건을 가져오면, 어머니에게 친척이 있었는지. 이 사람을 무슨 치마 감을 가 사자, 이 사람은 그래 그렇다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있더군요. 요런 요런 요런 것이, 여기 비누가 여기 비누가 있었다. 여기 비누가 있었다. 아무개 이것이 음 중국 땅에 가서 사다가 나에게 이거 준 것이라 하면서 그래 있었습니다.}

10340 @ 음.{음.}

10340 # 괴래무 괴래두 마마 그 까 더기, 그 까 재빌르 형겅이랑 까서 괴래다나니 상세날때 꺼지 마마게 쳐매 재빌르 그 깐 쳐매 있었습꾸마.{그러면, 그래도 어머니 그 짜서 저기, 그 당신 스스로 천을 짜서, 그렇다 보니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에게 치마, 스스로 짜서 지은 치마가 있었습니다.}

10340 @ 아:{아.}

10340 # 형겅으루 비단 비단 그 형겅이라 하매 그랩드마.{천으로, 비단, 비단 그 천이라 하면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10340 @ 예. 음. 비단 형겅을{예. 음. 비단 천을}

10340 # 예예. 예.{예. 예.}

10340 @ 아아.{아아.}

10340 # 괴래다나니 괴래, 개 우리: 다 이롭게 살았어, 노시아에서 살메서르 정말 동삼이무 핵교르 땡기구 녀름이무 일이 없습지. 그냥 놀지머(+ [nordɕimə]). 괴래다나니 너어터르 노는게 있는거 갈대애니타{그렇다 보니 그래, 우리 다 이롭게 살았어도, 러시아에서 살면서 젊어서 겨울이면 학교를 다니고, 여름이면 일이 없쥬. 그냥 놀지 뭐. 그렇다 보니 너처럼 노는 게 있는 것 같지 않다.}

10340 @ 으흠.{으흠.}

10340 # 나느 한:번 한번 이롭게 놀아 못밧다구.{나는 한 번, 한 번 이렇게 놀아 보지 못했다고.}

10340 @ 그렇쥬쥬.{그렇쥬쥬.}

10340 # 예. 한번 이롭게 놀아 못밧다구, 녀름이무 그룽기 나가 일하지 동삼이무 이룽기 나가, 괴래다나니 오래비 한분이 있는겅두 그룽기 일으 시기다 어드메 보통 동삼에 바갈, 나가 마다: 쓸어두 호분자 나가 아니 쓴다구.{예. 한 번 이렇게 놓아 보지 못했다고, 여름이면 그렇게 나가 일하지, 겨울이면 이렇게 나가, 그렇다 보니 오빠 한 분이 있는 게 또 그렇게 일을 시키는데, 어디 밭, 겨울에 나가서 마당을 쓸어도 혼자 나가서 안 쓴다고.}

10340 @ 음.{음.}

10340 # 괴랜다구 나르 불러가지구셔르 같이 나가 일한다구.{그런다고 나를 불러다가서 같이 나가서 일을 한다고.}

10340 @ 예.{예.}

10340 # 괴래다나니 나느 놀새 없었다구 괴랬꾸마.{그렇다 보니 나는 놀 새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10340 @ 음.{음.}

10340 # 괴래 우리네르 괴랬꾸마. 너네느 호가~한다구 호가~한다구{그래 우리들에게 그랬습니다. 너네는 호강한다고. 호강한다고.}

10340 @ 호가~한다구{호강한다고.}

10340 # 예. 호가~한다구{예. 호강한다고.}

10340 @ 아아.{아아.}

10340 # 일으 모르구 거저 그냥 논다구 호가~한다구{일을 모르고 그냥, 그냥 논다고, 호강한
다고.}

10340 @ (웃음) 웁습, 웁습지.{(웃음) 맞쵸.}

10340 # 웁습지.{맞쵸.}

10340 @ (웃음) 으음.{(웃음) 으음.}

1.6. 거주 생활/ 1.7. 질병과 민간요법

- 10601 @ 아매 넷날에 사말리에서 사실 때 에 그때 그 뒤로 그: 우리 고렷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에 집우 어뜨게 에 제였는지 좀 가르쳐 주옵소.{할머니 옛날에 사말리에서 사실 때 그 때 그 뒤로 우리 고려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 10601 # 그거 집우 어똥기 제였는데 내 어떻게 아암두? 내 모름지!{그거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 모르지.}
- 10601 @ 터르 잡는거 그거부터.{집터를 잡는 거 그것부터}
- 10601 # 어, 사말리 집덜으느 싹 구들집이 돼놓아서 에 어뜨기 집우 제였. 집이 세 칸이. 이 게 남자덜칸이 잇구 새애기 잇는 반이 잇구. 우리 거저 잇는 그게 잇구. 그래구 구새느 이 집 집 겘에 이렇기 잇구.{어 사말리의 집들은 모두 구들을 놓은 집이 되어서 에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 집의 방이 세 칸. 이 집에 남자들이 머무는 칸이 있고 처녀가 있는 방이 있고. 우리가 그저 잇는 그 방이 있고. 그리고 굴뚝은 이 집채의 곁에 이렇게 있고.}
- 10601 @ 구새는.{굴뚝은}
- 10601 # 예. 그런 집이 있었습지 머.{예. 그런 집이 있었쥬 뭐.}
- 10601 @ 음. 집을 지을 때 이렇게 터를 보지 않았습두? 어디다 집우 지으무 좋을까 이렇게? {음. 집을 지을 때 이렇게 터를 보지 않았습니까? 어디다 집을 지으면 좋을까 하고.}
- 10601 # 그거는 글썸 말은 들었습꾸마. 어쩐가 하니까더 집우 지을 적에 터어 본다구서르. 터어, 터에 에 이렇기 그 사름덜 집을 짓는 사름덜게 터이 맞으무 거기다가 집우 좃구. 그래니무 그런데 맞대니무 집우 못 짓는다고 그랍더구마. 게 집우 어떻게 짓는 그게 사 내 모름지 머.{그거는 글썸 말은 들었습니다. 어떠한가 하면 집을 지을 때 터를 본다고. 터를, 터에 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터가 맞으면 거기다가 집을 짓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데 맞지 않으면 집을 못 짓는다고 그러더군요. 그거 집을 어떻게 짓는 그것이야 내가 모르지 뭐.}
- 10601 @ 사말리에서는 어찌게 산 밑에다 집을 짓었습둥? 아니면{사말리에서는 어떻게 산 밑에다 집을 지었습니까? 아니면}
- 10601 # 아니. 사말리 사 산 사말리느 산이 없었습꾸마. 그저 싹 메물 따이다니까더 그저 이렇기 사 사 더런 산이 옴판 배우대냈습꾸마. 없었습꾸마, 산이.{아니. 사말리는 산 사말리는 산이 없었습니다. 그저 싹 메마른 땅이어서 그저 이렇게 저런 산이 원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산이.}
- 10601 @ 그럼 이렇기 평평한 데다{그럼 이렇게 평평한 데에다}
- 10601 # 예. 편편한 데.{예. 평평한 데.}
- 10601 @ 집우 지었습둥?{집을 지었습니까?}
- 10601 # 편편한 데 집우 저었습지 머.{평평한 데 집을 지었지요 뭐.}
- 10601 @ 편편한 데.{평평한 데.}
- 10601 # 예. 편편한 데.{예. 평평한 데.}
- 10601 @ 아: 편편한 데.{아. 평평한 데.}
- 10601 # 편편한 데 집우 저었습지 머.{평평한 데 집을 지었지요 뭐.}
- 10605 @ 으음. 으음. 그럼 그: 집이 어티게 생겼습둥? 요렇기 아까 말씀해, 하셨는데.{음. 음.

그럼 그 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10605 # 예.{예}

10605 @ 음. 여기다 제가 그림을 그려보무{음. 여기다 제가 그림을 그려 보면}

10605 # 예:{예}

10605 @ 예. 요렇게 여기서 들어, 이렇게 들:와서{예 요렇게 여기서 들어, 이렇게 들어와서}

10605 # 예.{예}

10605 @ 그러면 여기 부수개 잇대님둥?{그러면 여기 부엌이 있지 않습니까?}

10605 # 예.{예}

10605 @ 불우 때는 부수개 있구.{예. 불을 때는 부엌이 있고.}

10605 # 예. 부수개 있구.{예. 부엌이 있고.}

10605 @ 여기는?{여기는?}

10605 # 이렇기 가매 두울이 있구.{이렇게 술이 둘이 걸려 있고}

10605 @ 가매 두울이 있구.{술이 둘이 걸려 있고}

10605 # 예.{예}

10605 @ 여기는 무슨거라 했슴둥?{여기는 무엇이래 했습니까?}

10605 # 여기는 그저 이렇기 들오무 들와 부수개 있구. 이게 부수개 있구 가매뜨베 이게 여기 이게, 가매 이게 가매뜨베 여기 있구. 그래구 집우 어떤가하니까더 이짜을르 여길르 여길르 들어오무 남자덜칸이구. 이래구 그래구 이짜을르 들우무 새애기 반이구. 그래 이게 이렇기 갈라, 갈가서. 그래 새애기반으 새애기덜이 모두구. 우리는 그저 보통 가매뜨베서 여기서 먹구 여기서 자구 그래. 새애기 이 나이 열대:여섯 살 예레섯 살 어전 식집가 불 새애기 그만하무 새애기반에서 자구.{여기는 그거 이렇게 들어오면 들어와 부엌이 있고. 이곳에 부엌이 있고 술뚜껑이 이것이 여기에, 술 이게 술뚜껑이 여기 있고. 그리고 집이 어떤가 하면 이쪽으로 여기로 여기로 들어오면 남자들이 기거하는 칸이고. 이리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처녀들이 머무는 방이고. 그래 이게 이렇게 나뉘어, 나뉘어서. 그래 처녀 방은 처녀들이 모이고. 우리는 그저 보통 술뚜껑 있는데서 여기서 먹고 자고 그렇게. 처녀가 나이 열대여섯 살 열여섯 살이 되어 이제 시집갈 때쯤 된 처녀가 되면 처녀방에서 자고.}

10605 @ 아아.{아아}

10605 # 그래 남자느 남자반에 있구. 그래 남자덜 남자덜 놀라오는 건 거저, 빠빠, 거저 여길르 들어오지. 그래다나니 여기는 이 가매뜨베 움판 들어오지, 아니 들어오지, 남자느. 움판 남자는 아니 들어오웁꾸마. 그래구 이거 있구서르 여길르 들와서 또 여기 듯간이라구 있습더구마,{그래 남자는 남자방에 있고. 그래 남자들 남자들 놀러오는 건 그저, 아버지에게, 그저 여기로 들어오지. 그렇다 보니 여기는 이 술이 걸린 방은 원래 안 들어오지, 남자는. 원래 남자는 안 들어웁니다. 그리고 이거 있고 여기로 들어와서 또 여기에 뒷간이라고 있더군요.}

10605 @ 음.{음}

10605 # 듯간이라구. 여기다가 덩때르 맨들어 놓구서 무슨 가매랑 그거 사발이랑 그거 잘 쓰대닌 거느 여기 듯간에 여기다가 올레놓습더구마.{뒷간이라고. 여기다가 시령을 만들어 놓고서 무슨 술이랑 사발이랑 그런 잘 쓰지 않는 것은 여기 뒷간에 여기다가 올려 놓더군요.}

10605 @ 아아. 덩때.{아아 시령}

10605 # 덩때.{시령}

10605 @ 음. 음. 으음.{음. 음. 음.}

10605 # 기래 이게 집이네는 그담에는 여기다 요 요령기 딸르 이게 우래구. 딸르 여기다가
 집터르 이렇기 제에서는 말칸, 말칸이두 좏구 췌칸두 좏구 대애지굴두 좏구 그럽더구
 만.{그래 이것이 집이면 그 다음에는 여기다 요렇게 따로 이게 오래고. 따로 여기다가
 집터를 해서 이렇게 지어서는 마구간도 짓고, 외양간도 짓고 돼지우리도 짓고 그러더
 군요.}

10605 @ 아아.{아.}

10605 # 예.{예}

10605 @ 음.{음.}

10605 # 게 이진 마다이구.{예. 이진 마당이고.}

10605 @ 음.{음.}

10605 # 마다이구.{마당이고.}

10605 @ 으음. 마다~이구.{음 마당이고.}

10605 # 마다이.{마당.}

10605 @ 으음. 그럼 봉간의 어드메 있었습둥?{음. 그러면 변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10605 # 봉간은 어드메, 췌칸이구, 여기 있대니우? 마다이대님둥? 어드메 여기다가 두에다가
 봉간의 좏습더구마. 여기. 집이서 조금 멀리‘찌기.{변소는 어디, 외양간이고, 여기 있
 지 않습니까? 마당이 아닙니까? 어디 여기다가 집 뒤에다가 변소를 짓더군요. 여기.
 집에서 조금 멀찍이.}

10605 @ 음. 멀리찌기.{음. 멀찍이.}

10605 # 예.{예.}

10605 @ 으음. 으음. 그러면은 예: 요건 가매.{음. 음. 그러면 예 요건 술.}

10605 # 예.{예.}

10605 @ 예. 요기 요기는 가매목이라함둥?{예. 요기 요기는 ‘가매목’이라 합니까?}

10605 # 예. 가매목‘이.{예. 가매목이.}

10605 @ 예?{예?}

10605 # 가매목이.{가매목이}

10605 @ 가매목이.{가매목이}

10605 # 예. {예.}

10605 @ 예. 그러면 여기는 뭐라구 하암둥? 이렇게 사람이 사는 데. 정지, 정지라구 하암
 둥?{예. 그러면 여기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사람이 사는 곳. 정지, 정지라고
 합니까?}

10605 # 예예! 정지. 정지.{예! 정지. 정지}

10605 @ 예?{예?}

10605 # 정지. 정지.{정지. 정지.}

10605 @ 예, 정지.{예, 정지.}

10605 # 예. 게 거저 우린 그저 정지에서 자구. 먹는 것두 여기 앓아 먹구. 기래구 자리랑 거
 저 새애기 크게 없으무 그저 덩때르 해아서 그저 거기다가 니부자리랑 싹 거기다 얼
 레놓구. 기래다나니 집안 안에 아무것두 없지 머. 사~이두 없구 무슨 이런 것두 없구
 아무것두 없었지.{예. 게 그저 우린 그저 정지에서 자고. 먹는 것두 여기 앓아 먹고.
 그리고 자리랑 그저 커녀 큰 놈이 없으면 그저 시령을 만들어서 그저 거기다가 이부
 자리 따위를 싹 거기다 올려놓고. 그렇다 보니 집안 안에 아무 것도 없지 뭐. 상도 없
 고 무슨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

10605 @ 음. 음. 이 부수께:는 요, 요기가 길이가 얼마나 됐습둥? 요기서 요까지.{음. 음. 이

부엌은 요 요기가 길이가 얼마나 되었나요? 여기서 요기까지.}

10605 # 예.{예.}

10605 @ 예.{예.}

10605 # 들어와서 부수개 여길르 불으 때애무. 괴래구 집이 칸이 잇으무 여기두 구들이 여기 두 구들이, 괴래구 이거 이 여기 나와서 여기 나와서 구새 잇습더구마. 구새. 여기 기다:상게 구새 잇습더구마. 지부우루 다 올라가서 지부우루 지부우루 올라가서 구새 잇습더구마.{들어와서 곧바로 부엌이 있는데, 여기다 불을 때면, 그리고 집이 방 칸이 있으면 여기도 구들 여기도 구들이 놓여 있고, 그리고 이 여기로 나와서 굴뚝이 있더군요. 굴뚝. 여기 기다랗게 굴뚝이 있더군요. 지붕으로 다 올라가서 지붕으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굴뚝이 있더군요.}

10605 @ 음. 음.{음. 음.}

10605 # 괴래구 집에 이런 이런 집에 이런 창문이 없었지 머. 거저 이게 들어 들어온 게 이게 창문이 이 그거 이런 시 뉘릴르 아니 불이구 이런 이런 죠애 있대니우? 그거. 그거 무슨 죠애던지. 그전 죠애 예.{그리고 집에 이런 이런 집에 이런 창문이 없었지 뉘. 그거 이거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창문이 그거 이런 유리를 안 붙이고 이런 이런 종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거 무슨 종이던지. 그전에 종이 예}

10605 @ 창호지.{창호지.}

10605 # 예. 무슨. 그 죠애르 붙인 게. 뉘릴르 아니 붙인 게.{예. 무슨. 그 종이를 붙인 것. 유리를 안 붙인 것.}

10605 @ 음. 유릴르 아니하구.{음 유리로 아니 하고}

10605 # 뉘릴르 아니하구 죠엘르 붙인 거.{유리로 아니 하고 종으로 붙인 거.}

10605 @ 죠엘르.{종으로.}

10605 # 예. 그런 집에 우리 잇었습꾸마. 우리 우리 맏맏아바니느 조끔 우리보구 낮게 살아서 그 저 맏아반네 집우느 마우재집터르 집우 쥘었습꾸마.{예. 그런 집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 맨 위 큰아버지는 조금 우리보다 낮게 살아서 그 큰아버지네 집은 러시아 집처럼 집을 지었습니다.}

10605 @ 아아. 맏아바니.{아. 큰아버지}

10605 # 예. 맏아바니. 빠빠. 맏아바니.{예. 큰아버지. 아버지의. 큰아버지}

10605 @ 네?{네?}

10605 # 맏맏아바니.{첫째 큰아버지}

10605 @ 아. 맏맏아바니.{아. 첫째 큰아버지}

10605 # 예.{예.}

10605 @ 맏맏아바니께서.{첫째 큰아버지께서}

10605 # 빠빠.{아버지}

10605 @ 으음. 여기 이 이 부수개 안으르 들어가무 여기 불우 때이는 곳이 있대님둥?{음. 여기 이 부엌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불을 때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10605 # 예.{예.}

10605 @ 예. 불우 때이는 곳은 무스거라 불렀습두?{예. 불을 때는 곳은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10605 # 그저 부수개라 하압더구마. 부수개, 부수개. 불우 부....{그저 ‘부수개’라 하더군요. 부수개, 부수개. 불을 붙이는...}

10605 @ 불우 때는 데.{불을 때는 데.}

10605 # 예.{예.}

10605 @ 불으 넣는 구멍은 무슨거라 했슴둥? 부수깨아구리? 부수깨아구지?{불을 넣는 구멍은 무엇이냐 했습니까? ‘부수깨아구리’? ‘부수깨아구지’?}

10605 # 예. 아구리라고 했:구. 아구리라고.{예. ‘아구리’라고 했고. ‘아구리’라고.}

10605 @ 음. 음. 그럼 발바이는 어디다 뒀슴둥?{음. 음. 그러면 디딜방아는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10605 # 우리 사발리 있을 적에는 우리집에 없었습꾸마, 바이.{우리가 사발리촌에서 살 때에는 우리집에 없었습니다, 디딜방아가.}

10605 @ 아. 그때는 없었슴둥?{아. 그때는 없었습니까?}

10605 # 없었습꾸마, 바이.{없었습니다, 디딜방아.}

10605 @ 음. 음. 그럼 야꾸트에서 사실 때에는 어 어뻘었슴둥? 집이 같았슴둥?{음. 음. 그러면 야꾸트에서 사실 때는 어떠했습니까? 집 모양이 같았습니까?}

10605 # 야꾸트에서 살 적에는 이 집이 이런 이런 가매 없었지 머. 이렇기 마우재집터르 이렇습지 머.{야꾸트에서 살 때에는 이 집이 이런 이런 솔이 없었지 뭐. 이렇게 러시아 집처럼 이렇지요 뭐.}

10605 @ 아. 이렇게 뻬었슴둥?{아. 이렇게 뻬었습니까?}

10605 # 예. 예. 마우재. {예. 예. 러시아}

10605 @ 이런 예 고렷사람{이런 예 고려사람들이 사는 집이}

10605 # 없었습꾸마.{없었습니다.}

10605 @ 이게 없구.{이것이 없고.}

10605 # 없었구. 점체두 없구. 이 이 이 가매뜨베두 없구 마우재집이 마우재집이지 머. 마우재집인데 즉금으는 이렇기 더런 더런 부수깨있대님둥? 그전에는 마우재집이서 거저 부수깨르 하압꾸마. 거저 부수깨르. 저어서 거기서 낭그 낭그 때애구. 그게 덤어나구 그저 그렇습지 머.{없었고. 자리도 없고. 이 이 솔뚜경도 없고 그저 러시아식 집이 러시아식 집이지 뭐. 러시아집인데 지금은 이렇게 저런 저런 부엌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러시아집에서 그저 (러시아식대로) 부엌을 만듭니다. 그저 부엌을. 지어서 거기서 나무를 나무를 때고. 그러면 집이 더워지고 그저 그렇지요 뭐}

10605 @ 으음. 으음. 음.{음. 음. 음.}

10605 # 이르 집이 집이 이렇기 있으무 집이 크무 크무 부수깨 한판에 잇습꾸마 이렇기. 한판에 있으무 여기서 이거 불우 때애무 낭그 불우 때애구. 개 녀름이무 어쩐가하니까 더 집에다가 집이 덤다구 녀름에는 거저 바깥부수깨르 하압지. 바깥부수깨르 해에서 거기다가 거저 그 낭그, 낭그 할라 우리 댕기무 거저 가져오무 그저 때애구셔르 거기서 끓에 먹구. 동삼이무 여기서 괴래구. 괴래 그저 그렇지 머.{이렇,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이 크면 크면 부엌은 집안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가운데에 있으면 여기서 이거 불을 때면 나무로 불을 때고. 그래 여름이면 어떠한가 하면 집에다가 집이 덤다고 여름에는 그저 바깥에다 부엌을 하지요. 바깥에다 부엌을 해서 거기다가 그저 그 나무를, 나무하러 우리 다니면 그저 그것을 가져오면 그저 때고서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겨울이면 여기서(집안에서) 그렇게 하고. 그래 그저 그렇지 뭐.}

10605 @ 음.{음}

10605 # 괴래 동삼에 이거 불우 때애무 거저 부수깨 불우 때애무 이게 덤어나매셔르 집안이 덤지 뭐.{그래 겨울에 이거 불을 때면 그저 부엌에서 불을 때면 더워지면서 집안이 덤지 뭐.}

10605 @ 음. 음. 그게 인제 예:: 그 러시아말루 빼 빼치까(+ 벽난로)라구 하는 거업지?{음. 음. 그것이 바로 러시아말로 ‘빼치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10605 # 빼치카. 아하, 빼치까. 빼치까 아하. 빼치.{빼치카. 예, 빼치까. 빼치까 예. 빼치}

10605 @ 그럼 사말리에서 사실 때 우리 고렷사람들이 이 구들 우에다가 무스거르 깔았, 깔았
슴둥?{그럼 사말리에서 사실 때 우리 고려사람들이 이 방바닥 위에다 무엇을 깔았,
깔았습니까?}

10605 # 구들에다가 거 점제르 하압더구마. 점제르.{방바닥에다 거 자리를 깔더군요. ‘점제’라
는 자리를.}

10605 @ 아. 점제르.{아. 자리를}

10605 # 예. 점제.{예. 자리}

10605 @ 아아. 점, 점제.{아. 자, 자리}

10605 # 점제.{자리}

10605 @ 점제.{자리}

10605 # 예.{예.}

10605 @ 그게 무스걸르 맨들었슴둥?{그 자리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10605 # 그게 깔을르 깔으 깔으 깔으 이룽기 한판 홀 깨아서 넘적해에서 그걸르 깔 더기 점
제르 하압더구마.{그거 갈대로 갈대를 갈대를 이렇게 한가운데를 쪼개서 납작하게 다
듬어서 그것으로 갈대 저기 자리를 하더군요.}

10605 @ 음. 그걸 천:천히 가르쳐 주옵소. 어뜨게 맨들었는지 빠빠가.{음. 그것을 천천히 가
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버지가.}

10605 # 그거 어똥기 맨든지 빠빠 어똥기 맨든지 내 모릅꾸마.{그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버
지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10605 @ 음. 보신 대로 그냥 말씀해 보시면은. 빠빠 맨드는 거.{보신 대로 그냥 말씀해 보시
면. 아버지가 만드는 거.}

10605 # 어똥기 맨드는지 모릅꾸마, 모릅꾸마.{어떻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10605 @ 너무 어래서.{너무 어려서(어릴 적에 보아서).}

10605 # 예. 어래서 기랜거 어똥게 기랜거 모릅꾸마.{예. 어려서 그런 것을 어떻게 그런 것을
모릅니다.}

10604 @ 으음. 그러면은 요령:케 그 어 이 지붕에다 덮는 거 있담둥? 지붕이라구.{음. 그러면
요렇게 그 어 이 지붕에다 덮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붕이라고}

10604 # 지부에.{지붕에.}

10604 @ 예. 지붕이라구 하대님둥?{예. 지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604 # 예. 예. 지부이. 기래 지부이 그거 더기 어쩐가 음. 잘 사는 집우느 지부우 무스걸르,
셋장집우 셋장집우 셋장집 쥘르 하구. 집. 셋장. 우리 만아바니느 그리샤 젤리자나야
(+ крыша железная) 마우재말르느. 우리네느 어 살로마(+ салома).{예. 예. 지붕이.
그래 지붕이 저기 그거 어똥가 음. 잘 사는 집은 지붕을 무엇으로, 함석집을 함석집을
함석집으로 하고. 집. 함석. 우리 큰아버지는 ‘그리샤 젤리자나야’ 러시아말로느. 우리
네는 어 짚으로.}

10604 @ 살로마.{짚}

10604 # 아하. 살로마 그로샤.{초가집}

10604 @ 맘만아바니께서는 무스걸르 했다고요?{첫째 큰아버지께서는 무엇으로 했다고요?}

10604 # 셋자~이. 젤레자.{함석. ‘젤레자’}

10604 @ 셋장.{함석}

10604 # 젤레저.{함석}

10604 @ 렐리저?{렐리저?}

10604 # 젤레저. 젤레저 저, 젤레자.{‘젤레저’. ‘젤레저 저’. ‘젤레자’}

10604 @ 고려말르 무스거라구요?(고려말로는 무엇이라고요?)

10604 # 고려말르{고려말로}

10604 @ 음. 셋장?{음. ‘셋장’?}

10604 # 예. 세장집이, 셋재, 셋재, 셋장집이.{예. ‘셋장집이, 셋재, 셋재, 셋장집이’}

10604 @ 셋장.{셋장.}

10604 # 예.{예}

10604 @ 음. 셋장이 무스걸까요? 어떻게 생겼습둥?{음. ‘셋장’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10604 # 그제. 음. 어뜨기 생겼 ……. 이 이게 있댜둥? 이런 게 이룽기 거저 이룽기 이룽기 이룽기 녀구 이룽기 길구 그렇습지 머. 이거느 이룽게 이룽기 하대냈습둥? 이게 이거 싹 이래 너퍼놓구 녀구 이룽기 길구 그런 거 이런 걸르 지부 지부 쫘대이르 집 쫘대 이 합지. 이게 젤리자나야 방까, 게 그건 젤리자나야 그릭샤(+ железная крыша) 그렇습지 머.{그제. 음. 어떻게 생겼 ……. 이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그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넓고 이렇게 길고 그렇지요 뭐.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거 싹 이렇게 덮어놓고 넓고 길고 그런 거 이런 걸로 집 집의 꼬리(여기서는 ‘처마’를 가리켜 말함)를 꼬리를 하지요. 이게(조사자가 머물고 있는 건물을 말함) 함석을 얹은 은행, 그건 함석 지붕이고 그렇지요 뭐.}

10604 @ 거 그러면 아매 그 사시던 집 지붕은 새르 아이 얹었습둥?{거 그러면 할머니가 사시던 집 지붕은 새를 얹지 않았습니까?}

10604 # 새는 아니 얹었습꾸마.{새는 안 얹었습니다.}

10604 @ 음.:{음}

10604 # 이 새르 얹는 건 어드메다 얹는가 하무 이게 더기 쉼칸이랑 말칸이랑 하대님둥? 괴래무 여기다가 이 우에다가 새, 새르 올려놓습꾸마. 이 우에다 새르 올려놓습꾸마.{이 새를 얹는 건 어디다 얹는가 하면 이거 저기 외양간이랑 마구간이랑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 위에다 새를 올려놓습니다. 이 위에다 새를 올려놓습니다.}

10604 @ 그 새르 어 새르 어디 가서 가져옴둥?{그 새를 어 새를 어디 가서 가져옵니까?}

10604 # 새르 밭에 가서 거저 재빌르 가서 빼입짐. 그래서 새르.{새를 새 밭에 가서 그저 자기가 가서 베지요. 그래서 새를.}

10604 @ 새르 판다구 했습둥?{‘새를 판다’고 말했습니까?}

10604 # 새르 그거 어떤 집에서느 그 줌스이라 없으무 가서 그거 빼에서 파압꾸마. 파서. 줌승 있는 집이서느 그거 싸압꾸마. 재빌르 많이 많이 그거 모옷 괴래무 줌스으 동삼우 먹을 거 작으무 고거 가서 싸다가셔르 또 보태 멕이지. 대에 줌스으.{새를 그거 어떤 집에서는 그 짐승이 없으면 가서 그거 베어서 팝니다. 파서. 짐승 있는 집에서는 그거 삽니다. 자기가 많이 많이 그것을 못 베면 짐승이 겨울에 먹을 것이 작으면 고거 가서 사다가서 또 보태어 멕이지. 돼지 짐승을.}

10604 @ 음. 음.{음. 음.}

10604 # 그러 ….{그러 …}

10604 @ 그러문.{그러면}

10604 # 새깅이 이룽기 높이 올레놓지.{새 꼴을 이렇게 높이 올려 썻지.}

10604 @ 음. 새깅이.{음. 새 꼴}

10604 # 예.{예.}

10604 @ 음. 여기다 이 사람 사는 지붕 우에다는 에 렐리저르 놓구?{음. 여기다 이 사람이

사는 지붕 위에다는 함석을 놓고?}

10604 # 여..., 아무것도 아니 놓습꾸마.{여기 ..., 아무것도 안 놓습니다.}

10604 @ 텔리자.{함석}

10604 # 텔리자. 텔리자 에따 그거 이집터르 집꼰댕이 괴래대니우. 그저 그렇습지 머. 개니 즉금은 텔리자르 아니하구 다른 걸르 그래 놓는게. 그전에는 텔리자 놓아 ... 괴래무 그제 잘 사는 집이라구.{함석. 함석 이것은 그거 이집처럼 집 처마에 그렇게 하지 않소. 그저 그렇지요 뭐. 그러하니 지금은 함석을 아니 하고 다른 것으로 지붕에 놓는데. 그전에는 함석을 놓아 ... 그렇게 하면 그것이 잘 사는 집이라고.}

10604 @ 음.{음}

10604 # 이게 텔리자 이게 더기 어떤가하니까더 오래: 있으무 판나딘다구서르 그거 칠으 냅 더구마.{이게 함석이 이게 저기 어떠한가 하면 오래 있으면 험다고 그거 칠을 하더군요.}

10604 @ 아! 칠으?{아! 칠을?}

10604 # 예. 칠으 냅더구마. 칠으 내셔.{예. 페인트 칠을 하더군요. 칠해서.}

10604 @ 그제 무스걸르 만듭등? 낭글르 만듭등? 낭글르 쪼개서 따개서 거기다 올려놓습등? 텔리자?{그거 무엇으로 만듭니까? 나무로 만듭니까? 나무를 쪼개서 짜개서 거기다 올려놓습니까? ‘텔리자’?}

10604 # 낭글르 낭글르 이래 놓구서 우에다 그거 놓짐. 이 텔리자 님이 이룽기 이룽기 이룽기 얹습지{얹습지} 머. 괴래무 거저 그거 올레놓습지.{나무로 나무로 이렇게 놓고서 위에다 그것(함석)을 놓지요.}

10608 @ 그러면 지붕이 이렇:기 있으면은.{그러면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10608 # 예예.{예.}

10608 @ 예예. 그 비 오무 비가 이렇게 오무 지붕에서 지붕을 타구 내려오다가 이렇게 물방울르 똑똑 똑똑 떨어지는 데 있대님등? 이렇게?{예. 그 비 오면 비가 이렇게 오면 지붕에서 지붕을 타고 내려오다가 물방울로 똑똑 똑똑 떨어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10608 # 어떤 집에서느 이룽기 구거 하압꾸마 이룽기 에 그거. 물이 떨어테서 네레가게. 집 겹에서 네레가라르. 어떤 집이서느 거기다가서르 이런, 마우재말른 그제 보찌까(+ боука)라구 하압꾸마, 이룽기 커다:산 게, 개 거기다 놓오무 물이 비 오무 여기서 똑똑 떨어테서 거기르 네레가압지.{어떤 집에서는 이렇게 그거 합니다. 이렇게 에 그것을. 물이 떨어져서 내려가게. 집 겹에서 내려가도록. 어떤 집에서는 거기다가 이런, 러시아말로 그거 ‘보찌까’(물을 담아 놓는 물통)라고 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것이 있는데, 그래 거기다 놓으면 물이 비 모면 여기서 똑똑 떨어져서 거기로 내려가지요.}

10608 @ 음. 음. 그럼 집이 지붕이 이렇게 돼 뿔등?{음. 음. 그럼 집이 지붕이 이렇게 됩니까?}

10608 # 예. 예.{예. 예.}

10608 @ 그러면은 여기 여기는 무스거라 불렀습등? 여기는, 여기르.{그러면 여기 여기는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여기는, 여기를.}

10608 # 가르니스(+ карниз) 이거는. 집글에 이런 데. 개 여기다가서르 그제 셋장울르 요 이룽기 해 놓오무 여기르 아니 떨어디구 여기르 여기 조금 이룽기 네리막으르 해서 여기다가서르 이 이런 그릇으 이런 이런 거 커다:산 그릇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래 구새 여길르 물이 떨어데 여기 요룽기. 이룽기 이룽기 이룽기 조금 네리막이무 괴래 여기 짝 떨어디무 개 집 여기르 아니 떨어디지 머.{‘가르니스карниз’(=차양), 이

것은. 집 처마 끝에 이런 데. 그래 여기다가 그거 함석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로 물이 안 떨어지고 여기로 조금 이렇게 내리막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런 그릇을 이런 이런 커다란 그릇(물통)을 이런 거 이런 거 그렇게 해서 굴뚝이 있는 여기로 물이 떨어져 여기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금 내리막이면 그래 여기 물이 싹 떨어지면 그게 집 여기로 안 떨어지지.}

10608 @ 요렇기 밑에다.{요렇게 밑에다.}

10608 # 예.{예.}

10608 @ 밑에다 대아서.{밑에 대서}

10608 # 밑에다 대아서 요렇기.{밑에다 대서 요렇기}

10608 @ 물이 이렇게 흘러서.{물이 이렇게 흘러서}

10608 # 여. 예.{예.}

10608 @ 떨어지게.{떨어지게.}

10608 # 예.{예.}

10608 @ 아아. 그러면 요 고려말르 여기는 무스거라 불렀습둥? 고려말르 여기는. 여기는 초매, 처매?{그러면 고려말로 여기는 무엇이랴 불렀습니까?}

10608 # 모르겠습꾸마. 고려말르 무시기라 하는지.{모르겠습니다. 고려말로 무엇이랴 하는지.}

10608 @ 강냥이라는 말은 안 썼음둥?{‘강냥’이라는 말은 안 썼습니까?}

10608 # 아니 들었습꾸마. 못 들었습꾸마.{안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10608 @ 으음. 그럼 요기에 요렇게 요 밑에 잇대님둥? 요렇게 요기 요기 이롭게 이 마다~이보다 쪼끔 높은 곳이 잇대님둥? 예. 그건 무스거라 불렀습둥? 이롭게 마다~이보다 쪼끔 높은 데 여기 이걸 무스거라 불렀습둥?{으음. 그럼 요렇게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롭게 요기 이롭게 마당보다 쪼끔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무엇이랴 불렀습니까? 마당보다 쪼끔 높은 데 이것을 무엇이랴 불렀습니까?}

10608 # 음. 가만이 있어 보쇼.{가음. 만히 있어 보십시오. (생각을 해 보게)}

10608 @ 이걸 강내~이라구는 아니, 아니했습둥?{이것을 ‘강냥’이라고는 아니 했습니까?}

10608 # 아무래 강내~이라구. 마우재말르 자발린까. 아무래 강내~이나 그럽꾸마 아무래 예.{아무래도 강냥이라고 한 것 같소. 러시아말로로는 ‘자발린까’. 아무래도 강냥이나 그걸 겁니다. 예}

10608 @ 음. 음. 음. 그럼 여기는 무스거라 불렀습둥? 여기 매앤{음. 음. 음. 그럼 여기는 무엇이랴 불렀습니까? 여기 맨}

10608 # 집꼬티, 거저 집 고티라 하압더구마.{‘집고티’(지붕 마루), 그저 집 고티라고 하더군요.}

10608 @ 집?{집?}

10608 # 집고티.{집고티}

10608 @ 집꼬티?{집고티?}

10608 # 예.{예.}

10608 @ 으음.{음.}

10608 # 고티.{고티.}

10608 @ 고티.{고티.}

10608 # 예. 집 고티.{예 집 고티}

10608 @ 집 고티.{집 고티}

10608 # 예.{예.}

10608 @ 이 여기.{이 여기}

10608 # 지붕우이.{지붕 위}

10608 @ 예?{예?}

10608 # 집 우이.{집 위}

10608 @ 집 우이?{집 위?}

10608 # 예. 집고티.{예. '집고티'}

10608 @ 이게 지부이 아님둥? 이 전체가 다.{이것이 지붕이 아닙니까? 이 전체가 다}

10608 # 예.{예.}

10608 @ 지부이 아님둥?{지붕이 아닙니까?}

10608 # 예. 예.{예. 예.}

10608 @ 이게 지부이구.{이것이 지붕이고.}

10608 # 이건 집고티구.{이건 지붕마루고}

10608 @ 예. 집고티구.{예. 지붕마루고}

10608 # 예.{예.}

10608 @ 음. 음.{음. 음.}

10603 @ 그러면 아매 이 구들은 어떻게 놓슴둥?{그러면 할머니 이 구들은 어떻게 놓습니까?}

10603 # 어떻게 구들으 놓는두 거 모르웁꾸마. 모릅꾸마.{어떻게 구들을 놓는지 거 모릅니다. 모릅니다.}

10603 @ 집을 처음 지을 때에 예 이렇게 부수개.{집을 처음 지을 때 이렇게 부엌}

10603 # 집우 짙을 적에 이룽기 이 이 장판 밑에다가서르 이룽기 구새르 이룽기 구새 이룽기 구새르 이룽기 구새 이룽기 아무래 그렇게 한답더구마. 개 어떻게 그거 하는지 그거 사 모릅지.{집을 지을 때 이렇게 이 장판 밑에다가 이렇게 굴뚝을 이렇게 굴뚝 이렇게 굴뚝을 이렇게 굴뚝 이렇게 생각건대 그렇게 한다더군요. 그래 어떻게 그거 하는지 그거야 모르지요.}

10603 @ 음. 예.{음. 예.}

10603 # 거저 이 이거 불우 불우 부수개애다 불우 넣어니 장판밑을르 구새 네레가구. 그담에 그게 지부우루 다 네레가서 지부이 이쪽에 마감에 여기와서 구새르 이룽기 해애 놓았지. 이룽기 구새 해애 놓으니 기래 이게 장판이 짝 덮어나짐.{그저 이 이거 불을 불을 부엌에다가 불을 넣으니 장판 밑으로 구들을 내고. 그 다음에는 그게 지붕으로 다 내려가서 지붕이 이쪽에 끝에 여기 와서 굴뚝을 이렇게 해 놓았지. 이렇게 굴뚝을 해 놓으니 그래 이게 장판이 모두 더워지지.}

10603 @ 음.{음.}

10603 # 개다나니 이런게 아무것두 없다나 거저 여기다가서르 자리르 동삼이문 조끔 두껍은 거 폐구 녀름이무 거저 조끔 얇은 거 폐구셔 거저 다 거저 이래 늪어자지.{그러니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저 여기다가 자리를 겨울이면 조금 두꺼운 거 펴고 여름이면 그저 조금 얇은 거 펴고서 그저 다 그저 이렇게 누워 자지.}

10603 @ 음. 예.{음. 예.}

10603 # 기래구 빠빠느 딸르 재비, 재비반에서 딸루 자구.{그리고 아버지는 따로 자기, 자기 방에서 따로 자고.}

10603 @ 재비반에서?{자기 방에서?}

10603 # 예.{예.}

10603 @ 음. 마마 빠빠 한 바아 아니 썼슴둥?{음. 자기 방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 방을 안 썼습니까?}

10603 # 한반에서 아니 잤습꾸마. 한반에서 아니 잤습꾸마.{한 방에서 안 잤습니다. 한 방에서 안 잤습니다.}

10603 @ 어째 부분데?{어째 부부인데?}

10603 # 마우재 따에 오니 거저 한 반에서 같이 잤지.{러시아 땅에 오니 그저 한 방에서 같이 잤지.}

10603 @ 아, 한반에서?{아, 한 방에서?}

10603 # 한반에서 같이.{한 방에서 같이.}

10603 @ 한반에서.{한 방에서.}

10603 # 예.{예.}

10603 @ 음. 음.{음. 음.}

10603 # 제 사말리서는 같이 사는 거 내 못 봤습꿈.{원 사말리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방에서 같이 사는 거 못 봤습니다.}

10603 @ 아, 그렇습등?{아, 그렇습니까?}

10603 # 어레셔 어레셔두 그런 게 생각히대니우꾸마. 이게 마우재따 그 이 소련 따이르 예. {어려서 어려서도 그런 것이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게 러시아 땅 그 이 소련 땅으로.}

10603 @ 음.{음.}

10603 # 으 베라베잔:느 블라가베:신스키랑 그런데 와서는 같이 잤습지 머.{베라베잔느 블라고베신스키랑 그런 데 와서는 부부가 같이 잤지요 뭐.}

10603 @ 음. 음.{음. 음.}

10603 # 사말리셔는 사말리촌에서는.{사말리에서는 사말리촌에서는}

10603 @ 음. 같이 아니자구. 음.{음. 같이 아니 자고. 음.}

10603 # 같이 아니 자구. 제 빠빠 제반에서 쉬구.{같이 안 자고. 자기, 아버지 자기 방에서 쉬고.}

10603 @ 으음, 음.{음. 음.}

10603 # 사말리셔는 그저 우리네르 데리구 거저 그 구들 우에서 그저 잤지.{사말리에서는 그저 우리네를 데리고 그저 그 구들 위에서 잤지.}

10603 @ 마마.{어머니.}

10603 # 마마가 우리 서이.{어머니와 우리 셋.}

10603 @ 음.{음.}

10603 # 그래 그저.{그래 그저.}

10603 @ 으음. 음. 음. 그러면은 그때 사말리 그 동네 마우재 사, 마우재덜이 있었습등?{음. 음. 음. 그러면 그때 사말리 그 동네에는 러시아인들이 있었습니까?}

10603 # 없었습꾸마. 사말리에션 마우재 없었습꾸마. 예.{없었습니다. 사말리촌에서는 러시아인이 없었습니다. 예.}

10603 @ 그림 집은 고려.{그림 집은 고려}

10603 # 그 집이 거저 예 음 이룽기 이룽기 짚기는 마우재집터르 저어두 어떤 집에서는 그 베치개르 그래 하 하구. 우리네는 우리집우느 구들집이 돼와서 없었습꾸마, 베치개. 베치개 잇은 게 어떤가하니까더 이렇게 딸루 나가서 딸루 나가서 예 마우재 그 베치개르 마우재떡으 굽느라구 베치개르 그거 쌓아 놓으니 그게 조끔 있었지.{그 집이 그저 이렇게 이렇게 짓기는 러시아집처럼 지어도 어떤 집에서는 그 베치카를 설치하고. 우리네는 우리집은 구들집이 되어서 베치카가 없었습니다. 베치카 잇는 것이 어떤가 하면 이렇게 따로 나가서 따로 나가서 예 러시아 베치카를 러시아 빵을 굽느라고 베치카를 그거 쌓아 놓으니 그런 게 조금 있었지.}

10603 @ 음.{음.}

10603 # 괴래구서는 없었습꾸마, 베치께. 시적 끓이는 거는 가매애다 그저 가매애다. 그저 한 짝애다는 밥우 한짝애다는 장물으 하구.{그 외에는 빼치카가 없었습니다. 끼니를 끓이는 것은 술애다 그저 술애다. 그저 한 쪽 술애다 밥을 짓고 한 쪽 술애는 국을 끓이고.}

10603 @ 음.{음.}

10603 # 괴래구 고저 해앰이라는 거는 그저 김치 뷔김치구 무스거 배채김치구 무끼김치구. 우리 그래.{그리고 그저 반찬이라는 것은 그저 김치 오이김치 뭐 배추김치 무김치고. 우리 그렇게 (살았지).}

10603 @ 음.{음.}

10603 # 그 사말리 잇을 적에는 크기 크기 무슨 해앰이 잇었습등? 밥이 장물이무 그뿐이지. {그 사말리에 살 때에는 크게 무슨 반찬이 있었습니까? 밥과 국 그뿐이지.}

10611 @ (웃음). 음. 음. 그러면은 그때: 음:: 이 집에다가 무슨 예: 이렇게 신을 모시구 하는 그런 건 없었습니까?{음. 그러면 그때 음 이 집에다가 무슨 이렇게 신을 모시고 하는 그런 건 없었습니까?}

10611 # 없었습꾸마, 없었습꾸마. 없었{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없었}

10605 @ 요기 집 이름을 집에 요:: 부분 부분 부분 다 이름이 있대님등?{요기 집 이름을 집에 요 부분 부분 부분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10605 # 괴래.{그래.}

10605 @ 부수개요, 텅때요{부엌이요, 시렁이요}

10605 # 예.{예.}

10605 @ 가맏목이요.{부뚜막이요.}

10605 # 가맏목이요.{부뚜막이요.}

10605 @ 예. 이름우 다 얘기해 보시면.{예. 이름을 다 말해 보시면.}

10605 # 새애기 반이 이게. 더 남자덜 반이구. 이게 듯간이구.{이게 처녀 방. 저 남자들 방이고. 이게 뒤채고.}

10605 @ 음. 아까 말씀하신 듯간이구.{음. 아까 말씀하신 뒤채고.}

10605 # 예.{예.}

10605 @ 음. 요거는 새애기덜이 그 이렇게 잠우 자는 이 방은 무슨 이름이 없었습등?{음. 요거는 처녀들이 자는 이 방은 이름이 없었습니까?}

10605 # 없었습꾸마. 그거 그저 새애기반이라구 그저 그랩더구만.{없었습니다. 그거 그저 ‘새애기방’이라고 그거 그러더군요.}

10605 @ 예. 새애기방이라구.{예. ‘새애기방’이라고.}

10605 # 새애기 바~이라구. 이게.{‘새애기방’이라고. 이게.}

10605 @ 빠빠가 이렇게 사시던 방은 요거는 이름이 없었습등?{아버지가 이렇게 사시던 방은 이름이 없었습니까?}

10605 # 없었습꾸마 고저.{없었습니다. 그저.}

10605 @ 웃방이요 고방이요 하늬구방이요 이런 말은 없었습등?{윗방이요 ‘고방’이요 ‘하늬고방’이요 하는 이런 말은 없었습니까?}

10605 # 그런 말이 있습더구마. 웃바~이 있구 아랫바~이 있구. 굿바~이 있구. 그런 말은 들었습꾸마. 갠게 우리집에서는 없었습꾸마, 무슨. 어느 거 웃반이라구 했는지 빠빠반의 웃반이라구 했는지. 이거는 아랫반이. 거저 우리네는 보통 거저 마마 괴래 그저 여기서 자구 그래 니불이랑 자리랑 가지구 그래네는 새애기반으로 딜에가거라 딜에가거

라. 그저 그러지.{그런 말이 있더군요. 윗방이 있고 아랫방이 있고. ‘굿방’이 있고.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무슨 그런 방이 없었습니다. 어느 것을 윗방이라고 했는지 아버지 방을 윗방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랫방. 그저 우리네는 보통 그저 어머니가 그렇게 그저 여기서 자고 그래 이불이랑 요를 가지고 그러면 새애기방으로 들어가거라 들어가거라 그저 그러지.}

10605 @ 음. 음.{음. 음.}

10605 # 그런 말으느 그 있었습지. 듣기는 들었습꾸마, मामा게서. 윗반두 있구 아랫반두 있구 무슨.{그저 그러지. 그런 말은 있었지요. 듣기는 들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윗방도 있고 아랫방도 있고 무슨.}

10614 @ 그 사말리에서 이렇게 사시면서:: 그 에 मामा가 무스거 하지 말라, 무스거 하문 아니 좋단다:, 머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없슴등?{그 사말리에서 이렇게 사시면서, 어머니가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하면 안 좋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까?}

10614 # 있습꾸마.{있습니다.}

10614 @ 그러니까 말씀해 주옵쇼.{그러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10614 # 예예. 아암.{예. 음.}

10614 @ 문디방에 앉지 마라{문지방에 앉지 마라}

10614 # 그래꾸마. 우티르 뺏어서두 우티르 뺏어두 다배놓디 말라.{그렇습니다. 옷을 벗어서도 옷을 벗어도 뒤집어 놓지 마라.}

10614 @ 아아.{아아.}

10614 # 괴래구 음..... 우리 मामा게 무시게 많았습꾸마. 괴래구 이룻기 우리 조곰 조곰 커서 무스거 이 보션이나 손슈건이랑 췌자구서 괴래니문 발써 나 해 안즉두 아니 넘어 갔는데 점심 후에 괴래네는 발써 괴랩꾸마. 점심 후에 셔방, 셔답이랑 이런 거 췌대인 다, 췌대인 다. 괴래구 넌네 이룻기 가서 우리집에 홀 누기 오대니겠슴등? 돈우 꾸나 일리(+ или) 괴래무 돈으 저녁에두 아니 꺾우구.{그리고 음 우리 어머니에게 무엇이(무슨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조곰 조곰 커서 무슨 이 버션이나 손수건을 빨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써 해가 아직도 안 넘어 갔는데, 점심 후에 그러면 벌써 그렇습니다. 점심 후에 빨래랑 이런 거 빨지 않는다, 빨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네 이렇게 가서 우리 집에 갑자기 누가 오지 않습니까? 돈을 꾸거나 혹은 그러면 돈을 저녁에도 안 꾸어주고.}

10614 @ 음.{음.}

10614 # 괴래구 이런 이런 이런 거 이거 데디는 것두 저녁에 아니 데디구.{그리고 이런 이런 이런 거 이거 버리는 것도 저녁에는 안 버리고.}

10614 @ 음.{음.}

10614 # 괴래구 발뚱이랑 손툇이랑 꺾아서.{그리고 발뚱이랑 손툇이랑 꺾아서}

10614 @ 아아.{아.}

10614 # 콧김우 췌와서, 콧김 이르.{콧김을 췌어서, 콧김 이렇게}

10614 @ 아아.{아.}

10614 # 콧김우 췌와서 괴래 데디디. 사적에 아니 데디구. 괴래구 이거 꺾는 것두 저녁에 아니 꺾는다고.{콧김을 췌어서 그렇게 해서 버리지. 사방에 안 버리고. 그리고 이거 꺾는 것도 저녁에는 안 꺾는다고.}

10614 @ 아아. 또 뭐 없겠슴등? 또 좀 더 많이 가르쳐 주옵쇼. 예예.{아, 또 뭐 없겠습니까? 또 좀 더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예.}

10614 # 예. 개 또 무슨. 괴래구 누기, 누기르, 내 내 어떤 적에느 मामा게 올 적에네느 예 자

아 주대임등? 저녁에 자아 주무 거기다가 소곰 꼭 꼭, 올, 베치까 우에다 올레놓았다
가 소곰 놓아서 그래 주웁꾸마.{예. 그리고 또 무슨. 그리고 누가, 누구를, 내가 내가
어떤 때에는 어머니에게 올 때면 예 장을 주지 않습니까? 저녁에 장을 주면 거기다
가, 소금을, 꼭 꼭 빼치카 위에다 올려놓았다가 소금을 놓아서 그렇게 해서 줍니다.}

10614 @ 아아. 어때?{아아. 어째?}

10614 # 어때 그런지 그렇다꾸마.{어째 그런지 그렇습니다.}

10614 @ 음.{음.}

10614 # 그래 이 팔툽이랑 손툽이랑 사적에랑 뿌레테디무 어드메 저녁에 갈 때 두에 오는 같
으다구. 그렇기 뿌레테디디 말라구. 그래구 셔답두 낮에 싣디 저녁엔 싣디 말라구.{그
래 이 발툽이랑 손툽이랑 사방에 던지면 어디 저녁에 갈 때 뒤에 누가 오는 것 같다
고. 그렇게 던지지 말라고. 그리고 빨래도 낮에 빨지 저녁에는 빨지 말라고.}

10614 @ 아아.{아.}

10614 # 그래구 우티르 뺏어서 저녁에 잘 적에라 우티르 뺏어서 다배놓디 말라구.{그리고 옷
을 벗어서 저녁에 잘 때에는 옷을 벗어서 뒤집어 놓지 말라고.}

10614 @ 음.{음.}

10614 # 다배놓오무 남에게 다배배운다구.{뒤집어 놓으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10614 @ 으음.{음.}

10614 # 그래구.{그리고}

10614 @ 어티기 놓는 게 다배놓는 검두?{어떻게 해 놓는 것이 ‘다배놓는’ 것입니까?}

10614 # 이거 이래 뺏으무 홀 다배대님등? 그래무.{이거 이렇게 뺏으면 뒤집어지지 않습니
까? 그러면}

10614 @ 아아.{아.}

10614 # 대비 이룽기 해놓아야디 대비 이룽기. 님는 거터르 이룽기 놓아야디. 이룽기 다배 아
이 놓는다구.{다시 이렇게 해놓아야지 다시 이렇게. 입는 것처럼 이렇게 놓아야지. 이
렇게 뒤집어 안 놓는다고.}

10614 @ 음. 음. 또 뭐, 뭐 많을 터인데요, 마마께서 에 말씀하신 것이{음. 또 뭐 많을 터인
데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이.}

10614 # 예.{예.}

10614 @ 뽀뽀 하디 마라.{무엇 무엇을 하지 마라.}

10614 # 너네 그래구.{너희 그리고.}

10614 @ 밥우 먹을 때애는 밥상우에다 숟가락으 젓가락 절가락으 음 술으 술으 절가락으 어
떻게 하디 말라, 머 밥우 먹을 때애는 내:기 하디 마라, 그런 말은 없었슴등?{밥을 먹을
때에는 밥상 위에다 숟가락을 젓가락을, 음, 숟가락을 젓가락을 어떻게 하지 마라, 뽀
뽀를 먹을 때에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런 말은 없었습니까?}

10614 # 그런거느 글썸 먹을 적에 말은 하디 말라구 하구. 그래구 밥이랑, 밥우 먹을 적에 밥
우 먹을 적에 이룽게 무스거 길이다 말라구. 먹으무 그거 싣 먹구.{그런 것은 글썸 밥
먹을 때 말은 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밥, 밥을 먹을 때에 밥을 먹을 때에 이렇게
무엇을 남기지 말라고. 먹으면 그거 싣 먹고.}

10614 @ 음.{음.}

10614 # 그래구 청에써볼라.{그리고 ?}

10614 @ 음.{음.}

10614 # 책으, 책으 니르는 것두 앉아 니르디 눕어 니르디 말라.{책을, 책을 읽는 것도 앉아
읽지 누워 읽지 마라.}

10614 @ 아아. 음. 음. 음. 음. 또 뭐 없슴둥?{아. 음. 또 뭐 없습니까?}

10614 # 거 모르겠습꾸마.{거 모르겠습니다.}

10614 @1 쭈, 쭈저 있잖슴둥? 이거를 이렇게 놓지 마라. 이런 얘기는 없었슴둥?{수저 있잖습니까? 이걸 이렇게 놓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10614 # 가만 잇습쇼.{가만 있으세요.}

10614 @ 수저라구 하무 아나 모르지.{수저라고 하면 아나 모르지.}

10614 # 음.{음.}

10616 @ 뭐 신랑재를 만나구 뭐 혼셰르 하구 그럴 때 뭐 뭐는 안 텐다 그런 말은 없었슴둥?{뭐 신랑을 만나고 뭐 혼사를 하고 그럴 때 뭐 뭐는 안 된다 그런 말은 없었습니까?}

10616 # 없었습꾸마.{없었습니다.}

10616 @ 음.{음.}

10616 # 없습꾸마.{없습니다.}

10616 @ 음. 어떤 사람하구는 결혼하디 마라, 그런 말은 없었슴둥? (웃음). 음.{음. 어떤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그런 말은 없었습니까? (웃음). 음.}

10616 # 그런 말 없었습꾸마.{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10616 @ 음.{음.}

10616 # 그저 우리네 우리 우린 사는 게 거저 마우재덜이 많다나니까더 그거는 그건 반대 했습꾸마. 마마 그랬습꾸마. 너네 마우재겐 식집 못 간다. 제 고렷사름게 식집우 가야 대지 마우재게 식집우 가무 내 너네르 싹 집우루 아니 딜에놓구 알아두 못 본다구 셔.{그저 우리네 우리 우리는 사는 것이 그저 러시아인들이 많고 보니 그거는 그건 반대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너희 러시아인에게는 시집을 못 간다. 자기 고려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되지 러시아인에게 시집을 가면 내 너희들을 모두 집으로 안 들여 놓고 못본 체한다고.}

10617 @ 음. 이롭게 그: 혼셰라든가 환갑이라든가 이런 큰: 잔채 있을 때: 그때 에 무슨 초상집에, 상셰난 집에 가지 마라 머 그런 말은 그런 건 없었슴둥?{음. 이롭게 그 혼사라든가 환갑이라든가 이런 큰 잔치가 있을 때 그때 무슨 초상집에, 상사 집에 가지 마라 뭐 그런 말은 없었습니까?}

10617 # 그런 말은 없었습꾸마. 어쩐가니까더 이제 에 녀자 몸이 몸이 그러 가 그 몸이 몸이 그러대네는 장셋집우 가지 말라구 했습꾸마.{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어쩐가 하니 이제 여자 몸이 그렇지 않으면 장사(葬事) 집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10617 @ 아:르.{아이를}

10617 # 아:르 예. 예.{아이를 예. 예.}

10617 @ 가졌을 때.{가졌을 때}

10617 # 예. 아:르 가졌을 때는 장셋집에 아니 간다구. 아니 가구.{예. 아이를 가졌을 때는 장사 집에 안 간다고. 안 가고.}

10617 @ 음.{음.}

10617 # 귀래구 임석하는 것두 자에 갈 적에 무스거 장셋집우 아니 가구.{그리고 음식을 하는 것도 장에 갈 적에 무슨 장셋집을 안 가고.}

10617 @ 음.{음.}

10617 # 장셋집우 갔다, 갔다오무 자이랑 아니 한다꾸마. 그달에 아니하구.{장사 집을 갔다, 갔다 오면 장을 안 아니 한답니다. 그 달에 안 하고.}

10617 @ 장셋집에 갔다오무?{장사 집에 갔다 오면?}

10617 # 예. 자아 아니 한다꾸마.{예. 장을 안 답는답니다.}

10617 @ 자아.{장을}

10617 # 음.{음.}

10617 @ 아아.{아아}

10617 # 자아 아니 한다꾸마.{장을 안 답는답니다.}

10617 @ 음.{음.}

10617 # 괴래구 아아 설 적에 장셋집우 아니 가구.{그리고 아이를 설 적에 장사 집을 안 가고.}

10617 @ 음. 아:.{음. 아.}

10617 # 아르 설 적에.{아이를 설 적에.}

10617 @ 예.{예.}

10617 # 장셋집 아니 가구.{장사 집 안 가고.}

10617 @ 설 적에, 설 적에?{'설' 적에, '설' 적에?}

10617 # 설 적에, 아:르 설 적에, 설 적에.{'설' 적에, 아이를 '설' 적에, '설' 적에.}

10617 @ 예에. 설 적에. 음. 그러면은 어: 장셋집에서 지켜야 텔 거 있대임등?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그런 것들은 무스거 있었슴등?{예.'설' 적에. 음. 그러면 어 장사 집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10617 # 그런 건 모르겠습꾸마 내.{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내가.}

10617 @ 뉘기 상사, 상세나무 이런 일으 하무 안 텐다 저 더런 일으 하무 안 텐다 그런 건 없었슴등?{누가 죽으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저, 저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없었습니까?}

10617 # 그런 거 없었습꾸마. 몰랐습꾸마.{그런 거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10701 @ 그럼 넷날에:는 예, 예 무슨 병이 있었슴등? 무슨 병을 제일 무섭아하구 그랬슴등? {그럼 옛날에는 예 무슨 병이 있었습니까? 무슨 병을 제일 무서워하고 그랬습니까?}

10701 # 사말리에서 무슨 벼이 그렇기 닛어 닛어 닛어 아. 우리 때 어 어찌 괴랜가데 사말리 셔는 마마 우리 마마 마마게 구신이 많다구 했습꾸마, 구신이.{사말리촌에서 무슨 병이, 그렇게 잇어, 잇어, 닛어 아니, 아. 우리 (아이) 때 어 어찌 그랬는가 하면 사말리에서는 어머니 우리 어머니 어머니에게 귀신이 많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10701 @ 음.{음.}

10701 # 괴래다나니 무스거 뉘집에서 누기 앓으네느 어찌네느 구신이 빠져 앓는 다구 하압터 구마. 구신이 빠져 앓는다구.{그렇다 보니 무슨 뉘 집에서 누가 앓으면 어찌하는가 하면 귀신이 들어서 앓는다고 하더군요. 귀신이 들어서 앓는다고.}

10701 @ 음.{음.}

10701 # 개네. 괴래네느 어때 구신이냐무 그거 장세 잘못하나, 괴래구 상세난 사름이 무스 우티나 그런 거 우리 고렷사람은 태우대님등 싹? 태우는게, 게 그 사름우 소 좋 좋아하던 우티랑 태우대네네느 그 사름이 와서 달라구 한다구. 그 그러 그래길래 그런 거느 싹 그거 그 사름 거 싹 가져가라르 싹 태우지.{그러면. 그러면 어찌 귀신이냐고 하면 그거 장사를 잘못 지내거나, 죽은 사람이 무슨 옷이나 그런 것을 우리 고려사람들은 태우지 않습니까 모두? 태우는데, 게 그 사람을 좋아하던 옷이랑 태우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와서 달라고 한다고. 그 그러기에 그런 것은 모두 그거 그 사람의 것을 모두 가져가도록 모두 태우지.}

10701 @ 음. 음.{음. 음.}

10701 # 괴게 괴게 옳은지 모른지 예? 마마 상세나대냈슴등?{그것이 그것이 옳은지 어떤지

예?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10701 @ 음.{음.}

10701 # 마마 상세나서, 마마 님구 땡긴 던 저구리 잇었습꾸마 예:. 기래 내 이룽기 밭에 땡기는게 내 애끼 괴랩더구만. 이거 마마 님던 게 이리 네 그거 님구 더기 밭에 땡기라구. 내쳐르 땡기라구 괴랩더구마. 그런데 한 번 내게 꿈에 와서 괴랩구마. 꿈에 보는데. 내 마마, 내, 예 애끼 서이 우리 딸집 내 딸집으 놀라 간 거터르 그러. 개 놀라 놀라갔다서르 집우루 오는데 꿈에 괴랩꾸마, 마마. 내르 주운 저구리보구 괴랩구마. 이게 내 저구리냐? 꿈에 괴랩더구마 내가. 내 그랬지 머. 그게 마마 저구리 아니구 무시김등? 그럼 내 그거 님을 만하냐? 그래 야 꿈에, 마마 저구린거 님댕:구! 내 어전 님 어시나까 내 님구 가랴? 기래, 마마 님구 가오. 기래구서르 깨어나서 내 아끄가 괴렀습꾸마. 이 저구리 가져다가 날래 마마게다 태워라. 마마 이 저구릴래 내한테르 왔다구서르. 저구리 찾아.{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입고 다니던 저고리 있었습다 예. 그래 내 동생이 그러더군요. 이렇게 밭에 다니는데. 내 아우가 그러더구면. 이거 어머니 입던 것이니 이렇게 네 그거 입고 밭에 다니라고. 나처럼 입고 다니라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한 번 내게 (어머니가) 와서 그러니다. 꿈에서 보는데. 내 어머니, 나, 동생 셋이 우리 딸집 내 딸집을 놀러 간 것처럼 그렇게. 그래 놀러 놀러갔다가 집으로 오는데 꿈에 그러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주운 저고리를 보고 그러니다. 이게 내 저고리냐? 꿈에 그러더군요 나에게. 내 그랬지 뭐. 그게 어머니 저고리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럼 내 그거 입을 만하냐? 그래 음 꿈에, 어머니 저고리인데 입지 았고! 내가 이젠 입었으니까 내 입고 가랴? 그래, 어머니 입고 가오. 그래고서 깨어나서 내 동생에게 그러했습니다. 이 저고리 가져다가 빨리 어머니에게 태워라(어머니 무덤 앞에 가 태워라). 어머니 이 저고리 때문에 나한테 왔다고. 저고리를 찾아.}

10701 @ 음.{음.}

10701 # 기래 가 태웠습꾸마. 개 기게 옳은지 아니 옳은지 꿈에 그렇기 와 배웠습더구마 내게.{그래 가서 태웠습다. 그래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 꿈에 그렇게 와 보였더군요 나에게.}

10701 @ 예. (웃음). 그런 말.{예. (웃음). 그런 말.}

10701 # 기래길래, 기래길래 마마느 예 기래길래 기래꾸마. 어쩐가하니까더 사람이 상세나서 열해는 있다구.{그러기에, 그러기에 어머니는 예 그러기에 그러했습니다. 어떠한가 하니 까 사람이 죽어서 열 해는 (이승에서) 있다고.}

10701 @ 음.{음.}

10701 # 열 해는 있다구.{열 해는 있다고.}

10701 @ 열 해를.{열 해를.}

10701 # 열해르.{열 해를.}

10701 @ 아.{아.}

10701 # 열 해르 있다구 사람이. 이룽기 무스거 그 기래는 게. 열 해 후에는 아무것두 없다구 그러지.{열 해를 있다고 사람이. 이렇게 무엇을 그러는 것이. 열 해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지.}

10701 @ 으음. 열 해는 있다구.{음. 열 해는 있다고.}

10701 # 예.{예.}

10701 @ 아아. 그러니까 열 해는 여기서 예 이렇게.{아. 그러니까 열 해는 여기서 이렇게}

10701 # 예.{예.}

10701 @ 떠다니구.{떠돌아다니고.}

10701 # 예. 괴래구.{예. 그리하고}

10701 @ 열 해 기나무.{열 해가 지나면}

10701 # 열 해 지나무 없다구. 다 갔다구.{열 해가 지나면 없다고. 다 갔다고.}

10701 @ 하늘루 올라가구.{하늘로 올라가고.}

10701 # 하늘루 올라갔다구. 개 사름이 상세나서 산으는 열 해는 댕게야 댕다구.{하늘로 올라 갔다고. 그래 사름이 죽어서 산소는 열 해는 다녀야 된다고.}

10701 @ 음.{음.}

10701 # 열해 후에는 아무것두 없다구.{열 해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10701 @ 음. 음. 음. 그럼 넷날에 그: 무섭운 병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한번 걸리며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파이구.{음. 음. 음. 그럼 옛날에 그 무서운 병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한번 걸리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파이고}

10701 # 그게.{그게}

10701 @ 그런 거 있대님둥?{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10701 # 그 벼~이 더기.{그런 병이 저기}

10701 @ 마누래?{천연두?}

10701 # 무슨 벼이 그 무스...{무슨 병 그 무슨...}

10701 @ 마누래?{천연두?}

10701 # 예. 앓으무 이게 이게 구냐~구냐~ 구냐~ 나구. 그런 벼이 있었답더구마. 있구. 기래구 어떤가 펫베이.{그 병이 무슨 앓으면 (얼굴에) 구멍이 구멍이 생기고. 그런 병이 있었답니다. 있고. 그리고 어떤가 하면 폐병이}

10701 @ 아. 예.{아. 예.}

10701 # 펫베이. 예. 펫베이 하구.{있고 어떤가 폐병이, 폐병을 앓고.}

10701 @ 음. 음. 그런데 마느래 같은 것이 아주 무섭운 베이라서 우리 집에 오디 말라구 이렇게.{음. 음. 그런데 천연두 같은 것이 아주 무서운 병이라서 우리 집에는 오지 말라고 이렇게}

10701 # 예.{예.}

10701 @ 뭐 하는 게 있대님둥?{뭐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0701 # 예. 예.{예. 예.}

10701 @ 그런 것 좀 말해 주옵소.{그런 것 좀 말해 주십시오.}

10701 # 아:덜이 이렇기 무슨 도레기르 해애두 발써 읊(+ [음])는다구 아니 댕기구.{아이들이 이렇게 무슨 ‘도레기’를 해도 읊는다고 안 다니고.}

10701 @ 도레기.{도레기.}

10701 # 예.{예.}

10701 @ 으음. 도레기는 무슨 병임두?{으음. ‘도레기’는 무슨 병입니까?}

10701 # 그게 마우재말르 꺾어리(+ корь).{그게 러시아말로 ‘꺾어리’(홍역).}

10701 @ 음. 꺾어리?{음. ‘꺾어리’?}

10701 # 꺾어리 예. 그거느 아:덜 베이.{홍역 예. 그건 아이들이 걸리는 병.}

10701 @ 음.{음.}

10701 # 자란이덜은 그런 벼어 드:물기 드:물기.{어른들은 그런 병을 드물게 드물게.}

10701 @ 음.{음.}

10701 # 어레셔 하대니무 어떤 적에느 그 사름덜이 아아덜 걸리구.{어려서 하지 앓으면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 걸리고.}

10701 @ 음. 음.{음. 음.}

10701 # 기래구 모르지 무슨 베인지 그 답에는. 우리 마마는 내 우리 마마는 열 열 해 야들 살에 [x집x]에서 나서 예레둑 살에 시집와서 한 번두 앓대닝구 행불두 한 번두 아니 하구 거저 그냥 일했답더구마. 어떨 적에느 기랩답더구마. 야 쪼끔 앓아서 행불으 해 애서 한 사날 집에 앓아있대닝겔나. 기랜게 잔칫날 저녁에 벼이 든 게 그냥 해롭아했 습꾸마. 무슨 베인지. 기래 마마 기랬습꾸마. 내게 너어 빠빠 집안 안이 구신이 많애 서 구신이 빠져서 내 그냥 앓는다구.{그리고 (그 밖에는) 모르지 무슨 병이 있는지 그 다음에는. 우리 어머니는 내 우리 어머니는 1910년 여덟 살에 [x집x]에서 나서 열여 똫 살에 시집을 와서 한 번도 앓지 않고 감기도 한 번도 앓지 않고 그거 그냥 일했다 더군요. 어떨 때에는 그랬다더군요. 야 쪼끔 앓아서 감기를 앓으면 한 사날 집에서 앓 아 있지 않겔나. 그런 것이 혼인 잔칫날 저녁에 병이 들어 그냥 앓았습니다. 무슨 병 인지. 그래 어머니 그랬습니다. 내게 너의 아버지 집안 안에 귀신이 많아서 귀신이 들 어서 (내가) 그냥 앓는다고.}

10701 @ 음. 음.{음. 음.}

10701 # 우리 마마는 그랬습꾸마.{우리 어머니는 그랬습니다.}

10701 @ 네. 그 마누래병 앓는 사람을 보셨습둥?{네. 그 천연두 앓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10701 # 못봤습꾸마.{못 봤습니다.}

10701 @ 직, 즉금까지 한 번두?{지, 지금까지 한 번도?}

10701 # 한번두 못 봤습꾸마.{한 번도 못 봤습니다.}

10701 @ 아. 그러면은 어린 아들이 한 번씩 걸리는 병이 있대님둥? 사람이 한 번 에 세상에 나오문.{아.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한 번씩 걸리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번 에 세상에 나오면}

10701 # 그게 인차.{그게 곧}

10701 @ 한 번 꼬옥 하구 가는 병.{한 번 꼭 하고 가는 병.}

10701 # 그게.{그게}

10701 @ 그게 도레기?{그게 도레기?}

10701 # 도레기.{도레기}

10701 @ 음. 도?{음. 도?}

10701 # 도리.{도리}

10701 @ 도?{도?}

10701 # 도레기.{도레기}

10701 @ 도레기.{도레기}

10701 # 예.{예.}

10701 @ 도뤄?{도뤄?}

10701 # 돌빼이, 돌예기.{돌빼이, 돌예기}

10701 @ 예?{예?}

10701 # 도레기.{도레기}

10701 @ 음. 도뤄김둥? 왜애김둥?{음. ‘도뤄기’입니까, ‘왜애기’입니까?}

10701 # 왜애기. 대애기, 웁습꾸마. 대애기.{왜애기. ‘대애기’ 웁습니다. ‘대애기’}

10701 @ 아아 왜애김둥?{아아? 왜애기(홍역)입니까?}

10701 # 대애기병. 대애기르 해:. 예.{홍역. 홍역을 해. 예.}

10701 @ 왜애기.{홍역.}

10701 # 대애기.{홍역.}

10701 @ 으음. 음. 그러면 너름에: 너름에 이릉게 요기에 에 빨긋빨긋하게 쪼꼬맴게 돈을 게

잇대님등? 땀이 많이 나아무.{홍역. 음. 음. 그러면 여름에 여름에 이렇게 요기에 빨갛
빨갛하게 쪼그맣게 돋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땀이 많이 나면.}

10701 # 예. 예. 음. 그거 고렷벼어 고렷사람은 모르겠습꾸마, 무슨 베인지.{예. 예. 음. 그거
고려병을 고려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무슨 병인지.}

10701 @ 음.{음.}

10701 # 마우재말르느 괴랬꾸마. 그 가 까끄 나즈바이썸(+ как назваться). 마우재 이
름두 낮어뿌랬습꾸마 어전, 그 벼어 하는 거.{러시아말로로는 그랬습니다. 그 어떻
게 불렀나. 러시아어 병명도 잊어 버렸습니다 이젠, 그 병을 앓는 것.}

10701 @ 음. 음. 그럼 얼굴이 이렇게 예 이렇게 마르 건조해서 이 피부가 이렇게 요 살갓
이.{음. 음. 그럼 얼굴이 이렇게 예 이렇게 마르, 건조해서 이 피부가 이렇게 요 살갓
이}

10701 # 예.{예.}

10701 @ 음 이게 마르는 거 잇대님등? 그 머 버즘이라구 아니했습등?{음 이게 마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버즘이라고 안 했습니까?}

10701 # 버즘이. 버즘이.{‘버즘이’(버짐). ‘버즘이’.}

10701 @ 예?{예?}

10701 # 버즘이.{‘버즘이’.}

10701 @ 아. 버즘이.{아. ‘버즘이’.}

10701 # 예. 버즘빼~이, 버즘이.{ 예. ‘버즘병이’, ‘버즘이’.}

10701 @ 버즘이.{버짐}

10701 # 예. 버즘이.{예. 버짐.}

10701 @ 음. 음. 음. 그러면 이 젊은 아:덜이 새애기나 선스나나 젊은아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는 거 잇대님등?{음. 음. 음. 그러면 이 젊은 아이들이 처녀나 사내아이나 젊은아이
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0701 # 예. 그것두 그것두 그것두 무슨 벼인두 모르겠습꾸마.{예. 그것도 그것도 그것도 무
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10701 @ 음. 뉘기나 다 여기 다 나대님등? 고때 데문. 열 한 서너 살 대여섯 데면은 여기에
뉘가 나대님등? 음 그건 머 이름이 없었습등?{음. 누구나 다 여기 다 나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열 한 서너 살 대여섯 살이 되면 여기에 뉘가 나지 않습니까? 음 그건
뉘 이름이 없었습니까?}

10701 # 모름꾸마.{모릅니다.}

10701 @1 쪼그맣게 누우렇게 이렇게 나는 거 있지않습등?{쪼그맣게 누렇게 이렇게 나는 것
이 있지 않습니까?}

10701 # 이 [x스따꼬이x], 음.{이 [x무엇x], 음}

10701 @ 그럼 고, 고기르 잘못 먹으문 음 이렇게 몸에 이렇게 돋는 거느 무스거 무스거라 했
습등? 음식으 임석을 상한 걸 먹으면은 몸에 빼얼절게 나는 거 잇대님등?{그럼 고 고
기를 잘못 먹으면 음 이렇게 몸에 이렇게 돋는 것은 무엇이래 했습니까? 음식을 음식
을 상한 걸 먹으면 몸에 뻔절게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0701 # 모르꾸마.{모릅니다.}

10701 @ 그걸 두두레기 뉘 또드래기라 아이 했습등?{그걸 ‘두두레기’ 뉘 ‘또드래기’라고 안
했습니까?}

10701 # 그건 두두레기라 하압꾸마.{그건 ‘두두레기’(두드러기)라 합니다.}

10701 @ 예?{예?}

10701 # 예. 이렇게 나는 건 두두레기. 도드레기.{예. 이렇게 나는 것은 ‘두두레기’. ‘도드레기’}.

10701 @ 예. 두두레기.{두드레기}.

10701 # 예.{예}.

10701 @ 으음.{음}.

10701 # 두두럭베이.{‘두두럭병’}

10701 @ 아, 두두럭베이.{아, ‘두두럭병’}.

10701 # 두두럭베이.{‘두두럭병’}.

10701 @ 음. 그런 것좀 가르쳐 주옵소. 또 판 게 뭐가 있는지?{음. 그런 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또 판 것이 뭐가 있는지?}

10701 # 모름꾸마.{모릅니다}.

10701 @ 두두럭베이.{‘두두럭병’}.

10701 # 도두락베이.{‘도두락베이’}.

10701 @ 또 또 무슨 거 있슴둥?{또 또 무엇이 있습니까?}

10701 # 게 또 무슨 베이 있는지{게 또 무슨 병이 있는지}

10701 @ 병중에 아주 몹쓸벼~이 있대임둥? 사람이 여기 이렇게 손가락이나 이렇게 몸 이 살이 썩는 벼~이 있대임둥? 다른 사람덜이 이렇게 무섭아서 가채비 아이 갈려구 하 재임둥?{병 중에 아주 몹쓸 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기 이렇게 손가락이나 이렇게 몸, 이 살이 썩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서 가까이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10701 # 고렷사람덜은 그거 무시기라 하는지 모름지. 마우재덜으느 그거 음. 나즈바이찌(+ на звать). 무슨 베이라구 하더구만 모르. 모르겠습꿈.{고려사람들은 그거 무엇이라 하는지 모르지요. 러시아인들은 그거 음. 이름. 무슨 병이라고 하더구먼 모르, 모르겠습니다.}

10701 @ 예. 그러면.{예. 그러면}

10701 # 아, 나즈바이?{아, 부르는 이름이?}

10701 @ 요기 눈 밑에 있대님둥? 요렇게 예. 요기에. 이렇게 이렇게.{요기 눈 밑에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예. 요기에. 이렇게 이렇게.}

10701 # 뽀두라지 난다구 하지.{뽀로지 난다고 하지.}

10701 @ 뽀두라지.{뽀로지.}

10701 # 뽀두라지 난다구.{뽀로지 난다고.}

10701 @ 음.{음}.

10701 # 뽀두라지.{뽀로지.}

10701 @ 뽀두라지. 음. 고게 오래 데문 그 속에 노오란 게 생기담둥? 그건 무슨거라구 함 둥?{뽀로지. 음. 고게 오래 되면 그 속에 노란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이라고 합니까?}

10701 # 모르겠습꾸마. 어 뽀두라지. 부스레미.{모르겠습니다. 뽀로지. 부스럼.}

10701 @ 음. 부스레미.{음. 부스럼.}

10701 # 부스레미, 뽀두라지.{부스럼, 뽀로지.}

10702 @ 부스레미. 음. 아까 말씀하신 그 돼애기 있대임둥? 그 돼애기에 걸리면은 어떻게 집에서 치료르 했슴둥?{부스럼. 음. 아까 말씀하신 그 ‘돼애기’(홍역) 있지 않습니까? 그 홍역에 걸리면 어떻게 집에서 치료를 했습니까?}

10702 # 예. 집에서{예. 집에서}

10702 @ 어떻게 했슴둥? 어떻게 치료르 했슴둥? 돼애기 그게 생기무?{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치료를 했습니까? 홍역이 그게 생기면?}

10702 # 무스거 내 우리 내 아덜이 두울이 돼애기르 할 적에두 무스거 크기 치료르 아니 했습꾸마. 거저 바깥으르두 아니 내해보내구 거저 집에서.{뭐 내 우리 내 아들 둘이 홍역을 할 적에도 뭐 크게 치료를 안 했습니다. 그저 바깥으로도 안 내보내고 그저 집에서.}

10702 @ 음.{음.}

10702 # 집에서 거저 구 고기라구셔.{집에서 그저 구 고기(?)라고.}

10702 @ 음. 먹는 거.{음. 먹는 거}

10702 # 먹는 거.{먹는 거}

10702 @ 이렇게 입히는 거 이런 거.{이렇게 입히는 거 이런 거}

10702 # 거저 낚히는 게랑 먹는 게랑 거저 보통 거저 그냥 그랬:지. 거저 바깥으르 아니 내보내구 괴래구 무스 물으 더기 어쩐가하니꺼더 마마는 그전은 많이 무스 그래는게 죽으 썩 맥입데. 죽으 썩셔는 그래 죽으 맥이구. 괴래구 거저 찻물두 맥이구 거저 그래.{그저 입히는 것이랑 먹는 것이랑 보통 그저 그냥 그랬지. 그저 바깥으로 안 내보내고 그리고 무슨 물을 저기 어떤가 하면 어머니는 그전에는 많이 무슨 그러는데 죽을 쑤어 먹이데. 죽을 쑤어서는 그래 죽을 먹이고. 그리고 그저 찻물도 먹이고 그거 그리 하고.}

10702 @ 음. 찻물르.{음. 찻물을.}

10702 # 예. 찻물두 맥이구 그렇게.{예. 찻물도 먹이고 그렇게.}

10703 @ 음식으 입석으 잘못 먹으무 뱃속에서 뱃속에서 이렇게 예 예 막 꾸루룩 꾸루룩 소리르 내면서 이렇게 요동으 치다가.{음식을 음식을 잘못 먹으면 뱃속에서 뱃속에서 이렇게 막 꾸르룩 꾸르룩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요동을 치다가}

10703 # 없지우지 머 많이.{언치지 뭐 많이.}

10703 @ 봉간으.{변소를}

10703 # 잘못 음식으 잘못 먹으무 없이웠다구 하지 머. 없이워서.{잘못 음식을 잘못 먹으면 언쳤다고 하지 뭐. 언쳐서}

10703 @ 없이워서.{언쳐서}

10703 # 예. 없이워서 속앓이르 하지.{예. 언쳐서 속병을 앓지.}

10703 @ 예. 음. 음. 그러면은 음: 속에서 그저 막 부글부글하다가:{예. 음. 음. 그러면 음 속에서 그저 막 부글부글하다가.}

10703 # 예.{예.}

10703 @ 어 막 밖으로 나올려구 하대님둥?{막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10703 # 예.{예.}

10703 @ 봉간에 가무 확 하구 쏘아지재임둥?{변소에 가면 확 하고 쏘아지지 않습니까?}

10703 # 예.{예.}

10703 @ 그거 무스거라 함둥?{그걸 무엇이라 합니까?}

10703 # 그게 속앓이, 속앓이.{그게 속병, 속병.}

10703 @ 속앓이.{속병.}

10703 # 예.{예.}

10703 @ 음. 설새라구는 아이했슴둥?{음. 설사라고는 안 했습니까?}

10703 # 아니.{아니.}

10703 @ 설새난다구.{설사난다고.}

10703 # 셀새한다. 셀새르 한다. 셀새르 한다.{설사한다. 설사를 한다. 설사를 한다.}

10703 @ 아, 셀새르 한다.{아, 설사를 한다.}

10703 # 예. 셀새한다.{예. 설사한다.}

10703 @ 아아. 셀새르 한다.{아, 설사를 한다.}

10703 # 예. 셀새한다. 셀새한다.{예. 설사한다. 설사한다.}

10703 @ 음. 음. 그 임석으 먹구 나서 예 임석으 먹을 때 잘못 넘기거나 예: 또 죠, 좋대닌
임석으 먹을 때에.{음. 음.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음식을 먹을 때 잘못 넘기거나 또 좋
지 않은 음식을 먹을 때에}

10703 # 음.{음.}

10703 @ 몸에 이렇게 그 생기는 그 병이나 뭐 증상이 있대임둥? 그런 건 어떤 게 있슴둥?
{몸에 이렇게 그 생기는 그 병이나 뭐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떤 것이 있
습니까?}

10703 # 그거 어떻게.{그거 어떻게.}

10703 @ 음. 먹은 게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데는데 이렇:게 이 숨이 들락날락하
는 데로 넘어가면은 예 어떤 그 증상이 생김둥?{음. 먹은 것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
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 숨이 들락날락하는 데로 넘어가면 어떤 증상이 생김니
까?}

10703 # 그렇게 이게 이게 넘어 아이 가구 이 그러문 게 붙으문 점심 먹은 게 네레 아니간
다, 네레 아니간다. 아무래 얹어왔다.{그렇게 이게 이게 안 넘어가고 그러면 거기에
(음식이) 붙으면 점심 먹은 것이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아무래도 언쳤다.}

10703 @ 음.{음.}

10703 # 얹어워서 네레 아니 간다구셔.{언쳐서 안 내려간다고}

10703 @ 음.{음.}

10703 # 게디 머.{그것이지 뭐.}

10703 @ 밥우 먹다가 이렇게 예 내애기르 많이 하면은 이렇게 입안에서 씹은 게 이렇게 식
도르 따라서 이렇:게 네레가야 데는데 그렇기 네레가지 못하구.{밥을 먹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 이렇게 입안에서 씹은 것이 이렇게 식도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
야 되는데 그렇게 내려가지 못하고}

10703 # 걸기웠다구 하지.{걸렸다고 하지.}

10703 @ 음.{음.}

10703 # 밥이 여기 걸기워서.{밥이 여기 걸려서.}

10703 @ 음. 걸기워서.{음. 걸려서.}

10703 # 걸기워서.{걸려서.}

10704 @ 으음. 걸기워서. 음. 그럼 밥우 잘: 먹구 예 꺼억하는 거 이건 뭐라구 함둥?{음. 걸
려서. 음. 그럼 밥을 잘 먹고 꺼억 하는 거 이건 무엇이라고 합니까?}

10704 # 꽤 꽤기난다구 하지.{딸꾹질하지.}

10704 @ 꽤기난다구.{딸꾹질한다고.}

10704 # 예. 꽤길 한다구.{예. 딸꾹질을 한다고.}

10704 @ 음. 음.{음. 음.}

10704 # 기래니문 트:림한다구.{그렇지 않으면 트림한다고.}

10704 @ 트림한다구.{트림한다고.}

10704 # 트림한다구.{트림한다고.}

10704 @ 그러면 자부램이 와서 예 어 허억 하는 건 무스거라 하암둥?{그러면 졸음이 와서

‘허억’ 하는 건 무엇이냐 합니까?}

10704 # 자부림이 와서.{졸음이 와서}

10704 @ 예. 제가 가끔 하재임등? 피곤해서. 어억 이렇게 하재임등? (웃음) 하폐움이라 함등?{예. 제가 가끔 하지 않습니까? 피곤해서. 어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웃음) 하품이라고 합니까?}

10704 # 하핼이 한다. 하핼 하 하핼한다구.{하품 한다. 하품 하품한다고.}

10704 @ 음?{음?}

10704 # 하핼한다구.{하품한다고.}

10704 @ 하핼한다.{하품한다.}

10704 # 하핼한다구.{하품한다고.}

10704 @ 음.{음.}

10704 # 자부림아서 하핼했다.{졸려서 하품을 했다.}

10704 @ 아. 자부림아서.{아. 졸려서.}

10704 # 자부림아서 하핼했다.{졸려서 하품을 했다.}

10704 @ 하핼했다.{하품을 했다.}

10704 # 예. 하핼이.{예. 하품.}

10704 @ 음. 그럼 밥우 이 잘못 먹어서 밥알이 요기 걸리면은 확 하구 이렇게 예.{음. 그럼 밥을 이 잘못 먹어서 밥알이 요기 걸리면 확 하고 이렇게 예}

10704 # 예. 그건 어떻게 어떻게 말하겠는가.{예. 그건 어떻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10704 @ 음. 그 그건 무스거라 함등? 사례들렸다고 이런 말은 아니 썼슴등?{음. 그 그건 무엇이냐 합니까? 사례 들렸다고 이런 말은 안 썼습니까?}

10704 # 예?{예?}

10704 @ 사례.{사례.}

10704 # 아. 그런 말은 못 들었습꿈.{아. 그런 말은 못 들었습니다.}

10704 @ 못 들었슴등?{못 들었습니까?}

10704 # 예. 못 들었습꿈.{못 들었습니다.}

10704 @ 음. 그러면 몸이 아주 그 피곤하거나 예: 뭐 음, 임석으 잘못 먹었을 때 세띠 있덤등? 세빠닥예. 거기 머 돈구.{음. 그러면 몸이 아주 피곤하거나 뭐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허가 있지 않습니까? 헛바닥이. 거기 머 돈고.}

10704 # 까리 돈았다고 합더구마. 세까리 돈았다고 합더구마.{헛바늘이 돈았다고 하더군요. 헛바늘이 돈았다고 하더군요.}

10704 @ 아, 그걸 세까리라구.{아, 그걸 헛바늘이라고.}

10704 # 예. 세까리라구 합더구마.{예. 헛바늘이라고 하더군요.}

10704 @ 아. 세까리.{아. 헛바늘.}

10704 # 예. 세까리라구 합더구마.{예. 헛바늘이라고 하더군요.}

10704 @ 으음. 음.{음. 음.}

10704 # 괴래 세까리, 세쓸이. 그렇기.{그래 (헛바늘을) ‘세까리’, ‘세쓸이’. 그렇게}

10704 @ 아.{아.}

10704 # 두 가지. 세까리. 괴래니문 세쓸이 돈았다고. 세쓸이 돈았다고.{두 가지로. ‘세까리’. 그렇지 않으면 ‘세쓸이’ 돈았다고. ‘세쓸이’ 돈았다고.}

10704 @ 아. 세쓸이.{아. 헛바늘이}

10704 # 돈았다고.{돈았다고.}

10704 @ 돈았다고.{돈았다고.}

10704 # 예.{예.}

10704 @ 세쓸이?{'세쓸이'??}

10704 # 쓸이. 세쓸이 돈았다구.{헛바늘이. 헛바늘이 돈았다고.}

10705 @ 네. 음. 요기: 또 이 이 베이 중에서 귀 밑에 있댜등?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널어나는 벼이 있다는데 그거 무스거라 했슴등?{네. 음. 요기 또 이 이 병 중에서 귀 밑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부어 일어나는 병이 있다는데 그거 무엇이라 했습니까?}

10705 # 음. 모르겠습꾸마. 그거 그거 무시기라 하던지.{음. 모르겠습니다. 그거 그거 무엇이라 하던지.}

10705 @ 그럼 그 벼이 생기문 어터게 치료르 했슴등?{그럼 그 병이 생기면 어떻게 치료를 했습니까?}

10705 # 그건 이룽기 덩운 거 이룽기 무스거 아 그게 수올이나 잇으무 그거 이 이런데다가서르 헝겅에다가 며칠으 덩해서 이레 덩 덩 덩기 굴지. 덩기 굴어서.{그건 이렇게 더운 거 이렇게 무슨 아 그게 술이나 잇으면 그거 이 이런데다가 천에다가 며칠(?)을 데워서 이렇게 덩게 하지. 덩게 해서.}

10705 @ 음. 음. 그걸 도투베~이라구는 아이 했슴등?{음. 음. 그걸 '도투베이'(볼거리)라고는 안 했습니까?}

10705 # 마우재는 스비닉까(+ свинка)라구 하압꾸마. 괴랜게 고렷사름은 내 못 들었습꾸마. 그거 도투베이라구 하는지 어쩐지.{러시아인은 '스비닉까'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려사름은 내 (무엇이라 하는지) 못 들었습니다. 그거 '도투베이'(볼거리, 이하선염)라고 하는지 어쩐지.}

10705 @ 음.{음.}

10705 # 마우재는 그거 그랩꾸마, 스비닉까, 스비닉까.{러시아인은 그거 그럽니다, '스비닉까', '스비닉까'.}

10705 @ 예. 스비닉까.{예. 스비닉까.}

10705 # 예. 스비닉까. 그럼 그게 도투베이란 말입지 머. 고려말르 고려번디르 하네는 도투베이구. 마우재는 스비닉까.{예. 스비닉까. 그럼 그게 '도투베이'란 말이지요. 고려말로 고려말로 번역을 하면 '도투베이'고. 러시아말은 '스비닉까'.}

10705 @ 음. 스비닉까.{음. '스비닉까'.}

10705 # 예, 스비닉까꼬.{예. '스비닉까꼬'.}

10705 @ 음. 음. 그러면은 하루는 이렇게 멀쩡하다가 또 고 다음날 하루는 또 이렇게 마악: 이렇게 으스스 몸이 떨리구 하는 거 있대님등? 막 열이 나구 몸이 막 떨리는 게 있댜등?{음. 음. 그러면 하루는 이렇게 멀쩡하다가 또 고 다음날 하루는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으스스 몸이 떨리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열이 나고 몸이 막 떨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0705 # 예.{예.}

10705 @ 예. 고담에 팬찮다가 또 하루 또 기나문.{예. 고 다음에 팬찮다가 또 하루 또 지나면}

10705 # 예.{예.}

10705 @ 또 이렇게 오한이 나구 몸이 떨리는 베이 있대님등?{또 이렇게 오한이 나고 몸이 떨리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10705 # 게 오늘 할렐은 일없구 할렐은 오한이 나서 몸이 떨었다구 거저 괴랩더구마. 아무래 오한이라구 합더구마. 오한이 났다구.{게 오늘 하루는 팬찮고 하루는 오한이 나서 몸

이 떨어졌다고 그저 그래더군요. 생각건대 오한이라고 하더군요. 오한이 났다고.}

10705 @ 오한이라구.{오한이라고.}

10705 # 오한. 예. 할렐은 일없구 할렐은 또 오한이 나서 부드르 떨어져서.{오한. 예. 하루는 팬 찡고 하루는 또 오한이 나서 부르르 떨어서.}

10705 @ 음.{음.}

10705 # 그렇기 들었습꾸마. 괴래구 또 모르겠습꾸마. 어떻게 했는디.{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10705 @ 이러, 이렇게 하는 거르 너털다구는 아니 했슴둥?{이렇게 하는 것을 ‘너털다’(덜덜 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10705 # 너털었다구 그렇기두 하압더구마. 오늘으느 너털었다.{‘너털었다’고 그렇게도 하더군요. 오늘은 너털었다.}

10705 @ 너털었다.{‘너털었다’.}

10705 # 예. 오늘은 너털었다.{예. 오늘은 너털었다.}

10705 @ 예. 그게 무슨 뜻임둥?{예. 그게 무슨 뜻입니까?}

10705 # 너털었다. 칩운 거터르 너털었다.{‘너털었다’. 추운 것처럼 덜덜 떨었다.}

10705 @ 음. 아. 칩운 거터르.{음. 아. 추운 것처럼.}

10705 # 예. 칩운 거터르 너털었다.{예. 추운 것처럼 덜덜 떨었다.}

10705 @ 음. 음. 말으 잘 못하는 사람이 있대님둥? 예.{음. 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10705 # 예.{예.}

10705 @ 그, 그렇기 말으 잘 못하는 사람덜보구는 뭐라구 했슴둥? 무스거라 불렀슴둥?{그, 그렇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보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10705 # 아 으, 고려말르느 그거 모르겠습꾸마. 어떻게 말 했는지. 말으 못하는기. 그 사람이 음 그 사람이.{아 고려말로는 그거 무엇이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는지. 말을 못하는 게. 그 사람이 음 그 사람이}

10705 @ 음, 버버리?{음, ‘버버리(병어리)’?}

10705 # 버버리. 버버리.{‘버버리’. ‘버버리’.}

10705 @ 음. 음.{음. 음.}

10705 # 버버리.{‘버버리’.}

10705 @ 으음.{음.}

10705 # 그 사름운 버버리. 버버리. 버버리 말으 못한다구. 따ㄸ(+ так).{그 사름은 병어리. 병어리. 병어리 말을 못한다고. 그렇게.}

10706 @ 음. 그리구, 어:, 음, 이게 큰 베이 생기구 그러면은 어: 누구 사름을 이렇게 불러다가 머 곳을 하구 그렇게 한 건 없었슴둥?{음. 그리고 음 이게 큰 병이 생기고 그러면 누구 사름을 이렇게 불러다가 뭐 곳을 하고 그렇게 한 건 없었습니까?}

10706 # 그런 거 없었습꾸마.{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10706 @ 음.{음.}

10706 # 없었습꾸마. 우리 그저.{없었습니다. 우리 그저}

10706 @ 사말리에션 있었을텐데.{사말리촌에서는 있었을텐데.}

10706 # 사말리에션 그런 거느 잇었 머, 잇었겠지만두 어로서 떠나다나니 모름지 머.{사말리에션 그런 것은 있었 뭐, 있었겠지만도 어려서 떠나고 보니 모르지요.}

10706 @ 기억이 아니 나압지.{기억이 안 나지요.}

10706 # 예. 모름지 머.{예. 모르지요 뭐.}

10706 @ 음. 이쪽에 알마띠에 우리 고렷사람덜 그러니까 알마띠나 저 우슈토크 잠불 이쪽에 서는 에 그런 사람덜이 없었슴둥?{이쪽에 알마띠에 우리 고려사람들 그러니까 알마띠 나 저 우슈토크 잠불 이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10706 # 그런 사람덜이 어떠 알마따 여기 어떤가하니꺼더 하나 녀자 그런게 잇습더구마 예. 어떤가하니꺼더 무스 어떠기 봤는지, 내 여기 이 동미 잇었습꾸마. 기래 기래 그 녀자 어떤가하니꺼더 이래 보구 그래더랍꾸마. 올해 네, 동미보구, 네 세월이 올해 좋대넣 다구. 네 어드메 땡기는 게 멍심해 땡기라구. 네 올해 크게 앓으나 기래니무 죽슈 죽 을 슈두 있다구.{그런 사람들이, 어찌, 알마띠 여기 어떠한가 하면 여자 하나 그런 사 람이 있더군요 예. 어떤가 하면 무슨 어떻게 (점을) 봤는지, 여기 내 동무가 있었습니 다. 그래 그래 그 여자가 어떤가 하면 이렇게 보고 그러더랍니다. 올해 너, 동무보고, 너 세월이 올해 좋지 않다고. 너 어디 다니면 조심해 다니라고. 너 올해 크게 앓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10706 @ 음.{음.}

10706 # 기래 말해 준 게 정말 어 홍리사 가서 이 달갈으 싸구 무스거 싸가지구셔르 동삼인 게 홀 미끄럽아서 자빠딘게 못 일어나구 상세났습꾸마.{그렇게 말해 준 것이 정말 상 점에 가서 이 달갈을 사고 무얼 사가지고, 겨울인데 갑자기 미끄러워서 자빠졌는데 못 일어나구 죽었습니다.}

10706 @ 어, 정말?{어, 정말?}

10706 # 예. 정말, 그렇기.{예. 정말 그렇게.}

10706 @ 음.{음.}

10706 # 개 그런 사름우 음 무시기라 하던가? 아유. 신셰르 신셰르 본다하더구마.{그래 그런 사름을 음 무엇이라 하던가? 아유, 신수를 신수를 본다고 하더군요.}

10706 @ 신셰르 본다구?{‘신세’를 본다고?}

10706 # 예. 신셰르 본다구.{신수를 본다고.}

10706 @ 음. 음. 음.:. 신시르? 신셰르?{음. 음. 음. ‘신시’를? ‘신세’를?}

10706 # 신셰르 본다구.{‘신세’르 본다고.}

10706 @ 아. 음. 그렇게 신셰르 보는 사름우 무스거라 불렀슴둥?{아. 음. 그렇게 신수를 보는 사름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10706 # 거저 신셰르 보는 사름이라구 그렇기 불렀구마. 신셰르 본다구.{그저 신수를 보는 사 람이라고 그렇기 불렀습니다. 신수를 본다고.}

10706 @ 음.{음.}

10706 # 따기두. 말으 듣긴 들어두 그거 머 어떤지 모르꾸마, [x확실이x].{다르기도. 말을 듣 긴 들어도 그거 뭐 어떤지 모릅니다, [x확실이x].}

10706 @ 그 에 신셰르 말하는 사람이 즉금은 알마따에 없슴둥?{그 에 신수를 말하는 사람이 지금은 알마띠에 없습니까?}

10706 # 없습꾸마. 신셰르 보는 사람이 없습꾸마.{없습니다. 신수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10706 @ 아. 신셰르 보는 사람이.{아. 신수를 보는 사람이.}

10706 # 예. 없습꾸마.{예. 없습니다.}

10706 @ 음. 복술이라는 말은 들어 못 보셨구?{음. ‘복술이’라는 말은 못 들어보셨고?}

10706 # 못 들어봤습꾸마 복술이라는 게.{못 들어보았습니다, ‘복술이’라는 것.}

10706 @ 그럼 우슈또베나 잠불 이런 데두 없슴둥?{그럼 우슈토크나 잠불 이런 곳에도 없습 니까?}

10706 # 모르겠습꾸마. 우슈또베 같은 우슈또베에 그전에는 그런 사름이 잇었습꾸마. 켜게 즉

금으느 어저느 어우. 그 사름운 어저느 생전일거 같대니꾸마.{모르겠습니다. 우슈토베 같은 우슈토베에 그전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지금은 이제 어우. 그 사름은 이제 살아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10706 @ 예.{예.}

10706 # 거저 상세 났겠습꾸마.{그저 죽었겠습니다.}

10706 @ 예.{예.}

10706 # 예.{예.}

10706 @ 음.{음.}

10706 # 그 후엔 모름지 머. 있는지 없는지 즉금은.{그 후엔 모르쥬 뭐.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10706 @ 모르쥬.{모르쥬.}

10706 # 예. 어떤가하니까더 우슈또베는 고렷사름이 여기보구 더 많애습꾸마.{예. 어떤가 하면 우슈토베는 고려사름이 여기보다 더 많았습니다.}

10706 @ 음.{음.}

10706 # 괴래 우슈또베촌에는 맨 고렷사름이 댜습꾸마.{괴래 우슈토베의 촌에는 맨 고려사름이 살았습니다.}

10706 @ 예. 음. 거기 어: 까자끄 사름들은 그 복술이가 없슴둥? 신셰르 보는 사람이 없슴둥?{예. 음. 거기 카자흐 사름들은 그 점쟁이가 없습니까? 신수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까?}

10706 # 까자끄 사름덜이 있습꾸마.{카자흐 사름들이 있습니다.}

10706 @ 예. 있습지?{예. 있지요?}

10706 # 있습꾸마. 예. 까자끼 사름덜이 있습꾸마.{있습니다. 예. 카자흐 사름들이 있습니다.}

10706 @ 음. 어, 그 사름덜두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보구.{음. 어, 그 사름들도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보고.}

10706 # 게 모르지 머. 어떤 사름은 찾아가서 괴래 그런 거 알아보쟈구 그런 사름두 있겠지만 해두. 어저느 거반 그런거 그거 그런데 댜기디 말라구 하는게 모르지. 댜기느지 어쩐지.{거 모르지 뭐. 어떤 사름은 찾아가서 괴래 그런 거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름도 있겠지만. 이제 거의 그거 그런데 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모르지. 다니느지 어쩐지.}

10706 @ 음.{음.}

10706 # 그런 사름이 거쥬말으 많이 한다구 해매셔르. 그런 거 곧이듣디 말라구 괴래디 머. 여깃사름덜이 즉금 자꾸 괴래지 머.{그런 사름이 거쥬말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그런 거 곧이듣지 말라고 그러지 뭐. 여기 사름들이 지금 자꾸 그러지 뭐.}

10706 @ 으음. 옛날 전에 사해주이 시절에는 소치알, 소치알리즘. 사해주이 시절에는 그런 거 못하게 하지 않했슴둥?{음. 옛날 전에 사회주의 시절에는 사회주의, 사회주의. 사회주의 시절에는 그런 거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10706 # 나아, 소치알리즘 있을 적에는 그런 거 옴판 그런 거 그런 사름덜으 사름 치대냈짐. {사회주의 있을 적에는 그런 거 원래 그런 거 그런 사름들은 사름으로 치지 않았지.}

10706 @ 그러니까!{그러니까!}

10706 # 그런 사름운 사름 아니 쳤습꾸마. 그러길래 그런 테르 댜긴 사름덜두 반대르 했습지 머. 거기르 댜기지 말라구. 무실 거기 댜기는가구.{그런 사름은 사름으로 안 쳤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테를 다니는 사름들도 반대를 했지요 뭐. 거기를 다니지 말라고. 무슨 일로 거기 다니는가 하고.}

10706 @ 땡기지 말라구.{다니지 말라고.}

10706 # 예. 땡기지 말라구.{예. 다니지 말라고.}

10707 @ 음. 그 아매는 그 산에 가서 이렇게 몸에 병을 어 고치자구 산에 가서 풀을 뜯구 나
 물으 뜯구 그런 이 적이 있었습둥?{음. 그 할머니는 그 산에 가서 이렇게 몸의 병을
 고치려고 산에 가서 풀을 뜯고 나물을 뜯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10707 # 예, 잇었습꾸마.{예. 있었습니다.}

10707 @ 예.{예.}

10707 # 예. 즉금으느 어 어쩐가하니까더 이 마우재덜두 어저느 그렇구마. 거반이 벼원이 가
 무 돈이 많이 들겠다. 그러길래 그저 산에 가서 많이 풀으 뜯어서 풀루 약으 해아서
 그래 그거 고티라구 귀랩꾸마, 즉금으느. 개 거저 즉금 파는 게 거저 그 산풀으 풀으
 많이 파압꾸마. 여기서 즉금.{예. 지금은 어쩐가 하면 이 러시아인들도 이제는 그렇습
 니다. 거의 병원에 가면 돈이 많이 들겠다 하여 그저 산에 가서 많이 풀을 뜯어서 풀
 로 약을 해서 그래서 그거 고치라고 그러니다, 지금은. 그래 거저 지금 파는 게 그저
 산의 풀을 풀을 많이 팝니다. 여기서 지금.}

10707 @ 즉금.{지금.}

10707 # 예, 즉금 많이 파압꾸마.{예, 지금 많이 팝니다.}

10707 @ 그래 아매는 산에 가서서 어 무슨 풀으 에 뜯어오셨습둥?{그래 할머니는 산에 가서
 서 무슨 풀을 뜯어오셨습니까?}

10707 # 나 그런 풀으 우리 나느 뜯어 와두 고려, 고려말르느 그 풀우 어떠끼 말하는지 모릅
 지 예.{나 그런 풀을 우리 나느 뜯어 와도 고려, 고려말로느 그 풀을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지요 예.}

10707 @ 음. 음. 음.{음. 음. 음.}

10707 # 마우재말르느, 예 간으 앓으무 그게 마우재 무시기 있는가 하니까더 있습꾸마, 풀이.
 노오란 꽃이 피는 게. 나즈바에. 마우재말르느 메스메르니끄.{러시아말로느, 간을 앓으
 면 그게 러시아인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니까 있습니다, 풀이. 노란 꽃이 피는 게. 이
 름. 러시아말로느 ‘메스메르니끄’}

10707 @ 메스?{메스?}

10707 # 메스메르니끄. 메스메르니끄. 귀래구 어 하얀 꽃이 이룽기 새타얀 꽃이 요런 게 있는
 게 라마스까즈 나즈바에.{‘메스메르니끄’. ‘메스메르니끄’. 그리고 하얀 꽃이 이렇게 새
 하얀 꽃이 요런 것이 있는 것이 ‘라마스까즈’라 불리고.}

10707 @ 라마.{라마.}

10707 # 예. 기래구 즉금으느 마우재덜이 파는 게 무스 어등간:이 아푸내네느 무허, 이슬람스
 키 무허.{예.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인들이 파는 것이 무슨 어지간하게 아프면 ‘무허’,
 ‘이슬람스키 무허’.}

10707 @ 이슬람스키?{이슬람스키?}

10707 # 이슬람스키 무허.{이슬람스키 무허}

10707 @ 음.{음.}

10707 # 그거 끓에서. 기침나두 그거 먹구 행불해두 그거 먹구. 그거 먹으라구 하압지 머. 그
 러꾸마.{그거 끓여서. 기침이 나도 그거 먹고 감기를 앓아도 그거 먹고. 그거 먹으라
 고 하지요 뭐. 그렇습니다.}

10707 @ 기침이 나오거나.{기침이 나오거나}

10707 # 예.{예.}

10707 @ 행불을 앓으무.{감기를 앓으면.}

10707 # 예.{예.}

10707 @ 음.{음.}

10707 # 예. 기침해구 행불해구.{기침을 하고 감기를 앓고.}

10707 @ 요 근처 산에서 가서 뜯으셨습둥?{요 근처 산에서 가서 뜯으셨습니까?}

10707 # 그게 이슬람스키 무허 어드메서 어드메서 뜯는디 그것두 모름꾸마. 모름꾸마.{그거 이슬람스키 무허를 어디서 어디서 뜯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10707 @ 음. 음. 그럼 아매느 어디가서 뜯으셨습둥?{음. 음. 그럼 할머니는 어디가서 뜯으셨습니까?}

10707 # 우리네느 그저 파는 거 싸다가 싸다가 그래 먹습지.{우리네는 그저 파는 거 사다가 그렇게 해서 먹지요.}

10707 @ 음.{음.}

10707 # 그러 우리느 이 약풀으 뜯으라 아니 땡겠습꾸마.{그래 우리는 이 약초를 뜯으러 안 다녔습니다.}

10707 @ 음. 음.{음. 음.}

1.8. 세시 풍속과 놀이/ 1.9. 특수 지역 생활

- 10810 @1 어제 그 냇날이야기 있잖습둥? 네? 그 냇날이야기 좀 생각해 보셨습둥?{어제 그 옛날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옛날이야기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 10810 # 냇날내애기 내, 어드 어드메, 내게사 없다. 내 어드메서 어드메서 들겠습둥 냇날내기 르. 냇날말으 하는 사람덜이 없는데. 마마 내 딸으 자 자래울 적에 그거 냇말인지 무시긴지 내 마마는 그랩더구마. 내 네가 냇말 하마. 네 냇말 배와라, 네 냇말 배와라 그래더만. 기래 그거 마마 왜우는 거 내 조곰 배왔짐. 개 그게 내 그거 모르겠소, 그 게 냇말인지 무시긴지 야. 기랩더구마. {옛날이야기 내, 어디 어디, 내게야 없지. 내가 어디서 어디서 들겠습니까 옛날이야기를. 옛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머니가 나 이 딸을 키울 때 그거 옛말인지 무엇인지 내 어머니는 그러더군요. 내가 너에게 옛말을 하마. 네 옛말을 배워라, 네 옛말 배워라 그러더구먼. 그래 그거 어머니가 말 하는 것을 내가 조금 배웠지. 그래 그것을 내 모르겠소. 그것이 옛말인지 무엇인지. 그러더군요.}
- 10810 @1 아 그럼 아매 그럼 어리셨을 때.{아 그럼 할머니 그럼 어릴 때}
- 10810 # 야 기래.{응, 그래}
- 10810 @1 아매나 아바니께서 그 산에 뭐 호랑이 얘기라든가 뭐 귀, 구신 얘기라든가 뭐 그런 얘기는 없었습둥?{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그 산에 뭐 호랑이 이야기라든가 뭐 귀 신 이야기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 10810 # 구신 얘기두 마마는 해했습꾸마. 게 이거는 모르겠습꾸마, 냇말인두 무시긴지 야. 들 습쇼.{귀신 이야기도 어머니는 했습니다. 게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옛말인지 무엇인지 음. 들으십시오.}
- 10810 @1 예.{예.}
- 10810 # 기래셔. 가마기 까오.{그래서. 까마귀 까옥.}
- 10810 @1 가마기.{까마귀.}
- 10810 # 가마기 까오. 가치 네기. 노래 신시. 고토리 팬다그레. 개 가마기 까오. 가치 네기. 노래 신시. 고토리 팬다그르. 이렇기 하압더구마. 이 무시기 말이오? 무슨 말이오? 냇 말이오, 아니오?{까마귀 까옥. 까치 ??, ?? ??, 고토리 팽그르르. 그래 까마귀 까옥. 까치 ??, ?? ??, 고토리 팽그르르. 이렇게 하더군요. 이것이 무슨 말이오? 무슨 말이 오? 옛말이오, 아니오?}
- 10810 @ 예. 냇말이오.{예. 옛말이오.}
- 10810 # 예.{예.}
- 10810 # 기래구 다른 건 무시기 잇는가 기래문 동갑이! 나무하라 가겠소? 못 가겠소.{그리고 다른 건 무엇이 잇는가 하면, 동갑이! 나무하러 가겠소? 못 가겠소.}
- 10810 @1 아.{아.}
- 10810 # 무실 못 가겠소? 배아파 못가겠소.{아 무슨 일로 못 가겠소? 배가 아파 못 가겠소.}
- 10810 @1 아. 아.{아, 아.}
- 10810 # 무슨 배? 자라 배.{무슨 배? 자라 배}
- 10810 # 무슨 자라? 곱 자라.{무슨 자라? 곱 자라.}
- 10810 # 무슨 곱? 쉼곱.{무슨 곱? 쇠 곱.}
- 10810 # 무슨 쉼? 하늘쉼.{무슨 소? 하늘소.}

10810 # 무슨 하늘? 천하늘.{무슨 하늘? 천 하늘.}

10810 # 무슨 천? 대애헌.{무슨 천? 대 천.}

10810 # 무슨 대? 곰방대.{무슨 대? 곰방대.}

10810 # 무슨 곰방? 나라 곰방.{무슨 곰방? 나라 곰방.}

10810 # 무슨 나라? 꼬꼬대: 꼬::. 이랩더구만.{무슨 나라? 꼬꼬댁 꼬. 이러더군요.}

10810 @ (웃음)

10810 @ 어:. 음::. 그 그건 그렇게 쭉 말으 이어가면서 예: 하는 예: 이야기구 예. 처음에 이야기는 예: 거기서 끝남둥?{어 음 그건 그렇게 쭉 말을 이어가면서 예 하는 예 이야기고. 처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납니까?}

10810 # 모름지 머. 나는 그제.{모르지요 뭐. 나는 그제.}

10810 @ 음.{음.}

10810 # 예 아 가마기 까오 기래. 가마기.{예 아 까마귀 까옥 그래. 까마귀}

10810 @ 음.{음.}

10810 # 새 그렇게 운다오. 가마기 까오. 가치느 무스김두? 무스 벌 예따(+əTa) 줌식:~? 가치 네기. 이런 기 너여. 가시 네기. 노래 신시, 그건 무시긴지?{새 그렇게 운다오. 까마귀 까옥. 까치는 무엇입니까? 무슨 벌 짐승? “까치 네기. 이런 기 너여. 가시 네기. 노래 신시” 그건 무엇인지?}

10810 @ 노래. {노래.}

10810 # 노오래 신시. 고토리 팬다그르르한다구.{?? ?? 고투리 팽그르르한다고.}

10810 @ 예. 고토리는 무슨검두?{예. ‘고토리’는 무엇입니까?}

10810 # 모름지, 무시긴지 고토리.{모르지요, 무엇인지 ‘고토리’.}

10810 @ (웃음). 고토리 음:.{‘고토리’ 음.}

10810 @ 고토리가 어터, 어터기 한다구요?{고투리가 어떻게 한다구요?}

10810 # 고토리 팬다그르:한다구.{고투리가 팽그르르한다고.}

10810 @ 아, 팬다그르르한다구. 음. 음. 음.{팽그르르한다고. 음. 음. 음.}

10810 # 그거 마마는 내달으 배워준다구. 이게 넷말이다, 이게 넷말이다. 게 모르지, 넷말인지 아닌지. {그거 어머니는 내 딸에게 가르쳐준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옛말이다, 이게 옛말이다. 게 모르지. 옛말인지 아닌지.}

10810 @ 음. 그 뭐 오느비 전설 이런 건 없었습둥?{음. 그 뭐 오누이 전설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10810 # 그런건 없었습꾸마.{그런 건 없었습니다.}

10810 @ 음.{음.}

10810 # 없었습꾸마.{없었습니다.}

10810 @ 음.{음.}

10811 # 내 그저 그저 또 한가지르 마마게 배운 거 썩 닳어뿌렸습꾸마. 기래구 기래구 구신 말하는 거느 우리 마마 무시기 말하는 게, 어쩐가 하니까데, 마마 내 기래대님둥? 마마 식집온 날으 벼어 든 게 그냥 앓았다구서 예? 식집우 이룽기 닳에 혼세르 하아구 나그내덜이 다아 집우르 가구 없구. 마마 이런 사이 이룽기 앓아 잇었답구마. 이런 사이 이런 사이 앓아 있는데 무시기 와서 콧 밀어넣더랍꾸마.{내 그저 그저 또 한가지로 어머니에게서 배운 거 모두 잊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귀신 말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무엇인가 말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면, 어머니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 시집온 날에 병이 들어 그냥 앓았다고 예? 시집을 올 때 이렇게 닳에 혼사를 하고 함께 온 남자들이 다 집으로 가고 없고. 어머니 이런 상 이런 상에 앓아 있는데

무엇이 와서 콧 밀어 넣더랍니다.}

10811 @ 음.{음.}

10811 # 배우던 사람이 무시기 와 콧 밀어넣더랍꾸마. 괴래 그 사이서 자빠데서 앓은 게 이 날 이때까지 앓는다구. 개 어떤 적에느 누기가 말하네느 괴란다구. 그게 무슨 말인두 모르겠다구. 개 마마느 괴랩꾸마. 그게 이 너어 빠빠 집에 무슨 누기 잘못 상세나서 예 그 구신이 빠져서 괴래 그렇다구. 괴래 나르 콧 밀어넣어니 내 앓았다구. 괴래 너 어 애바, 빠빠 나르 자꾸 씹구 땡게 괴래 어떤 적에느 괴래 앓을 적에 이란답더구마. 너 네르 앓해놓구 장물으 해애 놓구 장물이 썩썩 끓는 거 내 너어네르 준다구. 괴래 내 그란다구. 너네 나르 모 이긴다. 괴래문서 너네 장물은 내 그거 따잡은 거 마세두 어드메 데운 데 없다구. 그렇기 내 앓았다구 그랍더구마.{보이지 앓는 사람이 무엇이 와 콧 밀어 넣더랍니다. 그래 그 상에서 자빠져서 앓은 것이 이 날 이 때까지 앓는다고. 그래 어떤 때는 누구와 말하면, 그런다고(그런 말을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래 어머니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 너의 아버지 집에서 무슨 누가 잘못 돌아가셔서 예 그 귀신이 들어서 그래 그렇다고. 그래 나를 콧 밀어 넣으니 내 앓았다고. 그래 네 아버지가 나를 자꾸 씹고 다녀 그래 어떤 때는 그래 앓을 적에 이런다고 하더군요. 너를 앓혀 놓고 국을 해 놓고 국이 썩썩 끓는 것을 내가 너희들을 준다고. 그래 내 그런다고. 너희 나를 못 이긴다. 그러면서 너희 국은 내 그것 뜨거운 거 마셔도 어디 텐 데 없다고. 그렇게 내 앓았다고 그러더군요.}

10811 @ 음.{음.}

10811 # 괴래구 어쩐가하니꺼 이 다리 붓어서 이렇기 이렇기 등디: 붓어서 이런 거 걸떠 못했답더구마. 괴래거 우리 빠빠 무슨 얘기다나..... 더기, 마아..... 음..... 밭에 즙식이 그게 쥐 같은 즙식이 큰 게 쭈슬리ㄹ(+суслик) 그 쭈슬리ㄹ(+суслик) 잡아서 껌질 싹 뺏게서 어 싹 검줄해서 이 즉금 여기서덜 이렇기 자슬루한 거터르 곱어서 소곰두 아이 넣구 아무것두 아이 넣구 곱어서 그래 그거 내 먹었다구 그랍더구마.{그리고 어쩐가 하니까 이 다리가 부어서 이렇게 이렇게 둥둥 부어서 이런 거 걸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무슨 이야기따나..... 저기..... 음..... 밭의 짐승이 그게 쥐 같은 짐승이 큰 것이 다람쥐 그 다람쥐 잡아서 껌질을 싹 벗겨서 싹 다듬어서 지금 여기서들 구이한(?) 것처럼 구워서 소금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고 구워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내가 먹었다고 그러더군요.}

10811 @ 음.{음.}

10811 # 괴래 그것두 먹구. 괴래구 새 이렇기 날아댕기대임둥? 새 날아댕기는 게 낭그에 푹 푹푹 톨는 게. 그 새르 이 자꾸 골이 아파서 골이 아파서 자 골으 드디 못했다구 합더구마. 괴래거 빠빠 그 새르 세 개르 세 개르 잡아서 골으 골으 세 개 골으 골으 그거 골이 고저 작습꾸마. 대가리 요런 게. 골이 고저 찻순가락에다 넣어무 고저 고저 고저 세 세 개르 먹었답구마. 괴래니 골이 아픈 게 푹 떨어졌답더구마.{그래 그것도 먹고. 그리고 새 이렇게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새 날아다니는 거 나무를 부리로 푹 푹 치는 거. 그 새를 자꾸 머리가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머리를 들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 새를 세 마리를 세 마리를 잡아서 머리를 머리를 세 마리 머리를 그거 머리가 고저 작습니다. 대가리 요런 거. 머리가 그저 찻순가락에다 넣으면 들어갈 만한 거 고저 고저 세 개를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병이 푹 떨어졌답니다.}

10811 @ 음. 그 빠빠가 직접.{음. 그것을 아버지가 직접.}

10811 # 빠빠 그랬어.{아버지가 그랬어.}

10811 @ 예. {예.}

10811 # 그거 기렸는데 빠빠 싹 기렸어. 기래구 사말리 살 적에 빠빠 어쩐가하니까더 뉘: 집에서 대애지르 잡는다고 하무 대애지르 잡는다고 하무 거길 달아간답더구마. 거길 달아가서 간으 거저 식 딱은 간으 요매씨 가져온답구마. 간으 가져오무 그 간으 그저 마마 소곰두 아니 넣구 아무것두 아니 넣구 그저 베에놓구 물으 넣구 간으 베에서느 꿀떡 물에 꿀떡 넣구구 꿀떡 넣구구 그랩답더구마. 쉼르 잡아두 가구 닭으 도투 잡아두 가구. 기래 가서 간으 빌어서 가져다가 마마르 대접우 시켰답더구마.{그거 그랬는데 아버지가 싹다 기렸어. 그리고 사말리촌에 살 때에 아버지가 어쩐가 하면 뉘 집에서 돼지를 잡는다고 하면 돼지를 잡는다고 하면 거길 달려간다더군요. 거길 달려가서 간을 그저 뜨거운 간을 요만큼씩 가져온답니다. 간을 가져오면 그 간을 그저 어머니가 소금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고 그저 베어 놓고 물을 넣고 간을 베어서는 꿀떡 물에 꿀떡 넘기고 꿀떡 넘기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소를 잡아도 가고 닭을 돼지를 잡아도 가고. 그래 가서 간을 빌어서 가져다가 어머니를 대접을 했답니다.}

10811 @ 음. 음.{음. 음.}

10811 # 기래 빠빠 땡기메 약으 약으 무시게 누기 이게 이래문 좋다 이게 이래문 좋다 하무 땡기메 그 할만:한 건 다 했다고 그랩더구마.{그래 아버지 다니며 약을 약을 무엇이 누가 이것이 이러면 좋다 이것이 이러면 좋다고 하면 다니며 그 자신이 할만한 것은 다 했다고 그러더군요.}

10811 @ 음.{음.}

10811 # 기래:셔 이때꺼지 너어 빠빠느 일찍 상세나두 내 이때꺼지 산다구 하대님둥?{그래서 이때까지, 너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도 나는 이때까지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10811 @ 아아 빠빠가 다 그런 거를 알아서.{아아 아버지가 다 그런 것을 알아서}

10811 # 예예. 빠빠 싹 그랬습꾸마.{예. 아버지가 죄다 그랬습니다.}

10811 @ 가르, 가르쳐 줘서.{가르쳐 주어서.}

10811 # 예예. 빠빠 싹 그랬습꾸마.{예. 아버지가 죄다 그랬습니다.}

10811 # 개다나니 마마 기래네느 그게 구신았이 그런 게 없다게두 우리 마마느 기래꾸마. 내 재빌르 기내 본 일이다나니까더 나느 그렇기 말한다구 그랩더구마.{그러하다 보니 어머니가 그러면, 귀신이 들어 았는 병이, 그런 것이 없다고 해도 우리 어머니는 그렇니다. 내 스스로 겪어 본 일이니 나는 그렇기 말한다고 그러더군요.}

10811 @ 음. 마마께서 직접 보신 일이라서.{음. 어머니께서 직접 보신 일이라서.}

10811 # 예. 예.{예. 예.}

10811 @ 말씀하신다구.{말씀하신다고.}

10811 # 예.{예.}

10811 @ 예.{예.}

10811 # 그게 내 앞에 떠운 일이라구. 내 앞에 떠운 일이라구.{예. 예. 그게 내 앞에 나타난 일이라고. 내 앞에 나타난 일이라고.}

10813 @ 예예. 음. 음. 음. 그럼 이제 그거 말구, 이제 그건 잘 들었구요. 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 주는 내:기 있템둥?{예. 음. 음. 음. 그럼 이제 그거 말고, 이제 그건 잘 들었구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 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10813 # 어쩐가하니까더 내 우울르 아들이 마마게 두울으 났답더구마. 기랜게 어쩐가하니까더 그것두 아무래 무시게 아아 곰만 나셔 밤우 울무 아츰에 죽구. 아아 곰만 나셔 밤우 울구 아츰에 죽구. 기 답에 내 세 번채 났지. 내 세번채 나니 나르 정말 별개라구여. 나느 그 빠빠 어마니르 못봤습꾸마. 보긴 못봤습꾸마. 어레셔 나르 업구 어드메

에 밭에 나가 있었답더구마.{어떤가 하면 내 위로 아들이 어머니에게서 둘이 났다더
군요. 그런데 어떤가 하면 그것도 아이가 금방 나서 밤새 울고 아침에 죽고. 아이가
금방 나서 밤새 울고 아침에 죽고. 그 답에 내 세 번째로 났지. 내가 세 번째로 나니
나를 정말 별난 놈이라고. 나는 그 아버지의 어머니를 못 봤습니다. 보긴 못 봤습니
다. 어려서 나를 업고 어디 밭에 나가 있었다더군요.}

10813 @ 음.{음.}

10813 # 밭에 나가 있으면 나르 벼어 고텃답더구마. 나두 앓았답더구마 어려서. 어려 조오평
해에서 곱만 낳아서 병어 고틴 게. 여기다 침우 놓은 게 내 즉금은 없습꾸마 예: 침우
놓은 게 자리 가뜩하구. 두에다가 뜸우 뜬 게 이만:한 뜸짜리 있었습꾸마.{밭에 나가
있으면서 나를 병을 고쳤다더군요. 나도 앓았다더군요 어려서. 어려 조그매서 금방 낳
아서 병을 고친 것인데. 여기다 침을 놓은 것이 내 지금은 없습니다. 침을 놓은 자리
가 아주 많고. 뒤에다가 뜸을 뜬 것이 이만한 뜸자리 있었습다.}

10813 @ 음.{음.}

10813 # 게 자라서 병원으르 가네는 이진 무시긴가? 자꾸 내가 물어봣더구마. 나는 그거 모
른다구 했습지. 게 마마가 물어보무, 마마 그게 무스기요? 내 등따지에 무시기 있는
가? 마마 그게 뜸짜리라구 그랍더구마.{그래 자라서 병원으로 가면, 의사가 이진 무엇
인가? 하고 자꾸 나에게 물어보더군요. 나는 그거 모른다고 했지요. 그래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어머니 그것이 무엇이요? 내 등때기에 무엇이 있는가? 어머니 그것이 뜸자
리라고 그러더군요.}

10813 @ 음. 음.{음. 음.}

10813 # 그래 나르 자래왔다구 그랍더구마.{그렇게 나를 키웠다고 그러더군요.}

10813 @ 음. 음.{음. 음.}

10813 # 그래구 거저 무스거 어쩐가하니까더 마마 살아실 적에는 이거 하락시르 보는 사림이
있어서 예, 내 첫 번 그렇게 잘못 식집우 가서 아:덜으 데리구 왔지. 그답에 두번째
가니 너는 어떻게 살겠는가 가 하락실으 배우니까더 그래더랍더구마. 그 사름우느 불
이구 나느 물이구. 그 사림이 발각 그래네느 물우 쿡 치무 너네 일없다구 그랍더구마.
(웃음).{그리고 그저 뭐 어떠한가 하면 어머니 살아 계실 적에는 이거 점을 보는 사람
이 있어서 예 내가 첫 번 시집을 잘못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지. 그 다음에 두 번
째 시집을 가니, 너는 어떻게 살겠는가 가 점쟁이에게 보이니까 그러더랍다. 그 사
람은(남편) 불이고 나는 물이고. 그 사람이 발각하면 물을 쿡 치면 너희 괜찮다고 그
러더군요.

10813 @ 음. (웃음). 으음: 게 넷날부터 우리 민족이.{그것이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10813 # 예.{예.}

10813 @ 이렇게 식집 셔방으 갈 때 그거 보옵꾸마.{이렇게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들 때 그거
봅니다.}

10813 # 하락씨르 보구 그래구 그래 식집우 가대님둥? 그래다나니 나느 그래다니우. 내 글으
니르라 가서 누기 하락씨르 났습둥? 무스기르 했습둥. 그저 더기 빠빠 사춘느비 이룽
기 멘목으 닉해서 그 사림이 그 집우 그냥 놀라 땡졌짐. 그래니 어쩐가하니까더 멘목
으 보구서 그집과 식집우 간 사림이 종씨, 종씨 돼놓아서 그 집우 땡졌지. 그래 놓아
서 식집우 가라구 에따 그 사림이 셔방가겠다니 나르 그 아재 식집 보냈:짐. 기래다나
니 나느 몰랐지. 그답에 내 아덜 데리고 여기와 있으니 또 누기가 말했습둥? 이 사름
가 어드메 노는 데 가서 멘목으 닉후구 닉히구 아아 둘 있지. 켜데 또 이룽기 살게
돼했지 며. 기래 마마 어드메르 갔는가 하니 우슈토베 갔습지, 우슈토베. 우슈토베 가

서 마마께 헤이 우슈토베에 있었습꾸마. 그래 가니까더 거기 이릉기 하락씨르 보는 나그네 있더랍꾸마. 그래 마마 배우니 그래더랍꾸마. 그 사름 일없다구서르. 그 남자는 불이구 녀자는 물이구 그렇다구. 개 불이 혹 붓으네는 물으 혹 치네는 일없다구서르. {점을 보고 그리고 그렇게 시집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하다 보니 나는 그러지 않습니까. 내 공부를 하러 가서 누구 점쟁이를 봤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저기 아버지 사촌 누이를 이렇게 알고 지내서 그 사람 그 집을 그냥 놀러 다녔지요. 그러니 어떤가 하면 낮을 익혀서 그 집으로 시집을 간 사람이 종씨, 종씨가 되어서 그 집을 다녔지. 그래서 시집을 가라고 하고 그 사람이 장가를 가겠다 하니 나를 그 아주머니가 시집을 보냈지. 그렇다 보니 나는 몰랐지. 그 다음에 내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와 있으니 또 누가 말했습니까? 이 사람과 어디 노는 곳에 가서 낮을 익히고 익히고 아이 둘이 달렸지. 그런데 또 이렇게 살게 되었지 뭐. 그래 어머니 어디를 갔는가 하면 우슈토베 갔지요. 우슈토베에 가서 어머니의 형이 우슈토베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니까 저 거기 이렇게 점을 보는 남자가 있더랍니다. 그래 어머니가 점을 보니 그래더랍니다. 그 사람은 팬찮다고. 그 남자는 불이고 여자는 물이고 그렇다고. 그래 불이 혹 불으면 물을 혹 치면 팬찮다고서.}

10813 @ 그러, 그렇습지.{그렇지요.}

10813 # 예|. {예|.}

10813 @ 물으 치무.{물을 치면.}

10813 # 예. 기래 너네 너네 사는 건 일없다구. (웃음). 그런 그런 넷말입지. (웃음).{그래 너희 사는 건 괜찮다고. 그런 옛말이지요.}

10813 @ 이 화락씨라구 하는 말이?{이 ‘화락씨’라는 말이?}

10813 # 하락씨.{하락씨}

10813 @ 하락씨.{하락씨}

10813 # 예, 하락씨.{예. 하락씨.}

10813 @ 화?, 하?{'화'입니까? '하'입니까?}

10813 # 예. 어뜨기 괴래겠는가. 내느 누기구 그 사름으느 누기구 그계 하락씨르 보는 게라구 하압더구마. 하락씨.{예. 어떻게 그리하겠는가. 나는 누구고 그 사람은 누구고 하면서 그것이 점쟁이를 보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하락씨’}.

10813 # 하락씨.{점쟁이.}

10813 @ 하락씨를 본다?{점장이를 본다?}

10813 # 예.{예.}

10813 @ $\frac{\circ}{\text{cm}}, \frac{\circ}{\text{cm}}, \frac{\circ}{\text{cm}}, \{\frac{\circ}{\text{cm}}, \frac{\circ}{\text{cm}}, \frac{\circ}{\text{cm}}\}$

10813 # 그래 그 하락씨두 예 이릉기 그런 보는 사람이 있으무. 어드메르 먼길으 떠나대님
 둥? 그럼 배운답더구마. 길이 열기무 가구 길이 맥히무 거길 가디 말라구 합.지. 가
 기는 가두 올 길이 없다구.{그래 그 점쟁이도 예 이렇게 그런 거 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먼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럼 점쟁이를 본다더군요. 길이 열리면 가고 길이 막
 히면 거길 가지 말라고 하지요. 가기는 가도 가도 올길이 없다고.}

10813 @ 음, 올 길이 없다구.{음, 올 길이 없다고.}

10813 # 올 길이 없다구.{올 길이 없다고.}

10813 @ 하락씨르 배웁둥?{음, 지금도 이 점을 칩니까?}

10813 # 즉금 여기 하락씨르 본 사람이 없습꾸마. 기래구 우슈토베 어전 그 사람이 어전 상
세난 데 오라됐습꾸마. 마마 상세난 데 어저는 거이 열해 땡앰꾸마. 갠데 마마 생전에
갔다 온 게 머. {지금 여기 점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슈토베의 그

사람이 이제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간 지 이제는 거의 열 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생존해 계실 때 갔다 온 거 뭐.}

10813 @ 그렇습지.{그렇지요.}

10813 # 예.{예.}

10813 @ 구십일년도에 상세났으니.{91년도에 돌아가셨으니.}

10813 # 예. 예.{예. 예.}

10813 @ 음.{음.}

10813 # 게 그런 거 귀래 보는 거는 그거 이 젊음이덜가 말하네는 귀랩꾸마. 그제 예 구신일
이라구. 그런 거는 없다구 합지.{게 그런 거 그렇게 보는 것은 그거 이 젊은이들에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제 귀신일이라고. 그런 것은 없다고 하지요.}

10813 @ 음.{음.}

10813 # 즉금, 즉금 젊은 사람 그거 아니 귀랩꾸마.{지금, 지금 젊은 사람은 그거 아니 봅니
다.}

10813 @ 아이 믿지.{안 믿지.}

10813 # 아니 믿습꾸마. 귀래두 어떤 사람은 젊은아덜은 어떤 아덜은 귀래두 곱곱 무스 이거
가서 배우느라구 배운 게 이 이 나라에 까자끼 사람이 녀자덜이 아무래 그런 게 있는
모애~입더구마. 땡긴다구 합더구마. 아, 어 도루 들어오무 귀래무 배우구. 제 식집우
갈 사람우느 식집우 가는가 아니 가는가 셔방으 갈 사람은 또 물어 가서 물어 보구.
셔방으 가게됐는가 아니 됐는가.{안 믿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젊은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그래도 곱곱 무슨 점쟁이에게 가서 점을 치느라고. 점치는 사람이 이 나라
에 까자호 사람이 여자들이 아무래도 그런 사람이 있는 모양이더군요. 다닌다고 하더
군요. 아이가 도로 들어오면 그러면 점을 보고. 자기가 시집을 갈 사람이면 시집을 가
는가 못 가는가. 장가를 갈 사람은 또 가서 물어 보고. 장가를 가게 되었는가 못 가게
되었는가.}

10813 @ 음. 음.{음. 음.}

10813 @ 여끼 얘기는 없슴둥? 여끼,{여우 이야기는 없습니까?}

10813 # 없스……{없……}

10813 @ 여끼, 승내, 범: 이런 얘:기는 없슴둥?{여우, 승냥이, 범 이런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까?}

10813 # 그런 내얘기는 없습꾸마. 어쩐가하니까더 우 마마 그 사말리셔 제울 적에느 아……
드문드문 어 승냐:~는 잇엇답더구마. 귀래 승냐:~느 어떤 적에느 이룽기 와서 야~
이두 조오꼬만 거 가져가나 그 무스거 개들 따라 싸움하는 거 그거 그건 드문드문 잇
엇답더구마. 귀랜거 내사 그런 모름지. 귀래구 그담엔 이 노시아에 촌이 아니구 도시
다나니까더 그런 거 못 봤지.{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쩐가 하면 어머니 그 사말리
촌에서 지낼 적에는 드문드문 승냥이는 잇엇다더군요. 그래 승냥이는 어떤 때는 이렇
게 와서 양도 조그만 놈을 물어가거나 그 무슨 개들과 싸움하는 거 그건 그건 드문드
문 잇엇다더군요. 그런 거 나야 그런 건 모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러시아에
촌이 아니고 도시이다 보니 그런 것을 못 보았지.}

10813 @ 음. 음.}

10813 # 그런 일으 모름지 머.{그런 일을 모르지요 뭐.}

10813 @ 음.{음.}

10813 # 예. 발으 땡기땡다나니.{예. 발을 다니지 않고 보니.}

10813 @ 그렇쥬.{그렇쥬.}

10813 # 예. 우리 더기: 쉼베리 그 어떤 칙운 데 있을 적에는 거기 산 곁에 그냥 있다가니 조
끔 먼데 가서 산에 가네는 꿈이 잇답더구마. 꿈이.{예. 우리 저기: 시베리아 그 어떤
추운 데 있을 때에는 거기 산 옆에서 그냥 사니 조금 먼 데 산에 가면 꿈이 있다더군
요. 꿈이.}

10813 @ 아! 그렇습둥?{아! 그렇습니까?}

10813 # 예. 꿈이. 어쩐가 하니 고려말르는 그거 무스기라 하는지? 마우재는 말리나라구 이렇
기 버얼건 거 있대님둥? 그거 꿈이 좋아한다구 하더구마. 그래 그 밭에 가네네는 꿈
이 떠워 보인답더구마.{예. 꿈이 어쩐가 하니 고려말로는 그거 무엇이라 하는지? 러시
아인은 딸기라고 이렇게 벌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꿈이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그
래 그 밭에 가면 꿈이 나타난다더군요.}

10813 @ 음. 음.{음. 음.}

10813 # 깨다나니 우리 나느 가 있을 적에 먼데르 못 댕게봤습꾸마. 거저 댕긴 사름덜이 말
하니 그 밭으르 말리나밭으르 들어가무 어떤 적에는 꿈이게 떠운다구서르.{그러다 보
니 우리 나느 거기 가 있을 때는 먼 곳을 다녀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닌 사람들이
말하니 그 밭으로 딸기밭으로 들어가면 어떤 때는 꿈이 나타난다고.}

10813 # 음. 음. 꿈이게 떠운다구.{음. 음. 꿈이 나타난다고.}

10813 # 예.{예.}

10813 @ 음. 그 아매 혹시 그 사이가 아주 좋은 형제, 형제 있잖습둥? 그 남재 남재 에 웃남
재 잇구 아랫남재 있으면 에 둘이 사이가 좋구 막 이런 얘기라든가 혹시 아는 거 있
으문.{음. 그 할머니 혹시 그 사이가 아주 좋은 형제, 형제 있지 않습니까? 그 남자
남자 형이 있고 아우가 있으면 둘이 사이가 좋고 막 이런 이야기라든가 혹시 아는 것
이 있으면.}

10813 # 그런 거 모르겠어.{그런 거 모르겠어.}

10813 # 아니면 그 우리 고렷사람 있잖습둥? 옛날 고려사람덜이 칼 들구 이렇게 데놈들을 데
놈들이 들어오는 거 막았다든가 그런 얘기는 혹시 없습둥?{아니면 그 우리 고려사람
있잖습니까? 옛날 고려사람들이 칼 들고 이렇게 되놈들을 되놈들이 들어오는 거 막았
다든가 그런 이야기는 혹시 없습니까?}

10813 # 어찌는가하니꺼더 마마네 젊어서는 사말리 있을 적에는 데놈파에 가잡다나니 데놈덜
이 후우재덜이 후우재덜이 마마네 사말리르 들언 두 번 든데 두 번 들었답더구마. 어
쩐가하니까더 후우재 드네는 녀자덜으 한 집우 쪼추구 남자덜으 한 집우 쪼추구. 그
래구 마마 식집우 갔을 때 크게 무스거 이렇기 금가락지나 여넵이나 비단 비늘 비네
나 이렇기 한나 두울이 그저 생긴 거 그거 가서 이렇기 덤제 열구서르 썩 파묻었답더
구마. 그거 썩 앓아빠구. 그래구 후우재덜이 들무 어쩐가하니 약담배르 얻어보느라
구.{어찌는가 하니까 어머니 젊어서는 사말리촌에 있을 때에는 되놈땅에 가까워 되놈
들이 강도들이 어머니네 사말리로 들어와 두 번 들었다더군요. 어쩐가 하면 강도가
들면 여자들을 한 집으로 쫓고 남자들을 한 집으로 쫓고(?). 그리고 어머니 시집을 갔
을 때 크게 무슨 이렇게 금가락지나 여넵(?) 비단 비누 비녀 이렇게 하나 둘 그저 생
긴 거 그거 가서 이렇게 자리를 열고 모두 파묻었다더군요. 그거 모두 빼앗아가고. 그
리고 강도가 들면 어쩐가 하면 아편을 찾느라고.}

10813 @ 아아.{아아.}

10813 # 약담배르 얻어보느라구서. 통 밭이 있구. 그전에는 제 밭에다두 그거 시몯답더구마.
약담배르 시몯답더구마. 약담배질하지. 그래다나니 후우재덜이 그거 얻어보느라구 썩
그래구. 남재들 그러네는 죽이구. 동삼에 딜에서는 남재덜 죽이구. 죽이구서는 구떠르

베에 구떠르 베에서 그거 주머니에 넣어 가지구 땡기구. 그게 예 뱅세터르 달가닥 달가닥 얼거덕 얼거덕 그런거터르. 한번은 들어온 거 이렇기 마우재촌에서 마우재덜이 와서 그래더랍꾸마. 후우재덜가, 너네 여기서 크게 얻어보디 못해 우리 우리 있는 데르 가자구서. 우린데 가무 너네 뵙이기두 잘 뵙이구 너네 무스거 가지구 싶은 거 다 준다구서르. 그래 열레서 데리구 갓답더구마. 데레가서 대 사림이 후우재 더어서넛 가서 보니까더 좋다구서 와서 저 데놈말 하메서 좋다구서 하메서 데레가구서. 그후에 후우재 없었답구마. 그래대니무 데깍하무 후우재 들어서 데깍하무 후우재 들어서 싹 그저 걷어가구 싹 걷어가구 그래구. 그래 사말리서느 마우재치다나니 쉼쉴건이랑 꽃으 꽃으 떠서 곱기 해에서 그랜거 그거 이렇기 매애가지구 땡기메서르 그룽기 그랩답더구마. 후우재덜이.{아편을 찾느라고. 모두 밭이 있고. 그전에는 자기 밭에다도 아편을 심었다더군요. 아편을 심었다더군요. 아편을 피우지. 그러니 강도들이 그거 찾느라고 싹 그래고. 남자들이 반항하면 죽이고. 겨울에 들어와서는(?) 남자들 죽이고. 죽이고서는 귀때기를 베어 귀때기를 베어서 그거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고. 그게 ‘뱅세’(만두 비슷한 음식)처럼 달가닥 달가닥 덜거덕 덜거덕 하는 것처럼. 한번은 들어온 거 이렇게 러시아 마을에서 러시아인들이 와서 그러더랍니다. 강도들에게, 너희 여기서 크게 찾지 못하니 우리 있는 곳으로 가자고. 우리한테 가면 너희 먹이기도 잘 먹이고 너희 무엇이든지 가지고 싶은 거 다 준다고. 그렇게 속여서 데리고 갔다더군요. 데려가서 땡(?) 사람이, 강도 두서넛 가서 보니까 좋다고 와서 자기 되놈말 하면서 좋다고 하면서 데려가고서 그 후에 강도 없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걸핏하면 강도가 들어서 모두 거두어 가고 모두 거두어 가고 그러고. 그래 사말리서는 러시아 사람이어서 세수 수건이랑 꽃을 꽃을 놓아서 곱게 해서 한 거 그거 이렇게 매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그랬다더군요. 강도들이.}

10813 @ 음. 음. 그 무서운, 무섭운 놈덜이꾸마, 후우재.{음음. 그 무서운, 무서운 놈들입니다, 강도.}

10813 # 후우재 데놈이, 데놈이 후우재.{강도 되놈이, 되놈 강도.}

10813 @ 호오재, 후우재?{호오잡니까? 후우잡니까?}

10813 # 예. 후우재, 후우재랍더구마.{예. 후우재, 후우재라고 하더군요.}

10813 @ 후우재.{후우재.}

10813 # 예. 후우즈.{예. 후우즈.}

@ 사말리에서 있었던 일이쥬?{그것이 사말리에서 있었던 일이쥬?}

게 사말리에서 있었던 일이구. 그래구 우리 빠빠 또 글으 니르느라구서 그 건네서 어드메서 물가역에서 데놈따에서 글으 넓었답더구마.{게 사말리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또 공부를 하느라고 그 강을 건너 어디 물가에서 되놈 땅에서 공부를 했다더군요.}

@ 아, 그렇습둥?{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글으 넓어서, 그게 글 니르는 집이 이렇기 있는게 보텔 싹 막았답더구마. 그래 후우재 들어서 에 보니 오는 게 많대인터랍더구마. 그래 서르 총질해했답더구마. 서르 총질한게 이 보태두 이렇기 있어 빠빠가 빠빠 글 니른 게 같이 두울이서 서구 잇은 게 총질한 게 그 사림이 그게 초오 맞은 게 거저 여기르 맞아서 그저 데깍 앓아서 상세 나구. 그게 우리 빠빠느 어떤가하니까더 토끼 삼개르 썼답더구마. 토끼 삼개 쓴 게 총질한 게 그저 토끼 삼개 꺾지 여기 따삽대님둥? 여길 여기르 홀 나가길래 빠빠 살았답더구마. 여길 요렇게. 조끔 네레갔다무 빠빠두 상세났습지.{그래서 공부를 해서, 그 공부를 하는 집이 이렇게 있는데 보(洑)로 싹 막았다더군요. 그래 강도가 들어서 보니

오는 놈이 많지 않더라더군요. 그래 서로 총질을 했다더군요. 서로 총질을 했는데 이 보도 이렇게 있어 아버지와 아버지와 같이 공부를 한 사람이 같이 둘이서 서 있었는데 총질한 사람이 그 사람이 총을 맞은 것이 그저 여기를 맞아서 즉각 앓아 죽고. 우리 아버지는 어떤가 하면 토끼 가죽으로 만든 모자를 썼다더군요. 토끼 가죽 모자를 쓰고 총질을 한 것이 그저 토끼 가죽 모자의 가죽이 따습지 않습니까? (총알이) 여기로 나갔기에 아버지가 살았다더군요. 여기를 요렇게. 조금 내려갔다면 아버지도 돌아가셨지.)

@ 음.{음.}

괴래 괴렸는지 그때 모지리 무섭아 해 그랬는지 빠빠 일찍이 상세난 게 어쩐가하니까더 골이 마우재벼어 그래대님둥? 라끄 라끄. 골이 라끄 돼서 우리 빠빠 상세났습구마. 맨 처음에 빠빠 괴랍더구마. 어 우리 추이 있을 적에 바깥에 나가 일하구 괴랍더구마. 들어와서 오늘 내 벨낭다구. 세때 불셰르나 홀 곱우라디무 말으 못하겠다구 하압더구마. 말이 아니 나간다구. 괴래다가서르 조끔 있으니 일없다구. 그다음에는 여기와서 어드메 바깥에 나갔다 들어와서 또 이게 세때 홀 괴래서 내 말하네는 그답에는 그게 영:자, 자주루 괴래서 그답에 빠빠 말으 못했습꾸마. 말으 말으 못하구 이 글으 싹 닛어 뿌레서 예 글으 싹 닛어뿌레서 무스거 이룽기 잡수나 물으 달라나 조끔 이기 정신 있으무 쓰대닐겠습둥? 이거 먹겠다구. 글으 싹 닛어빠리구 말으 싹 닛어빠리구 괴래 그저 버버리 댕습지.{그래 그랬는지 그때 몹시 무서워해서 그랬는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어떤가 하면, 머리가, 러시아 병명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라끄(+ пак,암) 라끄라고. 머리에 암이 생겨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맨 처음에 아버지 그러더군요. 음 우리가 주(州)에 있을 때 바깥에 나가 일하고 그러더군요. 일하고 들어와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별스럽다고. 혀가 갑자기 꼬부라지면 말을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말이 안 나온다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 팬찮다고. 그 다음에는 여기 알마티로 와서 어디 바깥에 나갔다 들어와서 또 이 혀가 그래서 내가 말하면 그 다음에는 그게 아주 자주 그래서 그 다음에 아버지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못하고 이 글을 모두 잊어 버려서 예 글을 싹 잊어 버려서 무엇을 이렇게 잡수시거나 물을 달라거나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으면 글을 쓰지 않겠습니까? 이걸 먹겠다고. 글을 싹 잊어 버리고 말을 싹 잊어 버리고 그래서 그저 병어리가 되었지요.}

@ 아.{아.}

그답엔 병원에 가서 이거 이거 따개 보구서 대비 대비 놓구 닷새르 집에서 정신이 없이 늑어 있다가서 상세났습지.{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이거 골을 쪼개 보고서 다시 도로 봉합해 놓고 닷새를 집에서 정신이 없이 누워 있다가 돌아가셨습지요.}

@ 몇 년도에 상세났습둥? 빠빠.{몇 년도에 돌아가셨습니까?}

예? 빠빠 쉰 둘해: 상세 났습꾸마.{예? 아버지 195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 아아. 그러니까 그 일천구백오십이년에.{아아. 그러니까 1952년에.}

예. 예.{예. 예.}

@ 상세나셨군요.{돌아가셨군요.}

@ 그……아매 나그네는 어 몇 년도에 상세나셨습둥? 아매 남편은?{그……할머니 남편은 음 몇 년도에 돌아가셨습니까? 할머니 남편은?}

내 괴래대님둥? 그렇기. 마마 남편이지, 빠빠.{내가 그러지 않던가요? 그렇게. 어머니 남편이지, 아버지는}

@ 파파.{아버지.}

예.{예.}

@ 아니, 아매 나그내!{아니, (어머니의 남편이 아니고) 할머니의 남편!}

아매, 아매 나그내. 아매 나그내나 빠빠 나그내나 모'릅꾸마. 아매 나그내, 마마 나그내무 그
게 빠빠지 머.{할머니, 할머니 남편. 할머니 남편이나 아버지 남편이나 모릅니다. 할머
니 남편, 어머니 남편이면 그게 아버지지 뭐.}

@ 아니, 아매 나그내있댜등? 남편이.{아니!, 할머니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남편이 빠빠지, 그게.{남편이 아버지지, 그게.}

@ 아니, 여기.{아니 여기 있는 할머니.}

내 남편이? 아! 내 남편으느 에 한갑우 녹십 살으 잡습구 어떤가하니까데, 에 노보 노보 고
뜨. 이게 둘째 아 아 이월이구 웬: 처암이무 무슨 달임등?{내 남편? 아! 내 남편은 환
갑을 예순 살을 잡숫고, 어떠한가 하면, 에 노보라는 도시에서. 이게 일년의 둘째 달이
아 아 이월이고, 맨 처음은 무슨 달입니까?}

@ 예, 이월. 일월, 이월.{예, 이월. 일월, 이월.}

아니. 이월, 삼월. 이건, 이건, 웬: 처암에.{이월, 삼월. 이건, 이건 일년의 처음.}

@ 정월.{정월.}

저월이무 녹십이겠는게, 이 아하 이 에 내달에 내 새해에 저월이무 녹십이겠는게 이해애 상
세났습꾸마. 썸 디샤뜨이 보씨모이 고뜨. 아! 썸 보씨모이 데바뜨이 녹십이 한갑이. 괴
랜게 썸 데샤뜨이 보씨모이 칠월에 상세났습꾸마.{정월이면 예순이 되는데, 이 아 에
내달에 내가 새해에 정월이면 예순이 되는데 이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1978년. 아!
78, 9년에 육십 환갑인데 1978년 7월에 돌아가셨습니다.}

@ 음. 음.{음. 음.}

녹십우 조끔. 썸 아홉우, 썸 아홉우 잡습구.{60을 조금. 썸 아홉, 썸 아홉을 잡숫구 (돌아가
셨습니다)}

@ 썸 아홉에.{썸 아홉에.}

예. 썸 아홉에 상세났…… 예. 칠월달에 상세났습꾸마.{예. 썸 아홉에 돌아가셨습니다. 7월에
돌아가셨습니다.}

@ 아, 칠월에.{아, 7월에.}

예. 칠월에.{예. 7월에.}

@ 음. 그게 뗏해임두?{음. 그게 몇 년입니까?}

기애두 내 어저는…….{그래도 내 이제는……}

@ 일천구백.{일천구백}

멍넨이무 멍넨이무 셔른 해돼앍꾸마. 상세난 데.{명년이면 명년이면 셔른 해 됩니다, 돌아가
신 지.}

@ 아아, 그렇습등? 음:.{아아, 그렇습니까?}

예. 명년 칠월이무 셔른 해입꾸마.{예. 명년 7월이면 셔른 해가 됩니다.}

@ 예.{예.}

괴래 내 그림 스물아홉 해르 호분자 있습꾸마.{그래 내 스물 아홉 해를 혼자 있습니다.}

@ 그렇지.{그렇지.}

예.{예.}

@ 예. 음. 음. 그 (웃음) 화친다구 그러셨쑤 어저께 그.{그 바람을 피웠다고 그러셨쑤, 어제
그.}

그게 내 본남편이 그렇기 화쳤습꾸마. 이 사름우느 화친건 없어두 수울으 좋아했습꾸마.{그
게 내 첫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 사람(재혼한 남편)은 바람을 피우는
일은 없어두 술을 좋아했습니다.}

@ 그랬다구 하셨죠. 음.{그렇다고 하셨지요. 음.}

네. 수울의 너무 마셔서 그래 일찍이 상세났스꾸마. 이 사람이 어쩐가하니까더 셔른 닐굽해 원도에서 예레둑 살으 갇기워서 더 쉼베르 마가단에 가서 ‘열해르 있었습꾸마.{네. 술을 너무 마셔서 그래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어쩐가 하니 1937년에 원동에서 열여덟 살에 옥에 갇혀서 저 시베리아의 마가단이라는 곳에 가서 10년을 있었습시다.}

아이구, 아이구.{아이고, 아이고.}

열해르 있구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또 칠년으 어드메 가디 못하기 거기 있구. 게다가니 열닐굽해르 그 마가단에서 잇었습꾸마.{10년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또 7년을 어디 가지 못하게 해서 거기서 있고. 그러다 보니 17년을 그 마가단에서 있었습시다.}

@ 쫓쫓쫓.{쫓쫓쫓.}

그담에 여기르 시내 어시내르 찾구 여기르 와서 홈자 와 잇다가서르 내가 또 멘목으 닉해서 그래 또. 예레답 살 먹은 사람이 무슨 예 일본 일본 개질한다구셔. 그래 그래 불들게 딜에갔지.{그 다음에 여기 알마티 시내에서 부모를 찾고 여기로 와서 혼자 와 잇다가 나와 또 낫을 익혀서 그래 또 (결혼하고). 열여덟 살 먹은 사람이 무슨 일본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그래 그래 불들려서 감옥에 들어갔지.}

@ 쫓쫓. 비극입꾸마.{쫓쫓 비극입니다.}

예.{예.}

@ 우리 민족에 비극.{우리 민족의 비극.}

예. 예.{예. 예.}

@ 그러니까 알아둬에 불들게 와서 시베리에 시베레에.{그러니까 열더덥에 불들려 와서 시베리아 시베리아에}

쉼베르 쉼베르 마가단에.{시베리아 시베리아의 마가단에 잇다가}

@ 쉼베르 마가단에 계시다가.{시베리아의 마가단에 계시다가}

예.{예.}

@ 그래다가 또 칠, 또 닐굽 해를.{그러다가 또 7년을.}

예, 예. 열 해르 거기 갇기워 잇다가.{예, 예. 10년을 거기에 갇혀 잇다가}

@ 갇기워 잇다가.{갇혀 잇다가}

또 닐굽해르 나가서두 어드메 다른 데르 못 가게 잇다가 그담에 어시내르 찾아서 셔른 닐굽해에 싣기워오니 아바지느 발써 상세난지 오라구, 그래구 어마니느 생전해에서 만나봤습지 머.{또 일굽 해를 밖에 나가서도 어디 다른 곳을 못 가게 해서 그곳에 잇다가 그 다음에 부모를 찾아서 (부모들이)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실려오니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고, 그리고 어머니는 생존해 있어서 만나보았지요 뭐.}

@ 음. 쫓쫓쫓 쫓.{음. 쫓쫓쫓 쫓.}

그랜게 즉금 내 남편네 식귀 어전 없습꾸마 아무래두. 다 상세났습꾸마. 아, 내 남편이 왜엔 큰으 둘째두 상세나구 셋째두 상세나구 넷째두 상세나구. 그래구 느비 한 분 잇었습꾸마. 켜게 느비두 상세나구. 아무게두 없습꾸마. 아:덜이 아:덜이 길어, 아:덜이 있어두 어전 내 이게 예 음 음 만이 그랜데 한 안 가두 아는 게 한나두 없습꾸마. 싹 남편이꾸마. 싹 남편이꾸마.{그러한데 지금 내 남편네 식구는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 돌아갔습니다. 아, 내 남편이 가장 큰 이고 둘째도 돌아가고 셋째도 돌아가고 넷째도 돌아가고. 그리고 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누이도 돌아가고.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이 남아서, 아이들이 있어도 이젠 내 이게 예 음 만

이 (있는 데) 그런데 한 번 안 가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짹 남입니다. 짹 남
입니다.}

@ 음. 음.{음. 음.}

어전 내 이렇기 혼자 있어두 디리바다보는 것두 없이 무스거 어 놀라오란 법이두 없지. 무
스 어뜨끼 사는가 전화르 거는 법이두 없이 그렇습꾸마. 괴래 이 스느비 한 분 있는
게 스느비의 괴래두 알아봤습꾸마 나르. 괴래 이 스느비 상세난 제 한 사년 됐습꾸마.
괴래구 이 스느비 남편이 상세난지 올해 ‘똥제세르 했습꾸마.{이젠 내가 이렇게 혼자
있어도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이 무슨 어 놀러오라는 법도 없지. 무슨 어떻게 사는가
전화를 거는 법도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 이 시누이 한 분이 있던 것이 시누이는 그래
도 알고 지냈습니다 나를. 그래 이 시누이 돌아가신 지가 한 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
도 이 시누이 남편이 상세난 지 올해 1주기 제사를 지냈습니다.}

@ 아, 올해.{아, 올해.}

예. 작년에 상세나니까더. 올해 똥제세르 지내지. 삼년 제세 삼년 제세르 기냈습꾸마. 괴래다
나니 어전은 친척이 없습꾸마.{예. 작년에 돌아갔으니까. 올해 1주기 제사를 지내지. 3
주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젠 친척이 없습니다.}

@ 없습꾸마.{없습니다.}

예. 예. 그 조캐덜이 있는게 조캐덜이 어전 짹 남이지. 짹 남이지. 알아보는 게 없습지 머.
예. 그거 내 괴랩꾸마. 어전 늣었지, 내 일 아니하지, 그거 곱우 더기 내 췌쓰다르췌스
그거 돈으 조끔 받아먹는 게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알아보는 게 없다구셔. 없습
꾸마.{예. 예. 그 조카들이 있는데 조카들이 이젠 아주 남이지. 아주 남아지. 알고 지
내는 사람이 없지요 뭐. 예. 그거 내 그럽니다. 이젠 늣었지, 내가 일을 아니 하지, 그
거 곱(?)을 저기 내가 연금(?)을 그거 돈을 조금 받아먹는데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
가. (그래서 둘째 남편의 자손들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없다고) 알고 지내는 사람이 없
다고. 없습니다.}

@ 그러면은 그: 이 나그내하구는 어뜨게 자손이 없습둥?{그러면 그 이 남편하고는 어떻게 자
손이 없습니까?}

이 나그내 자손이 예 어떤가하니 곱만 와서 예 셔바아 갔습꾸마. 곱만 와서 셔바아 가 그녀
자가 셔바아 가서 그 녀자 아아르 셔셔 어때 식어미가두 맞갑대닝게 살구 예 괴래니
그 녀자 홀 나갔습꾸마. 아아르 셔가지구 나갔습꾸마. 나가서 아아르 났습꾸마.{이 둘
째 남편의 자손이 예 어떠한가 하면 남편이 시베리아에서 금방 와서 예 장가를 갔습
니다. 금방 와서 장가를 가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 여자가 아이를 배서는 시어머
니와도 마당창게 살고 예 그러니 그 여자가 홀연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를 서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 췌췌췌.{췌췌췌.}

나가서 아들이 났습꾸마.{나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난 게 그담 아들이 나가지구 오래 있댔구 다른데 식집우 갔지. 아들이 내게 와서 내
게 와서 자라다가 핵교르 한 해르 땡겼습꾸마. 한해르 땡기워서 한해르 땡기구셔 제
어마니게 있다가서 여기서 그 녀자 떠나서 이 잠불이라는 데르 갔습꾸마. 괴래 가서는
내게 거기 거기르 드문드문, 내게 거기 사춘 오래비 잇었습꾸마, 괴래 놀라가네스 내
남편이 데레다가서 보고 그랬습꾸마. 남편이 상세나니 이 아들이 어쩐가하니 군사르
갔다왔습꾸마. 괴래 갔다 와서 애비르 장세르 하구 제어마니 있는테르 가서 칸따꼬 그
췌습꾸마. 괴별이 없습꾸마. 괴래 즉금 모릅꾸마, 살았는지. 어저는 어드메 가 잇는지
괴별이 없습꾸마.{아들을 낳은 사람이 그 담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오래 있지 않고 다

른 데로 시집을 갔지. 아들이 내게 와서 자라다가 학교를 한 해를 다녔습니다. 한 해를 다녀서 한 해를 다니고서 제 어머니에게 있다가 여기서 그 여자가 떠나서 잠불이라는 데로 갔습니다. 그래 거기 가서는 내게 거기에 거기를 드문드문, 내게 거기 사촌 오라비가 있었습니다, 그래 놀러가면 내 남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보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돌아가니 이 아들이 어떤가 하니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 갔다 와서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고 제 어머니 있는 곳으로 가서 갑자기 소식을 끊었습니다. 기별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 모릅니다, 살았는지. 이제는 어디 가 있는지 기별이 없습니다.

@ 기별이.{기별이.}

없습꾸마. 예. 그럼끄마.{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예. 그래두 그...아매한테 찾아와서 인사두 하구 그래야 데는데.{예. 그래도 그...할머니를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습꾸마.{그게 없습니다.}

@ 아아, 어째.{아아, 어째.}

모르지. 없습꾸마. 없습꾸마. 제 빠빠르 곱만 장세르 하구 이게 여기 기래두 '사춘덜이 있대 님등? 기래 둘째 시 까끄(+ как).....고, 고려말르 하무 우리 내'게는 그 사람이 둘째 그 새원이지?{모르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 아버지를 바로 장사를 지내고 이게 여기 그래도 사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둘째 시(嫗).....고려말르 하면 우리 내게는 그 사람이 둘째 서방님이 되지?}

@ 음.{음}

그게 아덜이 있대님등? 전화르 걸었됐습꾸마. 기래구 내 둘째 딸두 전화르 걸구 예. 기래다가서 어때 불체르 잔딱 그춘 게 어드메 가 잇는두 없습꾸마. 이번에두 둘째 시애끼 아 아들이 내가 그랩꾸마. 그 사람이 어떤가하니까더 음 음 가식에미 상세난 데 올해 들이 돼애크마. 기래 드문드문 나르 기래 오라구 하압더구마. 기래 그 사람두 어때 그렇기 기별이 없나. 제 동미 거기 있는 거 이릉기 말했답꾸마.{그 사람에게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그리고 내 둘째 딸도 전화를 걸고 예. 그러다가 어째 갑자기 홀연히 연락을 끊은 것이 어디에 가 있는지 없습니다. 이번에도 둘째 시 동생의 아들이 나에게 그림니다. 그 사람이 어떤가 하면 음 장모가 죽은 지가 올해 들이 됩니다. 그래 드문드문 나를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 그 사람도 어째 그렇게 기별이 없나. 제 동무 거기 있는 거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 알아보라구서르.{네가 알아보라고서.}

@ 음. {음.}

그런데 그 동미두 모 알아보았다구 그랩더구마. 개다나니 어드메 가 있는지 살았는지 어뻤는지 기별이 없습꾸마.{네가 알아보라고. 그런데 그 동무가 못 알아보았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다 보니 어디에 가 있는지 살았는지 어뻤는지 기별이 없습니다.}

@ 아, 알아볼 수 없습등? 어드메 있는지. 빨리짜이 가서 알아 볼 수 없습등?{아, 알아볼 수 없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경찰서에 가서 알아볼 수 없습니까?}

알아볼 슈 있기사 아무래 있지만애두 모르겠습꾸마. 나야 어전 늙어노니 알아보무 어떻구 아니 알아보무 어떻구.{알아볼 수 있기가 아무래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나야 이젠 늙었으니 알아보면 어떻고 아니 알아보면 어떻고.}

@ 웁습꾸마.{웁습니다.}

그 사람이.{그 사람이}

@ 재빌르.{제 스스로}

예 나르 알아보자무 예 재빌르 예. 내 늙은이 그거 찾아서 가르 잘못 사나 기래니무 이릉기

에 잘 살디 못하구 무스거 하 돕아주지 못하구 그런데 내 찾아서 무스걸 하겠습둥?
 괴래다나니 가아네 찾겠는지 아니 찾겠는지. 나는 내 큰딸으느 가르 큰딸으느 글으 니
 르네느 가서 마스크바 가 글으 니르메 다른 데 가서 그 대핵고서 글으 배와주메 괴래
 다나니 가아느 그렇기 잘 몰랐습꾸마. 내 둘째 딸으느 가아가 이렇기 가깝게 지웠습꾸
 마. 괴랜게 나두 어전 둘째 딸두 없지. 괴래다나니 나는 알아볼……내 가아 기별이 없
 어두 내 땡겠습꾸마 예 잠불으. 땡게두 늑은이 게 어드메 어드메 있는 거 그전에 있는
 거 그거 이거 써 놓아두 찾아 못 봤습꾸마.{예 나를 알아 보려면 예 스스로 예. 내 이
 늑은이가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아이를 잘못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잘 살지 못
 하고 뭐 도와주지도 못하고 할 터인데 내가 찾아서 무얼 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
 아이가 나를 찾겠는지 안 찾겠는지. 나는 내 큰딸은 그 아이를 큰딸은 공부를 하면 가
 서 모스크바에 가 공부를 하며 다른 데 가서 그 대학교에서 글을 가르쳐 주며 그렇다
 보니 그 아이는 그렇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내 둘째딸은 그 아이와 이렇게 가깝게 지
 냈습니다. 그런데 나도 이제는 둘째딸도 죽고 없지. 그렇다 보니 나는 알아볼……내
 그 아이 기별이 없어도 내가 그 아이에게 다녔습니다 예, 잠불을. 다녀도 늑은이 어디
 에 어디에 있는지 그전에 있던 데 그거(주소)를 써 놓았어도 찾아보지 못 했습니다.}

10813 @ 음. 음. 그 아까 넷날 내애기 좀 하셨재임둥? 음:{음. 음. 그 아까 옛날 이야기를 좀
 하셨지 않습니까?}

10813 # 예.{예.}

10813 @ 그 내:기 중에서 여끼 있댜둥?{그 이야기 중에서 여우 있잖습니까?}

10813 # 예. 여끼.{예. 여우.}

10813 @ 예. 그 여끼 나오는 내애기 없슴둥? 뭐 이런거 없슴둥? 범이 여끼, 범이나 여끼 나
 오는 내애기 있댜둥?{예. 그 여우 나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범이나 여우, 범이나 여우 나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10813 # 여끼무 마우재말르 무슨 즈스~인두. 여끼 그게 무스김둥? 여끼, 여끼, 여끼. 여끼 예
 따(+эта) 여끼 리사(+ лиса) 일리(+ или) 벨까(+ белка)?{여우면 러시아말로 무슨 짐
 승인가. 여우 그게 무엇입니까? ‘여끼, 여끼, 여끼, 여끼’ 이 ‘여끼’라는 것이 러시아말
 로 리사 일리 벨까(여우 또는 다람쥐)?}

10813 @ 내 마우재말르 생각이 아이 나압꾸마. 으음:{내 러시아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10813 @ 리사(+ лиса).{여우}

10813 # 여끼 리사.{‘여끼’는 ‘리사’}

10813 @ 리사. (웃음) 맞아.{‘리사’. (웃음). 맞아.}

10813 # 글쎄. 내 괴래 여끼 리사. 아하. 그런 말 없습지. 여끼 쟤 더기 사말리셔두 발에 여끼
 있답더구마. 여끼 있어서 괴래 이렇기 그런 그 총질하메서 그런 사름덜이 땡기는게
 어떤 적에느 여끼두 잡아오구. 그래구 쉰내~이두 어떤 적에느 잡아오구 괴래구 아
 곰이 곰이 있는 건 그거는 모르겠스꾸마.{글쎄. 내 그래 ‘여끼’는 러시아말로 ‘리사’일
 것으로 생각했지. 음. 그런 말 없지요(여우 이야기가 없지요). 여우 저기 사말리에서도
 발에 여우가 있다더군요. 여우 있어서 그래 이렇게 그 총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니
 는데 어떤 때는 여우도 잡아오고. 그리고 승냥이도 어떤 때는 잡아오고. 그리고 아 곰
 곰이 있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 음. 음. 그러문 토끼, 토끼는 봤슴둥?{음. 음. 그러면 토끼, 토끼는 보았습니까?}

토끼, 토끼문 그거 토끼두 보대냥구. 토끼 토자이드. 마우재말르 토자이드. 토끼는 봤습꾸마.
 어딘가하니까더 시베리 잇을 적에느 시베리 사름덜이 크기 토끼잡이르 했습꾸마. 괴래
 그저 동삼이무 토끼르 한 술기씨 실어오옵꾸마.{토끼, 토끼라면 그거 토끼도 보고 말

고. 토끼 토자이드. 러시아말로 토자이드. 토끼는 봤습니다. 어떤가 하면 시베리아에 있을 적에는 시베리아 사람들이 크게 토끼잡이를 했습니다. 그래 그저 겨울이면 토끼를 한 수레씩 실어옵니다.}

@ 아아 그랬습둥?{아아 그랬습니까?}

괴래 그 토끼고기르 싸다 먹었지.{그래 그 토끼 고기를 사다가 먹었지.}

@ 아: 으음.{아, 음.}

@ 이 사냥한 거르.{이 사냥한 것을.}

예. 사냥한 사름덜이. 예. 괴래구 그 사름덜이 사냥하다나니까더 여끼두 으 잡우네는 그 여끼틸이르 가져다가서 팔지. 여끼 꺾지르.{사냥한 사람들이.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냥하니 여우도 잡으면 그 여우털을 가져와 팔지. 여우 가죽.}

@ 예, 샵개두 하구.{예, 모자도 만들고.}

샵개도 하구 여기다가두.{모자도 만들고 여기다가도.}

@ 빨또.{외투}

여기다가두 빨또다가두 이룩기 매는 것두 하구. 괴래구 그거 가져다 팔구.{여기에다가도 외투에다가도 이렇게 매는 것도 하고. 그리고 그거 가져다 팔고.}

@ 샵개는 어떻게 생겼습둥?{모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샵개 어뜨기 생게……아이. 리시 리시 샵개 하는 거 내 못 봤습꾸마. 거저 이룩기 남자덜이 크기 쓰구 땡기구 녀자덜 꺼는 요령기 거저 조오꼬맏게 요령기 해아서.{모자가 어떻게 생겼……여우 여우 가죽 모자를 만드는 것을 내 못 봤습니다. 그저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쓰고 다니고 여자들의 것은 요령기 그저 조그맏게 요령기 해서.}

@ 음. 음.{음. 음.}

곶에다 쓰구. 샵개르 하는 거는 작습더구마. 샵개하는 거는 무스걸르 많이 하는가 하무 아 토끼 샵개르. 토끼 샵개르. 자이쯔(+ заяц) 샵개, 동삼 샵개르 동삼 샵개르 그걸르 하압더구마. 괴래 그게 어쩐가하니 여기다 여기다 까자르 하구 고담에 이거 이거 덩우문 올레놓구 칩우무 이래서 이래서 구띠꺼지 덩기 그렇기 하압더구마.{머리에다 쓰고. 모자를 하는 것은 작더군요. 모자는 무엇으로 많이 만드는가 하면 토끼 모자를. 토끼 모자를. 자이쯔(토끼) 모자, 겨울용 모자 겨울용 모자를 그것으로 많이 하더군요.}

@ 음. 음. 음.{음. 음. 음}

우리 쉼베리 있을 적에는 칩아와서 동삼에는 이거 구띠르 못 내놓구 살지. 그거 이래 이래. 괴래구 어쩐가하니 동삼에는 거기는 동삼에 칩아두 바람이 없다나니 일없지 머. 이룩기 사름이 여기 있구 도만:한 사름이 배우대넌꾸마. 강, 강기 끼워서 못 보옵꾸마.{우리가 시베리아에 있을 적에는 추워서 겨울에는 이거 귀때기를 못 내놓고 살지. 그거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어떤가 하니 겨울에는 거기는 겨울에 추위도 바람이 없어서 팬참지 뭐. 이렇게 사름이 여기 있고 조만한 사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강 안개가 껴서 못 봅니다.}

동삼에는 그렇기 칩습꾸마.{겨울에는 그렇게 춥습니다.}

@ 아아. 음.{아아. 음.}

개 그저 이거 이마 이만:치 이룩기 이룩기 달아가지구 땡기네는 눈썹이 이룩기 얼음이 이룩기 앉습꾸마. 이, 여기.{그래 그저 이거 이만큼 이렇게 이렇게 달아 가지고 다니면 눈썹이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앉습니다. 이, 여기에.}

@ (웃음). 음. 요기.{(웃음). 음. 요기에.}

예. 여기 이룩기 이 집에 들어와서는 이래 이래애애 쫓습꾸마. 괴래 낮으 이래대니무 이거 내 이 낮으 내 얼거서 예 가즈 여기르 와실 적에는 얼거와서 조끔 칩우무 이게 시퍼

렇게 돼애크마.{여기 이렇게 이 집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이렇게 닦습니다. 그래 낮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이 낮을 내가 열려서 예 갓 여기로 왔을 때에는 열려 놓아서 조금 추우면 이게 시퍼렇게 됩니다.}

@ 음.{음.}

칩아서 이거 칩아서 칩아서 칩아서 다 얼굴 적에느 따끔 하애크마. 그래무 새타얏게 돼애크마. 열거서 새타야케 돼애크마. 그래문 눈으 가지구서르 자꾸 이래 쫓구 눈으 가지구 자꾸 이래 쫓구. 눈으 가지구 이래 자꾸 쫓구야 그제 조끔 없어집꾸마. 없어지무 제살이 조끔 배웁꾸마.{추워서 이거 추워서 추워서 추워서 다 열릴 적에는 따끔 합니다. 그러면 새하얏게 됩니다. 열려서 새하얏게 됩니다. 그러면 눈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닦고 눈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닦고. 눈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닦아야만 그제 조금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제 살이 조금 보입니다.}

@ 그렇기 칩습둥?{그렇게 칩습니까?}

그렇기 칩습꾸마.{그렇게 칩습니다.}

@ 지금 말씀하신 게 야꾸뜨?{지금 말씀하신 게 야쿠트지요?}

야꾸찌 그렇기 칩습꾸마.{야쿠트가 그렇게 칩습니다.}

@ 예.{예.}

내 둘째딸으 낳구서르 한적간으 가느라구서르 어쩐가하니까더 거기서는 동삼에 이 으 소캐바디르 낳구 땡기꾸마. 그거 홀 닛어뿌리구 아니 낳구 맨 맨 속 맨 이런 버션 신쿠 갓 땡습꾸마. 그래 이거 열거서 이거 열거서 한적간 들어가니까더 이게 예 열렸던 게 예 땡은 데 들어가니까더 이런 이렇기 무스기 물이 가자 여기 껍질 밑에 물이 갑아서 이렇게 땡습꾸마. 안칸덜이 마우재안칸덜이 보구, 아우! 이런 사람이 어찌 땡기는가 하애크마. 그래 어찌갓습둥 한적하구 집에 와서 그거 바늘르 이렇기 꽃 꽃아 놓오니까 물으 싹 찌우구. 꼬 껍질 다시 붙에놓았습지. 그래 이내 났습꾸마. (웃음).{내가 둘째딸을 낳고서 휴양소(?)를 가느라고서 어찌했는가 하면 거기서는 겨울에 이 솜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그걸 잠시 잊어 버리고 안 입고 맨 속으로 맨 이런 버션 신고 갓었습니다. 그래 이거 열려서 이거 열려서 한적간(?)에 들어가니까 이게 예 열렸던 것이 예 더운 곳에 들어가니까 이런 이렇게 무슨 물이 여기 (피부의) 껍질 밑에 물이 괴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낙네들이 러시아인 아낙네들이 그걸 보고, 아우! 이런 사람이 어찌 다니는가 하더군요. 그래 어찌갓습니까 휴양을 하고 집에 와서 그거 바늘로 이렇게 꽃아 놓으니까 물이 싹 빠지고. 그리고 그 피부 껍질을 다시 붙여 놓았지요. 그래 이내 나왔습니다. (웃음).}

@ 아아 그렇게 해서.{아아 그렇게 해서 (치료를 했군요).}

예. 그렇기 칩습꾸마. 그렇기 칩은 데 있었습꾸마. 개놓오니 여기와 웬: 처암에 여기 와 이실 적에느 어쩐가하니까더 동삼이 여기느 그렇기 없대님둥? 그래두 어 어느 날에 무스거 낳구 무스거 신쿠 그렇기 땡기무 거기는 칩다하문 발써 칩은 거 거 어 음 소캐바디르 낳구나 그래구 왈랜끼 신으나 그래무 거저 그렇기 땡기지. 눈이 눈이 아니 녹습꾸마. 봄이구야 그저 눈이 녹지. 동삼이 돌아오무 칩어서 그저 칩은 우티르 거저 죠고리두 그거 두껍은 거 신쿠 사깨두 이거 쓰는 게 이렇기 토끼 삼깨두 쓰구 그래구 오……. {예. 그렇게 칩습니다. 그렇게 추운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와 맨 처음에 있을 적에는 어떤가 하면 겨울이 여기는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날에 무엇을 입고 무엇을 신고 그렇게 다니면 (되지만) 거기는 춥다하면 벌써 추운 거 대비해서 솜바지를 입거나 그리고 왈랜끼라는 가죽신을 신거나 그러면 그저 그럭저럭 그렇게 하고 다니지. 눈이 눈이 안 녹습니다. 봄이어야만 그저 눈이 녹지. 겨울이 돌아오면 추워

서 그저 추운 옷을 그저 저고리도 그저 두꺼운 거 입고 모자도 이거 쓰는 게 이렇게 토끼 가죽으로 만든 모자도 쓰고 그리고 오……}

@ 요기 무스거 친구?{요기에 무엇을 신고?}

요기 신는 게 이렇기 예 왈린끼라구 있습구마. 왈린끼. 우리 동 마마 사말리셔는 무스게 가태기 가태기 하압더구마. 사말리셔는 고렷사람이 가태기 하압더구마. 마우재말르느 왈린끼 우리 사름운 거기서 가태기 가태기 하압더구마. 괴래 옷습더구마. 그제 무슨 말인가 하압더구마. 괴랜 우리 고렷사름덜으는 사말리 사름덜으는 가태기 신었다구. 가태기르.{요기 신는 게 이렇게 예 왈린끼라고 있습니다. 왈린끼. 우리 어머니 사말리촌에서는 무슨 가태기 가태기 하더군요. 사말리촌에서는 고려사람이 가태기라 하더군요. 러시아말로는 ‘왈린끼’. 우리 사름운 거기서 가태기 가태기 하더군요. 그제 웃더군요. 그제 무슨 말인가 하더군요. 그래서는 우리 고려사름들은 사말리 사름들은 가태기 신었다고. 가태기를.}

@ 아, 가태기.{아 가태기.}

예. 가태기. 어떤가하니까더. 이, 음.{예. 가태기. 어떤가 하면. 이. 음.}

아, 가태기.{가태기.}

예.{예.}

@ 도로기 하구 땀땀?{다로기하고 다릅니까?}

어떤 적으는 도로기는 그저는 사말리셔는 그저 어쩐가하니까더 예 거저 가슬 가슬 봄 신습더구마, 도뢰기르. 그저는 어 이게 이런 이런 가죽이 얇은 가죽일르 거저 합더구마. 도뢰기르. 거기다가서르 음 음 그제 도로기에다 어쩐가하니까더 새르 새르 그제 이렇기 폐구 밑에다 조오평 폐구 괴래구 형겅을르 이거 발으, 음, 음 고려말르느 그제 무스기라구, 마우재말르느 빠르젠끼(+ портянка)르 막아서느 괴래 그제 친구 땀겅습지. 도뢰기. 괴래구 동삼에는 가태기.{어떤 때에는 다로기 그것은 사말리에서는 그제 어떤가 하면 예 그제 가을 가을 봄으로 신더군요, 다로기를. 그것은 어 이게 이런 이런 가죽이 얇은 가죽으로 그제 만들더군요. 다로기를. 거기다가서 음 음 그제 다로기에다 어 찌했는가 하면 새(草)를 새를 그제 이렇게 펴고 신의 밑에다 조금 펴고 그리고 천으로 이거 발을, 음, 음 고려말로는 그제 무엇이라고 하던가, 러시아말로는 빠르젠끼(각반)을 앞을 막아서 그리 해서 그제 신고 다녔지요. 다로기. 그리고 겨울에는 가태기를 신고.}

괴래니무 왈린끼.{그렇지 않으면 왈린끼.}

@ 음. 아, 가태기.{음. 아, 가태기.}

예. 그제 어쩐가하니까더 그제 쎄:베리에서 이 더기 시비:리에서. 그전에 마스크바 마스크바 셔두 그전에 신었습꾸마, 그런 거. 쎄게 이제 와서는 통 그제 이렇기 신발으 어저는 가죽 신발으 그제 밑에 안에다가 털이 그래구서르 신는 게 어저는, 샤, 러시아 사빠기(+ сапоги){예. 그제 어떤가 하면 그제 시베리아에서 이 저기 시베리아에서 (신었던 것이죠). 그전에 모스크바 모스크바에서도 그전에 신었습니다, 그런 거. 그런던 것이 이제 와서는 모두 그제 신발을 이제는 가죽신을 그제 밑에다 안에다가 털이 들어가도록 해서 신는 것이 이제는 러시아 가죽장화.}

@ 그렇죠.{그렇죠.}

예.{예.}

@ 음. 음. 음. 샤쁘그.{음. 음. 음. 가죽장화.}

샤빠기.{가죽장화.}

@ 가죽.{가죽.}

예. 가죽 신발이, 이마:니.{예. 가죽 신발. 이만큼.}

@ 이마:니 올라오는 거.{이만큼 올라오는 가죽신.}

예. 예.{예. 예.}

@ 음. 옹습꾸마. 그런데 이: 도로기 있댜등?{음 옹습니다. 그런데 이 다로기 있지 않습니까?}

도로기?{다로기?}

@ 예. 아까 말씀하신 거. 사말리에서 신으셨던 거. 그거 무스걸르 만듭등?{예. 아까 말씀하신 거. 사말리촌에서 신으셨던 거. 그거 무엇으로 만듭니까?}

그거, 거저 가죽이. 얇은 가죽이. 이만, 이만:치 도로기두 이만:치. 도로기 우리 내 괴래.{그 거, 그저 가죽. 얇은 가죽. 이만, 이만큼 다로기도 이만큼 다로기 우리 내 그래.}

@ 어디까지? 어디까지?{목이} 어디까지 어디까지 올라옵니까?

여기까지 올라 오읍꾸마. 도로기. 여기까지 오읍꾸마. 예. 여기까지 오읍꾸마. 괴래구 형것을 르 발으 그전에는 무스 이러 이러는 게 어디 있었습등? 어 드문드문 흑간 괴래지. 맨 발에다 형것으 감아서 괴래구, 괴래구 그 도로기 밑에다가는 즉금으는 즉금으는 이런 게 여기 밑에 빠꼴라끼 있대니우? 그전에는 거기 이런 거 이런 게 없어서 도로기 밑에다가, 도로길르 웬: 가죽을르 하다나니 아무것두 없지 뭐. 이 안에 이 안에 여기 이 안에. 괴래다나니 거기다가 새르 얹다:사게 요령기 폐놓습더구마. 괴래구 이 그 형것을르 발으 감아 놓구 그래구 신구 땡졌습지.{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도로기. 여기까지 옵니다. 예.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천으로 발을, 그전에는 무슨 이런 이러는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드문드문 흑간 그러지. 맨발에다 천을 감아서 그리하고, 그리고 그 다로기 밑에다는 지금은 지금은 이런 것이 여기 밑에 신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거기 이런 것이 없어서 다로기 밑바닥에다가 다로기를 온전히 가죽으로 하고 보니 아무것도 없지 뭐. 이 다로기 신 안에 이 안에 여기 이 안에. 그리고 보니 거기다가 새를 알파랴게 요렇게 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그 천을르 발을 감아 놓고 그리고 신고 다녔지.}

@ 음.{음.}

내 그래 괴래댄습두? 우리 세베르 드러갈 적에 열이틀 들어가메 도로기르 신구 들어갔지. {내가 그래 그러지 않던가요? 우리 시베리아에 들어갈 적에 열이틀을 걸러 들어가며 다로기를 신고 들어갔지.}

@ 신구 들어갔지.{신고 시베리아에 들어갔지.}

예. 그게 괴래다나니 거저 거기다가 이릉기 새르 폐구 빠르젠끼(+ портянка)르 하구 들어가서 물으 물으 켄네무 그것두 뺏아서 물우 찌우구 그 새르 내서 물으 꼭 짜구 형것으 두 물우 짜구 괴래구 다시 감아가지구 또 따 가구. 조끔 가네는 물이 이만:치 물이, 물밑에 돌이 어똥기 미끄러운지 거저 자빠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괴래매 괴래매 건넌갔지. 괴래 괴래 열이틀 가메 어쩐가하니까더, 내 더기 즉금 셋째 애끼가: 동새 그 때는 널굽살이 땡습꾸마. 개다나니 걸어들어가다가두 없으네는 말으 말으 그래서 말이 말 우에 앉았습지 뭐.{예. 그게 그러다 보니 그저 거기다가 이렇게 새를 펴고 각반을 하고 들어가서 물을 물을 건너면 그것도 벗어나서 물을 흘려 버리고 그 새를 꺼내서 물을 꼭 짜고 감발을 한 천도 풀어서 물을 짜고 그리고 다시 감아 가지고 또 가고. 조끔 가면은 물이 이만큼 물이, 물밑에 돌이 어떻게 미끄러운지 그저 자빠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그러면서 건너갔지.}

@ 음. {음.}

그래 조끔 가자가구. 괴래구 그 물 건널 적에느 가:느 조꼬만하다나니 우리 마마 가:르 업구 말퐁대르 쥘구 괴래 그거 말이 지러가메. 개 한 번으는 어떤가 와서 말퐁대르 안죽 못

줬는데 홀 말이 가니 마마 자빠디디 물이. 그래 가: 마마 등때게서 떨어데서 물에서
갔다 왔다 갔다 왔다.{그래 조금 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 물 건널 적에는 그 아이는
조그마하니 우리 어머니 그 아이를 업고 말뚝지를 잡고 그래 그거 말이 앞질러 가며.
그래 한 번은 어떤가 하면 와서 말뚝지를 아직 못 쥐었는데(잡았는데) 갑자기 말이 가
니 어머니가 자빠지지 물에. 그래 그 아이 어머니 잔등에서 떨어져서 물에서 갔다 왔
다 갔다 왔다.}

@1 아.{아.}

(웃음) 마마 너무: 너무 딱 그래느. 그래 꼬스구 땡기다:: 못해서 벨 데 왔다구.{(웃음) 어머
니 너무 너무 딱 그러하니. 그래 끌고 다니다 못해서 벨 데를 다 왔다고.}

@ (웃음) 예.{(웃음) 예.}

우리 자라메서르 마마가 빠빠 이릉기 말도툼하나 그런 거 못봤습꾸마. 그제 첫번이 마감번
입꾸마, 그렇기 본 거. 어떻게 마마 어떻게 괴렸던지, 개 꼬스구 땡기다: 땡기다 못해
벨 데 타구서 와서 조그마터문 아르 죽일뻔 했다구. 물이 가이 모지리 네레가는데 괴
래구 물이 얼음터르 그렇기 차지. 그런데 가 넘어나디 못해 물르 올라갔다 네레갔다
올라갔다 네레갔다 해서 췌우 붙들어냈지. 괴래 내 그 도로기르 신어 신어 봤습꾸마.
{우리 자라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렇게 말다툼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을 못 보았
습니다. 그제 첫 번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본 것이. 어떻게 어머니 어떻게 그랬던
지, 그래 끌고 다니다 다니다 못해 별 곳을 타고 와서 하마트면 아이를 죽일 뻔했다
고. 물이 강이 몹시 내려가는데 그리고 물이 얼음처럼 그렇게 차지. 그런데 그 아이가
일어나지 못해 물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겨우 붙들어 내었지.
그래 내 그 도로기를 신어 봤습니다.}

@ 어 그러니까 예: 엄마가 자식 사랑이 자식을 사랑해서.{어 그러니까 예 엄마가 자식 사랑이
자식을 사랑해서.}

예예.{예.}

@ 예, 처음.{예, 처음.}

처음 그렇.....{처음 그렇.....}

@ 도툼이르 했습꾸마.{다툼을 했습니다.}

예. 도툼우 하는 거 봤습꾸마.{예. 다투는 것을 봤습니다.}

@ 사랑 때문에 자식의 사랑해서 자식들.{사랑 때문에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들.}

우리네르 우리네르 우리네느 자주루 욱했습꾸마. 자주. 너네 거기르 가디 말아라. 너네 저물
어 오디 말아라. 이릉기 어전 나아 조끔 먹구서르 춤추기 좋아했습꾸마, 내. 괴래다니
춤추러 가자구 하네느 예 마마는 보내대답꾸마. 괴래무 빠빠가 괴래네느 빠빠느 가만
가가라. 가가라. 일없다. 가가라 일없다. 빠빠느 가만이 그랩꾸마. 가가라. 일없다. 가
놀아라. 가 놀아라. 빠빠느 그랩꾸마. 그래네느 마마 혈뜯는 게 간나덜으 그렇기 자래
와서 그담에는 무스게 무스게 돼겠는가구 그랩꾸마.{우리네를 우리네를 우리네는 자주
욕했습니다. 너희 거기를 가지 말아라. 너희 저물어서 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젠 나이
조금 먹고서 춤추기를 좋아했습니다, 나는. 그러다 보니 춤추러 가려고 하면 예 어머
니는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그러면(말하면) 아버지는 가만히 가거라. 가
거라. 팬찮다. 가거라 팬찮다. 아버지는 가만히 그럽니다. 가거라. 팬찮다. 가서 놀아
라. 가서 놀아라. 그러면 어머니가 혈뜯는 것이, 계집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서 그담에는
무엇이 무엇이 되겠는가 하고 그럽니다.}

@ (웃음) 한 분은 잘 되, 이렇게 엄하게 이렇게 해야지 자식들이 조심하구 그러문 다른 한 분
은 좀 이렇게 풀어 주구 예 그래야지 부모 어시, 어시가 그래야지. 예. 예.{(웃음) 한

분은 잘 되라고, 이렇게 엄하게 이렇게 해야지 자식들이 조심하고 그러면 다른 한 분은 좀 이렇게 풀어 주고 예 그래야지 부모, 부모가 드래야지, 예 예.}

웃음. 개 어떤가하니까더 춤출라 가두 그거 가서 돈으 조끔 물어야 돼대님등? 개 마마게 빌 어선 돈으 아니 주옵꾸마. 마마 돈으 어드메 어떻게 자레:다 자리에다 자리밑에다 잔 돈으 두무, 괴래무 마마 없을 적에 가만가만 도둑질 해아서 가압꾸마.{{웃음}. 그래 어떠한가 하면 춤추러 가도 그거 가서 돈을 조금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어머니에게 빌서서는 돈을 아니 줍니다. 어머니 돈을 어디다 어떻게 방바닥에 까는 자리에다 자리에다 자리 밑에다 잔돈을 두면, 그러면 어머니 없을 적에 가만가만 도둑질해서 춤추러 갑니다.}

@ (웃음) {{웃음}}

뽀뽀 없으네스 마마게서 괴래 돈 도둑질해아서 갔스꾸마.{{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돈 도둑질을 해서 춤추러 갔습니다.}}

@ (웃음) 없으네스.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도로기는 예:: 무슨 도투가죽임등 쉐가죽임등?{{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다로기는 예 무슨 돼지가죽입니까? 쇠가죽입니까?}}

거반 도투가죽임더구마. 거반 도투가죽임더구마. 스비나이꼬르(+ свињья кожа), 도투가죽이.{{거의 돼지가죽이더군요. 거의 돼지가죽이더군요. 러시아어로 스비나이꼬르, 돼지가죽.}}

@ 음. 음.{{음. 음.}}

고려말르스 도로기, 마우재말르스 이치기.{{고려말로는 ‘도로기’(다로기), 러시아말로 ‘이치기’}}

@ 마우재말은?{{러시아말은?}}

이치기.{{‘이치기’.}}

@ 이치기?{{‘이치기’?}}

예.{{예.}}

@ 아, 이 도로기 마우재말도 있음등?{{아, 이 다로기 러시아말도 있습니까?}}

마우재말이 없습꾸마. 없습꾸마. 도로기 고려말르 우리 도로기, 도뢰기. 그 도뢰기 우리 집안에서 들었지 이룽기 다른 집에서 못들었스꾸마.{{러시아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로기. 고려말로 우리 ‘도로기’. 그 다로기 우리 집 안에서 들었지 이렇게 다른 집에서는 못 들었습니다.}}

@ 음.{{음.}}

개구 사말리에서 마마 사말리 사름덜이 도로기 친구 땡겔다구 도로기 친구 땡겔다구. 개 여길 오니 여기 사름덜으는 어쩐가하니 여기 사름두 그런 거 친구 땡깁더구마, 예. 여기 사름덜이. 게 여기 사름덜으스 예 대애지르 치땡:다나니 어쩐가하니까더 이 세 아비에스(+ овца) 그 시 아 까르(+ как) 고려말르 그거 이 즘스이덜으 이 예 고려말르 이 즘스이덜으 쉐가죽이 애니구.{{그리고 사말리에서 어머니 사말리 사람들이 다로기 친구 다녔다고 다로기를 신고 다녔다고. 그래 여길 오니 여깃 사람들은 예 돼지를 기르지 않고 보니 어쩐가 하면 이 이 아비에스(양) 그것을 아 고려말로 어떻게 (말하나) 그거 짐승들을 이 고려말로 이 짐승들을 쇠가죽이 아니고.}}

@ 양?{{양(羊)?}}

예. 양가죽이르 이 사름덜으는 양가죽이 해 친구 땡깁더구마.{{양가죽으로 이 사람들은 양가죽을 해 신고 다니더군요.}}

@ 영게 고렷사름덜이.{{여기 고려사람들이?}}

여기 샤깨덜이. 여기 샤깨덜이 그거 친구 땡깁꾸마.{{여기 카자흐 사람들이. 여기 카자흐 사

람들이 그거 신고 다닙니다.}

@ 아 그렇습둥?{아 그렇습니까?}

예, 여기 샤깨덜이 즉금 이게 예 깨아서 그런가 하지. 그전에 우리 어리네는 거반 그런거 친구 땡졌습꾸마. 귀래구 그거 양가죽이 예 그게 양가죽을르 압다:살게 돼다나니까더 그거 친구 그래구서 바깥에 나갈 적애는 갈로샤(+ галоша) 친구.{예, 여기 카자흐 사람들이 지금 이게 머리가 깨어서 그런가 하지. 그전에 우리 어리면 거의 그런 것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거 양가죽 예 그것이 양가죽으로 알파랑게 되어 있고 보니 그거 신고 그리하고서 바깥에 나갈 적에는 갈로샤(방수용 덧신)를 신고.}

@ 갈로쉬.{갈로쉬.}

예. 갈로쉬르. 귀래구서 들어와셔는 갈로쉬르 뺏구는 이, 이 도로기는 아니 뺏구 귀래구 땡집더구마. 집안 안에서는.{갈로쉬를 신고. 갈로쉬를. 그리하고서 들어와셔는 갈로쉬를 벗고 다로기는 안 벗고 다니더군요. 집안 안에서는. 음.}

@ 아, 그러니까 도로기르 친구 거기다가 또 갈로쉬르 친구.{아, 다로기를 신고 거기다가 또 갈로쉬를 신고.}

네예. 바깥에 나갈 때애는 갈로쉬르 친구. 그게 어쩐가하니까더 양가죽 압다살게. 압다살게 그렇습더구마. 깨다나니 그거 땡거 친구 나가네는 이릉기 예 침대님둥? 깨다나니 갈로쉬르 친구 땡졌지.{바깥에 나갈 때애는 갈로쉬를 신고. 그게 어쩐가 하면 양가죽을 알파랑게. 알파랑게 그렇더군요. 그렇다 보니 땡으로 신고 나가면 이렇게 예 춥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갈로쉬를 신고 다녔지.}

@ 그러니까 속에 도로기 비슷한 거 친구 고담에 또 이 갈로쉬, 갈로쉬르 친구.{그러니까 속에 다로기 비슷한 것을 신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 이 갈로쉬, 갈로쉬를 신고.}

예. 바깥에 나갈 적애는 갈로쉬르 친구. 바깥에 나갈 적애는 갈로쉬르 친구 땡기구.{예. 바깥에 나갈 때애는 갈로쉬를 신고. 바깥에 나갈 때애는 갈로쉬를 신고 다니고.}

@ 아아. 으음.{아아. 음.}

즉금두 이 나라 보네는 어떤 늙은 노친네 예 늙은 노친네덜이 그런 거 귀래 친구 땡집꾸마.{지금도 이 나라 보면 어떤 늙은 노인네는 예 늙은 노인네들은 그런 거 그렇게 신고 다닙니다.}

@ 샤깨.{카자흐 사람.}

예. 샤깨덜이 친구 땡기구. 고려샤름덜으는 그런 거 친구 땡기는 게 없습꾸마. 우리 샤말리셔는 내 뜰 마마 들으니 마마 무스거 신었는가 물어보네는 도로기르 친구 땡졌다구, 도로기. 도로기.{카자흐 사람들이 신고 다니고. 고려샤름들은 그런 거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샤말리에서는 내 어머니에게서 들으니 어머니 무엇을 신었는가 물어 보면 다로기를 신고 다녔다고. 다로기. 다로기.}

@ 여기 어 아매 일루 오셨을 때 그때 고려샤름덜은 도로기 아니 신 신었습둥?{여기 어 할머니 이리로 오셨을 때 그때 고려샤름들은 다로기를 안 신었습니까?}

아니 신었습꾸마. 여기서 아니 신었습꾸마. 여기서 아니 신었습꾸마. 여기 샤깨덜 여기 샤깨덜으는 신었습꾸마.{안 신었습니다. 여기서 안 신었습니다. 여기서 안 신었습니다. 여기 카자흐 사람들, 여기 카자흐 사람들은 신었습니다.}

샤깨덜이.{카자흐 사람들이.}

예. 여기 샤름덜으는 신었습꾸마.{예. 여기 사람들은 신었습니다.}

@ 그럼 아매가 신었던 샤말리하구 야꾸뜨에서 신었던 도로기하구.{그럼 할머니가 신었던, 샤말리하고 야꾸트에서 신었던 다로기하고}

야꾸.....{야꾸.....}

@ 여기 샤깨덜이 신던 도로기하구 같습둥? 생긴 게.{여기 카자흐 사람들이 신던 다로기하고 같습니까? 생긴 것이?}

조곰 땀꾸마. 어쩐가하니까 사말리러는 이 대애지 꼬기 없다나니 꼬이깨다니 조곰 두껍대님 둥? 가죽이 두껍지. 여기 도로기는 양 끼다나니 모지리 얇습더구마. 모지리 얇(+ [얹]) 습더구마. 모지라 얹습더구마. 그래구 야꾸데 꺼느 어쩐가하니까더 거기서느 이룽기 그 샤름덜으느 뿔이 있는게 알레니 있대님둥? 알레느 그거 그래다나니, 그 샤름덜으느 이룽기 이: 껍지 애니구 그거 털이 한테 거저 알레니 이슈꾸라 그래서 그것두 그렇기 도로기터르 그렇기 해: 신습꾸마. 그건 어쩐가하니까더 여기 이룽기 털이 그냥 잇구 여기다가서르 구슬두 이룽기 꽃으 해에서 무스거 해에서 곱기 해 신구 땡쨌습꾸마, 그 이꾸대덜으느. 동삼에 야꾸대덜으느.{조곰 다릅니다. 어쩐가 하면 사말리에서는 이 돼지 고기 없고 보니 꼬아깨이고 보니 조곰 두껍지 않습니까? 가죽이 두껍지. 여기 다로기는 양 것이다 보니 몹시 얇더군요. 몹시 얇더군요. 몹시 얇더군요. 그리고 야쿠트 것은 어쩐가 하면 이렇게 그 사람들은 뿔이 있는 동물로 순록(馴鹿)이 있지 않습니까? 순록 그거(가죽) 그렇다 보니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 껍질이 아니고 그거 털이 한테 거저 순록의 부드러워서(?)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다로기처럼 그렇게 해서 신습니다. 그건 어쩐가 하면 여기 이렇게 털이 그냥 있고 여기다가 구슬도 달고 이렇게 꽃을 해서 무엇을 해서 곱게 해서 신고 다녔습니다, 그 야쿠트인들은. 겨울에 야쿠트인들은.}

@ 야꾸데덜으느.{야쿠트인들은.}

예.{예.}

@ 응. 음. 음. 그러문 이 가태기 있댜둥? 사말리에서 샤름덜이 우리 민족이 신던 이 가태기라고 하는 거 있대님둥? 가태기하구 도로기하구느 어떻게 따암둥? 도로기.{응. 음. 음. 그러면 이 가태기 있지 않습니까? 사말리에서 샤름덜이 우리 민족이 신던 이 가태기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태기하고 도로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도로기.}

그건 모르쨌습꾸마. 어떻게 판다. 가태기 그게 아무래 어쨌든 왈랜끼, 가태기. 그건 어쩐가하니까더 위 아…….{가태기 그게 아무래도 어쨌든 ‘왈랜끼’, 가태기. 그건 어쩐가 하면 위 아……}

@ 왈랜끼라구 했쨌?{왈랜끼라고 했쨌?}

예. 왈랜끼, 그거느 아무래 이룽기 가태기터르 아니합지 뭐. 고거느 털일르 이르 이런 거 하대님둥? 이 이 이런 거 털일르 한 게 덤대님둥? 그전에 남자덜으 옷으 이 바디 이 저고리 그렇기 그런 게 형겅이 있대님둥? 그런 형겅을르 쉼스파겨 그겅르 이룽기 가태기르 하압꾸마. 그거느 껍질르 아니 하압꾸마.{예. 왈랜끼, 그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가태기처럼 아니 하지요 뭐. 그것은 털로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 이런 거 털로 한 것이 덤지 않습니까? 그전에 남자들은 옷을 이 바지 이 저고리 그렇게 그런 것을 지은 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천으로 쉼스파겨 그것으로 이렇게 가태기를 합니다. 그것은 껍질로 아니 합니다.}

그거느 이런 겅르 이런 겅르 거 하압꾸마.{그것은 껍질로 안 합니다. 그것은 이런 겅로 합니다.}

@ 음.{음.}

그래다나니 내 우리 쉼베르 가 있을 적에느 예 가 이꾸대 가 있을 적에느 이꾸대덜이 이런 겅 가태기르 아니 신었습꾸마. 그 샤름덜은 도로기, 내 그래님둥 왈레니 껍지 여기 털이 있는게 여기다가서 구슬르 무스거 꽃을르 피워서 그래 곱기 해에서 그래 신구 땡쨌습꾸마. 그래 거기 쉼 마우재덜이 이 가태기르 신었지, 왈랜끼 신었지. 우리두 왈랜끼 신구.{그러다 보니 내 우리가 시베리아에 가 있을 적에는 예 야쿠트에 가 있을

적에는 야쿠트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태기를 안 신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로기, 내 그러지 않습니까? 알레니(순록) 껍질 털이 있는 거 여기다가 구슬로 무슨 꽃으로 수놓아서 그래 곱게 해서 그리해서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 거기 러시아인들이 이 가태기를 신었지, 왈린끼를 신었지. 우리도 왈린끼를 신고.}

@ 그렇죠.{그렇죠.}

예. 우리두 우리네는 그거 이꾸데 그거 아니 신었습꾸마.{우리도 우리네는 그거 야쿠트 사람은 그거 안 신었습니다.}

@ 음. 그러니까 이 발린끼를 우리 고렷사람들이 가태기라구 그랬습둥?{음. 그러니까 이 발린끼를 우리 고려사람들이 가태기라고 그랬습니까?}

예.{예.}

@ 음. 음.{음. 음.}

즉금 여기는 고 고려말으 하는 사름덜이 작게 돼다나니까더 더 가태기란 말으 못들었습꾸마 예. 가태기라는 게 우리 마마 괴래짐. 동삼 동삼이무 우리 사말리셔 가태기두 친구 괴래구 어 더기 에 남자덜이 거반 도뢰기느 거반 남자덜이 신었지 머. 녀자덜으는 무스거 신었는가 하무 내 괴래대니 사말리 칩대니까데, 가마써. 신으 신으 해: 신었지. 신으 해: 신었지. 동삼신으느 이룽기 무스거 두꺾기 통해서 예: 이 이룽기 이 이것두 이 마:니 두꺾기 해에서 괴래 친구 땡졌지, 신으.{지금 여기는 고려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저 가태기란 말을 못 들었습니다 예. 가태기라는 것이 우리 어머니 그러지. 겨울 겨울이면 우리 사말리에서 가태기도 신고 그리고 저기 남자들이 거의 다로기는 거의 남자들이 신었지 뭐. 여자들은 무엇을 신었는가 하면 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말리가 춥지 않아서, 가만있자, 신을 신을 해 신었지. 신을 해 신었지. 겨울신은 이렇게 무슨 두꺾게 모두가 해서 예 이 이렇게 이 이것도 이만큼 두꺾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신고 다녔지, 신을.}

@ 음.{음.}

괴래 그 신두 예 거저 막 막 친구 땡기는 거 있구, 괴래구 또 멍 멍실날에 신는 것두 그건 또 우에다 꽃으 피워서 여기다가 꽃으 피워서 형겅두 곱운 형겅을르 그래 해에서 신으 고건 멍실 건 따구.{그래 그 신도 예 그저 막 신고 다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명절날에 신는 것도 그건 또 위에다 꽃을 놓아서 여기다가 꽃을 놓아서 천도 고운 천으로 그렇게 해서 신을 (해서 신었는데) 고건 명절에 신는 것은 다르고.}

@ 음.{음.}

그저 막 친구 땡기는 거 따구.{그저 막 신고 다니는 것 다르고.}

@ 따구.{다르고.}

예. 괴래구 남자덜으느 거저 그…….{예. 그리고 남자들은 그저 그……}

@ 음. 음.{음. 음.}

그담엔 이때와서는 이게 그전에 그전에 괴렸지. 마마 마마두 어래실 적에 그 새애기 시절에 괴렸지. 이제와서는 통 깨에서 마우재식을르 통 괴래지. 마우재 신발으 친구. 마우재샤 빠귀두 친구 그렇습지. 어저는 가태기두 없어지지. 이게 가태기 직금 있는 게 어드메 있는가 하니까데 칩운데 쉼베르에서두 그런데서 있구. 소련따에 마우재 에 즉금 레닌 그라:드나 그런테두 즉금 가태기 신는 게 작지 머.{그 다음에는 이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그전에 그전에 그랬지. 어머니 어머니도 어렸을 적에 그 처녀 시절에 그랬지. 이제 와서는 모두 머리가 깨어서 러시아 사람식으로 모두 그러지. 러시아 사람 신발을 신고. 러시아 사람 가죽장화도 신고 그렇지요. 이제는 가태기도 없어지지. 이게 가태기 지금 있는 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 추운데 시베리아에서도 그런 데서도 있고. 소련 땅

에 러시아 사람 에 지금 레닌그라드(상트 페테르부르크)나 그런 데도 지금 가태기를 신는 사람이 적지 뭐.}

@ 작지.{적지.}

작지 며. 어찌다가 나아 먹은 사름덜이 그런 거 친구 땡기지. 점문이덜은 싹 요기 오는 거 사빠귀 친구 땡깁지.{적지 뭐. 어찌다가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신고 다니지. 젊은이들은 모두 요기까지 오는 거 가족장화를 신고 다니지요.}

@ 음. 싹빠귀.{음. 가족장화.}

예. 게 어전은 왈린끼 신는 것두 그제 늙으니덜이. 여기서두 마우재늙은이 나 가뜩 먹은 사름덜은 동삼에 그런 거 친구 땡기구.{예. 그제 이제는 왈린끼를 신는 것도 그제 늙은이들이. 여기서도 러시아인 늙은이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겨울에 그런 거 신고 다니고.}

@ 음.{음.}

예. 그래 어저느 그런 거 신어두 그제 예 자꾸 이 따이 동삼이 어 따이 아침에 얼었다 점심엔 녹았다 기래니 그제 어쩐가하니까더 이런걸르 하다나니까더 녹으무 홀 져습지. 기래다나니 그제 갈로쉬라는 거 그제 친구. 거기다가 바테 친구 그래구 땡졌지.{그런 거 신어도 그제 자꾸 이 땅이 겨울에 땅이 아침에 얼었다 점심엔 녹았다 그러하니 그제 어쩐가 하면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 녹으면 져지요. 그러니 그제 갈로쉬라는 거 그제 신고. 거기다가 받쳐 신고 그리하고 다녔지.}

@ 음. 그럼 사말리에 있을 적에는 우리 고렷사람덜이 이 덮울르 맨든 저……신은 안 신었습둥? 녀름에. {음. 그럼 사말리에 있을 적에는 우리 고려사람들이 이 짚으로 만든 저……신은 안 신었습니까? 여름에.}

모르겠스꾸마. 그제 잇었는지 없었는지이. 짚울루 맨든 게 모릅겠습꾸마.{모르겠습니다. 그제 잇었는지 없었는지. 짚으로 만든 것을 모르겠습니다.}

@ 음.{음.}

내 그거 우리 쎄:베레 있을 적에 예 우리집에서 우리 빠빠 같이 예 그 사람이 보토리 우리 빠빠 같이 있는 게, 둘, 어드메서 들어왔는게 그전에 까레이서 쎄:베르느이 까레이서 들은 게 사람이 늙은 노친이 잇었습꾸마. 그 사람이 제이꾸데에서 조끔 나가서 잇었습꾸마. 촌에 나가 잇었습꾸마. 기래 셔바야 간 게 그제 거 무스그 밭에 시문 게 크게 대대닐구 살아가는 게 간 그 까끄(+как) 잘 살디 못하니 기래 셔바야 간 게 어쩐가하니 그거 그 그 무스걸르 했든지 마우재덜은 랍띠 랍띠.{내가 그거 우리 시베리아에 있을 적에 예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와 같이 (지낸), 예 그 사람이 홀아비인데 우리 아버지와 같이 있던 사람이 어디서 들어왔는데 그전에 한국에서 북한에서 들어온 사람이 늙은 노친이 잇었습니다. 그 사람이 본디 야쿠트에서 조금 나가서 잇었습니다. 촌에 나가 잇었습니다. 그래 장가를 간 것이 무엇을 밭에 심은 것이 크게 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떻게 잘 살지 못하니 그래 장가를 간 것이 어쩐가 하니 그거 그 무엇으로 했든지 러시아인들은 ‘랍띠’}

@ 음. 랍띠?{음. 랍띠?}

랍띠. 그거 안까니 해 신긴 거. 내 그건 봤습꾸마. 그제 첫 번 마감 번 그 고렷사람이 그런 거 하는 거 못 봤습꾸마.{랍띠. 그거 아내에게 해 신긴 거. 내 그건 보았습니다. 그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것. 고려사람이 그런 거 만드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내.}

@ 음.{음.}

갠게 그 데두시까(+дедушка)느 그 아바니느 그런 거 해아서 제 부인의 신졌습더구마.{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는 그런 거 해서 자기 부인을 신졌더군요.}

@ 음.{음.}

요런 신발의 싸지 못하니 발의 뺏구 못 댕기니 그거 해했지. 신겼습더구마.{요런 신발을 사지 못하니 발을 벗고 못 다니니 그제 신을 지었지. 신겼더군요.}

@ 음.{음.}

괴래 거기셔두 괴랍더구마. 야 괴차다! 이 시대에 에 그거 마 괴려말르 그거 무시기라 하던 두 괴랍더구마. 랍띠 그런거 친구 댕긴다구셔르. 랍띠.{그래 거기서도 그러더군요. 야 기차다! 이 시대에 에 그거 괴려말로 그거 무엇이랴 하던지 그러더군요. 짚신 그런 거 신고 다닌다고서. 짚신.}

랍띠(+lapt'i)?, 랍띠(+rapt'i)?{랍띠(lapt'i)?, 랍띠(rapt'i)?}

라(+la) 라(+la){라la 라la}

@ 랍띠쵸?{발음이 랍띠(lapt'i)쵸?}

랍띠.{랍띠.}

@ 음. 음. 음.{음. 음. 음.}

그때 그거 그 준더 내 그때 준더나 더기 다 그 제부시까 무스걸르 했는지 내 잘 보두두 못했습꾸마. {그때 그거 그 준더(?) 그때 준더(?) 저기 그 할아버지 무엇으로 했는지 내 잘 보지도 못했습니다.}

10901 @ 음. 음. 음. 그럼 예: 아매 ... 그 으 금점판 있대님둥?{음. 음. 음. 그럼 예 할머니 ... 그 금점판 있지 않습니까?}

10901 # 예.{예.}

10901 @ 예 그 금점판에서 일들을 그때에 어떻게 했는지 금을 어떻게 이렇게 예: {예 그 금점판에서 일들을 그때에 어떻게 했는지 금을 어떻게 이렇게 예:}

10901 # 어떤가하니 예.{어찌했는가 하니 예.}

10901 @ 갈가냈는지.{갈라냈는지.}

10901 # 이릉기.{이렇게.}

10901 @ 그것 좀 말해주옵쇼.{그것 좀 말해 주십시오.}

10901 # 괴려말르 하자무 어떻게 말하겠는지. 어떤가하니까더 이릉기 물으, 물으 이릉기 물으 크다:샹기 이릉기 가아터르 크:기 하압꾸마. 물이 네레오게. 괴래 거기다가셔르 구시터르 이릉기 하압더구마. 한 거 널르 이래 구시터르 해아서. 이릉기 네레오기. 괴래구 거기다가셔르 흙으 흙으 파는 거 이게 즉금 석탄이랑 파대님둥? 하대님둥? 그렇기 흙으 파압더구마. 그렇기 흙으 파가셔 거기다가셔 흙으 파셔 구시에다가셔 자꾸 이랍더구마. 괴래무 이쪽에 더기 물으 물으 물 물은 올라와셔 구시르 네레가게 그릉기 하압더구마. 괴래 그거 흙으 자꾸 그레네느 물이 네레오매 흙으 씻습더구마. 괴래무 이 더기 ... 호미 같은 거 가지구셔 흙으 씻습더구마. 그 흙으 자꾸 밀에떼레 이랍더구마. 이래 이래. 네레오무 거기다가 이릉기 구시터르 거기다가 췌다~을르 구냐 있는 걸르 흙으 자꾸 이래네네느 금이 그 구냐알르 들어가라르. 괴래 흙으 다아 자꾸 오분 오분 할릴으 괴래구셔르 괴래 물이 다 네레가무 그거 췌자: 홀 내구셔 거기서 어떤가하니 네레간게 무시기 네레가는가 하니까더 예 금에 같이 새까만 게 이게 새까만 게 이게 까끄(+как) 빠(+по) 로스(+рус) 새까만 게 괴릉기 금가 같이 네레가압더구마. 괴래 네느 그거 마르네네느 새까만 거 있대님둥? 요 이 이런 췌재 마그니뜨(+магнит) 그 걸르 일으네느 그게 싹 붙습더구, 거어먼 게. 괴래구 금이느 노오란게 싹: 잇구. 그렇기 그랩더구마. 어떤다하니 그거 괴래구 어 큰 큰 아깁리느 그게 어떤가하니 그게 무스젠가 트랙터르터르 그렇기 생긴 게. 즉금 여기서 무스거 올라가구 내려가구 그래덤둥? 무시젠가 하무 그 말르 무시긴가 마우재말르 드라가(+драга){괴려말로 하자면

어떻게 말해야 할는지. 어떤가 하면 이렇게 물을 물을 이렇게 물을 커다랗게 이렇게 강처럼 크게 합니다. 물이 내려오게. 그래 거기다가 구유처럼 이렇게 하더군요. 한 것을 널로 이렇게 구유처럼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그리고 거기다가 흙을 흙을 파는 거 이게 지금 석탄이랑 파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흙을 파더군요. 그렇게 흙을 파가서 거기다가서 흙을 파서 구유에다가 자꾸 이러더군요. 그러면 이쪽에 저기 물을 물을 물 물은 올라와서 구유로 내려가게 그렇게 하더군요. 그래 그거 흙을 자꾸 그렇게 하면은 물이 내려오며 흙을 씻더군요. 그러면 이 저기... 호미 같은 거 가지고서 흙을 씻더군요. 그 흙을 자꾸 밀어뜨려 이러더군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다가 이렇게 구유처럼 생긴 거기다가 철판으로 구멍 있는 것으로 흙을 자꾸 이렇게 하면은 금이 그 구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흙을 다 자꾸 온종일 그러고서 그래 물이 다 내려가면 그거 철판을 내고서 거기서 어떤가 하니 내려간 것이, 무엇이 내려가는가 하면 예 금과 함께 새까만 것이 이게 새까만 것이, 이게 러시아말로 어떻게 말하나, 새까만 것이 그렇게 금과 같이 내려가더군요. 구러면 그거 마르면 새까만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요 이 이런 철판 자식 그것으로 일면 그게 싹 붙더군요 거면 것이. 그리고 금은 노오란 것이 싹 있고. 그렇게 그러더군요. 어떤가 하니 그거 그리하고 어 큰 큰 아킬리(?)는 그게 어떤가 하니 그게 무엇인가 트랙터처럼 그렇게 생긴 게. 지금 여기서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하면 그 말로 무엇인가 러시아말로 드라가(драга, 준설기)}

10901 @ 드라가(+ драга).{준설기.}

10901 # 다(+ да), 드라가(+ драга). 드라가 이룽기 커다:상게 이룽기 물 한판에 이룽기 셔구 잇습꾸마 예? 물 한판에. 그래 여기서 즉금 이 흙으 파무 이룽기 이룽기 파내님둥? 이룽기. 이 이 엑스까빠페르(+ экскаватор) 파대님둥? 그 드라가두 그게 잇습꾸마. 이룽기 이룽기 파서 이래 파서 흙으 자꾸 이래 파서 자꾸 이래 파서 거기다가 싹는 테르 놓습더구마. 그래 싹어 오분할릴으 싹어서 그거 물이 싹 네레가무 홀 널 그거 널 위에 그거 있는 거 들어내네는 거기 예따(+ эта) 거어만 게 무시거 가뜰한 재같은 게 예 재까망꾸마, 그거는. 그게 금에 같이 잇습더구마. 금에 같이 잇습더구마. 금우 거게서 금우 내자구서 그러네는 거어면 거 이 마그니뜨(+ магнит) 이래 싹 그랩꾸마. 마그니뜨 붙으무 금이 딸르 나옵더구마.{예. 준설기. 드라기 이렇게 커다랗게 이렇게 물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예? 물 한가운데. 그래 여기서 지금 이 흙을 파면 이렇게 이렇게 파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이 굴착기로 파지 않습니까? 그 준설기에도 그 굴착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파서 이렇게 파서 흙을 자꾸 이렇게 파서 자꾸 이렇게 파서 거기다가 싹는 데에 놓더군요. 그래 싹어 온종일 싹어서 그거 물이 싹 내려가면 널 그거 위에 그거 있는 거 들어내면 거기 음 거면 것이 무엇 같은 재 같은 것이 예 새까맙니다, 그것은. 그게 금에 같이 있더군요. 금에 같이 있더군요. 금을 거기에서 금을 내려고 그러면 거면 거 이 자석에 이렇게 싹 그립니다(붙습니다). 자석에 붙으면 금이 따로 나오더군요.}

10901 @ 음. 음.{음. 음.}

10901 # 그래 금이 금점이 곰만 열어서는 그 드라갈르 금우 그래무 그게 아킬래서 그거 금우 많이 그래지. 그래구 이거 이 구시르 해아서 그래는거는 금우 그렇기 많기 못 얻어보 나이지 며. 이거 이거 구시르 그래게는 그저 사람이 크기 크기 있어서 사람이 그저 대여섯이 잇습더구마. 드라가는 어쩐가하니까더 그게 에스카바터르 일으 하다나니 거기는 사람이 여라무 열대에 그렇기 일하지.{그렇게 금이 금점이 금방 열어서는 그 준설기로 금을 그렇게 하면 그게 앓기 때문에 그거 금을 많이 그래지. 그리고 이거 이

구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금을 그렇게 많이 못 찾아보기 때문이지.}

10901 @ 음. 음.{음. 음.}

10901 # 드라가느 그게 예 금이 곰만 그거 금우 열어서 금이 많아무 일이 많아무 그게 드라가 물 한판에 물 한판에 셔구 있지. 그거 자꾸 물밑에서 자꾸 이렇기 흙으 파내지. 흙으 파내서 괴래 쫓지 머. 괴래구 구시 괴래는 거는 그저 광차윌르 이래 이래 자꾸 놓습더구마 예. 괴래무 호미 같은 거 가지구 자꾸 밀어서 이래 흙으 쫓습더구마, 자꾸. 괴래 흙은 네레가구 그 금우느 거어먼 거 같이 이 셋재 놓은 데르 자꾸 들어가지.{준설기는 그게 예 금이 금방 그거 금광(金鑛)을 열어서 금이 많으면 일이 많으면 그게 준설기가 물 한가운데에 물 가운데에 서 있지. 그거 자꾸 물밑에서 자꾸 이렇게 흙을 파내지. 흙을 파내서 그래 쫓지 뭐. 그리고 구유에서 하는 작업은 그저 삽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꾸 놓더군요 예. 그러면 호미 같은 것을 가지고 자꾸 밀어서 이렇게 흙을 쫓더군요, 자꾸. 그래 흙은 내려가고 그 금은 거어만 것과 같이 이 철판 놓은 데로 자꾸 들어가지.}

10901 @ 음.{음.}

10901 # 저녁이무 홀 그거 들어내구. 이 그거 거어문 거 사발이나 무슨 그릇에다 이렇게 그담에 그거 거어문 거 마그닛 큰 거 가지구서 이래 이래네느 썩 붙으네느 썩 올라붙으네느 금은 그저 썩 같아, 같았아 있습지.{저녁이면 그거 들어내고. 이 그거 거어문 거 사발이나 무슨 그릇에다 이렇게 (담고) 그 다음에 그거 거어문 거 자석 큰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러면 썩 붙으면 썩 올라붙으면 금은 그거 모두 같았아 있지요.}

10901 @ 음. 음.{음. 음.}

10901 # 괴래 괴래 금우 괴래가지구서 그담에 괴래 금우 공리사 쌀라타 스킵까(+ скупка)라구 쌀라타 스킵까 그게 금우 바티는 데르. 그거 가져다 금우 바티네느 그 돈으 돈으 거저 주탱:구 보너(+ бонны)라는 거 그런 거 기다:산 거 주옵지 머. 괴래 가서 어떤 적에느 그게 그 보너 스토포(+ сто) 백이 백냐: 백이두 괴래다나니 거기 이렇기 조꼬막씩 조꼬막씩 떡으 싸무 예 하 하내~ 아니겠습둥? 고거 하내~ 베에넵더구마 요래. 베에내구션 이썩 거 큰 거 돈으 주구. 마감에 그게 돈으 조썩 하무 다 그 그 공리사 들어갑지 그게 그저. 괴래다나니 우리 쓴 돈이 그렇게 없습지, 그, 그:.(그렇게 그렇게 금을 그렇게 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래 금을 공리사(公吏社)(?) 쌀라타 스킵까라고 그게 금을 바치는 데를 (말하지). 그거 가져다 금을 바치면 그 돈을 돈을 그저 주지 않고 물표(쿠폰)라는 거 그런 거 기다란 것을 주지요 뭐. 그래 가서 어떤 때에는 그게 그 전표 백, 백 냥, 백도 (되고) 그러다 보니 거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뽕을 사면에 한 냥 아니겠습니까?, 한 냥을 베어내더군요 요렇게. 베어내고션 이썩 거 큰 거 돈을 주고. 마지막에 그게 돈을 조금 하면 다 그 공리사로 들어가지요 그게 그저. 그러다 보니 우리가 쓰는 돈이 없지요(우리가 직접 돈을 가지고 쓰지 않지요), 그, 그.}

10901 @ 버너.{물표(쿠폰)}

10901 # 예. 보너, 보너, 보너.{물표. 물표. 물표.}

10901 @ 버너.{물표.}

10901 # 보너. 예. 금무 바티무 보너 받습지. 돈으 받탱구 보너. 괴래구 그 돈으 쓰자무 그 보너르 가지구서르 금우 받은 데르, 다른 데 있습꾸마. 그거 가져다 주무 그게 보너 백냐이무 거저 돈으 백냐~으 주구, 그 돈이 오백냐~이무 돈 오백냐:~ 주구 그랍더구마.{물표. 예. 금을 바치면(가져다 주면) 물표를 받지요. 돈은 받지 않고 물표를. 그리고 그 돈을 쓰려면 그 물표를 가지고서 금을 받은 데를, 다른 데(공리사가 아닌)가 있습니다. 그거 가져다 주면 그게 물표 백 냥이면 그저 돈을 백 냥을 주고, 그 돈이 오

백 냥이면 돈 오백 냥을 주고 그러더군요.}

10901 @ 음. 음. 이 한 냥이무 얼맴둥? 루블루 말하무. 지금 아매 말씀하신 오백냥 그랬대님
둥?{음. 음. 이 한 냥이면 얼마입니까? 루블화로 말하면. 지금 할머니 말씀하신 오백
냥이라고 그랬잖습니까?}

10901 # 예.{예.}

10901 @ 오백냥이면은 루블루 뎡 루블이나 텨뎡?{음. 오백 냥이면 루블로 뎡 루블이나 됩니
까? 음.}

10901 # 모르겠습꾸마.{모르겠습니다.}

10901 @ 음. 음.{음. 음.}

10901 # 모르겠스꾸마. 그때 돈이 예 돈이 그 보너 한 내~이무 그거 돈이 얼맴두 모르겠습
꾸마.{모르겠습니다. 그때 돈이 예 돈이 그 물표 한 냥이면 그거 돈이 얼마였는지 모
르겠습니다.}

10901 @ 아직.{아직.}

10901 # 싹 닳어뿌렸습꾸마.{싹 잊어버렸습니다.}

10901 @ 닳아서.{잊어서.}

10901 # 예. 닳어 모르겠습꾸마. 즉금 이게 즉금 이게 달러두 그렇대님둥? 즉금 달러르 예 예
달러르 백냐~이무 우리 이 쟁게무 되쎄 그렇지. 괴래 즉금 달러르 달러르 즉금 스토
드바찌치뜨리 괴래무 이 이 쟁게무 드베나치뜨리스떠 그러꾸마. 괴랜게 그전에 보너
한내~이무 우리 돈이 얼맴던지 그거 닳어뿌레 모릅꾸마.{예. 잊어 모르겠습니다. 지
금 이게 지금 달러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달러를 예 달러를 백 냥이면 우리 이 덩
게면 천 그렇지. 그래 지금 달러를 달러를, 지금 124라고 하면 이 덩게로, 124 그립
니다. 그런데 그전에 물표 한 냥이면 우리 돈이 얼마였던지 그거 잊어 버려 모릅니
다.}

10901 @ 음. 음. 직금 일 팔라가 음 아진 스토, 아진 스토 예: 드베드차뜨 쉼미 보스 아.{음.
음. 지금 1달러가 음 100, 100 (하교) 예 27, 8.}

10901 # 쉼? 드베나차뜨 치뜨리.{7? 24}

10901 @ 드베나차뜨 치뜨리. 아진 스토.{24. (그리고) 100}

10901 # 아하. 아진 스토 드베나차뜨 치뜨리.{음. (1달러에) 124(덩게).}

10811 @ (웃음) 음: 그러문 도채비:: 내기느 없었슴둥? 도채비나 도깨비 뭐 이런 내기는 없었
슴둥? {(웃음) 음: 그러면 도깨비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도깨비나 도깨비 뭐 이런 이
야기는 없었습니까?}

10811 @1 도채비 이 방망이 막 두들긴다거나 하는 이런 얘기는 아니 들어보셨슴둥?{도깨비
방망이 막 두드린다거나 하는 이런 이야기는 못 들어 보셨습니까?}

10811 # 그건 모르겠습꾸마.{그건 모르겠습니다.}

10811 @1 아. 혹시 팽이 있잖슴둥?{아. 혹시 고양이가 있지 않습니까?}

10811 # 예?{예?}

10811 @1 팽이, 야옹야옹 하구 다니는.{고양이, 야옹야옹 하고 다니는.}

10811 @ 팽이가 뭐야.{'팽이'가 뭐야.}

10811 @1 고내, 고내.{고양이, 고양이.}

10811 #고내.{고양이.}

10811 @1 예. 고내. 고내 얘기는 없슴둥?{예. 고양이. 고양이 이야기는 없습니까?}

10811 # 고내 즉금 여기 고내느 즉금 여기 통 집에다 치디. 집에다 고내 치디.{고양이 지금
여기 고양이는 지금 여기 사람들이 모두 집에다 치지. 집에다 고양이를 치지.}

10811 @ 음.{음.}

10811 # 고내르 즉금 집에서 치는 게 통 고내 그레 곱아하메 치더만, 고내.{고양이를 지금 집에서 치는데 모두 고양이를 그렇게 좋아하며 치더구먼, 고양이를.}

10811 @ 음.{음.}

10811 # 쟁게 내게는 고내두 없구 개두 없구 아무게두 없습꾸마.{그런데 내게는 고양이도 없고 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10811 @ 예.{예.}

10811 @1 그럼 개하구 고내하구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 옛날 못 들어보셨습둥? 옛날?{그럼 개하고 고양이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이야기 옛날 못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10811 # 옛날부터 기래디 머. 이룽기 예 쥬에 사름가 으, 음, 음 가깝기 사대니무 예 고내가 개터르 산다구 기래지. 그게 어쩐가하니까더 고내가 개 예 같 같이 못 사대님둥? 개 개다나니 쥬에 사름가 자꾸 이룽기 도툼 말도툼두 하며 같이 사대니구 기래무 거저 고내가 개 같터르 산다 기래더구마. 고내가 개터르 산다구. 마우재덜은 기래꾸마. 르 부끄 꼬쉬까(+ кошка) 사바끼(+ собакой).{옛날부터 그러지 뭐. 이렇게 쥬에 사람과 음 음 가깝게 살지 않으면 예 고양이와 개처럼 산다고 그러지. 그게 어떠한가 하면 고양이와 개 같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다 보니 쥬에 사람과 자꾸 이렇게 다툼 말다툼도 하며 같이 살지 않고 그러면 그저 고양이와 개처럼 산다고 그러더군요. 고양이와 개처럼 산다고. 러시아인은 그러합니다.}

10811 @ (웃음).{(웃음).}

10811 # 고렷사름덜은 고내가 개터르 산다구.{고려사람들은 고양이와 개처럼 산다고.}

10811 @ 예. 예.{예. 예.}

10811 @ 예. 음. 쿵조시, 팔, 풀조시 이런 말, 팔조시 들어봤습둥? 조시, 쿵조시란 말으 들어 못봤습둥?{예. 음. 쿵조시, 팔, 풀조시 이런 말, 팔조시 들어 보았습니까? 조시, 쿵조시란 말을 들어 못 봤습니까?}

10811 # 아 무슨 말인지 내 마마게서는 무슨 이 팔조시란 말은 내 듣기는 어느 때 들었습꾸마. 기란데 그게 무스거 어쩐지 그건 모릅꾸마.{아 무슨 말인지 내 어머니에게서는 무슨 이 팔조시란 말은 내 듣기는 어느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고 어떠한지는 모릅니다.}

10811 @ 아, 그렇습둥?{아, 그렇습니까?}

10811 # 예, 그건 모릅꾸마. 기래구 어쩐가데 사름이 이룽기 조오꼬망구 예 기래구 무스거 어찌기 어찌무 그거 무스거 어찌무 마마 무스거 어쩐가하니까 무슨 무슨 초시라 하압더구마. 기래게 그거는 모르읍꾸마.{예, 그건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가 하면 사람이 이렇게 조그망고 예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어찌하면 그거 무엇을 어찌하면 어머니가 무엇이 어떠한다고 했는가 하면 무슨 무슨 초시라 하더군요. 그렇지만 그거는 모릅니다.}

10811 @ 음. 음.{음. 음.}

10811 # 작은 사름우 팔조시라구 하던디. 기래대니무 무시거 어떤지 어쩐지 어떤 건 무슨 어떻게 말하 어떤 적에는 마마 무슨 말하더두 그런 거는 무시게라구 마마 말한지 우린 모 알아들었지 머. {작은 사람을 팔조시라고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어떤지 어찌했는지 어떤 건 무슨 어떻게 말하고 어떤 때는 어머니 무슨 말을 하던지 그런 것은 무엇이라고 어머니 말했는지 우리는 못 알아들었지 뭐.}

10813 @ 음. 음. 빠잘루이스따 스까지찌 루스끼이 라스까지.{음. 음. 러시아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10813 # 루스끼이(+ русский) 라스까지(+ рассказ). 마우재 라스까즈(+ рассказ) 무스거라구

말하겠슴둥? 무스거?{러시아 이야기. 러시아 사람 이야기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무엇?}

10813 @ 그 에 넷날에 들은 거 머. 라스꺼즈 한 마디 해 주옵쇼.{그 에 옛날에 들은 거 뭐,
이야기 한 마디 해 주십시오.}

10813 # 아, 넷날에 무슨. 마우재덜이 그런 넷말이 넷말이 그런 게 없습뽀니.{아, 옛날에 무
슨. 러시아인들 그런 옛말이 옛말이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10813 @ 책에, 책에 있는 거 있대님둥?{책에, 책에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0813 # 책에 잇는 게?{책에 잇는 것?}

10813 @ 아:덜 읽는 게.{아이들이 읽는 것.}

10813 # 까ㄹ(+ как) 라스까즈(+ рассказ). 까ㄹ(+ как) 라스까즈(+ рассказ) 에따(+ эта) 스까
즈끼(+ сказки). 아:덜으 스까즈까(+ сказка)르. 어떠기 스까즈까(+ сказка)르 하겠슴
둥?{이야기를 어떻게. 옛날이야기를 어떻게 말하나. 아이들의 옛날이야기를. 어떻게
옛날야기를 하겠습니까?}

10813 @ 음.{음.}

10813 # 거반 마우재 예 마우재 넷말은 그렇습꾸마. 거반. 한집에 아들이 서이 있었다구. 아
들이 서이 잇은게 큰아들으느 이룽기 음 푹푹아구 예 살림쥬 잘 살구. 괴래구 둘째아
들으느 둘 으 만아덜보구 조끔 못하지, 못하구. 괴래구 셋째아들으느 어떤가하니까더
영 머저리지. 머저리지. 그래 애비 어쩐가하니 괴래지 머. 너 아들이 서인게 내 가 이
룽기 충질 아니하구 예: 그거느 무시간가? 이룽기 맨든 게 이래 이래 잡아댕기무 나
가대님둥? 그게. 그거 루크(+ лук).{거의 러시아 예 러시아 옛말은 그렇습니다. 거의.
한 집에 아들이 셋이 있었다고. 아들이 셋이 있는데 큰아들은 이렇게 음 푹푹하고 예
살림도 잘 살고. 그리고 둘째아들은 만아들보다 조금 못하지, 못하고. 그리고 셋째아
들은 어떤가 하니 영 머저리지. 머저리지. 그래 아버가 어쩐가 하니 그러지 뽀. 너희
아들이 셋인데 내 가 이렇게 충질 아니하고, 예 그거느 무엇인가? 이렇게 맨든 것이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기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 활.}

10813 @ 활이.{활?}

10813 # 이래 이래라구. 그게 어드메가 떨어디무 그 녀잔테르 가서 셔바아 가라구.{이렇게 이
렇게 하라고. 그게 어디가 떨어지면 그 여자한테로 가서 장가를 가라고.}

10813 @ 음.{음.}

10813 # 괴래 큰아들이 그거 홀 이룽기 나가 충질하는 거터르 이래네네느 그게 나가 그게 잘
사는 집에 나가떨어뽀지.{그래 큰아들이 그거 이렇게 나가 충질하는 것처럼 이러면
그게 나가서 그게 잘 사는 집에 나가 떨어졌지.}

10813 @ 흙음.{흙.}

10813 # 괴래 그 살이 만아덜이 거기 셔바아 가서 잘 살구. 거기 도시아 있는 사림이. 괴래구
둘째아들으느 괴래니까더 조끔 잘 살아두 촌사림이. 촌사름덜이 가서 거기 가서 셔바
아 가구. 셋째느 그거 그래니까더 어 물에 가서 그 어쩐가하니 발로드라구 물'에가서
벌 메구락지게 그게 떨어뽀짐. 괴래 셋째아들이 그 메그락지게 셔바아 갔지. 괴래 셋
째아들이 메그락지게 셔바아 가서 그 다음에느 형덜이 웃지 머. 야 네 메그락지게 셔
바아 가니 메그락지 어떻기 너르 맥이더냐? 괴래무 세째느 말으 못하지 머. 그담에느
한번으 애비 그라더만, 너네 어전 셔바아 갔으니 이룽기 예 사아 크기 해아서 우리
조끔 노자구셔. 노자구 하니 만아들이 잘 갖추구 안간이 곱기 닙구 괴래구 놀라왔지
애비 집우루. 둘째두 안까니 괴래 촌안 녀자다나니 촌안녀자터르 닙구 오구. 세째느
흙자 왔지. 오니 괴래지 형덜이. 너느 어떼 네 메그락지 아니 데리구 왔느냐구. 메그

락지 그라더라구. 네 먼저 가라구 네 두에 오겠다구. 그 답에 그 말으 곰만 하구 기랜 데 술기 받이 오는게 곱기 한 게 오는게 녀자 곱운 녀자 앉아온다.{그래 그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만아들이 가서 장가를 가 잘 살고. 거기 도시에 있는 사람. 그리고 둘째아들은 그러니까 조금 잘 살아도 촌사람. 촌사람들 있는 곳에 가서 장가를 가고. 셋째는 그거 그러니까 물에 가서 어떤가 하니 발로드(?)라고 물가에서 벌 개구리에게 그제 떨어졌지. 그래 셋째 아들이 그 개구리에게 장가를 갔지. 그래 셋째아들이 개구리에게 장가를 가서 그 다음에는 형들이 웃지 뭐. 야!, 너 개구리에게 장가를 가니 개구리 어떻게 너를 먹이더냐? 그러면 셋째는 말을 못하지 뭐. 그 다음에는 한 번은 아비 그러더구먼, 너희 이젠 장가를 갔으니 이렇게 상을 크게 벌려서 우리 조금 놀자고. 놀자고 하니 만아들이 음식을 잘 갖추고 아내가 곱게 옷을 입고 그리고 놀러 왔지 아비 집으로. 둘째도 아내가 그렇게 촌안 여자이고 보니 촌에 사는 여자처럼 입고 오고. 셋째는 혼자 왔지. 오니 그러지 형들이. 너는 어째 네 개구리를 안 데리고 왔느냐고. 개구리 그러더라고. 너 먼저 가라고. 네 뒤에 가겠다고. 그 답에 그 말을 금방 하고 그랬는데 수레가 가깝게 오는데, 곱게 한 것이 오는데 여자 고운 여자가 앉아온다.}

10813 @ 아하.{아하.}

10813 # 셋째 그래더라 너네 들으라구. 더기 내 안칸이 온다구. 내 메그락지 온다구. 그래 홀 들어온 거 보니까더, 아이! 만이나 둘째나 안칸덜이 볼 데 없다. 이 녀자느 어떠한 곱운지. 그래 다 앉았짐. 다 앉아 먹는데. 이 사름덜으느 만이 둘째네 안까니 다 무스거 먹느라구 그러는데 이 셋째 메그락지느 어쩐가하니까더 아이 먹구 예 수울으 붓으네느 예 사매 기대님둥? 사매 긴 데 사매 긴 데다가서르 이렇기 그 수울으 여기다 이래 붓어 넣구 또 그담에 주네느 그 사름은 다 먹구 다 먹으무 이사름우느 또 붓어 넣구. 그담에느 이 고기랑 그거 먹는게 고기르 안 먹구 그 제사느 빼대르 빼대르 어드메다 빼대두 또 여기다 이래 넣구 여기다 이래 넣구. 그담엔 다아 먹구. 어저는 이렇기 창개두 하구 춤두 추구 그래 노자구서 그래. 만이느 창개두 하구 놀구 춤두 추구. 둘째네두 노자구 창개두 하구 놀구. 세채네두 너네 나와 그래라구 하니 세채 그 메그락지 나와서 손으 한 번 이래 홀 티네네느 수울으 붓은 게 홀 물이 돼지.{셋째 그래더라, 너희 들으라고. 저기 내 아내가 온다고. 내 개구리가 온다고. 그래 갑자기 들어온 것을 보니까, 아이! 만이나 둘째 아내들이 볼 데 없지(볼품이 없지). 이 여자는 어찌나 고운지. 그래 다 자리에 앉았지. 다 앉아서 먹는데. 이 사람들은 만이와 둘째 아내 다 무엇을 먹느라고 그러는데 이 셋째 개구리는 어찌했는가 하면 안 먹고 예 술을 부으면 예 소매 길지 않습니까? 소매 긴 데 소매 긴 데다가 이렇게 그 술을 여기다 이렇게 부어 넣고 또 그 다음에 주면 그 사람은 다 먹고 다 먹으면 이 사람은 또 부어 넣고. 그 다음에는 이 고기랑 그거 먹는데 고기를 안 먹고 그 때에는 빼대 빼대를 어디 에다 빼대도 또 여기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이젠 이렇게 창가도 하고 춤도 추고 그렇게 놀자고 그래. 만이느 노래도 하고 놀고 춤도 추고. 둘째네도 놀려고 노래도 하고 놀고. 셋째네도 너희 나와 그리하라고 하니 셋째 그 개구리 나와서 손을 한 번 이렇게 치면 술을 부은 것이 홀연 물이 되지.}

10813 @ 아아.{아아.}

10813 # 물이 홀 돼구. 이 손으 홀 티니까데, 빼대르 기랜게 메 음 레비기라는 게 무시기. 에 에 그 짐식이 곱:운 이렇기 새 큰 게 홀 돼서 그래 그제 그렇기 돼니 이 녀자덜이 보구서르 저어네두 그렇게 하겠다구셔.{물이 홀연 되고. 이 손을 치니까, 빼대를 그리한게 음 ‘레비기’라는 게 무엇인가. 에 그 짐승이 고운 이렇게 새 큰 것이 홀연히 되어서 그래 그제 그렇게 돼니 이 여자들이 보고서 저네도 그렇게 하겠다고셔.}

10813 @ 으흠.{흠.}

10813 # 그담에는 괴래 다 괴래구서 앓아 먹짐. 먹으니 에 만이 어 더 어 큰 큰아 아들 만아 들이 안깐이 그 또 수울으 이래 넣구. 그담에는 둘채 안깐두 그렇기 넣구. 게 그담에 나와 춤우 추라가니 만안까니 홀 괴래니까 그 수울이 짝 나와서 남우 나그내덜이 짝 수울에 채우구. 그담에는 또 이래니까더 그게 빼대 나와서 아무개르 박아 놓아서 여기 여기 여기 부스럼이 나왔지. 또 한개르 박아 놓으니 이래 붓어났지.{그 담에는 그 래 다 그리하고서 앓아 먹지. 먹으니 에 만이 저 어 큰아들 만아들의 아내가 그 또 술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는 둘째 아내도 그렇게 넣고. 게 그 다음에 나와 춤을 추 라고 하니 만이의 아내가 그러니까 그 술이 짝 나와서 남의 남편들이 짝 술에 채이 고.}

10813 @ 흠.{흠.}

10813 # 기래니까 통 웃었지. 셋째는 어쩐가하니까더 아하 제 안깐이 그렇기 기래니 짐우루 달아왔짐. 집이 달아와서 제 안까니, 달아와서 제 안까니 메그락지 껌지르 뺏어 놓은 거 태왔짐.{그러니까 모두 웃었지. 셋째는 어떤가 하니 음 제 아내가 그렇게 그리하니 집으로 달려왔지. 집에 달려와서 제 아내, 달려와서 제 아내 개구리 껌질을 벗어 놓은 것을 태웠지.}

10813 @ 아하.{아하.}

10813 # 그래 태우니 그 안깐이 달아와서 괴래지 머. 이게 나 내 애비 나르 아바지 내 식집 우 보낸 데르 아니가서 내 나르 사름우 메그락지르 맨들었다구.{그렇게 태우니 그 아내 달려와서 그러지 뭐. 이게 내 아비가 나를 아버지가 내가 시집을 보낸 곳으로 안 가서 내 나를 사람을 개구리로 만들었다고.}

10813 @ 으흠.{흠.}

10813 # 괴래 어찌겠는가구서르. 어저는 네 이거 태와시니 나르 더기 그거 메그락지르 맨든 사름이 나르 데레간다구서르.{그래 어찌하겠는가 하고서. 이제는 네가 이것을 태웠으니 나를 저기 개구리로 만든 사람이 나를 데려간다고.}

10813 @ 음.{음.}

10813 # 개니 마우재말르느 디빠르 이따 시미 트리 제바뜨 자쓰. 개 셋째 안까니 홀 괴래구 서르 홀 없어디니 안깐으 얻어볼라 가압지 머. 괴래 가니 길에 가다가서르 웬: 처음에 무스거 만났는가 하니까더 어 토끼르 만났짐. 토끼르 만나서 네 어드메르 가는가구. 개 이래 저래 안까니 가니 그거 얻어볼라 간다구. 괴래니 이 사람이 더기 이 토끼 무스거 주는가 하니까더 실으 이룩기 그 실 감은 거 주무 이거 이거 이룩기 이거 내페 리무 실이 가는 데르 꼴꼴이 물어가라구서르. 그담에 가다가서르 무스거 바 괴렸는가 하더 곱이르, 곱이르 만났지. 곱이 또 물어보디. 너느 또 어드메르 가는가 하구. 내 안 깐이 이래이래서 안깐이 얻어보라 간다구. 곱이 무시기라 하니까 어 네 이게……, 아! 무스거 무스거 곱이 쫓다던가? 발썌 낮어됐……. 아! 곱이 새르 오리 오리르 주더랍더 구마. 괴래 이 오리 달아 날아가는 데만 가라구서르. 괴래 물어갔짐. 물어가다가서르 마감에는 누기르 만났는가 하니까더 내 뜨비 요 자이쯔 이 느미죤 까반죤스뜨레이. 아 그담에는 예 사름 사름 만나 이거 네 이거 오, 오리르 내 너르 오리르 내 너 오리 르 준다구. 개니까더 오리 어드메 날아가는 거 이게 어드메 날아가는가 하는까더 네 안깐으 물어 물어 머 데레간 사름이 에 달갈이 있다구서르. 그 달갈으 그 사름이 어 드메다 놓았는가하니까더 이룩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요런 요맨:한 이룩기 이룩기 에 아하 고런데다가 달갈으 놓았다구. 그게 낭글르 한게. 그게느 어드메 있는가 하니 그게 오리게 있다구. 그게 오리게 그게 그 오리 그 안에 앓아 있다구서르. 괴래 그거

티네는 오리 날아가무 오리르 잡으네는 그 달걀인데르 떨어딘다구. 달걀이 떨어디무 달걀으 마스무 거기 빈 더기…… 어 음 비내 비내 그게 아 이골 이골까(+ ИГОЛКА) 바늘이, 바늘이 잇다구. 그 바늘으 홀 꺾어놓오무 그 사람이 네 안칸 데레간 사람이 죽는다고.{그러니 러시아말로는 디빠르 이마 시미 트리 제바뜨 차쓰. 그래 셋째 아내가 홀연 그리하고서 홀연 없어지니 없어진 아내를 찾으러 가지요 뭐. 그래 가니 길에 가다가 맨 처음에 무엇을 만났는가 하면 이 토끼를 만났지. 토끼를 만나서, 너는 어디로 가는가 하고 묻지. 그래 이러 저러해서 아내가 가니 그 아내를 찾으러 간다고. 그러니 이 사람에게 저기 이 토끼가 무엇을 주는가 하니까 실을 이렇게 그 실 감은 거 주며 이거 이거 이렇게 이거 내팽개치면 실이 가는 데로 꾹꾹이 따라가라고. 그 다음에 가다가 무엇을 보아 그랬는가 하면 꿈, 꿈을 만났지. 꿈이 또 물어 보지. 너는 또 어디로 가는가 하고. 내 아내가 이러이러해서 아내를 찾으러 간다고. 꿈이 무엇이래 했는가 하면, 어 네 이거……, 아! 무엇을 무엇을 꿈이 주었다던가?, 벌써 잊혔……. 아! 꿈이 새를, 오리를 오리를 주더라더군요. 그래 이 오리 달려 날아가는 데만 가라고. 그래 따라갔지. 따라가다가 마지막에는 누구를 만났는가 하니까 내 뜨비 요 자이썬이 느미썬 까반썬스뜨레이. 아, 그 다음에는 예 사람 사람을 만나 이거 네 이거 오리를 내 너에게 오리를 너에게 준다고. 그러니까 오리 어디 날아가는 거 이게 어디로 날아가는가 하니까, 네 아내를 함께 데려간 사람이 예 달걀이 있다고서. 그 달걀을 그 사람이 어디에다 놓았는가 하면 이렇게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요런 요만한 이렇게 이렇게 예 음 고런 데에다가 달걀을 놓았다고. 그게 나무로 한 것인데.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 그게 오리에게 있다고. 그게 오리에게 그게 오리 그 안에 앉아 있다고서. 그래 그것을 치면 오리가 날아가면 오리를 잡으면 그 달걀 있는 데로 떨어진다고. 달걀이 떨어지면 달걀을 부수고 거기 빈 저기…… 어 음 비너 비너 그게 아 바늘 바늘 바늘이 있다고. 그 바늘을 꺾어 놓으면 그 사람이 네 아내를 데려간 사람이 죽는다고.}

10813 @ 음.{음.}

10813 # 끄래무 네 그 안칸이. 끄래 그거 그 사람우 그거 만나서 그거 초: 노오니꺼떠 오리 거기서 홀 날아나와서 거기서 달걀으 똑 떨어놓오니 달걀으 체에서 달걀으 마사서 바늘으 꺾어 놓오니 그 사람이 죽으니꺼더 그 안칸으 데레간 그 집이 그거 마스니 그 집이 썩 마사디집 사. 까끼 바바이가르지. 그게 홀 맞아 죽으니 그 집이 마사디니 녀자 나왔짐. 끄래 녀자 데레 데레다가서 산다구 그런 뱃말이지.{그러면 네 그 아내 그래 그거 그 사람을 그거 만나서 그거 총을 쏘니 오리가 거기서 홀연 날아 나와서 거기서 달걀을 똑 떨어뜨리니 달걀을 잡아서 달걀을 부수어서 바늘을 꺾어 놓으니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 아내를 데려간 그 집을 그거 부수니 그 집이 썩 부수어지지. 까끼 바바이가르지(?). 그게 맞아 죽으니 그 집이 부서지니 여자 나왔지. 그래 여자를 데려 데려다가 산다는 그런 옛날이야기지.}

10813 @ 하, 재미 있습꾸마.{하, 재미 있습니다.}

10813 # 재밋슴? 끄래구 또 그 마우재 그게 무시기 있는가 하무. 어떤가하니까더 예. 그 집우느 딸이, 딸이 서이.{재미 있습니까? 또 그 러시아 이야기 그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 어떤가 하면 예. 그 집은 딸이 셋.}

10813 @ 이제는 딸이 서이.{이제는 딸이 셋.}

10813 # 예, 딸이 서이. 개 아버지는 어떤가하니까더 먼테르 에 먼테르 저 물건 썰라 먼테르 가지 머. 개 먼테르 내 물건 썰라 가는게 내 먼테르 물건 싸는게 내 너네르 무스거 무스거 너네르 싸다달라구 하는가구. 큰딸으느 나르 무스거 형겅으 곱:운 거 큰거르

싸달라구. 내 우티르 하겠다구.{예, 딸이 셋. 그래 아버지는 어떤가 하면 먼 데를 에 먼 데를 저 물건을 사러 먼 데를 가지 뭐. 그래 먼 데로 내 물건을 사러 가는데 내 먼 데로 가 물건을 사는데, 내가 너희에게 무엇 무엇을 너희에게 사다 줄까 하고 (말했지). 큰딸은, 나에게 무슨 천을 고운 것 큰 것을 사달라고. 내가 옷을 짓겠다고.}

10813 @ 음.{음.}

10813 # 개구 둘째딸으느 무스거 싸달라구 하는가니 곱운 세꺼어 사달라구 곱운 세꺼어 싸다 주내네느 내 만날 보겠다구. 내 낮이 열매나 곱운가 하구. 셋째딸으느 무스거 싸달라구 하는가 하무 나느 아무것두 싫다구. 나느 함박꽃이르 꽃으 꽃으 가져다 달라구.{그리고 둘째딸은 무엇을 사달라고 하는가 하면 나느 아무것도 싫다고. 나느 함박꽃을 꽃을 꽃을 가져다 달라고.}

10813 @ 아하.{아하.}

10813 # 꽃으 가져다 달라구. {꽃을 가져다 달라고.}

10813 @ 셋째딸이?{셋째딸이?}

10813 # 예. 셋째딸이.{예. 셋째딸이}

10813 # 그래 꽃으 가져다 달라구. 그래 아버지 아버지 가져다 달라는 거 다 가져왔짐. 그래 가져와 셋째딸으느 어전 꽃으 갖으라구. 그래 셋째딸이 꽃으 가졌짐. 꽃으 가지니 어쩐가하니까더 가지니까더 저녁에 그게 꽃이 어떤가하니까더 이룩기 사림이 그 사름두 예 아버지가 잘못 해서 그 사름우 홀 즘승두 애니구 사름두 애니구 구신타르 그렇기 예 만들었짐. 그래 그 사림이 거기 그 꽃에 그 꽃에 그 사림이 있짐. 그래 그 사림이 그 사름우 그 셋째딸이 그거 만났짐. 그거 만나서, 보니 그 사림이 무섭아하까 한 게 그 셋째딸이 무섭아 아니하구. 그래구 그 자림이(+zarimi) 무스게라 했는가 하무 내 이거 내 이거 쓴 게 쓴 게 어저는 시간이 머대 머대옴다구. 내 사림이 대겠다구. 개니 이 녀자 그 사름가 있다가서르 집우 가구 싶우지 머. 내 집에 갔다 오겠다구서르. 개니 이 사림이 그래짐. 네 집에 갔다가 아무 시 때 아무 시간에 꼭 와야 웬다구. 네 그 시간에 모 오무 내 사림이 못 웬다구.{그래 꽃을 가져다 달라고. 그래 아버지 아버지 가져다 달라는 거 다 가져왔지. 그래 가져와 셋째딸은 이젠 꽃을 가지라고. 그래 셋째딸이 꽃을 가졌지. 꽃을 가지니 어떤가 하니 저 가지니까 저녁에 그게 꽃이 어떤가 하면 이렇게 사림이 그 사람도 예 아버지가 잘못 해서 그 사람을 홀연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귀신처럼 그렇게 예 만들었지. 그래 그 사람이 거기 그 꽃에 그 꽃에 그 사람이 있지. 그래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그 셋째딸이 그 사람을 만났지. 그거 만나서, 보니 그 사람이 무서워할까 한 것이 그 셋째딸이 무서워 아니 하고. 그리고 그 사림이 뭐라 했는가 하면, 내 이거 내 이거 쓴 것이 쓴 것이 이제는 시간이 멀지 않았다고. 내 사림이 되겠다고. 그러니 이 여자 그 사람과 있다가 집을 가고 싶지 뭐. 내 집에 갔다 오겠다고. 그리하니 이 사람이 그래지. 네 집에 갔다가 아무 시 때 아무 시간에 꼭 와야 된다고. 네 그 시간에 못 오면 내 사림이 못 된다고.}

10813 @ 음.{음.}

10813 # 그냥 이룩기 있다구. 그래 이 녀자 집우루 왔지 무. 집우루 오니 어떤가하니 집우루 오니 집에 와서, 형테 형테덜이 구러지 머. 너느 어째 혼자 왔는가구. 내 놀라왔다구서르. 그래 내 아무 시간이 돼무 내 대비 가야웬다구. 그래니 이 이 녀자덜이 이 형테덜이 애비 아무 시간에 간다구 하니, 우리 가기 가기 가디 말자구서르 시간으 닐굽시무 제네니 시간으 이룩기, 이게 닐굽시무 다숫시르 만들었지.{그냥 이렇게 있다고. 그래 이 여자 집으로 왔지 뭐. 집으로 오니 어떤가 하니 집으로 오니 집에 와서, 형제 형제들이 그러지 뭐. 너느 어째 혼자 왔는가 하고. 내 놀러왔다고. 그래 내 아무 시간

이 되면 내 다시 가야 된다고. 그러니 이 여자들이 이 형제들이 아버지가 아무 시간에 간다고 하니, 우리 가게 하지 말자고 시간을 일곱 시면 일부러 시간을 이렇게, 이게 일곱 시면 다섯 시로 만들었지.}

10813 @ 음.{음.}

10813 # 괴래 이렇기 그 녀자 자꾸 시간 보짐. 아구! 어저는 갈때 됐다구! 네 시간 봐라 안죽 아니 됐다! 안죽 아니 됐다! 갠테두 아무래 그 사람이 이렇기 저르 괴래메 기다리지. 기다리메 괴래디. 어저는 너느 내한테르 아니 온다. 어저는 내한테르 아니 온다. 그래 그담엔 녀자 괴래니 너무 바쁘니 그 시간이 아니 돼두 그 시간으 봐두 시간이 아니 돼두 발써 옴판은 그 시간이 됐지. 괴래 그 녀자 달아나와서 거기르 그남자한테르 가니 그 남자 정말 마감에 어전 네 아니온다. 어전 네 아니온다. 그런데 녀자 홀 들어서니 껍지 싹 뻗어지구 총각이 됐지. 괴래 총각이 돼서 집우루 오니 아버지나 이 형님께나 그렇기 잘 식집우 갔다구서 잘 살았짐.{그래 이렇게 그 여자 자꾸 시간을 보지. 아이구! 이제는 갈 때가 되었구나! 하니, 너 시간을 보아라. 아직 갈 시간이 안 되었다. 아직 안 되었다! 그런데도 아무래도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며 기다리지. 기다리며 그러지. 이제는 너는 나한테로 아니 온다. 이제는 나한테로 아니 온다. 그래 그 다음에는 여자 그러하니 너무 힘드니 그 시간이 안 되어도 그 시간을 봐도 시간이 안 되어도 벌써 원래는 그 시간이 되었지. 그래 그 여자 달려나와서 거기 그 남자한테로 가니 그 남자 정말 마지막에, 이젠 너 안 온다, 이젠 너 안 온다. 그런데 여자가 홀연 들어서니 껍질이 싹 벗겨지고 총각이 되었지. 그래 총각이 되어서 집으로 오니 아버지나 이 형님에게서나 그렇게 잘 시집을 갔다고 (말을 듣고), 잘 살았지.}

10813 @ 예. (웃음) 아이구,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꾸마.{예. (웃음).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10813 # 어떻게 까자.{어떻게 이야(기)}

10813 @ 하라쇼(+ харашо).{좋습니다.}

10813 # 마우재 스까즈끼(+ сказкы).{러시아 옛날이야기.}

10813 @ 예, 루스끼이(+ русский) 스까즈끼(+ сказкы).{예, 러시아 옛날이야기.}

10813 # 루스끼이 스까즈끼.{러시아 옛날이야기.}

10813 @ 아주 재밌습꾸마.{아주 재미있습니다.}

10813 # 재밌습?{재미있습니까?}

10813 @ 좋은 옛날말으 해 주셨습꾸마 예.{좋은 옛날말을 해 주셨습니다 예.}

10813 # 좋은 옛말이 예?{좋은 옛날말 예?}

10813 @ 그,{그}

10813 # 고려 옛말인지 아니 옛말인지.{고려 옛말인지 아니 옛말인지.}

10813 @ 예.{예.}

10813 # 한집에 아들이 서이 있구 딸이 없었답꾸마. 그담에 마감에 어찌다가 마감에 딸으 났답꾸마. 딸이 난게 사람이 아니구 무슨 짐승 가톨:하기 낮에는 사람이구 밤에는 어쩐가하니까더 예 무스거 짐승두 아니구 무시건가 어쩐가하니까더 예 그거 집안에는 마야기 하느라구 그런 그런 거 아아르 났답더꾸마. 그 집안 마~야기 시기느라구. 괴래 어쩐가하니까더 그 집안에 많이 말이 많구 쉼 많구 괴랩답꾸마. 괴랜게 어쩐가하니 그 딸이 나구셔부터 밤우 자구 나무 말이 홀 죽구.{한 집에 아들이 셋이 있고 딸이 없었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찌다가 마지막에 딸을 났답니다. 딸을 난 것이 사람이 아니고 무슨 짐승 비슷해서 낮에는 사람이고 밤에는 어쩐가 하니 예 무슨 짐

승도 아니고 무엇인가 어떤가 하면 예 그거 집안을 망하게 하느라고 그런 그런 거 아이를 낳다더군요. 그 집안 망하게 시키느라고(하느라고). 그래 어떤가 하면 그 집안에 말이 많고 소도 많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떤가 하니 그 딸이 나고서부터 밤을 자고 나면 말이 홀연히 죽고.}

10813 @ 음.{음.}

10813 # 밤우 자구 나무 말이 홀 죽구. 기랜게 어떤가하니까더 이 딸이 밤이 돌아오무 사람이 홀 아니구 예, 예 그저 짐승터르 꼬리 기다:살게 해서 나가서 밤에 나가셔느 그 짐승의 간으 빼먹지.{밤을 자고 나면 말이 홀연히 죽고. 그러한데 어떤가 하면 이 딸이 밤이 돌아오면 사람이 홀연 아니고 예, 예 그저 짐승처럼 꼬리를 기다랗게 해 가지고 나가서 밤에 나가서는 그 짐승의 간을 빼먹지.}

10813 @ 아이구! {아이고!}

10813 # 간으 빼먹으무 기래구 아츨이무 들어오무 늑우무 그저 사름 가톨 야: 가톨하구. 기래 아버지 기래지 머 받아들까 네 오늘 밤에 나가서 덕헤라. 누기 밤에 와서 우리 짐승으 저 기래 죽이는가구. 기래 받아들이 나가서 앉아 있다 있다 못다 자부람 와서 홀 잤짐. 홀 자다나니 누기 와서 기랜것두 물렸지.{간을 빼 먹으면 그리하고 아침이면 들어오면 누우면 그저 아이 비슷하고. 그래 아버지 그러지 뭐 받아들과, 네 오늘 밤에 나가서 지켜라. 누가 밤에 와서 우리 짐승을 저 그렇게 죽이는가 하고. 그래 받아들이 나가서 앉아 있다 있다 못해 졸음이 와서 홀연 잤지. 홀연 자고 보니 누가 와서 그리한 것도 몰랐지.}

10813 @ (웃음).{웃음.}

10813 # 못 봤지 머. 그담엔 아들이 둘째, 아버지 둘째아들으 보냈짐. 두째아들이 나가서 또 모 앉아 있었지. 또 아츨꺼지 못 앉아 있었지. 기대나니 또 죽었짐. 그담에 셋째아들이 나가라가니 세째아들으느 가만:이 그냥 앉아 있었지 끝내. 가만히 앉아 있어보니까 더 그 애끼라는 게 애끼라는 게 나와서 꼬리르 쪼로로록 꼬스메 와서.{못 보았지 뭐. 그 다음에는 아들이 둘째, 아버지가 둘째아들을 보냈지. 둘째아들이 나가서 또 못 앉아 있었지. 또 아침꺼지 못 앉아 있었지. 그렇다 보니 또 죽었지. 그 다음에 셋째아들이 나가라고 하니 셋째아들은 가만히 그냥 앉아 있었지 끝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 보니까 그 동생이라는 것이, 동생이라는 것이 나와서 꼬리를 쪼로로록 끌며 와서.}

10813 @ 음. {음.}

10813 # 그거 췌게 간으 홀 빼먹더라구.{그 동생이 소에 간을 홀연 빼 먹더라고.}

10813 @1 아.{아.}

10813 # 그래구 꼬리르 쪼로로록 꼬스구 집우루 들어가더라구. 개 세째아들이 세째아들이 아츨에 들어와 아버지가 기래지. 우리 더 느비 사름이 아니라구. 꼬리르 꼬스구 나가서 짐승으 가서 그거 간으 빼먹구 또 들어오더라구.{그리고 꼬리를 쪼로로록 끌고 집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래 셋째아들이 셋째아들이 아침에 들어와 아버지와 그러지. 우리 저 누이 사람이 아니라고. 꼬리를 끌고 나가서 짐승을 가서 그거 간을 빼 먹고 또 들어오더라고.}

10813 @ 음.{음.}

10813 # 기래니 아버지 끝이 아니 듣구. {그리하니 아버지 끝이 안 듣고.}

10813 @ 음.{음.}

10813 # 그 아들의 집에서 쫓아내빼렸지.{그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 버렸지.}

10813 @1 아이구.{아이고.}

10813 # 집에서 쫓아내빼리구 기래구 있다나니 그담에는 어쩐가하니까더 마감에 그 집안

마~해서 그 딸이 어쩐가하니까더 그 즘스으 다아: 죽여 먹구 아버지 아버지 어저는 먹을 것두 없구 아무것두 없다나니 굶어 다 상세났짐. 개다나니 그 집안이 그 딸으 나아셔 그 집안이 망했답꾸마.{집에서 쫓아내 버리고 그리하고 있고 보니 그 다음에는 어떠한가 하면 마지막에 그 집안 망해서 그 딸이 어찌했는가 하면 그 짐승을 다 죽여 먹고 아버지 아버지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보니 굶어서 다 죽었지. 그렇다 보니 그 집안이 그 딸을 낳아서 그 집안이 망했답니다.}

10813 @ 아하. 그 딸으, 셋째아들이 그 느비 애끼르 어뜨기 죽이자구 아이 했슴둥?{아하. 그 딸을, 셋째아들이 그 누이동생을 어떻게 죽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10813 # 죽이자구 그거 말하니까테 아버지 조끔 곧이 듣구 이렇기 그거 그렇기 그런 말으 아니하다나니 아버지 가만 그거 듣구서르 네 거짓말한다구 하매서르 그 셋째아들으 쫓아내빼렸지, 뜯갔지.{죽이자고 그거 말하니까 아버지 조금 곧이 듣고 이렇게 그거 그렇게 그런 말을 아니하고 보니 아버지 가만히 그거 듣고서 네 거짓말한다고 하면서 그 셋째아들을 쫓아내 버렸지.}

10813 @ 아이구!{아이고!}

10813 # 뜯구니, 셋째아들이 뜯기와서 먼테르 가구 이 집안안이 싹 마~했지 머. 그답에 셋째아들이 어드메 가서 오래:오래 있다가서르 개두 아버지 그렇기 괴래두 또 집우루 오구 싶어서 집이 오니꺼더 집이 싹 비구 울안이 이렇기 풀이 이렇기 나구. 아무게두 없기 싹.{쫓아내니, 셋째아들이 쫓겨서 먼 데로 가고 이 집안 안이 싹 망했지 뭐. 그 다음에 셋째아들이 어디 가서 오래 오래 있다가 그래도 아버지 그렇게 그래도 또 집으로 오고 싶어서 집이 오니까 집이 싹 비고 울안이 이렇게 풀이 이렇게 나고. 아무것도 없이, 싹.}

10813 @ 음. 음. 아우!{음. 음. 아우!}

10813 # 이거느 이거느 이 고렷말은 내 누기게서 들었는가:니 만아매게서 들었는지이 마마 헤이게서, 누기 만아매게서 들었는지 이거느 고려 고려말르 내가 괴랩디. 아, 새아가 어 이렇기 사름두 애니구 무시기 낮에는 사람이구 밤이무.{이거느 이거느 이 고렷말은 내가 누구한테서 들었는가 하니 큰어머니에게서 들었는지 어머니 형에게서, 누구 큰어머니에게서 들었는지 이것은 고려 고려말로 내가 그러지요(말하지요). 아, 처녀 어 이렇게 사람도 아니고 무엇이 낮에는 사람이고 밤이면}

10813 # 어 꼬리르 쪼르르르 꼬, 여끼터르 꼬스구 나가셔느 간두 빼먹구 또 꼬리 들어오구. 개다나니 괴래다나니 그 집안은 그거 아아 난 게 에 그 쌀이 그 집안으 망하기 그렇기 났다구서르.{어 꼬리를 쪼르르르 끌(고), 여우처럼 끌고 나가서는 간도 빼먹고 또 꼬리를 끌고 들어오고. 그렇다 보니 그렇다 보니 그 집안은 그거 아이 난 것이 에 그 집안을 망하게 그렇게 낳았다고.}

10813 @ 그런, 그렇습지.{그렇, 그렇지요.}

10813 # 괴래 개다나니 셋째아들이 하나 산 게 집우루 오니 아버지 에미 다 굶머 상세나구 없구. 이 아 형데덜두 다 없구. 에 짐식: 그게 쉼 말이 무스게 있던 게 없구. 개다나니 집이 비구 집안안 집 오래 그저 풀이 이마:니 나구.{그래 그러하고 보니 셋째아들이 하나 산 것이 집으로 오니 아버지 어미 다 굶어 죽고 없고. 이 아이의 형제들도 다 없고. 에 짐승이 그게 소 말이 무엇이 있던 것이 없고. 그러하고 보니 집이 찌고 집안안 집 오래 그저 풀이 이만큼 나고.}

10813 @ 음. 음.{음. 음.}

10813 # 그, 그.{그, 그.}

10813 @ 음. 오늘 밤에 잠우 못자겠습꾸마, 무섭아서.{음. 오늘 밤에 잠을 못 자겠습니다, 무

서워서.}

10813 # 에이그! 그런 데르, 그, 그런 데 셋째아들이 왔답꾸마.{에그! 그런 데를, 그, 그런 데를 셋째아들이 왔답니다.}

10813 @ 집이 다: 망하구. 어, 어시 다: 굶머 죽구.{집이 다 망하고. 부모 다 굶어 죽고.}

10813 # 어시 다 굶머 죽구. {부모 다 굶어 죽고.}

10813 @ 무섭아서, 무섭아서 여기가 어으 이렇게 소름이 돋습꾸마.{무서워서, 무서워서 여기가 어이고 이렇게 소름이 돋습니다.}

10813 # 예, 내 그때 내 그때 나두 들을 적엔 내 그때 처음에 나 많이, 나 춤 나두 기래 말 하루종일 기랩더구마. 그거 꼬리르 꼬르르 쪼로록 꼬스구 내 그때 그랬습꾸마. 야 이거 무섭아서 밤에 어찌 자겠는가? 무섭기는 넷말인데 무스거 무섭겠는가. (웃음).{예, 내 그때 내 그때 나도 들을 적엔 내 그때 처음에 나이 많이, 나도 그렇게 그런 말을 하루종일 그러더군요. 그거 꼬리를 쪼르륵 끌고 어떻다고 내 그때 그랬습니다. 야, 이거 무서워서 밤에 어찌 나겠는가? 무섭기는 옛말인데 무엇이 무섭겠는가. (웃음)}

10813 @ 또 뭐 고려 이렇게 넷말 재밌는 거 없음등? 이거 다 체크르 다,{또 뭐 고려 이렇게 옛말이 재미있는 거 없습니까? 이거 다 체크르 다,}

10813 # 이진.{이진.}

10813 @ 쓸 꺼꾸마. {쓸 것입니다.}

10813 # 책에 잇었는데 모르겠습꾸마. 마우재 넷말은 싹 책에 잇습꾸마. 싹 책에 잇습꾸마. 예 그거느 어쩐가하니까더 예, 책에 있는 거느 아……, 어전 그 더기 마우재 스까즈까 두 마우재넷말두 어느때 어느때 어느 때 그거. 어려서 핵교 땡길 적이 홀 날졌짐. [x아우제게느x] 땡해 어려서 어저는 그런 것두 개다나니 내 손재아르 자래와두 예 그렇기 그런거 그렇기 손재아르 자래와두 어저는 발써 스물다스 해 돼애꾸마.{책에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옛말은 모두 책에 있습니다. 모두 책에 있습니다. 예 그것은 어쩐가 하면 예, 책에 있는 것은 아……, 이제는 그 저기 러시아 옛날이야기도 러시아 옛말도 어느 때 어느 때 그거. 어려서 학교 다닐 적에 읽었지. [x아우제게느x] 몇 해 어려서 이제는 그런 것도. 그렇다 보니 내 손자 아이를 키워도 예 그렇게 그런 거 그렇게 손자 아이를 키워도 이제는 벌써 스물 다섯 해가 됩니다.}

10813 @ 그렇습지. {그렇지요.}

10813 # 그거 니른 게. 웬: 즉금 우리네 자랄 적에 우리 자랄 때 마우재 그런 니르기 좋아했스꾸마. 갠게 이룽기 그런거 니르자구 하무 싹 쏠다구 하압꾸마. 어쩐가하니 이런 거 이거 이거 컴퓨따르 앓아서 이거 가지구 기래지. 그런 건 하나두. 우리 자랄 때 이런 게 잇었습등? 없었지.{그거 읽은 것이. 아주 맨처음, 지금, 우리네 자랄 적에 우리 자랄 때 러시아의 그런 이야기를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10813 @ 없었쥬.{(책이) 없었쥬.}

10813 # 기래다나니 책으 거저 싹 날졌지.{그렇다 보니 책을 그저 싹 읽었지.}

10813 @ 즉금 아덜두 이런거: 예 하지만, 하기는 하지만 그래두 아매덜이 이룽기 내애기를 해애 주무 아주 좋아하는데요? 즉금 아덜은.{지금 아이들도 이런 거 에 하지만(읽지만), 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면 아주 좋아하는데요? 지금 아이들은.}

10813 # 모르겠습꾸마. 오 … 나느 손지 아 하내라두 이런 거 들을 호기르 아니하구. 어쩐가 하니까더 아춤에 발써 아춤 먹구 날어나무 어쩐가하니까더 마우재말르 빠쥬그 있대님 등? 거기르 나가무 이룽기 즈식이게 앓아서 여기 이룽기 놀기 놀기 좋아하구. 이 이런 까로슬로두 이룽기 그런데 앓아서 땡기. 좋아하구 개다나니 이런 거 무스 기랜

거느 들췌넝게 뵈습꾸마.{모르겠습니다. 오 ... 나는 손자 아이 하나라도 이런 거 들을 호기를 아니하고. 어떤가 하면 아침에 벌췌 아침 먹고 일어나면 어떤가 하면 러시아 말로 빠췌그(목마 타는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나가면 이렇게 짐승에 앉아서 여기 이렇게 놀기 좋아하고. 이 이런 까르슬로(?)도 이렇게 그런데 앉아서 다니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거 무슨 그런 것(옛날이야기)은 듣지 않게 뵈습니다.}

10813 @ 음. 음.{음. 음.}

10813 # 아츨우 맥이구 내 어췌가하니까더 으 그 사람이 노는데 빠르르(+ парк)라는 데 머대 니꾸마. 거기르 가네네스 거기 무스 마우재말르 아프르췌 세 끼 앉아서 아덜으 그제, 아덜 까따이 하대니우? 그런 게 가뜩하압지. 올라가는 것두 있구 내려가는 것두 있구, 이 이룽기 이룽기 가는 것두 부술기터르 한 것두 있구 발르 발르 이래네스 그것두 가는 것두 있구. 가는 그걸 가자구서르. 아츨우 먹구 거길 가무 점심 때 오옹꾸마. 점심 와 먹구 가무 괴래 재우구 नी어나무 또 바깥으르 나가자구 하지 머. 괴래 이런 거느 들때넝습꾸마. 드두두 아니했습꾸마. 괴래구 핵고르 가무 이런 거 니르라구 하무 아니 넝었습꾸마. 슸다구. 이제 와서느 책으 보느라구 괴랩더구마.{아침을 먹이고 내 어췌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노는 데 공원이 멀지 않습니다. 거기를 가면 거기 무슨 러시아말로 아프르췌에 세 끼 앉아서 아이들을 그제,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타지 않소? 그런 게 가뜩하지요.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기차처럼 한 것도 있고 발로 발로 이러면 그것도 가는 것도 있고. 그 아이는 그걸 가자고서. 아침을 먹고 거길 가면 점심 때 옵니다. 점심을 와 먹고 가면 그래 재우고 일어나면 또 바깥으로 나가자고 하지 뵈. 그래 이런 거(옛날이야기)는 듣지 않앗 습니다. 듣지도 아니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면 이런 거 읽으라고 하면 안 읽었 습니다. 슸다고. 이제 와서는 책을 보느라고 그래더군요.}

10813 @ 기래 나아 열맴둥? 지금 손지?{그래 나이가 얼마입니까?}

10813 # 예. 내달에 열싸웃날이무 스물 다섯이 돼엿꾸마.{예. 내달에 열 사흔날이면 스물 다섯이 됩니다.}

10813 @ 스물 다섯이.{스물 다섯.}

10813 # 예.{예.}

10813 @ 셔바아 갓슴둥? {장가를 갓습니까?}

10813 # 아니 갓스꾸마. {안 갓습니다.}

10813 @ 아아 참, 셔바이 아니라 식집우 아이 갓슴둥?{아 참 장가가 아니라 시집을 안 갓 습니까?}

10813 # 손지꾸마.{손자입니다.}

10813 @ 손지, 셔바아 아이...{손자, 장가를 안...}

10813 # 셔바이 아니, 아니 갓습꾸마. 이 사름두 벌췌 스물 여덟이 이제 셔바아 가대님둥? 괴 래 안죽은 일었습꾸마.{장가 안, 안 갓습니다. 이 사람도 벌췌 스물 여덟, 이제 장가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 아직은 팬참습니다.}

10813 @1 집 짓는 거 한다구 하시지 않으셨슴둥?{집 짓는 일을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 습니까?}

10813 # 예.{예.}

10813 @ 돈은 많이 버엿둥?{돈은 많이 벌니까?}

10813 # 이 곰만 글으 마감하다나니, 이, 이 나라에서 그렇기 돈으 많이 아이 주옹꾸마.{이 금방 공부를 끝내고 보니 이 이 나라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안 줍니다.}

10813 @ 으음. 음. 그 아:. 그렇게 넷날내에기르 그렇게 잘 하시면서 왜 넷날내기 없다구 하

졌습둥?{음. 음. 그, 아 그렇게 옛날이야기를 그렇게 잘 하시면서 왜 옛날이야기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10813 # 아 거기. {웃음}. {아 그게. {웃음}.}

10813 @ 에 그렇기 말씀우 잘 하시면서, 예. {웃음}. 그 내일 또 혹시 에 고려 고렷사람덜 옛말이 생각 나무:{에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면서, 예. {웃음}. 그 내일 혹시 에 고려 고려사람들 옛말이 생각 나면}

10813 # 고렷사람덜 옛말으느 정말 없습꾸마. 예예.{고려사람들 옛말은 정말 없습니다. 예.}

10813 @ 없습둥?{없습니까?}

10813 # 고렷사람덜이 내 이렇게 자라매 내가 제 말하는 게 없이 그저 우리 마우재 핵교르 가매 땡기매 이 마우재 옛말으 그거 책으 자꾸 니르니 괴래니 그제 마우재게 그제 거저 싹 그렇지. 딸이 서이 있으나 아들이 서이 있으나 그담에 어쩐가하니까더 또 이룽기 즘승두, 즘승두 고거 아무개 즘식이 있어서 개구 또 대애지두 서이 있어서 그 대애지 서이 어쩐가하 대애지 서이 한나느 대애지 집우 이룽기 에……피짱집우 쩡구. 하나는 대애지 이룽기 으 깔집우 쩡구, 하나는 대애지 거저 지썸 집우 쩡구. 개다니니 싱내: 와서 그거.{고려사람들이 내 이렇게 자라면서 내가 제 말(고려말) 하는 일이 없이 그저 우리 러시아 학교를 가며 다니며 이 러시아 옛말을 그거 책을 자꾸 읽으니, 그리하니 그제 러시아인에게 그제 그저 모두 그렇지(모든 것이 러시아식으로 되었다는 말)}

10813 @ 아하. {아하.}

10813 # 그 대애지 대애지덜으 잡아먹자구서르 오네느 그 큰 큰 큰대지 집우 진 거느 이 그저 깔르 지다나니 그 사람이 배 더 범 배. 더,{그 돼지 돼지들을 잡아 먹자고 오면은 그 큰 큰돼지 집을 지은 것은 이 그저 깔대로 짓고 보니 그 사람이 배 저 호랑이, 저,}

10813 @ 싱내.{승냥이.}

10813 # 더 싱내 바름우 혹 부니 혹 떨어데서 이 대애지 달아나서 어드메 갈 데 없어서 그 셋째 대애진테르 갔지. 집우 핏자: ~ 쩡인 집우루 왔지. 싱내 또 어드메르 둘째대애지르 갔지. 둘째 대애지 집우 가니 지썸 집우 쩡어 놓다나니 이거 마스는게 거저 테깅 마셨지. 개니 또 이게 어드메 가겠습둥? 가지 못해서 셋째인테 달아왔지. 괴래 달아와서 이 싱내 셋째대애지 집이 와서 암만 집우 마스자구 해애두 집우 못 마셨지. 개다니니 대애지덜으 서어 다 못 잡아먹었다구. 개 괴래 그제 어때 괴래 괴래길래 손재덜게 괴래길래 보라구서. 사람이 살아가는 게 집우 제애두 이룽기 핏장집우 자알 쩡구 바름이나 이룽기 물이나 오무 서구 있으라고. 지썸하디 말라구. 그룽기 그룽기 너네 그룽기 알아보라구. 그래 이런 이 옛말이 잇다구서르.{저 승냥이가 바람을 혹 부니 혹 떨어져서 이 돼지 달아나서 어디 갈 곳이 없어서 그 셋째돼지한테로 갔지. 집을 벽돌로 지은 집으로 왔지. 승냥이 또 어디로, 둘째돼지한테로 갔지. 둘째돼지 집을 가니 대충 집을 지어 놓으니 이거 부수는데 그제 즉시 부수었지. 그러니 또 이게 어디 가겠습니까? (어딜) 가지 못해서 셋째한테로 달려왔지. 그래 달려와서 이 승냥이 셋째돼지 집에 와서 암만 집을 부수려고 해도 집을 못 부수었지. 그러다 보니 돼지들을 셋을 다 못 잡아먹었다고. 그래 그제 어째 그래 그러기에 손자들에게 그러기에 보라고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집을 지어도 이렇게 벽돌집을 잘 짓고 바름이나 이렇게 물이나 오면 서 있으라고(집이 부수어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으라고). 대충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렇게 너희 그렇게 알라고. 그래 이런 이 옛말이 있다고.}

10813 @ 아 그렇쥬. 그래 옛말으 하면서 아:덜으 가르치는 거쥬. 예. 그런데 아매 그 핏장집

이라는 게 무슨집등?{아 그렇죠. 그래 옛말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 그런데 할머니 그 ‘핏장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0813 # 핏장집이라는 게 이게 저:네 집이 있는 게 이게 블록집이. 핏자~으느 이 이룽기 이 이.{'핏장집'이라는 게 이게 당신네들 집이 있는 게(조사자들이 머물고 있는 집을 말함) 이게 블록 집. '핏장'은 이 이렇게 이 이}

10813 @ 빨건 거. 요룽기 요룽기.{빨건 거. 요룽게 요룽게.}

10813 # 여, 요룽기. 요룽기, 핏재.{어, 요룽게. 요룽게, 핏재.}

10813 @ 네, 핏재.{네, 핏재.}

10813 # 핏재. 핏장집이. 예.{핏재. 핏장집. 예.}

10813 @ 핏재. 예. 음. 음.{핏재. 예. 음. 음.}

10813 # 마우재말르느 끼르삐쥬느이(+ кирпичный) 돔(+ дом). 끼리 삐쥬. 피짱집이.{러시아 말로는 끼리삐쥬느이 돔. 끼리 삐쥬, 벽돌집.}

10813 @ 예?{예?}

10813 # 끼르삐쥬. (기침) 마우재 말르느 아.{끼르삐쥬. (기침) 러시아말로는 아}

10813 @ 끼르?{끼르?}

10813 # 기르, 삐쥬.{기르, 삐쥬.}

10813 @ 기르?{기르?}

10813 # 기르.{기르.}

10813 @ 끼르? 기르?{끼르? 기르?}

10813 # 기르, 삐쥬. 기르, 삐쥬.{기르, 삐쥬. 기르, 삐쥬.}

10813 @ 삐쥬.{삐쥬.}

10813 # 삐쥬. 아하. 그건 어떤가 하니까더 예.{삐쥬 아하. 그건 어떤가 하면 예.}

10813 @ 음. 음.{음. 음.}

10813 # 예 흙으르 흙으 이룽기 체서 흙으 체서.{예 흙으로 흙을 이렇게 쳐서 흙을 쳐서}

10813 # 네. 음.{네. 음.}

10813 # 이룽기 이런데다가서 괴래 흙으 넣어서 괴래 모 요룽기 요룽기 해아서 말리워서 고 답에 이 부스깨라 있어서 부수깨 안에다 그거 태우무 이룽기 새빨간게 돼지.{이렇게 이런데다가 그래 흙을 넣어서 그래 모 요룽게 요룽게 해서 말려서 고 답에 이 부엌 (불을 때서 벽돌을 굽는 가마를 가리킴)이 있어서 부엌 안에다 그거 태우면 이렇게 새빨간 것이 되지.}

10813 @ 음. 음. 그냥 어 피라군 아니함등?{음. 음. 그냥 '피'라고는 아니합니까?}

10813 # 아니.{아니.}

10813 @ 핏자~이라구.{‘핏장’이라고.}

10813 # 피째, 피째이. 핏집이.{벽돌, 벽돌. 벽돌집.}

10813 @ 핏재.{벽돌.}

10813 # 핏재.{벽돌.}

10813 @ 이걸르 이걸루 이제 짙은 집우느?{이것으로 이것으로 이제 지은 집은?}

10813 # 이걸르 집우느 핏장집이.{이것으로 지은 집은 벽돌집.}

10813 @ 핏장집이.{벽돌집.}

10813 # 예. 핏장집이.{예. 벽돌집.}

10813 @ 예?{예?}

10813 # 핏장집이. 피, 핏장집이.{벽돌집. 벽돌집.}

10813 @ 핏장집이?{벽돌집?}

10813 # 예. 피짱집이.{예. 벽돌집}

10813 @ 음. 피짱집이.{음. 벽돌집}

10813 # 예. 핏장집이.{예. 벽돌집}

10813 @ 음. 음. 핏재, 핏장집이.{음. 음. 벽돌, 벽돌집.}

10813 # 핏장집이.{벽돌집}

10813 @ 음. 음. 음.{음. 음. 음.}

10813 # 세:베리에서는 이룽기 짙는게 싹 이룽기 핏장집우 짙구. 개:구 재비 사름덜이 이룽기
집우 크기 지때닌 집우는 어떠기 예 낭글르.{시베리아에서는 이렇게 짓는데 모두 이
렇게 벽돌집을 짓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크게 짓지 않은 집은
어떻게 예 나무로}

10813 @ 음.{음.}

10813 # 낭글르 낭글르 짙스끄.{나무로 나무로 짓습니다.}

10813 @ 음.{음.}

10813 # 세:베르 이실 적에는 이 정상 적에는 여덟째반으 땡기메, 땡기메 핏장두 제엿습꾸마.
핏자아 했습꾸마.{시베리아에 있을 적에는 이 정상(?) 적에는 8학년을 다니며, 다니며
벽돌도 만들었습니다.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10813 @ 핏자아 했습둥?{벽돌을 만들었습니까?}

10813 # 예.{예.}

10813 @ 음:{음.}

10813 # 그거 자꾸 홀 하다나니까더 야 손이 터서 손이 터서 저녁이무 놀라가겠는게 이게 통
터서 어찌겠습둥. 괴래 이 이래 이래 싸매구 땡기메 놀랐습꾸마.{그거 자꾸 하니까 야
손이 터서 손이 터서 저녁이면 놀러가려는데 이게 모두 터서 어찌겠습니까. 괴래 이
이렇게 이렇게 싸매고 다니며 놀았습니다.}

10813 @ 으음. 터서.{음. 터서}

10813 # 손이 터서.{손이 터서.}

10813 @ 예. 음. 요만:한 낭글르 만든 통에다.{예. 음. 요만한 나무로 만든 통에다.}

10813 # 예.{예.}

10813 @ 거기다 흙으, 빨건, 버얼건 흙으.{거기다 흙을, 빨건, 버얼건 흙을.}

10813 # 아니, 흙이 버얼거태녕구마.{아니, 흙이 벌정지 않습니다.}

10813 # 제 흙으 검은 검은 흙으 이룽기 놓지.{본디 흙을 검은 검은 흙을 이렇게 놓지.}

10813 @ 검은 흙으. 검은 흙으.{검은 흙을.}

10813 # 예. 괴래 놓와서 이런 야스깨 놓아서 그걸 그담에 그 야스깨르 홀 번데놓오무 요런
게 흙이 나가짐. 그거 말리워서, 말리워서 그담엔 그거 이룽기 부수깨에다 큰 부수깨
있습꾸마. 괴래 그거 부수깨에 넣어서 태우꾸마. 괴래 태우무 그담엔 그게 재빨강게
해 나옵꾸마.{예. 그렇게 놓아서 이런 야스깨(벽돌을 찍어내는 틀)를 놓아서 그걸 그
담에 그 야스깨를 뒤집어 놓으면 요런 것이 흙이 나가지. 그거 말려서 말려서 그 다
음에는 그거 이렇게 부엌(가마)에다 큰 가마가 있습니다. 괴래 그거 가마에 넣어서 태
웁니다. 괴래 태우면 그 다음에는 그게 새빨강게 되어 나옵니다.}

10813 @ 아 그렇습둥?{아 그렇습니까?}

10813 # 예. 타서, 굽어서, 재빨강게.{예. 타서, 구어서 새빨강게.}

10813 @ 재빨강게.{새빨강게.}

10813 # 재빨강게 나오구.{새빨강게 나오고.}

10813 @ 음. 음. 알겠습꾸마. 공부 참 많이 하암, 하암꾸마.{음. 음. 알겠습니다. 공부 참 많이

합니다.}

10813 # 오래: 살다나니까더 (웃음) 이래두 보구 더래두 보구 귀래대냈슴두?{오래 살고 보니
(웃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2편 어 휘

2.1. 농 경

2.1.1. 경 작

20101	벼	20101	베
20102	이삭	20102	이새기, 이사그 준눈다.
20103	볍씨.	20103	베씨
20104	못자리	20104	△
20105	모판	20105	△
20106	쟁기	20106	△
20107	보습	20107	△(+강차워터르 생긴 게 무수겐두 모름지)
20108	벗	20108	△(+모르읍지. 보긴 바두 옴판 모름지)
20108-0-1	-이	20108-0-1	△
20109	극쟁이	20109	△(+우리 그렁 거 듣대웁다나니 모름지)
20110	씨레	20110	△(+촌에서 이렇거 가지구 일하능 거 내 옴판 모 름지)
20111	번지	20111	△(+모빠쓰꾸마. 어드메 쓰능겐두)
20112	모내기	20112	△(+옹겨 안 시무구 그냥 무레셔 자라지)
20113	흙덩어리	20113	흑명지
20114	고무래	20114	치끄메니
20114-1	고무래(곡식)	20114-1	△
20114-2	고무래(재)	20114-2	△ (+까꾸렐르 끄서내따){까끄래로 끌어냈다}
20114-3	고무래(흙)	20114-3	치끄메니
20114-4	고무래(미는 것)	20114-4	*
20114-5	고무래(당기는 것)	20114-5	*
20115	쇠스랑	20115	△(+포크의 의미인 ‘차아재’를 씀)
20116	곡괭이	20116	△(+각째, 러시아 어로 ‘길까’)
20117	괭이	20117	△

20118	삽	20118	강채이, 간채이
20119	호미	20119	호미
20120	농기구	20120	기계
20121	김	20121	기슴, 기슴 매야
20122	김매다	20122	기슴 매지
20123	애벌매다	20123	→아시기슴 맨다
20123-1	두벌매다	20123-1	두벌 매야(+[tuβɔr meya])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20123-2	세벌 매야(+[seβɔr])
20124	논둑	20124	드레기, 드러그 맨드러 노아따
20124-1	논두렁	20124-1	드레기, 드러그 맨드러따
20125	발둑	20125	드러그 너머 가무
20126	발두둑	20126	△(+썩 마우재말루 하다나니 고려말루 무시기라 하는지 모름지)
20127	발고랑	20127	△
20128	발이랑	20128	△
20128-1	(발이랑을) 타다/갈다/썰다/파다	20128-1	△
20128-2	이랑밧기	20128-2	*
20129	보리	20129	보리, 가스리 도라오무 보리두 시무구
20129-1	가을보리	20129-1	△
20129-2	봄보리	20129-2	△
20130	보리쌀	20130	보리싸리
20131	가을갈이	20131	△
20132	깜부기	20132	△
20133	두엄	20133	도오미(+[tɔɔmi]), 뒹어미(+[tʷəəmi])
20134	거름	20134	걸그미, 걸금지르 한다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20201	가슬한다(+[kasilʰanda]), 가스리 느따
20202	벧단	20202	베따니
20202-1	벧단(벼 한 줌정도 묶은 것)	20202-1	베따니
20202-2	벧단(벼 타작할 정도로 묶은 것)	20202-2	베따니
20202-3	벧단(무논에서 벼를 베어 묶은 것)	20202-3	베따니
20203	가리(積)	20203	베까리
20204	가리다(積)	20204	△(+베까리르 해애라)
20205	벧가리	20205	베까리, 베까리르 해라
20206	낱가리	20206	△(+무디르 해애셔)
20207	타작	20207	△(+도래깬르 부시워서 키질 해애셔)
20208	벼훑이	20208	*

20208-1 그네	20208-1 *
20209 개상	20209 *
20209-1 자리개	20209-1 *
20209-2 자리개질	20209-2 *
20210 도리깨	20210 도리깨, 도리깨르 티입떠구마
20210-1 도리깨장부	20210-1 △
20210-2 도리깨열이	20210-2 △
20210-3 도리깨꼭지	20210-3 △
20211 벧짚	20211 베띠피, 베찌피
20211-0-1 -을	20211-0-1 베찌푸 때애타
20211-0-2 -에	20211-0-2 베찌페다가
20212 새 꿔기	20212 △
20213 쪽정이	20213 베아리 빙게
20214 티	20214 치 드러 가따
20215 까끄라기	20215 △
20216 풍구	20216 △
20217 원두막	20217 마기, 거저 마기, 슈박밭에다 마그 제에서, 지킬
라 마게 갈따	
20218 허수아비	20218 △(+부갈리(러시아 어) 세와 날따)
20219 흥년	22019 숨너니 드러따
20220 머슴	20220 일꾸니, 일꾼 사더라, 일꾸느 쥐구(+[tʃügu]) 이떠
라	
20221 낚	20221 →일꾸니, 일꾸니라 해쓰꾸마
20221-0-1 -을	20221-0-1 일꾸느
20222 품앗이	20222 △
20223 품삯	20223 도느 준다
20223-0-1 -으로	20223-0-1 *

2.1.3. 방아 찧기

20301 방아	20301 바이
20302 디딜방아	20302 발바이, 두리 셔서 이티르 발바이 떠쓰꾸마
20303 방앗공이	20303 △
20304 방아확	20304 △
20305 물레방아	20305 물바이, 무룰루 기래능 거 물바이
20306 연자방아	20306 →성매, 성매 돌굽더구마
20307 절구	20307 절귀, 덜귀
20308 절구통	20308 절귀토~이
20309 절굿공이	20309 △

20310 절구질
 20311 겨
 20312 보릿겨
 20313 왕겨
 20314 쌀겨
 20315 검불
 20316 겹질

20310 △
 20311 →게, 게 만타, 보리게, 구밀게, 채밀게
 20312 보리게구
 20313 △
 20314 보드라붕게라구
 20315 →검부래기, 검부래기 마내서 키지르 해야 댄다
 20316 겹찌르 발가낸다

2.1.4. 곡물

20401 곡식
 20402 찹쌀
 20403 맵쌀
 20404 쌀보리
 20405 조
 20406 차조
 20407 메조
 20408 좁쌀
 20409 잘다
 20410 조이삭
 20411 수수
 20411-1 붉은색수수
 20411-2 장목수수
 20411-3 찰수수
 20411-4 메수수
 20412 수수깥
 20413 옥수수
 20413-1 찰옥수수
 20413-2 메옥수수
 20414 귀리
 20415 메밀
 20416 콩
 20417 콩깍지
 20418 메주
 20419 매달다
 20420 띄우다
 20421 곰팡이
 20422 강낭콩

20401 곡써기, 곡썰기
 20402 찹쌀만, 차넙싸리
 20403 맵싸리, 맵싸르 갈그내와서{맵쌀을 빵서}
 20404 △
 20405 조이
 20406 →차좁싸리, 차이좁쌀 바비
 20407 메좁싸리
 20408 좁싸리
 20409 자다, 자다상게, 장감제{잔 감자}
 20410 조이새기구
 20411 슈끼(+함북에서는 흔히 ‘밥슈끼’라 함)
 20411-1 △
 20411-2 비슈끼
 20411-3 찰슈끼
 20411-4 매슈끼
 20412 *
 20413 옥썬끼, 옥썬꾸 발가서
 20413-1 찰옥썬끼
 20413-2 매옥썬끼
 20414 구미리
 20415 매미리
 20416 코이
 20417 →콩깍찌
 20418 메지, 메지르 피워서 네리와서 따개서 시쳐서
 20419 다라매꾸마
 20420 피워서
 20421 곰티
 20422 열콰이(+[yɔlkʰɔi]), 열콰이라구

20423 콩기름
 20424 깨
 20424-1 참깨
 20424-2 들깨
 20425 고소하다

20423 콩기리미
 20424 깨, 깨기리미{깨기름}
 20424 참깨르, 참깨느 채빌르 고사:하압찌
 20424 거저 깨{그냥 깨}
 20425 고사:하다, 고사:하압찌

2.1.5. 채소

20501 채소
 20502 나물
 20502-1 나물(밭 재료)
 20502-2 나물(밭 반찬)
 20502-3 나물(들 재료)
 20502-4 나물(들 반찬)
 20502-5 나물(산 재료)
 20502-6 나물(산 반찬)
 20503 푸성귀
 20504 다듬다
 20505 반찬
 20506 무
 20507 썰다
 20508 무청
 20509 시래기
 20510 무말랭이
 20511 장다리무
 20512 배추
 20513 고갱이
 20514 오이
 20515 오이지
 20516 오이소박이
 20517 가지(茄子)
 20518 호박
 20519 고구마
 20520 감자
 20521 우엉
 20522 파
 20523 고추
 20524 시금치

20501 생치
 20502 나무리
 20502-1 △
 20502-2 △
 20502-3 △
 20502-4 △
 20502-5 △
 20502-6 △
 20503 나무새
 20504 검즈라다
 20505 해애미
 20506 무끼, 무깍찌, 무꾸 까까라, 무꾸 발가라
 20507 싸아라라
 20508 무꾼니피, 무꾼니푸 떼에라{무우 잎을 떼어라}
 20509 씨락, 씨락빠채, 씨락짱물{시래기국}
 20510 *
 20511 씨무끼, 씨무꾸 딸루 둔다{장다리무를 따로 둔다}
 20512 배채
 20513 △
 20514 배(+[vɛ]), 웨, 왜, 왜라구
 20515 배김치(+[vɛgimʃʰi])
 20516 △
 20517 까지, 까집찌{가지쥬}
 20518 호박, 호배기
 20519 *
 20520 감제
 20521 *
 20522 파이
 20523 고치, 매분 고치
 20524 *

20525 미나리
 20526 부추
 20527 상추
 20528 마늘
 20529 생강
 20530 냉이
 20531 달래
 20532 도라지
 20533 더덕

20525 *
 20526 엄지
 20527 불기, 불구, 부루쌈미
 20528 마느리, 마느리구
 20529 *
 20530 *
 20531 △(+보메 이내 나압떠구마)
 20532 도라지
 20533 *

2.2. 음식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20601 찰바비, 찰배비, 싸락빠비, 싸락빠비라구
20602 찬밥	20602 무궁배비{묵은 밥이}(+반의어: 해빠비)
20602-1 더운밥	20602-1 따근배비(+반의어: 시근배비)
20603 조밥	20603 조과비
20604 누룽지	20604 가매티 만타
20605 늘은밥	20605 가매티디{가매티지}
20606 송늬	20606 송니, 송니라구
20607 뜨물	20607 뜨무리
20608 김(蒸氣)	20608 기미지, 기미 난다, 기무 떠운다
20609 갱죽(羹粥)	20609 △(+무루 마니 녀쿠 찹쌀 쥬그){물을 많이 넣고 찹쌀 죽을}, (+죽은 주로 찹쌀로 끓임)
20610 싱겁다	20610 승겁따, 승거바(+반의어: 짹따, 짜바셔)
20611 국수	20611 국씨
20612 칼국수	20612 칼구기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20612-1 분틀국씨
20613 건더기	20613 강치
20613-1 국물	20613-1 무리, 장무리, 강치르 다 거레 머꾸 무리 기털 따{건더기를 다 건져 먹고 국물이 남았다}
20614 고명	20614 국씨 추미
20615 꾸미	20615 추미
20616 미역	20616 메에기 장무르{미역국을}
20617 김(海苔)	20617 *

20618 수제비	20618 뜨더꾸기, 뜨더 년능 거{뜯어서 넣는 것}
20619 끼니	20619 시거그 에워따{끼니를 걸렀다}
20620 미음	20620 *
20620-1 (미음을) 끓이다/쭈다/삶다	20620-1 쥬그 한다, 쥬그 끄린다
20621 엿기름	20621 →쌍누루기
20622 식혜(食醪)	20622 감지, 감취(+[kamj ^w i], 제조 방법과 맛이 약간 다름)
20623 식혜(食醪)	20623 시캐
20624 달다(甘)	20624 다다, 다라셔
20625 가루	20625 갈기
20625-0-1 -에	20625-0-1 갈게다
20625-0-2 -을	20625-0-2 갈그, 갈그르
20625-0-3 -도	20625-0-3 갈그두, 가르꺼지{가루까지}
20626 밀가루	20626 밀갈기
20627 밀기울	20627 △(+무그러지), (+무그레미 기터따){밀기울이 남았다}
20628 미숫가루	20628 메시갈기, 메시갈그 푸러셔{미숫가루 풀어서}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20701 지레, 지리어
20702 된장	20702 콩자~이
20703 고춧가루	20703 고치갈기, 고치갈그, 고치갈기두
20704 고추장	20704 고치재~이, 고취자~이(+[kot ^h wid͡ʒäi]), 고치자아 가져오나라
20705 소금	20705 소고미
20706 김치	20706 김치, 동삼 김치르 절거 명는다
20707 김장	20707 *
20708 깍두기	20708 무꾸해애미(+무꾸해애미는 무로 만든 음식을 총칭)
20709 나박김치	20709 무꾸김치
20710 담그다	20710 절거 더야 한다
20710-0-1 -고	20710-0-1 절군다
20710-0-2 -어라	20710-0-2 절거노쿠 이따{담가 놓고 있다}, 절거찌
20711 양념	20711 양녀미, 양네미
20712 버무리다	20712 한테 싹 버무레라, 버무레셔, 메웁찌{버무리지요}
20713 버섯	20713 퍼스시, 퍼스스

20713-0-1 -이 고}	20713-0-1 퍼스시 낭게 난다구{버섯이 나무에서 난다 고}
20714 콩나물	20714 길구미, 길구밋찌{콩나물이쪼}
20714-1 콩나물	20714-1 길굼해애미
20714-2 숙주(나물)	20714-2 녹띠길구미
20715 두부	20715 드비
20716 비지	20716 드리
20716-1 비지떡	20716-1 *
20717 달걀	20717 달가리(+[targari])
20718 가래떡	20718 *
20719 시루떡	20719 셸기떼기
20720 송편	20720 *
20721 빗다	20721 *
20722 흰떡	20722 *
20723 고물	20723 고모리
20724 팔죽	20724 오구래(+함북에서는 흔히 ‘오구랑죽’이라 함)
20725 새알심	20725 오구래
20726 백설기	20726 셸기떼기
20727 튀밥	20727 *
20728 술	20728 수우리
20729 막걸리	20729 토지, 토쥐(+[tʰod͡ʒʷi])
20730 소주	20730 힌수우리(+보드카를 가리킴, 소주와는 다름)
20731 부침개	20731 △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20801 →부수깨언더미
20802 가마솥	20802 가매
20802-0-1 -을	
20802-0-2 -에	20802-0-2 가매애
20803 아궁이	20803 부수깨아가리
20803-0-1 -이	20803-0-1 부수깨아가리 조바셔
20804 그을음	20804 →끄스래미
20805 불쏘시개	20804 →불쏘시개
20806 연기	20805 내구리
20806-1 내(煙氣)	20806 내
20807 그을리다	20807 끄스러테따

20808	부지깽이	20808	까끄래르(+대격형)
20809	부삽	20809	△
20810	넙다	20810	△
20811	넙비	20811	△
20812	그릇	20812	그르시, 그르세
20812-0-1	-을	20812-0-1	밥끄르스
20813	뚜껑	20813	더깨, 더깨라구
20814	주발 뚜껑	20814	*
20815	사발 뚜껑	20815	사발 더깨라구
20816	술뚜껑	20816	가매뜨베, 가매뜨베에서
20817	밥주걱	20817	바푸개(+나무나 쇠로 만든 주걱), 밥쫄개(+조개로 만든 주걱)
20818	숟가락	20818	수리
20819	젓가락	20819	저리, 절까라기
20820	종지	20820	△
20821	보시기	20821	△
20822	뚝배기	20822	장꼭또리
20823	접시	20823	△
20824	조리	20824	→췌리(+[ʃweri])
20825	이남박	20825	△
20826	바가지	20826	물빠가지
20827	행주	20827	새앵지
20828	행구다	20828	△
20829	설거지	20829	→시걱거두매
20830	개숫물	20830	→가심무리(+두 번째 그릇을 씻을 때 쓰는 깨끗한 물)
20831	찌꺼기	20831	△
20832	화로	20832	화리토이, 화리토에다가
20833	화롯불	20833	소뿌리(+쇳불?), 수수뿌리(+숫불), 화리토에 수수뿌루 노아라{화로에다가 숫불을 놓아라}
20834	부젓가락	20834	불저리(+‘저리’는 젓가락)
20834-0-1	-이		
20834-1	[보충] 부손	20834-1	*
20835	다리쇠	20835	△
20836	석쇠	20836	△
20837	도시락	20837	△(+도시락으로는 주로 빵, 사과를 싸 가지고 다님, 밥은 싸 가지고 다니지 않음. 밥은 주로 학교에서 제공함)
20838	바구니	20838	△

20839 뒤주	20839 *(+자연발화에서 ‘베두지’, ‘베두제 넣어라’가 쓰임, 쌀과 가루는 ‘두까니’(창고)에 저장함)
20840 찬합	20840 *
20841 강판	20841 채카리
20842 개다리소반	20842 목또사이, 목또사아 개애노아라{개다리소반을 가져다 놓아라}, 목또상보구{개다리소반보다 (크다)}

2.3. 가옥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20901 췌에니바~이
20902 벽	20902 베기
20903 다락	20903 *
20904 벽장	20904 *(+그릇이나 물건은 ‘등때’(선반)에 올려놓음)
20905 감추다	20905 곰치운다, 곰치와 논는다
20906 흙	20906 그미 나따{금이 생기다}, 주리 나따{금이 생기다}, 마사테따{부서졌다}
20907 돌쩌귀	20907 △
20907-1 암짝	20907-1 △
20907-2 수짝	20907-2 △
20908 미닫이	20908 *(+‘고려무니’라고 어머니로부터 들었음)
20909 여닫이	20909 무니(+미닫이와 여닫이 구분이 없음)
20910 덧문	20910 바가테 무니구
20911 열다	20911 여러따, 열자구, 여러저라{열어 주어라}
20912 문고리	20912 *
20913 자물쇠	20913 *
20914 갇히다	20914 가다 노아따(+구술발화에서 ‘갇기우다’가 쓰임)
20915 열쇠	20915 세때
20916 잠그다	20916 췌르(+[s ^w eri]) 채완냐?
20917 구멍	20917 구내, 구냐:~ 들버셔 디리바다 본다
20917-1 쥐구멍	20917-1 쥐구내(+[ʃügunyɛ]), 쥐구내(+[ʃ ^w igunyɛ]), 지구내
20918 찢다	20918 췌에따(+[ʃ ^w ’eet’a]) {찢었다}, 찢저가지구(+[ʈ ^s ’idzə gacɕigu]) {찢어 가지고}
20919 구들	20919 구두리, 구두레 안자라(+사말리에서 구들은 흙, 쇄똥, 풀을 섞어 만들었음.)
20920 흙받기	20920 △

20921	흑손	20921	△
20922	흑칼	20922	*
20922-1	흑칼(나무)		
20922-2	흑칼(쇠)		
20923	바르다	20923	발라서 부틴다, 바름질한다
20924	장관	20924	장관
20925	종이	20925	조애
20926	도배	20926	아보이(+러시아 어)부틴다{벽지를 붙인다.}
20927	구석	20927	구세기
20928	굽도리	20928	△
20929	깨끗하다	20929	거더셔 깨끗자다{치워서 깨끗하다}, 깨끗자서
20930	문지방	20930	무투기
20930-0-1	-에	20930-0-1	무투게
20931	틈	20931	즈미 나따{틈이 났다}, बे기 갈가테따{벽이 갈라 졌다}
20932	가장자리	20932	물께테 안띠 마라{물가에 앉지 마라}, 무려게 안 띠 말라{물가에 앉지 마라}
20933	가운데	20933	함파니, 함파네{가운데에}
20934	시령	20934	덩때
20935	살강	20935	그른땡때
20936	선반	20936	덩때(+시령과 선반의 의미차가 없음)
20937	서랍	20937	뽀비
20938	경대	20938	세개
20939	거울	20939	세개 디리바다보구{거울 들여다보고}(+경대와 거 울의 구분이 없음)
20940	걸다	20940	거리 노아라
20941	호룽	20941	람빠부리

2.3.2. 건물

21001	지붕	21001	지부~이
21001-0-1	-에	21001-0-1	지부~에다{지붕에다가}
21002	기와	21002	△
21003	기와집	21003	△
21004	수키와	21004	△
21005	암키와	21005	△
21006	대들보	21006	△
21007	서까래	21007	△
21008	추녀	21008	△

21009	처마	21009	△
21010	오두막 하다}	21010	△(+조오꼬만 마기 가투라다){조그만 막과 비슷
21011	초가집	21011	△
21012	이엉	21012	△
21012-0-1	-에	21012-0-1	△
21013	용마름	21013	△
21014	기스락	21014	△
21015	낙숫물	21015	△
21015-1	기스락물	21015-1	△
21016	사닥다리	21016	→새닥따리
21017	용마루	21017	*
21018	토방	21018	→강내
21019	댕돌	21019	△
21019-1	[보충] 섬돌	21019-1	△
21020	마루	21020	△
21020-0-1	-에	21020-0-1	△
21021	툃마루	21021	△
21022	기둥	21022	기두이, 기두~이
21023	주춧돌	21023	△
21023-0-1	-을	21023-0-1	△
21024	굴뚝	21024	구새

2.3.3. 마당

21101	뜰	21101	△(+제보자가 러시아 어로만 알고 있음)
21102	마당	21102	마다~에서
21103	넓다	21103	너르다
21103-0-1	-어서	21103-0-1	널거셔
21104	넓히다	21104-0-1	널굽쏘{넓히세요}
21105	곶간	21105	두까네다
21106	외양간	21106	쉐카니(+[fwek ^h ani])
21107	마구간	21107	말카니
21108	광 의미차가 없음)	21108	두까네다가 내가라(+곶간과 광 모두 ‘뚫간’으로
21109	헛간	21109	*
21110	쓰레기	21110	→쓰레기
21111	장독대	21111	*

21112	장독 뚜껑	21112	*
21113	변소	21113	붕까니
21113-1	똥장군	21113-1	△
21114	올타리	21114	△(+제보자가 러시아 어로만 알고 있음)
21115	담	21115	△(+제보자가 러시아 어로만 알고 있음)
21115-0-1	-에		
21115-0-2	-도		
21116	사립문	21116	*
21117	뒤꼐	21117	두까니구
21117-0-1	-에서		
21118	바깥	21118	바가테 나가 노라라
21118-0-1	-에	21118-0-1	바가테
21119	모퉁이	21119	△
21120	모서리	21120	△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21201	초니
21202	윗마을	21202	오르매기(+반의어: ‘나래매기’), 나느 오르매기에 살구 너느 나래매기에 산다{나는 윗마을에 살고 너는 아랫마을에 산다}
21203	이웃	21203	게테지부(+대격형)
21203-0-1	-이		
21203-0-2	-에	21203-0-2	게테지부, 게테지베 가서
21204	마을가다	21204	마시또리, 자그마니 마시또리 해라{좀 적게 마을 가라}
21205	우물	21205	구렁무리, 구렁무르 가져온다
21206	두레박	21206	△(+무시긴두 모르개쓰꾸마)
21207	샘(泉)	21207	삼치무리
21208	가(邊)	21208	바테 그티 가서{밭 가에 가서}(+구슬밭화에서 ‘역’이 쓰임)
21208-0-1	-을		
21208-0-2	-에		
21209	물지게	21209	물찌게
21210	가게	21210	△
21211	싸다	21211	눅따{값이 싸다}
21212	비싸다	21212	세다{값이 비싸다}
21213	홍정	21213	→홍저:한다(+[hiŋɕə:ʔanda]), 함판에서 홍저:한다 {가운데서 홍정을 한다}
21214	거간꾼(중매인)	21214	△

21215 잔돈	21215 잔도니
21216 에누리	21216 △
21217 거스름돈	21217 →승쳐니
21218 거스르다	21218 △+(승쳐느 주웁쇼)(거스름돈을 주십시오), (+승
쳐니 얼마르 바다따)	
21219 꾸다(借)	21219 도느 꺼줍쇼(+[k'wədʒups'yo])
21219-0-1 -어야	21219-0-1 암마니 꺼라{얼마만큼만 꺼라}, 엘래, 엘라:~
꺼라{열량을 꺼라}	
21220 구두쇠	21220 구든 사르미
21221 말기다	21221 매께주구, 디케 주웁쇼
21222 나머지	21222 △(+기통건 네 가져라){남은 건 너 가져라}
21223 덤	21223 △
21224 뭇	21224 △
21224-0-1 -을	
21225 빗	21225 비드 지구 산다
21225-0-1 -을	21225-0-1 비드
21225-0-2 -에	21225-0-2 △
21226 이자(利子)	21226 베똥, 베똥 주구 산다{이자를 지불하고 산다}
21227 심부름	21227 심바람 한다, 심바람 시킨다
21228 두름	21228 *
21228-1 축	21228-1 *
21228-2 쾌	21228-2 *
21228-3 접	21228-3 △(+‘무데미’라 함. ‘접’과는 의미가 다름)
21228-4 씹	21228-4 *
21228-5 두름	21228-5 *
21228-6 단/뭇(장작)	21228-6 △
21228-7 단/뭇(무)	21228-7 *
21228-8 툇	21228-8 *
21228-9 모숨	21228-9 *
21229 켄레	21229 △(+‘신 두 보루’라 함)
21230 마지기	21230 *
21230-1 [보충] 한 마지기의 넓이	21230-1 *
21231 꾸러미	21231 *
21232 그루	21232 →글기
21233 포기	21233 △(+한 모, 두 모, 무디, 열 무디르 시머쑈)
21234 저울	21234 저우리
21235 차루(包袋)	21235 주먼지(+10Kg 이상일 때 사용, 형짚 주머니), 커
우대(+10kg일 때 사용, 중국어 차용어)	

21235-0-1 -을

21235-0-2 -에

21236 하나

21236-1 하나-개

21236-2 하나-되

21236-3 하나-말

21237 둘

21237-1 둘-개

21237-2 둘-되

21237-3 둘-말

21238 셋

21238-1 셋-개

21238-2 셋-되

21238-3 셋-말

21239 넷

21239-1 넷-개

21239-2 넷-되

21239-3 넷-말

21240 다섯

21240-1 다섯-개

21240-2 다섯-되

21240-3 다섯-말

21241 여섯

21241-1 여섯-개

21241-2 여섯-되

21241-3 여섯-말

21242 일곱

21242-1 일곱-개

21242-2 일곱-되

21242-3 일곱-말

21243 여덟

21243-1 여덟-개

21243-2 여덟-되

21243-3 여덟-말

21244 아홉

21244-1 아홉-개

21244-2 아홉-되

21244-3 아홉-말

21236 한나

21236-1 항개

21236-2 *

21236-3 *

21237 두우리, 두우르는 한나보구 만타

21237-1 두개

21237-2 *

21237-3 *

21238 서어, 서이, 서이느 두개보구 만타

21238-1 세개

21238-2 *

21238-3 *

21239 너어, 너이느 세개보구

21239-1 네개

21239-2 *

21239-3 *

21240 다스, 다스시, 다스뽀구 만타

21240-1 다스깨

21240-2 *

21240-3 *

21241 여스, 여스스느, 여스뽀구

21241-1 여스깨

21241-2 *

21241-3 *

21242 닐곱, 닐구비

21242-1 닐곱깨

21242-2 *

21242-3 *

21243 야듭, 야들비, 야들비무

21243-1 야듭깨, 야드깨

21243-2 *

21243-3 *

21244 아홉(+[a^hup]), 아웁, 아우비

21244-1 아웁깨, 아오깨

21244-2 *

21244-3 *

21245 열	21245 여러
21245-1 열 개	21245-1 열개
21245-2 열 되	21245-2 *
21245-3 열 말	21245-3 *
21246 스물	21246 스무리
21246-1 스물-개	21246-1 △
21246-2 스물-되	21246-2 *
21246-3 스물-말	21246-3 *
21247 설흔	21247 셔르, 셔르니
21247-1 설흔-개	21247-1 △
21247-2 설흔-되	21247-2 *
21247-3 설흔-말	21247-3 *
21248 마흔	21248 마흐니
21248-1 마흔-개	21248-1 △
21248-2 마흔-되	21248-2 *
21248-3 마흔-말	21248-3 *
21249 쉼	21249 쉼(+[si ^v n]), 시니
21249-1 쉼-개	21249-1 쉼개(+[siŋge])
21249-2 쉼-되	21249-2 *
21249-3 쉼-말	21249-3 *
21250 예순	21250 여스니
21250-1 예순-개	21250-1 △
21250-2 예순-되	21250-2 *
21250-3 예순-말	21250-3 *
21251 일흔	21251 니르니
21251-1 일흔-개	21251-1 △
21251-2 일흔-되	21251-2 *
21251-3 일흔-말	21251-3 *
21252 여든	21252 야드니
21252-1 여든-개	21252-1 △
21252-2 여든-되	21252-2 *
21252-3 여든-말	21252-3 *
21253 아흔	21253 아흐니
21253-1 아흔-개	21253-1 △
21253-2 아흔-되	21253-2 *
21253-3 아흔-말	21253-3 *
21254 백	21254 배개다{백에다가}
21254-1 백-개	21254-1 △

21254-2 백-되	21254-2 *
21254-3 백-말	21254-3 *
21255 이백	21255 낭뱅내
21256 한두	21256 △
21256-1 한두 개	21256-1 △
21256-2 한두 되	21256-2 *
21256-3 한두 말	21256-3 *
21257 두세	
21257-1 두세-개	21257-1 뒤:개
21257-2 두세-되	21257-2 *
21257-3 두세-말	21257-3 *
21258 두서넛	21258 △
21258-1 두서넛-개	21258-1 △
21258-2 두서넛-되	21258-2 *
21258-3 두서넛-말	21258-3 *
21259 서넛	
21259-1 서넛-개	21259-1 서너개
21259-2 서넛-되	21259-2 *
21259-3 서넛-말	21259-3 *
21260 네댓	
21260-1 네댓-개	21260-1 너더깨
21260-2 네댓-되	21260-2 *
21260-3 네댓-말	21260-3 *
21261 대여섯	21261 대여스시
21261-1 대여섯-개	21261-1 대여스깨, 대애깨
21261-2 대여섯-되	21261-2 *
21261-3 대여섯-말	21261-3 *
21262 예닐곱	
21262-1 예닐곱-개	21262-1 예닐구깨
21262-2 예닐곱-되	21262-2 *
21262-3 예닐곱-말	21262-3 *
21263 일여덟	
21263-1 일여덟-개	21263-1 △
21263-2 일여덟-되	21263-2 *
21263-3 일여덟-말	21263-3 *
21264 여덟아홉	
21264-1 여덟아홉-개	21264-1 △
21264-2 여덟아홉-되	21264-2 *

21264-3 여덟아홉-말
 21265 여남은
 21265-1 여남은-개
 21265-2 여남은-되
 21265-3 여남은-말

21264-3 *
 21265-1 여라무개무{여남은 개면}
 21265-2 *
 21265-3 *

2.4. 의복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21302 길이
 21303 저고리
 21304 색동저고리
 21305 두령이
 21306 무늬
 21307 고쟁이
 21308 바지
 21309 두루마기
 21310 의복
 21311 구겨지다
 21312 옷고름
 21313 단추
 21314 동정
 21315 겹
 21315-0-1 -에
 을) 대었다.}
 21315-0-2 -을
 터러라{겹을 털어라}
 21316 홑옷
 21317 겹옷
 21318 잠방이
 21319 누더기
 21320 거지
 21321 구겹
 21322 조끼
 21323 내의

21301 쳐매, 긴쳐매, 다른쳐매
 21302 △
 21303 저구리(+[ʧ̚əguri])
 21304 *
 21305 *
 21306 문채
 21307 소구티(+[soɾutʰi], 속우티)
 21308 바디
 21309 두루매기 업써테띠{두루마기가 없어졌지}
 21310 우티, 입썰~이라구
 21311 꾸게테따(+[k'uged̚et'al]), 꾸게저따(+[k'gedʒət'al])
 21312 *
 21313 단취
 21314 △
 21315 거추~이
 21315-0-1 거추~에다 대에따{겹에다 (기우기 위해 형겹
 을) 대었다.}
 21315-0-2 거추~이르 쓰서라{겹을 닦어라}, 거추~이르
 21316 △(+함보르){한 벌을}
 21317 △(+두보르){두 벌을}
 21318 솔띠(+[ʃolt'iy], 러시아 어)
 21319 누덕 우티르 님꾸{누더기 옷을 입고}
 21320 비렁배
 21321 빈다, 빌각찌르{동냥질을}
 21322 *
 21323 소구티(+[soɾutʰi])

21324	껴입다	21324	→치바셔 께니버따{추워서 께 입었다.}
21325	소매	21325	사매
21326	주머니	21326	거르만(+러시아 차용어)
21327	호주머니	21327	거르만
21328	허리띠	21328	띠, 바디띠, 쳐매띠, 형거띠, 가죽기띠
21329	댕기	21329	△
21330	도포	21330	*
21331	삿갓	21331	*
21331-0-1	-에		
21332	고깔	21332	*
21333	사모	21333	*
21334	유건	21334	*
21335	대님	21335	△
21336	감발	21336	△
21337	짚신	21337	△(+랍띠, 시베리아에서 가난한 고려사람이 신은 것을 보았음)
21338	미투리	21338	*
21338-1	(짚신을) 삼는다/만든다/튼다)	21338-1	*
21339	나막신	21339	*
21340	설피(雪皮)	21340	*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21401	비단 형거치, →멩지 형거치
21401-1	명주실	21401-1	멩지실두
21402	목화	21402	모카
21402-1	목화다래	21402-1	*
21403	무명	21403	모카 형거치
21403-1	무명실	21403-1	△
21404	씨아	21404	*
21405	자새	21405	*
21405-0-1	-을		
21405-0-2	-에		
21406	물레	21406	△
21407	베	21407	배르(+대격형)
21408	길쌈	21408	배르 짜서 우티르 해니버찌{베를 짜서 옷을 해 입었지}
21409	콜무	21409	△

21410 반짚고리	21410 →기뚜짱지, 기뚜짱지 버들르 해:셔
21411 가위	21411 가새
21411-0-1 -을	21411-0-1 가새르 가져오나라
21411-0-2 -에	21411-0-2 가새애 딜개따{가위에 찢렸다.}
21412 마르다(裁)	21412 말가한다(+[marga ^h anda]), 적삼 말가따
21412-0-1 -고	21412-0-1 마르지 마라라
21412-0-2 -어라	21412-0-2 말가따, 말가 노쿠
21413 형걸	21413 형걸조배기 부테셔{형걸 조각을 붙여서}
21413-0-1 -을	21413-0-1 형거츠(+‘형겻’은 ‘천’을 말함)
21413-0-2 -에	
21414 바늘	21414 바느리
21415 꿰다	
21415-0-1 -고	21415-0-1 깨디 마라
21415-0-2 -어라	21415-0-2 께에라, 께에다구
21416 바느질	21416 바느지르한다(+[paniɕiri ^h anda])
21417 재봉틀 (+손으로 움직이는 재봉틀)	21417 발마셔니구(+발로 움직이는 재봉틀), 손마셔니구
21418 끈	21418 오치레기
21419 노끈	21419 농깁 깐다{노끈 끈다}
21420 참바	21420 바이, 바아가지구
21421 매듭	21421 △(+오치레기 마칭게)
21421-1 (매듭을)맺는다/짓는다/엮는다	21421-1 매라
21422 보자기	21422 →보이
21423 이불	21423 니부리
21424 솜	21424 소캐
21425 포근하다	21425 푸가:나다, 푸가:나게
21426 홑이불	21426 하부리, 네르미무 하부르
21427 겹이불	21427 △(+아느 마춘 하부리){안을 겹댄 홑이불}
21427-1 솜이불	21427-1 소캐니부리
21428 누비이불	21428 △
21429 베개	21429 베개르
21430 베갯잇	21430 △
21430-0-1 -에	
21431 목침	21431 목떠기르, 토매기
21432 퇴침	21432 *
21433 방석	21433 △
21434 담요	21434 △
21435 빨래하다	21435 셔다부 썬는다, 셔답찌르 해:따

21436 빨랫방망이
 21437 빨래터
 21438 빨랫줄
 21439 다리미
 21439-1 다림질
 21440 인두
 21441 다듬잇방망이
 21442 다듬잇돌
 21443 다듬이질

21436 나무방치, 방치지르{방망이 질을}
 21437 △
 21438 셔답쭈리
 21439 다려니
 21439-1 다런지르(+대격형)
 21440 *
 21441 *
 21442 *
 21443 *

2.5. 민속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21502 설
 21503 설달그믐날
 썸위리 지나가따)
 21504 묵은세배
 21505 올해
 21505-0-1 -는
 21505-1 작년
 21505-2 재작년
 21505-3 내년
 21505-4 후년
 21505-5 내후년
 21506 작은설
 21507 웃
 21507-0-1 -을
 21507-0-2 -에
 21507-1 웃놀이
 21508 웃가락
 21508-1 도
 21508-2 개
 21508-3 걸
 21508-4 웃
 21508-5 모

21501 설라리, 멍실라리, 새해 천나라라구
 21502 설라리
 21503 △(+마감나라라구[maɣamnariragu], 이세위리, 해
 21504 *
 21505 올해(+자연 발화에서는 ‘오래’로 나타남)
 21505-0-1 올해는(+[orʰɛnin])
 21505-1 상녀니
 21505-2 그러께, →재장녀니
 21505-3 내녀니
 21505-4 △
 21505-5 △(+이티 후에)
 21506 *
 21507 유끼 틴다구{웃을 논다}, 유꾸두 티구
 21507-1 유꾸틴다
 21508 △
 21508-1 *
 21508-2 *
 21508-3 *
 21508-4 *
 21508-5 *

21509 단동	21509 *
21509-1 외동무니	21509-1 *
21509-2 두동무니	21509-2 *
21509-3 석동무니	21509-3 *
21509-4 녁동무니	21509-4 *
21509-5 막동	21509-5 *
21509-6 단동무니	21509-6 *
21510 보름	21510 보름꺼지{보름까지}
21510-1 삭망	21510-1 △
21511 추석	21511 취석, 취성나리(+‘취’의 ‘기’는 전설원순모음)
21512 망월	21512 *
21513 쥐불놀이	21513 *
21514 자치기	21514 △(+탁 테서 노는 노로미){탁 쳐서 노는 놀이}
21514-1 작은막대	21514-1 △
21514-2 긴막대	21514-2 △
21515 수수께끼	21515 *
21516 호미씻이	21516 *
21517 팽과리	21517 △(+무시긴지 모르꾸마)
21518 장구	21518 △(+이리미 무시긴지 모르꾸마)
21519 결두리	21519 *
21520 무당	21520 *
21520-1 박수	21520-1 *
21521 고수레	21521 *
21521-1 고수레!	21521-1 *
21522 점쟁이	21522 △(+저무 티는 사르미){점을 치는 사람}
21523 상여(喪輿)	21523 →상뒤(+‘뒤’의 ‘기’는 [wi])
21524 굴건	21524 *
21525 제사	21525 제세르 지낸다, 새밀 켜세{삼일 제사}
21526 제기	21526 △(+옛날에 있었음)
21527 귀신	21527 구시니
21528 도깨비	21528 →도깨비나{도깨비나 (귀신이나 같다)}

2.5.2. 농경용품

21601 고빼	21601 *
21602 굴레	21602 *
21603 명에	21603 *
21604 길마	21604 △(+썰드록, 썰드로끄(러시아 어))
21605 부리망	21605 △(+무디 말라구, 뜨더먹띠 말라구)

21606	구유	21606	구시, 쉼구시{소구유}
21607	작두	21607	△
21608	꿀	21608	△
21609	여물 (준다)}	21609	△(+옥썴 쉼머거리르){옥수수 (같은) 소 먹이를
21610	쇠죽	21610	△(+살마 메기는거 모르꾸마)
21611	쇠죽바가지	21611	*
21612	수레	21612	술기
21613	끌다	21613	끄스구
21613-0-1	-고	21613-0-1	끄스구 간다
21614	바퀴	21614	바키
21615	새끼(繩)	21615	△
21615-1	새끼(짐승의)	21615-1	새끼르 나아따
21616	망태기	21616	*
21617	먹동구미	21617	*
21618	거적	21618	△(+무시기라 하는지 모름지)
21619	가마니	21619	*
21619-1	가마니틀	21619-1	*
21620	돛자리	21620	*
21621	자리틀	21621	*
21621-1	(자리를) 째다/찢다/만든다/결다	21621-1	째다구, 매기두 한다, 맨든다
21622	왕골	21622	*
21623	삼태기	21623	*
21623-1	짚삼태기	21623-1	*
21623-2	싸리삼태기	21623-2	*
21624	명석	21624	*
21625	어레미	21625	△(+채터르 생게쓰꾸마)
21625-1	고운채	21625-1	보도로분채{부드러운 채}
21625-2	굵은채	21625-2	센채
21626	대장장이	21626	애채
21627	대장간	21627	애장카니
21628	폴무	21628	△
21629	모루	21629	△(+두두립찌)
21630	모루채	21630	△
21631	갈퀴	21631	△(+그라불리(러시아 어))
21632	집게	21632	△(+십찌(러시아 어))
21633	장도리	21633	△(+말라독(러시아 어))
21633-1	노루발	21633-1	△

21634 톱
 21634-0-1 -에
 21635 도끼
 21636 자루(柄)
 21636-0-1 -을
 21636-0-2 -에
 21637 갈고리
 21638 썰기
 21639 송곳
 21639-0-1 -에
 21640 뿔족하다
 21641 솥돌
 21641-0-1 -에
 21642 맷돌
 21642-1 수쇠
 21642-2 암쇠
 21643 지게
 21644 발채
 21645 지게 작대기
 21646 막대기
 21647 몽둥이

21634 토비
 21635 도끼, 도끼르 가제오나라{도끼를 가져오너라}
 21636 잘기, 잘기 기기두 기다{자루가 길기도 길다}
 21636-0-1 잘그 가제오나라
 21636-0-2 잘게다
 21637 까꾸래
 21638 △
 21639 송고지
 21640 뿔:쥬가다
 21641-0-1 무수또래다 간다{솥돌에다 간다}
 21642 매토리
 21642-1 *
 21642-2 *
 21643 쪽찌개(+[ts'okɥ'igɛ])
 21644 *
 21645 *
 21646 △
 21647 몽디르 가지구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빗자루}
 21702 광주리
 21703 소쿠리
 21704 함지
 21705 풀비
 21705-1 귀얄
 21706 독
 보관하는 독)
 21706-0-1 -에
 21707 물독
 21708 항아리
 21709 단지
 21710 물동이

21701 비짚기 기다{빗자루가 길다}, 고레뻬{고려 사람의
 21702 강지리
 21703 *
 21704 함지, 함지에다 디레오나라{함지에다 들여오너라}
 21705 *
 21705-1 *
 21706 두기, 장뚜기(+장을 보관하는 독), 쌀뚜기(+쌀을
 21706-0-1 쌀뚜게다{쌀독에다(쌀을 넣는다.)}
 21707 물뚜기
 21708 △
 21709 단디
 21710 물또애{물동이에}

21711 빠리
 동이를) 이고 다녔다.}

21712 웅기

21713 표주박
 도 뜨고}

21714 키(箕)

21715 떡살

21716 다식판

21717 시루
 21717-0-1 -을
 21717-0-2 -에

21718 시루밑
 21718-0-1 -에

21719 시룻번

21720 부싯돌
 21720-0-1 -을

21721 부시

21722 부싯깃

21723 담배

21724 담뱃대
 것)

21725 담배설대

21726 대통

21727 물부리

21728 담배쌈지

21729 부채

21730 토시

21731 벼루

21732 가락지

21733 비녀

21734 참빗
 21734-0-1 -을
 라.}

21734-0-2 -에

21735 열레빗

21736 세숫대야

21737 비누
 비누}

21711 따바리르 해에서 이구댕게따{빠리를 만들어 (물
 21712 *

21713 △(+물빠가지, 바가질르 물두 뜨구){바가지로 물
 21714 키, 치(+‘츠’은 경구개음)
 21715 *
 21716 *
 21717 △(+실기떠기, 시리따리)

21718 △(+보오 펜다)

21719 △
 21720 △(+두 도르 테셔 부루 나오는 거)

21721 △(+이전에 연극을 할 때 본 적이 있음)
 21722 *
 21723 담배
 21724 담배팬지{담뱃대인지}, 곱방대(+‘담뱃대’보다 작은
 21725 *
 21726 *
 21727 *
 21728 담배쌈지, 담배쭈머니
 21729 △
 21730 △
 21731 *
 21732 가락찌
 21733 비내
 21734 챔비시
 21734-0-1 챔비스 가지구 빼서라{참빗을 가지고 빗어
 21734-0-2 챔비세 걸게따{참빗에 (머리카락이) 걸렸다.}
 21735 열게비시
 21736 세시 양푸니
 21737 비느리, 세시빼느리{세숫비누}, 셔담빼느리{빨랫
 비누}

21738 도투마리
21739 활대
21740 잉앗대
21741 부티
21742 도롱이

21738 *
21739 *
21740 *
21741 *
21742 *

2.6. 인 체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21802 이마빼기
21803 눈자위
21804 검은자위
21805 흰자위
21806 눈꺼풀
21807 거적눈
21808 눈썹
21808-0-1 -이
21809 속눈썹
21809-0-1 -이
21810 눈두덩
21811 안경
21812 안경집
21813 돋보기
보는 안경이 있고}
21814 주름살
21814-0-1 -이
21815 앓되다
21816 수염
21817 구레나룻
21817-0-1 -을
21818 코
나타남)
21818-0-1 -이
21819 콧수염
21820 코딱지

21801 니매, 니매 빼서저따{이마가 벗겨졌다}
21802 △
21803 눈자시(+[nunzasi])
21804 검정자시(+[kəmdʒəŋzasi])
21805 흰자시(+[hinzasi])
21806 △(+베끼(러시아 어))
21807 부성누니
21808 눈썹비

21809 △

21810 →눈뚜베
21811 풍아니
21812 △
21813 △(+가채비 보는 풍아니 이꾸){가깝게 있는 것을

21814-0-1 →주룩싸리 만타구
21815 어려배운다, 어려셔배운다
21816 세에미
21817 세에미
21817-0-1 세에무 까까라
21818 코이(+자연발화에서 코오(코-를), 코두(코-도)로
나타남)
21818-0-1 코이
21819 △
21820 코파대, 코파대 싹 다 뜨더내라{코딱지 다 파내

라}

21821 콧구멍

21821-0-1 -을

21821-0-2 -에

21822 콧물

21823 입술

21823-0-1 -에

21824 다물다

21825 어금니

21826 덧니

21827 휘파람

21828 침

21829 삼키다

21830 가래(痰)

21831 뱀다

21832 혀

21833 헛바늘

21834 콧볼

음, ‘귀’의 ‘기’는 [wi])

21835 귀고리

21835-1 귀걸이

21836 귀지

21837 귀이개

21838 소리

들린다.}

21839 엇듣다

21840 귀청

21841 귀밑

21841-0-1 -에

21842 관자놀이

21843 기미

21844 주근깨

21845 턱

21846 턱수염

21847 뺨

21847-1 볼

21848 가름하다

21849 보조개

21821 코꾸내

21821-0-1 코꾸내 싹 시처라{콧구멍 모두 씻어라}

21821-0-2 코꾸내에서

21822 콤무리

21823 입쭈니

21824-0-1 다마따, 이부 다마라{입을 다물어라}

21825 검:니

21826 →던니 나따구

21827 해빠르무 분다

21828 추미

21829-0-1 녕군다, 녕거따, 삼친다

21830 가래

21831 바다라

21832 세때

21833 쓰리

21834 △(+귀띠, 구띠, 귀, ‘귀’와 ‘콧볼’의 의미분화가 없

21835 △

21835-1 △

21836 귀채(+[ku^yʰʂɛ])

21837 △

21838 소리 툃다, 소래 툃다, 마리 잘 드킨다{말이 잘

21839 여서든는다

21840 △

21841 구미티, 귀미티

21842 △

21843 *

21844 △

21845 태기

21846 턱세에미

21847 빼애미, 빼애무 마자따

21847-1 △

21848 △(+나치 기다){얼굴이 가름하다.}

21849 △(+속 드러강게)

21850	머리카락	21850	머리끼
21851	비듬	21851	△
21852	기계충	21852	△
21853	정수리	21853	△
21854	대머리	21854	번들리매
21855	고수머리	21855	양머리, 수디 만타
21856	가르마	21856	그미
21856-1	가르마 탄다/가른다/한다.	21856-1	그므 낸다
21857	가마(머리)	21857	가매(+[kaámɛ], [ká'mɛ])
21857-1	가마(鼎)의 성조·음장	21857-1	가매'애다가
21857-2	가마(轎)의 성조·음장	21857-2	△
21857-3	가마(질그릇)의 성조·음장	21857-3	*
21857-4	가마(가마니)의 성조·음장	21857-4	*
21858	뒤통수	21858	두꼬리, 뒤꼬리
21859	뒗덜미	21859	△
21860	목	21860	모기, 모가지(+‘목’과 ‘모가지’의 의미차가 없음)
21861	먹살	21861	△

2.6.2. 상체

21901	어깨	21901	어께, 어깨쭉쭉
21902	밀치다 놓는다}	21902	민다, 미리 논는다, 썰기 미리 논넌다{세게 밀어 놓는다}
21903	겨드랑	21903	→저대, 더재미티(+자연발화에서 ‘재개애미’를 씀)
21904	등	21904	등싸테르(+대격형)
21905	가슴	21905	가스미
21906	결리다	21906	→케운다
21907	갈비뼈	21907	갈비, 갈비 케운다.
21908	허파	21908	푸싱개
21909	쓸개	21909	→여리
21910	콩팥	21910	콤파치
21910-0-1	-에	21910-0-1	콤파체
21910-0-2	-을	21910-0-2	콤파츠
21911	팔	21911	파리
21912	팔꿈치	21912	팔꼬비, 팔꼬부 다테서{팔꿈치를 다쳐서}
21913	팔짱끼다	21913	△(+파르 고펜노쿠)
21914	손톱	21914	손토비, 손토부 까까다구{손톱을 깎아다오}
21915	오른손	21915	오른소니
21916	왼손	21916	벤소니(+[vensoni])

21917 다르다	21917 따다
21917-0-1 -아서	21917-0-1 따서
21917-1 틀리다	21917-1 틀레따
21918 왼손잡이	21918 벤손짜기, 거반 벤손짜글르{거의 왼손으로}
21919 엄지손가락	21919 큰송까래기
21920 집게손가락	21920 △
21921 가운데손가락	21921 제에르 긴소니{제일 긴 손가락}
21922 약손가락	21922 △
21923 새끼손가락	21923 왜앤 자근 송까래기{제일 작은 손가락}
21924 생인손	21924 △(+송꾸라기 곱는다)
21925 사마귀	21925 →사마기
21926 손아귀	21926 △
21927 손목	21927 숨모기, 숨모그 꼭 췌에따{손목을 꼭 쥐었다}
21928 뺨	21928 △
21929 허리	21929 허리라구
21930 지팡이	21930 디패 막때기 집구 땡긴다{지팡이 짚고 다닌다}
21931 옆구리	21931 녀꾸리 덜군다{옆구리 찌른다}
21932 간지럽다	21932 간지럽따
21933 간지럼	21933 △(+간지러피우디 마라라, 간지러바 한다)
21934 잔허리	21934 △
21935 근육	21935 △
21936 배꼽	21936 배뿌기
21937 목물	21937 물치기르 한다

2.6.3. 하체

22001 복사뼈	22001 △
22002 발가락	22002 바까래기
22003 발바닥	22003 발빠대기
22004 발톱	22004 발토비, 발토부 빼에구{발톱을 깎고}
22005 냄새	22005 내르 만든다{냄새를 맡는다}
22006 고린내	22006 쿠린내 난다(+방귀 냄새와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를 일컬음), 추근내 난다(+발에서 나는 고린내만 일컬음, 발냄새를 ‘쿠린내 난다’라고도 함), 발래 난다
22007 굳은살	22007 △
22008 정강이	22008 덩개 미티 배케따(+‘덩개’는 무릎을 지칭, 정강이는 ‘덩개 미티’임){정강이 밑이 부딪혔다}
22009 종아리	22009 △
22010 장판지	22010 장판디(+[ʃagtʰandʷi])

22011 회초리	22011 해채리, 해채리르 툃다{회초리를 친다.}
22012 무릎	22012 덩개
22012-0-1 -을	
22012-0-2 -에	
22013 오금 물거 저라)	22013 △(+오고무 체라){다리를 주물러라}(+오고무 주
22014 엉덩이	22014 엉치
22015 궁둥이	22015 궁디르 툃다{궁둥이를 친다}
22016 불기	22016 △
22017 멍 들었다}	22017 이무리 생게따, 배키워서 이무리따{부딪혀서 멍
22018 명울	22018 △
22019 가랑이	22019 가다리
22020 사이 사이}	22020 어가네, 새이, 니어가네{이 사이에}, 니 새이{이
22021 살	22021 새채기
22021-0-1 -이	22021 새채기
22021-0-2 -을 려라}	22021-0-2 새채길 다다라, 새채기르 더퍼라{살을 오므
22022 사타구니	22022 새채기
22023 가래툃	22023 △
22023-0-1 -을	
22024 허벅다리	22024 신다리(+허벅다리와 넓적다리의 의미차가 없음)
22025 넓적다리	22025 신다리
22026 가부좌(跏趺坐)	22026 △(+다리르 고편구 안자이따){다리를 꼬고 앉아
22026-1 가부좌(跏趺坐) 치다/앉다/트다/꼬다/하다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22101 행부르 만나따{감기에 걸렸다}
22102 기침	22102 기침두
22103 재채기	22103 자체미
22104 사례	22104 △(+모게 걸기위따)
22104-1 (사례) 들렸다/만났다/걸렸다	22104 △
22105 딸꾹질	22105 패기 난다
22106 트림	22106 트림 한다
22107 콧보	22107 △(+나치 얼거따)
22108 천연두	22108 →마느래 빼~이

22109	여드름	22109	△
22110	학질	22110	△
22110-1	하루거리	22110-0-1	△(+말레리아, 러시아 어)
22110-2	이틀거리	22110-0-2	△(+말레리아, 러시아 어)
22110-3	매일(학질)	22110-0-3	△(+말레리아, 러시아 어)
22111	홍역	22111	대애기
22112	불거리	22112	도투베~이, 목빼~이
22113	땀띠	22113	땀때 도다따{땀띠 났다}
22114	두드러기	22114	→두두레기, 두두레기 도다따
22115	버짐	22115	△
22115-1	마른버짐	22115-1	*
22115-2	진버짐	22115-2	*
22115-3	도장버짐	22115-3	*
22116	문둥이	22116	문딩빠:한 사르미(+문둥병을 앓는 사람)
22116-1	문둥병	22116-1	문딩빠~이
22117	부스럼	22117	부수레미, 부수레미 크다
22117-1	종기	22117-1	부수레미(+‘부스럼’과 ‘종기’의 의미차가 없음)
22118	고름	22118	고르미, 고리미
22119	곰기다	22119	곰기대네따{곰기지 앓았다}, 곰기 저네 다티디 마
	라라{곰기기 전에 건드리지 마라}		
22120	난쟁이	22120	△
22121	사팔뜨기	22121	△
22122	언청이	22122	입째애기
22123	소경	22123	→세계이
22123-1	당달봉사	22123-1	△
22124	애꾸	22124	△(+눈 한내다){눈이 하나다}
22125	눈곱	22125	눔꼴째기
22126	다래끼	22126	눈뽀두라지
22126-1	다래끼(눈위)	22126-1	△(+위 아래 다르게 부른다는 것은 알고 있음)
22126-2	다래끼(눈아래)	22126-2	△
22127	절름발이	22127	절뚜배기
22128	곱사등이	22128	△
22129	귀머거리	22129	구멕째
22130	말더듬이	22130	△(+떠듬마르한다, 뜨딩마르 한다, 뜨덕 뜨덕 한다)
22131	병어리	22131	버버리
22132	잠꾸러기	22132	△
22133	줄리다	22133	자부라부무{줄리면}

22134	하품	22134	하퍼미(+소), 하페미(+다)
22135	줄음	22135	자부레미 와서
22135-0-1	-을	22135-0-1	자부레무 몬 참는다
22135-0-2	-에	22135-0-2	자부레메
22136	잡꼬대	22136	잡쏘릴 한다

2.7. 육아

22201	입덧	22201	△(+제보자는 ‘구역질’의 의미를 가진 ‘게웁쩔’로 말함, 아아르 셴 녀자 게웁쩔 자주루 한다)
22201-0-1	-을		
22202	갓난아이	22202	가즈나나
22203	어린아이	22203	어르나(+대여섯 살까지의 어린아이를 의미), 셴스 나(+2~3살 이상의 남자아이), 간나(+2~3살 이상의 여자아이)
22204	경기(驚氣)하다	22204	△
22205	눅히다	22205	느페재와라{눅혀 재워라}
22206	계집아이	22206	새애가(+11~12살 정도의 여자아이), 새애가더리 나치 곱따{계집아이들의 얼굴이 예쁘다.}
22207	예쁘다	22207	곱따, 곱끼 생게따{예쁘게 생겼다}
22208	사내아이	22208	셴스나, 총개기(+16~17살이 넘은 남자)
22209	아우 타다	22209	△
22209-1	아우보다	22209-1	→아스보개따, 동새르 보개따
22210	야위다	22210	예베에따{야위었다}
22211	쌍둥이	22211	쌍뒤(+[sʰaŋdʷi]), 쌍뒤(+[sʰaŋdʷi]), 쌍두아다{쌍둥이다}
22212	오줌	22212	오조미, 오죤 가렌다{오줌을 가린다.}
22213	똥	22213	또오 뉘따(+[nʷətʰa]), 또오 눈다.
22214	기저귀	22214	지저귀(+[ʧid͡ʒəŋʷi])
22215	뉘다(排便)	22215	오죤또오 뉘와라(+[nwiwara]){뉘어라}
22216	방귀	22216	방기 께에따
22216-1	뀌다	22216-1	방기 낀다
22217	구린내	22217	쿠린내
22218	구리다	22218	쿠리기두 쿠리다
22219	포대기	22219	아:하부리
22220	기지개	22220	지지개르(+대격형)
22220-1	기지개를 켜다/한다/쓴다/편다	22220-1	켄다, 케라, 켜구이따
22221	거짓말	22221	거죤말, 열게따{속였다}
22222	남부끄럽다	22222	남부끄럽따, 나무 보기 부꾸럽따

22223	겹쟁이	22223	겹째
22224	불쌍하다	22224	어시 업써서 불쌍하다{부모가 없어서 불쌍하다}
22225	죄암죄암	22225	재앰재앰
22226	곤지곤지	22226	송고송고
22227	따로따로	22227	△
22228	도리도리	22228	도리도리
22229	짹짹	22229	짹짹기
22230	부라부라	22230	△(+지지개 떼운다)
22231	걸음마	22231	걸빠라미 쵸타, 걸빠람 자란다{걸음마 잘 한다}
22232	아장아장	22232	아장아장
22233	넘어지다	22233-0-1	너머테따, 자빠테따(+앞으로 넘어진 것을 의미), 두우루 번테테따(+뒤로 넘어진 것을 의미)
22234	곤두박질	22234	꼬꾸라데서{곤두박질 쳐서}
22235	안기다	22235	앵긴다
22236	바람개비	22236	△
22237	호드기	22237	△
22238	숨바꼭질	22238	곰치올래기르 노라따{숨바꼭질을 하며 놀았다.}
22239	소꿉놀이	22239	△
22240	사금파리	22240	△
22241	연	22241	△
22241-1	방패연	22241-1	△
22241-2	가오리연	22241-2	△
22242	걸리다	22242	걸기워따{걸렸다}
22243	고누	22243	*
22244	땅뺨기	22244	*
22245	팽이	22245	△
22246	딱지	22246	*
22247	구슬	22247	△
22248	그네	22248	굴기
22248-1	그네를 뒸다/탄다/구른다	22248-1	굴기 뒸다
22249	밧신개	22249	△
22250	굴렁쇠	22250	△
22251	굴리다	22251	구부린다, 구부러 간다(+굴러 간다)
22251-0-1	-고	22251-0-1	구부리구
22251-0-2	-어	22251-0-2	구부레라
22252	자전거	22252	재앵고
22253	목말	22253	△(+모게다 안치구 땡긴다)
22254	말타기	22254	△

22255 달음박질
 22256 썰매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친다/탄다
 22256-2 송곳
 22257 엄살
 22257-1 (엄살) 부린다/피운다/똥다
 22258 부아

22255 다름지란다, 싸구재다름한다
 22256 △
 22256-2 송고지(+구멍을 뚫을 때 쓰는 송곳)
 22257 엄사르(+대격형)
 22257-1 엄사르 틴다
 22258 해르 쓴다{화를 낸다}

2.8 친족

2.8 친족

22301 아버지
 22301-1 아버지(호칭)
 22302 어머니
 22302-1 어머니(호칭)
 들었다 함)
 22303 할아버지
 22303-1 할아버지(호칭)
 22304 할머니
 22304-1 할머니(호칭)
 22305 남편
 22305-1 남편(호칭)
 22306 아내
 22306-1 아내(호칭)
 22307 형
 22307-1 형(호칭)
 22308 아우
 22308-1 아우(호칭)
 22309 누나
 22309-1 누나(호칭)
 22310 누이
 22310-1 누이(호칭)
 22311 자식
 22312 만아들
 22313 만딸

22301 빠빠, 파파, 아바지, 아버지
 22301-1 빠빠, 아바지 오웁쇼
 22302 마마, 어머니
 22302-1 어머니 여기르 오웁쇼, 제에마(+시누이한테서
 들었다 함)
 22303 크라바니, 아바니
 22303-1 크라바니 여기로 오웁쇼
 22304 아매 더기 이따
 22304-1 아매
 22305 남테, 념퍼니
 22305-1 △(+이름을 부름)
 22306 안까니, 부이니
 22306-1 △(+이름을 부름)
 22307 헤~이, 형니미
 22307-1 △(+이름을 부름)
 22308 애끼, 동새나 항가지{동생이나 한가지}
 22308-1 △(+이름을 부름)
 22309 느베라구(+자연발화에서 ‘느비’라 함)
 22309-1 느베 내가 가티 가오{누나 나와 같이 가요}
 22310 녀동새(+자연발화에서 ‘느비’라 함)
 22310-1 △(+이름을 부름)
 22311 자시기, 내 새끼, 내 아더리
 22312 마다드리(+둘째 아들은 ‘둘째아드리’임)
 22313 마따리(+둘째 딸은 ‘둘째따리’임)

22314	막내	22314	막뚜이, 매기
22315	오빠	22315	오라바니
22315-1	오빠(호칭) 요?}	22315-1	오라바니 어드메르 가압쑤?(오빠 어디를 가세 요?)
22316	언니	22316	쇼왜, 셔왜, 효왜
22316-1	언니(호칭)	22316-1	△(+이름을 부름)
22317	아비	22317	네 애비 어드르 간냐{네 아비 어디를 갔냐?}
22317-1	아비(호칭)	22317-1	아 애비(+대부분 이름을 부름){아이 아비}
22318	어미	22318	에미
22318-1	어미(호칭)	22318-1	△(+이름을 부름)
22319	손자	22319	손재라{손자라(합니다)}
22320	아비	22320	너자 아느 손네{여자 아이는 손녀}
22321	사위	22321	사위(+‘위’의 ‘기’는 [wi])
22321-1	사위(호칭)	22321-1	△(+이름을 부름)
22322	외손자	22322	손재, 왜손재
22323	외손녀	22323	손네, 왜손네
22324	꾸짚다	22324	요간다(+[yogʰanda])
22324-0-1	-고	22324-0-1	요가구 이따
22324-1	나무라다	22324-1	나무린다, 나무레 본다
22325	총각	22325	총개기
22326	처녀	22326	새애기
22327	혼인	22327	혼세르 해따, 초잔채
22327-1	혼인식	22327-1	잔채, 잔치
22328	혼인 잔치	22328	셔방 새애기 잔채
22329	장가가다	22329	셔바~아 간다
22329-1	시집가다	22329-1	식집간다(+‘식’의 ‘니’는 [i], 셔바~아 간다
22330	혼숫감	22330	혼세까무 줌비르 한다구{혼숫감 준비를 한다고}
22331	함	22331	*
22332	겹사돈	22332	거저 사두니{그냥 ‘사돈’이라 함}
22333	새색시	22333	새애기
22333-1	새색시(호칭)	22333-1	새각씨
22334	시아버지	22334	시아바니
22334-1	시아버지(호칭)	22334-1	아바니
22335	시아머니	22335	세에미
22335-1	시아머니(호칭)	22335-1	어마니
22336	비위 다.}	22336	△(+마아무 마취줘야 한다){마음을 맞춰 줘야 한 다.}
22337	아주버니	22337	아즈바니

22337-1 아주버니(호칭)	22337-1 아즈바니 점심 잡썩쏘{아주버니 점님 드세요.}
22338 서방님	22338 새워니
22338-1 서방님(호칭)	22338-1 새워니 여기르 오웍썩{서방님 여기를 오세요.}
22339 도련님	22339 새워니
22339-1 도련님(호칭)	22339-1 새워니(+제보자는 주로 이름을 부름)
22340 형님	22340 형니미
22340-1 형님(호칭)	22340-1 형니미
22341 시누이	22341 스느비
22341-1 시누이(호칭)	22341-1 형니미(+제보자는 주로 이름을 부름)
22341-2 아가씨	22341-2 스느비
22341-3 아가씨(호칭)	22341-3△(+주로 이름을 부름)
22342 올케	22342 △
22342-1 올케(호칭)	22342-1 △
22343 매형	22343 아즈바니
22343-1 매형(호칭)	22343-1 아즈바니 시거그 나와 잡썩쏘{매형 음식을 나 와서 드세요}
22344 매제	22344 △(+제보자는 주로 이름을 부름)
22344-1 매제(호칭)	22344-1 △(+주로 이름을 부름)
22345 큰아버지	22345 마다바니
22345-1 큰아버지(호칭)	22345-1 마다바니
22345-2 둘째큰아버지(호칭)	22345-2 둘째마다바니
22345-3 세째큰아버지(호칭)	22345-3 세째마다바니
22346 큰어머니	22346 마다매
22346-1 큰어머니(호칭)	22346-1 마다매
22346-2 둘째큰어머니(호칭)	22346-2 둘째마다매
22346-3 세째큰어머니(호칭)	22346-3 세째마다매
22347 큰집	22347 큰지비(+‘작은집’은 차근지비)
22348 작은아버지	22348 아즈바니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22348-1 아즈바니 와썩등?{작은아버지 오셨습니까?}
22349 작은어머니	22349 아재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22349-1 아재
22350 삼촌	22350 삼추니
22350-1 삼촌(호칭)	22350-1 삼추니
22351 아저씨	22351 마다바니(+자신보다 나이가 위일 때), 아즈바니(+ 자신보다 나이가 아래일 때)
22351-1 아저씨(호칭)	22351-1 마다바니(+자신보다 나이가 위일 때), 아즈바 니(+자신보다 나이가 아래일 때)
22352 아주머니	22352 마다매(+자신보다 나이가 위일 때), 아재(+자신보

다 나이가 아래일 때)	
22352-1 아주머니(호칭) 보다 나이가 아래일 때)	22352-1 마다매(+자신보다 나이가 위일 때), 아재(+자신보다 나이가 아래일 때)
22353 조카	22353 조캐
22354 조카딸	22354 녀자두 조캐{여자도 조카}, 조캐 와쑈
22355 고모 동생일 때)	22355 마다매(+아버지의 누님일 때), 아재(+아버지의 여동생일 때)
22355-1 고모(호칭) 여동생일 때)	22355-1 마다매(+아버지의 누님일 때), 아재(+아버지의 여동생일 때)
22356 고모부 지 여동생의 남편)	22356 마다바니(+아버지 누님의 남편), 아즈바니(+아버지 여동생의 남편)
22356-1 고모부(호칭) 아버지 여동생의 남편)	22356-1 마다바니(+아버지 누님의 남편), 아즈바니(+아버지 여동생의 남편)
22357 고종	22357 △(+남자일 때 ‘오라바니’, 여자일 때 ‘효왜’를 씀)
22358 이모 동생일 때)	22358 마다매(+어머니의 언니일 때), 아재(+어머니의 여동생일 때)
22358-1 이모(호칭) 여동생일 때)	22358-1 마다매(+어머니의 언니일 때), 아재(+어머니의 여동생일 때)
22359 이모부 니 여동생의 남편)	22359 마다바니(+어머니 언니의 남편), 아즈바니(+어머니 여동생의 남편)
22359-1 이모부(호칭) 머니 여동생의 남편)	22359-1 마다바니(+어머니 언니의 남편), 아즈바니(+어머니 여동생의 남편)
22360 이종 {사촌 오빠}, 사촌 느비{사촌 누나}, 사촌 효왜{사촌 누이}	22360 베사추니(+[vesatʰuni]), 웨사추니, 사춘 오라비{사춘 오빠}, 사춘 느비{사춘 누나}, 사춘 효왜{사춘 누이}
22361 외삼촌 니의 남동생일 때)	22361 마다바니(+어머니의 오빠일 때), 아즈바니(+어머니의 남동생일 때)
22361-1 외삼촌(호칭) 머니의 남동생일 때)	22361-1 마다바니(+어머니의 오빠일 때), 아즈바니(+어머니의 남동생일 때)
22362 외숙모 생의 부인)	22362 마다매(+어머니 오빠의 부인), 아재(+어머니 남동생의 부인)
22362-1 외숙모(호칭) 동생의 부인)	22362-1 마다매(+어머니 오빠의 부인), 아재(+어머니 남동생의 부인)
22363 외종 {사촌 오빠}, 사춘 느비{사춘 누나}, 사춘 효왜{사춘 누이}	22363 베사추니(+[vesatʰuni]), 웨사추니, 사춘 오라비{사촌 오빠}, 사춘 느비{사춘 누나}, 사춘 효왜{사춘 누이}
22364 외할아버지	22364 베클아바니, 웨클아바니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22364-1 베클아바니, 웨클아바니
22365 외할머니	22365 베크나매, 웨크나매
22365-1 외할머니(호칭)	22365-1 베크나매, 웨크나매

22366 장인
 22366-1 장인(호칭)
 22367 장모
 22367-1 장모(호칭)
 22368 처남
 22368-1 처남(호칭)
 22369 처남댁
 22369-1 처남댁(호칭)
 22370 홀아비
 22371 홀어미
 22372 계모
 22372-1 계부
 22373 아저씨
 22373-1 아저씨(호칭)
 22374 아주머니
 22374-1 아주머니(호칭)
 22375 사나이
 22376 영감
 22376-1 저 놈의 할망구
 22377 나이
 22377-0-1 -를
 22378 환갑
 22378-1 환갑잔치
 22379 사투리

22366 가새애비
 22366-1 가시아바니
 22367 가시에미
 22367-1 가시어마니
 22369 →체내미
 22368-1 △(+이름을 부름)
 22369 △(+이름을 부름)
 22369-1 △(+이름을 부름)
 22370 하부래비, 보토리
 22371 하부래미
 22372 후데미
 22372-1 후대비
 22373 아즈바니
 22373-1 아즈바니
 22374 아재
 22374-1 아재
 22375 스나
 22376 →녕개미
 22376-1 △
 22377 나
 22377-0-1 나야 멍는다
 22378 황가비, 황가부{환갑을}
 22378-1 황갑잔체
 22379 △

2.9 동물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22402 민물고기
 22403 피라미
 22404 지느러미
 22405 아가미
 22406 창자
 22407 송사리

22401 물꼬기
 22402 물꼬기(+바닷물고기는 ‘바당물꼬기’임)
 22403 *
 22404 △
 22405 △
 22406 배애리
 22407 △

22408	헤엄	22408	헤에미, 헤에무 헨다{헤엄을 친다.}
22409	메기	22409	△
22410	자라	22410	△
22411	거북	22411	△
22412	미꾸라지	22412	△
22413	개구리	22413	메그락찌
22414	올챙이	22414	△
22415	두꺼비	22415	△
22416	거머리	22416	△(+부터서 피르 빼우구){붙어서 피를 빼고}
22417	다슬기	22417	→골배
22418	우렁이	22418	골배(+먹지 않는다고 함)
22419	고둥	22419	골배
22420	달팽이	22420	골배
22421	새우	22421	새비
22421-1	새우(민물 대)	22421-1	△
22421-2	새우(민물 소)	22421-2	△
22421-3	새우(바다 대)	22421-3	새비
22421-4	새우(바다 소)	22421-4	새비
22422	새우젓	22422	*
22422-0-1	-이		
22423	가재	22423	가아재
22424	갈치	22424	*
22425	고등어	22425	*
22426	가오리	22426	△
22427	가자미	22427	가재미(+[kazemi])
22428	멸치	22428	*
22429	명태	22429	멩태
22429-1	동태	22429-1	*
22429-2	황태	22429-2	*
22429-3	노가리	22429-3	*
22429-4	북어	22429-4	*
22429-5	생태	22429-5	*
22430	조기	22430	△
22431	도미	22431	*
22432	뱀장어	22432	배미고기, 배미터르 생깁거{뱀처럼 생긴 것}
22433	낙시	22433	낙씨, 낙씨르, 낙씨지르 한다
22434	미끼	22434	△(+지레르 자마셔){지렁이를 잡아서}
22435	낙싯대	22435	△

22436	얼레	22436	△
22437	조개	22437	쪼개
22438	소라	22438	썩 쪼개라 하얏떠구마{모두 조개라고 했습니다.},
	바담물 쪼개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22501	벌거지
22502	날벌레	22502	△(+나라뎡기느 벌거지){날아다니는 벌레}
22503	파리	22503	파리
22503-1	쉬파리	22503-1	시파리
22504	쉬슬다	22504	시스러따
22505	가시	22505	구테기 체에따(+제보자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함){구더기 생겼다}, 자에 가시 체셔(+제보자가 북한 출신의 언니에게서 들음)
22506	진딧물	22506	→두미 체따, 배채 두미 체셔{배추 진딧물이 생겨서}
22506-1	(진딧물이) 끼었다/얹었다/생겼다	22506-1	친다, 체따
22507	참자리	22507	△
22508	방아깨비	22508	△
22508-1	암컷	22508-1	△
22508-2	수컷	22508-2	△
22509	메뚜기	22509	△
22510	여치	22510	△
22511	사마귀	22511	*
22512	벌	22512	→버어리
22512-1	(벌을) 친다/기른다/키운다	22513	체따
22513	땅벌	22514	거저 버어리라구
22514	나비	22515	나비
22515	하루살이	22516	잔테미
22516	풍뎡이	22516	△
22517	모기	22517	모기
22518	장구벌레	22518	△
22519	매미	22519	*
22520	개똥벌레	22520	*
22521	반딧불	22521	*
22522	거미	22522	거미, 거미주리{거미줄}
22523	굼벥이	22523	△
22524	구더기	22524	구테기 체따

22525 노래기	22525 *
22526 그리마	22526 △
22527 지네	22527 △
22528 개미	22528 개애미
22529 바구미	22529 △
22530 진드기	22530 △
22531 벼룩 체따{벼룩이 생겼다}	22531 베리기, 베리그 자바라{벼룩을 잡아라}, 베리기
22532 이	22532 니, 네{니에}
22532-1 서캐	22532-1 쎄개 체따, 니 세개르 마니 까라노아따
22532-2 빈대	22532-2 빈대 친다, 빈대 처서
22533 송충이	22533 *
22534 귀뚜라미 {귀뚜라미 운다.}	22534 귀똥귀 운다(+‘귀똥귀’의 두 ‘귀’의 ‘귀’는 [wi]임)
22535 누에	22535 △
22536 고치	22536 △
22537 번데기	22537 △
22538 지렁이	22538 지레
22539 회충(蛔蟲)	22539 거시 체따구{회충이 생겼다고}
22540 소금쟁이	22540 물개애미
22541 방개	22541 *

2.9.3. 가축

22601 가축	22601 줌스이 만타, 줌스으(+대격형)
22602 암소	22602 암쉐, 쉼르 친다
22603 송아지	22603 쉼애지(+[ʃ ^w ɛɛdʒi])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22604 △(+이름을 부름)
22605 황소	22605 둥굴쉐
22605 길들이다	22606 질디린다
22606-1 소 모는 소리 ‘앞으로 가라’	22606-1 △
22606-2 소 모는 소리 ‘그자리에 서라’	22606-2 △
22606-3 소 모는 소리 ‘오른쪽으로 돌아’	22606-3 △
22606-4 소 모는 소리 ‘왼쪽으로 돌아’	22606-4 △
22606-5 소 모는 소리 ‘뒤로 물러나라’	22606-5 △
22607 쇠고기	22607 쉼고기(+[ʃ ^w egogi])
22608 고기(肉)	22608 고기라구

22609	들치	22609	△
22610	꼬리	22610	꼬리(+길이가 긴 것), 꼬랑대(+길이가 짧은 것)
22611	망아지	22611	→매애지
22612	당나귀	22612	→당나귀재(+‘귀’의 ‘귀’는 [wi])
22613	갈기	22613	△
22614	돼지	22614	대애지, 도티라구, 도투 자바따, 도투 머거리{돼지밥}
22614-1	멧돼지	22614-1	→맷또티
22615	주둥이	22615	쥬딤
22616	돼지 머리	22616	도투머리
22617	돼지우리	22617	도투구리
22617-1	오래오래(돼지)	22617-1	△
22618	개(犬)	22618	개
22618-1	수캐	22618-1	수캐지
22618-2	암캐	22618-2	암캐, 암깨
22619	강아지	22619	개애지
22620	염소	22620	염췌(+[yəmʃ ^w e])
22621	고양이	22621	고내
22621-1	수고양이	22621-1	수코내
22621-2	암고양이	22621-2	암고내
22622	토끼	22622	토끼
22623	거위(鵞)	22623	→게사니
22624	암탉	22624	암탈기
22625	병아리	22625	배우리
22626	모으다	22626	모둔다
22627	수탉	22627	수탈기
22627-0-1	-이	22627-0-1	수탈기
22628	벧(鷄冠)	22628	달그 베시
22629	부리	22629	부부리, 달그 부부리{닭의 부리}
22630	모이	22630	달그 머거리, 옥슈끼두 채밀두 메기구 풀두 뜨더
주구			
22630-0-1	-을	22630-0-1	*
22630-1	모이다	22630-1	달기 모다따, 모두구
22631	닭털	22631	달그터리
22632	닭똥	22632	달그또이
22633	어리	22633	*
22634	닭장	22634	달꾸리, 달그구리
22635	둥우리	22635	△(+강지르 해노쿠, 새르 폐노무 거기다 아르 나 썩찌){(광주리를 만들어 놓고) 새(草)를 펴놓으면 거기에다 알을 낳죠.}

22636 날개
 22637 깃
 22637-0-1 -을

22636 날개
 22637 △
 22637-0-1 △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22702 살쾡이
 22703 여우
 따
 22704 원숭이
 22705 사슴
 22706 노루
 22706-0-1 -이
 22706-0-2 -를
 22707 고슴도치
 22708 두더지
 22709 족제비
 22710 뱀
 22711 도마뱀
 22712 구렁이
 22713 살무사
 22714 생쥐
 22715 박쥐
 22716 거꾸로
 22717 다람쥐
 22718 새(鳥)
 22719 꿩
 22720 솔개
 22721 독수리
 22722 제비(燕)
 22723 두루미
 22724 소쩍새
 22725 평
 22726 장끼
 22727 까투리

22701 버미
 22702 △
 22703 여끼 만타, 여끼두 만타, 여스두 만타, 여끄 자바
 따
 22704 켄내비
 22705 →사스미
 22706 놀가지
 22706-0-1 놀가지
 22706-0-2 놀가지르
 22707 고순도티
 22708 △
 22709 △
 22710 배애미
 22711 △
 22712 구레
 22713 △
 22714 △(+쥬[ʧʉ], 지[ʧʷi])
 22715 △(+나라맹기는 쥬, ‘쥬’는 [ʧʉ])
 22716 까꾸루
 22717 다래미
 22718 새라구, 새라구
 22719 새꼬리
 22720 △
 22721 닥쭈리
 22722 저비
 22723 *
 22724 *
 22725 꼬이
 22726 △
 22727 △

22727-1 꺼병이
 각각 ‘오리배우리’, ‘달그배우리’임)
 22728 종달새
 22729 빼꾸기
 22730 기러기
 22731 뜸부기
 22732 올빼미
 22733 까치
 22734 딱따구리
 22735 텃
 22735-0-1 -을
 22736 올가미
 의미 구분이 없음)

22727-1 꼬이배우리{평의 병아리}(+오리, 닭의 새끼는
 22728 *
 22729 빼꾸기
 22730 기레기(+[kir^vegi])
 22731 △
 22732 △(+부영이와 구분을 못함. 부영이는 ‘부예’)
 22733 까치
 22734 딱따구리, 딱따구리 고르{딱따구리 머리를}
 22735 채끼, 쥐채끼(‘쥐’의 ‘끼’는 [tʰwi])
 22735-0-1 채끄 노아라
 22736 채끼에 마자따, 채끼에 걸기워따(+텃과 올가미의

2.10. 식물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22802 철쭉꽃
 22803 민들레
 22804 맨드라미
 22805 봉선화
 22806 파리
 22807 해바라기
 부레(+여격형)
 22808 꽃봉오리
 22809 시들다
 22810 질경이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22810-2 질경이(식용반찬이름)
 22811 빨기
 22812 비름
 22813 쇠비름
 22814 쑥바귀
 22815 고들빼기
 22815-1 고들빼기(식물 이름)

22801 천지꼬지
 22802 *
 22803 무순달레(+자연발화에서 ‘무순둘레’라 함)
 22804 △
 22805 *
 22806 파:리
 22807 해가부리(+[hɛʁaburi]), 해가부르(+대격형), 해가
 22808 꼬빠오리
 22809 시드러따, 시드레셔, 마르지, 마른다구
 22810 △
 22810-1 △
 22810-2 △
 22811 *
 22812 △
 22813 △
 22814 →세투리
 22815 *
 22815-1 *

22815-2 고들빼기(식용 반찬이름)	22815-2 *
22816 고사리	22816 고사리
22817 고비	22817 고비
22818 도깨비바늘	22818 △
22819 도꼬마리	22819 꿩꼬리 우리와서{도꼬마리를 우려서}
22820 억새	22820 △
22821 갈대	22821 →까리, 까르(+대격형), 갈바티{갈대밭}
22822 이끼	22822 △
22823 아주까리	22823 *
22824 담쟁이	22824 △
22825 수세미	22825 △
22826 덩굴	22826 →너추리, 너추리
22827 덩불	22827 △
22827-1 가시덤불	22827-1 △
22828 잔디	22828 △(+풀바티)

1.10.2. 나무

22901 소나무	22901 솔랭기, 솔랭기에(+처격형)
22902 솔방울	22902 △
22903 관솔	22903 △
22904 솔가리	22904 △
22905 그러모으다	22905 끄서모다 노아라
22906 뽕나무	22906 뽕냉기, 뽕이
22907 오디	22907 △
22908 도토리	22908 △
22909 떡갈나무	22909 가람냉기
22910 상수리	22910 △
22911 옷	22911-0-1 *
22911-0-1 -으로	22911-0-2 *
22912 버드나무	22912 버늘랭기, 버늘랭게 새 만타{버들나무에 새가 많다.}
22913 느티나무	22913 *
22914 그림자	22914 그림채
22914-1 그늘	22914-1 그느리, 그느레(+처격형)
22915 숲	22915 나무바티
22915-0-1 -을	22915-0-1 △
22915-0-2 -에	22915-0-2 나무바테
22916 시원하다	22916 선서나다, 선서:내 쵸타{시원해서 좋다.}

22917	절레	22917	△
22918	쫓	22918-0-1	*
22918-0-1	-에	22918-0-2	*
22919	가지(枝)	22919	나무아채기, 가지, 나무가제 매와따{나뭇가지에 맷다}
22920	끝	22920	그티
22920-0-1	-이	22920-0-1	그티
22920-0-2	-에	22920-0-2	그테 이따
22920-0-3	-을	22920-0-3	그트
22921	삭정이	22921	△(+나무아채기 마룽게)
22921-1	삭정이를 판다/꺾는다/한다.	22921-0-1	뜨드라 간다{뜯으러 간다}
22922	나무	22922	낭기, 나무
22922-0-1	-을	22922-0-1	낭그
22922-0-2	-에	22922-0-2	낭게
22923	나무하다	22923	나무하라 간다, 낭그할라 간다, 낭그 아츠 주서오 나라{나뭇가지를 주워오너라.}
22924	그루터기	22924	나무글거리
22924-1	그루터기(벼나 수수 등을 베고 남은 부분)	22924-1	글거리
22925	등걸	22925	글거리
22926	장작	22926	△(+패애논 냉기)
22927	패다	22927	팬다, 패구
22928	부스러기	22928	→부시래기
22929	숫	22929	수끼, 수수(+자음 앞, 합성어일 때)
22929-0-1	-이	22929-0-1	수끼
22929-0-2	-을	22929-0-2	수꾸, 수끄
22929-0-3	-에	22929-0-3	수껴
22930	불잉걸	22930	△
22931	썩	22931	썩기, 썩기, 썩기 터따, 썩기 난다, 썩그(+대격형)
22932	잎	22932	니피
22932-0-1	-을	22932-0-1	니푸
22932-1	잎사귀	22932-1	너분니피(+반의어는 ‘조분니피’)
22933	가랑잎	22933	거저 니피{그냥 잎}
22934	뿌리	22934	뿌리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23001	능그미
23002	돌배	23002	돌빼

23003	복숭아	23003	△
23004	꽃감	23005	*(+‘가무’, ‘가미’라고 어머니로부터 들었음)
23005	홍시	23005	*
23006	고욤	23006	*
23007	살구	23007	*(+‘살귀’라고 어머니로부터 들었음)
23008	앵두	23008	*
23009	자두	23009	→왜애지
23010	오얏	23010	*
23010-0-1	-을	23010-0-1	*
23011	석류	23011	△
23012	모과	23012	*
23013	과일	23013	과시리
23014	꼭지	23014	→쪽찌
23015	밤	23015	*
23015-1	밤송이	23015-1	*
23015-2	팻밤	23015-2	*
23015-3	알밤	23015-3	*
23015-4	쌍동밤	23015-4	*
23016	보늬	23016	*
23017	호두	23017	△
23018	가래(楸子)	23018	△
23019	개암	23019	깨애미
23020	머루	23020	멀기
23021	다래	23021	*
23022	청미래덩굴	23022	*
23023	으름	23023	*
23024	참외	23024	차매, 고려차매
23025	딸기	23025	달귀
23025-1	딸기(밭 재배)	23025-1	*
23025-2	딸기(밭 야생)	23025-2	*
23025-3	딸기(들 재배)	23025-3	*
23025-4	딸기(들 야생)	23025-4	*
23025-5	딸기(산 재배)	23025-5	*
23025-6	딸기(산 야생)	23025-6	*
23026	뱀딸기	23026	*
23027	마름(菱)	23027	*(+‘말배’라고 어머니로부터 들은 기억이 있음)

2.11. 자연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23101	상꼭때기르 올라간다
23102	기슭	23102	기시
23102-0-1	-에	23102-0-1	기세에다가{기슭에다가}
23103	골짜기	23103	△
23104	메아리	23104	△(+산이 울리웅 거)
23105	고함	23105	고함 툃다
23015-1	(고함) 치다/지르다/하다	23105-1	툃다
23106	묘 부서졌다.}	23106	산, 모이 엽따{묘가 없다}, 모이 마사테따{묘가
23107	뿔자리	23107	산짜리 조터라
23107-1	광중	23107-1	△(+산 모오 파따){산에 광중을 봤다}
23108	구덩이 고였다}	23108	구데미 생게서 무리 가바따{구덩이 생겨서 물이
23109	비탈	23109	△
23110	가파르다	23110-0-1	△
23111	언덕	23111	언데기 뇨따, 언데기 노푸다
23112	낭떠러지	23112	△
23113	들(野) 한다}	23113	△(+너른 바테서 이르 한다){넓은 밭에서 일을
23113-0-1	-에	23113-0-2	△
23114	벌	23114	△
23115	갈림길	23115	△
23116	헤어지다 티 아니 산다{이혼해서 같이 안 산다}	23116	갈가테따, 갈가테가따{갈라져 갔다}, 갈가테서 가
23117	바위	23117	바위(+‘위’는 [wi])
23117-0-1	-을	23117-0-1	바위르 드리따
23117-0-2	-에	23117-0-2	바웨
23118	돌(石)	23118	돌이라구, 돌이구
23118-0-1	-을	23118-0-1	도르
23118-0-2	-에	23118-0-2	△
23119	자갈	23119	△
23120	모래	23120	모새라구{모래라고}
23120-0-1	-를	23120-0-1	모새르 가져오나라

23121 진흙
23121-1 찰흙

23121 진흙기
23121-1 △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23202 거품
23203 개운하다
23204 도랑
23204-1 붓도랑
23205 독
23206 잠기다
23207 개울
23208 내(川)
23209 미역 감다
름)
23210 발가숭이
23211 목욕하다
름)
23212 수채
23213 개골창
23214 시궁창
다고}
23215 웅덩이
23216 수렁
23217 늪
23217-0-1 -에
23218 배(船)
23219 나루터
23220 돛
23220-0-1 -에
23221 돛대
23222 돛배
23223 돛 줄
23224 닻 줄
23225 거루
23226 상앗대

23201 무르(+대격형) 마신다
23202 더푸미, 더푸무(+대격형)
23203 거나나다, 거너내셔 조타, 시워내셔
23204 도래 만타, 도라:(+대격형)
23204-1 도래, 도라:(+도랑과 붓도랑의 의미 차가 없음)
23205 뚜기
23206 무레 가라안자따
23207 △(+조분 도래)
23208 △(+너분 도래)
23209 모여그 한다(+몸을 씻는 것과 노는 것을 모두 이
23210 △(+꿀딱 빠져따){전부 벗었다}
23211 모여그 한다(+몸을 씻는 것과 노는 것을 모두 이
23212 △
23213 △
23214 △(+무리 썩거셔 내난다구){물이 썩어서 냄새난
23215 웅데, 무룽데{물웅덩이}
23216 △
23217 느피
23217-0-1 느페 빠데따
23218 차니
23219 △
23220-0-1 △
23220-0-2 △
23221 △
23222 △
23223 △
23224 △
23225 차니(+거루와 배(船)의 의미 차가 없음)
23226 △

23227	개(펼)	23227	△
23228	물	23228	파이
23228-0-1	-으로	23228-0-1	△
23229	밀물	23229	△
23230	썰물	23230	△
23231	가라앉다	23231-0-1	가란자셔{가라앉아서}, 가란즈무(+‘즈’는 치 조음, 대격형), 가란지워셔{가라앉혀서}, 가란지워라{가라앉혀라}
23232	그물	23232	그무리, 그무르 가지구{그물을 가지고}
23233	해녀	23233	*

2.11.3. 시후

23301	새벽	23301	새바기
23302	새벽밥	23302	△(+‘길로시르(러시아 어) 잡썰구 가오’, 먼 길을 갈 때 길에서 먹는 음식, 새벽밥이 없었음)
23303	아침	23303	아츨
23304	아침밥	23304	아츨바비
23305	점심	23305	정시미, 정심빠비
23306	저녁	23306	저나게두{저녁에도}
23307	설핏하다	23307	△
23308	노을	23308	→느부리
23308-0-1	-을	23308-0-1	저낭느부르{저녁 노을을}
23309	불그레하다	23309	빠알가타
23310	해거름	23310	△
23311	땅거미	23311	△(+초저내기 도라와따){초저녁이 돌아왔다.}
23312	봄	23312	보미, 보미 도라운다
23313	여름	23313	너르미
23314	더위	23314	더비, 더비 시마다{더위가 심하다.}, 덩따
23315	추위	23315	치비(+‘츠’은 경구개음)
23316	가을	23316	가스리
23316-0-1	-에	23316-0-1	가스레
23317	겨울	23317	동사미
23317-0-1	-에	23317-0-1	동사메
23318	얼음	23318	어르미[ərimi]
23319	오늘	23319	오노르, 오노르느 칩따{오늘은 춥다}, 오늘 모까 무 내애리 가지{오늘 못가면 내일 가지}
23320	내일	23320	내애리
23321	모레	23321	모레
23322	글피	23322	그피

23323	그글피	23323	그그피
23324	어제	23324	어제
23325	그저께	23325	그저께
23326	그그저께	23326	그그저께
23327	훗날	23327	후제
23328	하룻날	23328	초할린나레{초하룻날에}
23329	이튿날	23329	이틀, 이트레, 이튼나레
23330	사흘날	23330	사은나레
23331	나흘날	23331	나은나레
23332	닷셋날	23332	다쎌나리
23333	엿셋날	23333	여쎌나리, 여쎌나리
23334	이렛날	23334	초니렌나리
23335	여드렛날	23335	초야드렌나리
23336	아흐렛날	23336	초아으렌나리
23337	열흘날	23337	여를랄, 초여르레
23338	하루	23338	할를, 할릴
23339	이틀	23339	이틀
23340	사흘	23340	사흘(+[sa ^h il])
23341	나흘	23341	나을
23342	닷새	23342	다쎌
23343	엿새	23343	여쎌
23344	이레	23344	이레
23345	여드레	23345	야드레
23346	아흐레	23346	아으레
23347	열흘	23347	여를
23348	한나절	23348	△(+할러르){하루를}
23348-1	반나절	23348-1	반나저른 노라따{반나절은 놀았다}
23349	그믐	23349	→그믐나리다
23349-1	그믐께	23349-1	→그믐쫘
23350	지금	23350	즈끄미, 즈끔
23351	아직 니다.}	23351	안죽뚜 다 아니 머거쓰꾸마{아직도 다 안 먹었습 나.}
23352	이제 썸)	23352	이제(+자연발화에서 ‘어저’라 함. 흔히 이 말을 썸)
23353	이미	23353	△
23354	요즈음	23354	요새, 이지가네 잘 지내오{요즈음 잘 지내오?}
23355	금방 냐?}	23355	곰만 마랑거 니저뿌렌나{금방 말한 거 잊어버렸 냐?}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23401 해비테다가{햇별에다가}
23401-0-1 -이	23401-0-1 해비티 잘 든다
23401-0-2 -을	23401-0-2 해비트르
23402 따스하다 {따뜻한 날}	23402 따따:새애서, 뜨뜨:새애서{따스해서} 뜨뜨:산 나리
23403 아지랑이	23403 △
23404 응달	23404 △(+그느리)
23405 양달	23405 해짜기, 해짜게다{양달에다}
23406 비(雨)	23406 비, 비 온다, 비꼬티{빗방울}
23407 가랑비	23407 이슬비(+가랑비와 이슬비의 의미 차가 없음)
23408 이슬비	23408 이슬비
23409 안개	23409 양개 끼워따{안개가 졌다}
23410 는개	23410 △
23411 무지개	23411 무지개 께따{무지개 졌다}
23412 소나기	23412-0-1 소낙빼
23413 갑자기	23413 불썰르
23414 홍수	23414 큼무리 제따, 가~이 너머나따
23415 번개	23415 →병개 빼쳐따
23416 천둥	23416 소내기 우리운다
23417 벼락 었다}	23417 베라그, 베락 체서 주거따{벼락 쳐서(맞아서) 죽
23418 무섭다	23418 무셔바셔{무서워서}
23419 함박눈	23419 누니
23420 싸락눈	23420 싸랑누니
22021 발자국	23421 발째기 나따{발자국이 났다}
23422 진눈깨비	23422 △
23423 우박	23423 박썰, 박썰
23424 고드름	23424 △
23425 햇무리	23425 △
23426 달무리	23426 △
23427 둥글다	23427 똥그러키, 똥그라키{둥그렇게}
23428 은하수	23428 △
23429 금성	23429 △
23430 가뭄 셔, 가무려셔{가물어서}	23430 가무리 시마다{가뭄이 심하다}, 가무라셔, 가무레
23431 마르다	23431 말라따
23431-0-1 -어서	23431-0-1 말라셔

23432	위	23432	우우르 올레라, 우우르 올레라{위로 올려라}
23433	아래	23433	아래르 네리워라{아래로 내려라}
23434	왼쪽	23434	웬째기, 벤째게(+[vents'ɛge])(왼쪽에)
23435	오른쪽	23435	오른째기, 오른째게{오른쪽에}
23436	곁	23436	게트르
23436-0-1	-에	23436-0-1	게테 안자라
23437	회오리바람	23437	도락빠래미
23438	북풍	23438	△(+북쯩 바래미 분다){북쪽 바람이 분다}
23439	남풍	23439	△(+남빠래미)
23440	동풍	23440	△
23441	서풍	23441	△

제3편 음운

3.1. 음운체계

3.1.1 단모음

31001-0-1	테(輪)-이/가	31001-0-1	△(+이 지역은 선행 음절의 모음이 전설 모음인 경우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나지 않음. ‘-가’는 없음.)
31001-0-2	테(輪)-보다	31001-0-2	△
31002-0-1	태(胎)-이/가	31002-0-1	배태
31002-0-2	태(胎)-보다	31002-0-2	△
31003-0-1	떼(群)-이/가	31003-0-1	*
31003-0-2	떼(群)-보다	31003-0-2	*
31004-0-1	때(時)-이/가	31004-0-1	때 나온다
31004-0-2	때(時)-보다	31004-0-2	△
31005-0-1	틀(機)-이/가	31005-0-1	문트리
31005-0-2	틀(機)-보다	31005-0-2	△
31006-0-1	털(毛)-이/가	31006-0-1	터리 나따, 터리 만타
31006-0-2	털(毛)-보다	31006-0-2	△
31007-0-1	글(文)-이/가	31007-0-1	그리
31007-0-2	글(文)-보다	31007-0-2	△
31008-0-1	걸(옷)-이/가	31008-0-1	*
31008-0-2	걸(옷)-보다	31008-0-2	*
31009-0-1	기(旗)-이/가	31009-0-1	기라구
31009-0-2	기(旗)-보다	31009-0-2	△
31010-0-1	귀(耳)-이/가	31010-0-1	구떠, 귀떠(+[k ^w it'i])
31010-0-2	귀(耳)-보다	31010-0-2	△
31011-0-1	시(生時)-이/가	31011-0-1	두시우

31011-0-2	시(生時)-보다	31011-0-2 △
31012-0-1	취(蠅卵)-이/가	31012-0-1 시르 깨애따
31012-0-2	취(蠅卵)-보다	31012-0-2 △
31013-0-1	쇠(鐵)-이/가	31013-0-1 쉼, 세째~이, 셀르(+대격형)
31013-0-2	쇠(鐵)-보다	31013-0-2 △
31014-0-1	외:국(外國)-이/가	31014-0-1 뵤:구기, 뵤구게(+‘뵤’는 [vwɛ])
31014-0-2	외:국(外國)-보다	
31015-0-1	왜국(倭國)-이/가	31015-0-1 *
31015-0-2	왜국(倭國)-보다	31015-0-2 *
[보충]		
31016	쉬:다(休)	31016 신다, 쉰다(+‘션’의 ‘긔’는 [ü])
31017	쇠:다(설을~)	31017 멍시르 샌다
31018-0-1	베(布)-이/가	31018-0-1 배르 찐다
31018-0-2	베(布)-보다	31018-0-2
31019-0-1	배(船)-이/가	31019-0-1 차니
31019-0-2	배(船)-보다	31019-0-2
31020-0-1	배(腹)-이/가	31020-0-1 배르 씨처라
31020-0-2	배(腹)-보다	31020-0-2
31021-0-1	(떡)메-이/가	31021-0-1 땡멜르
31021-0-2	(떡)메-보다	31021-0-2
31022-0-1	매(鞭)-이/가	31022-0-1 매르 툃다
31022-0-2	매(鞭)-보다	31022-0-2
31023	메:다(擔)	31023 메구, 메에라
31024	매:다(繫)	31024 매애 노아라, 매애라, 니서라
31025	떼:다(分離)	31025 떼에라, 떼개쏘
31026	때:다(炊)	31026 때애라, 때애구
31027	베:다(切斷)	31027 뻬에라, 뻬에서
31028	배:다(孕胎)	31028 *
31029	세:다(算)	31029 셴다, 세에라, 세에바라
31030	새:다(漏泄)	31030 샌다
31031-0-1	뒤(後)-이/가	31031-0-1 두울루 간다
31031-0-2	뒤(後)-보다	31031-0-2
31032-0-1	되(升)-이/가	31032-0-1 *
31032-0-2	되(升)-보다	31032-0-2 *
31033-0-1	게:(蟹)-이/가	31033-0-1 *
31033-0-2	게:(蟹)-보다	31033-0-2 *
31034-0-1	개:(犬)-이/가	31034-0-1 개
31034-0-2	개:(犬)-보다	31034-0-1 개라구

3.1.2 이중모음

31035-0-1	여럿(多)-이/가	31035-0-1	여래 안즈무
31035-0-2	여럿(多)-보다		
31035-0-3	여럿(多)-을/를		
31036-0-1	물결(波)-이/가	31036-0-1	*
31036-0-2	물결(波)-보다		
31036-0-3	물결(波)-을/를		
31037-0-1	예:의(禮儀)-이/가	31037-0-1	네저리
31037-0-2	예:의(禮儀)-보다		
31037-0-3	예:의(禮儀)-을/를		
31038-0-1	계:획(計劃)-이/가	31038-0-1	*
31038-0-2	계:획(計劃)-보다		
31038-0-3	계:획(計劃)-을/를		
31039-0-1	규칙(規則) -이/가	31039-0-1	*
31039-0-2	규칙(規則) -보다		
31039-0-3	규칙(規則) -을/를		
31040-0-1	휴일(休日)-이/가	31040-0-1	슈이리, 슈일라리
31040-0-2	휴일(休日)-보다		
31040-0-3	휴일(休日)-을/를		
31041-0-1	교통(交通)-이/가	31041-0-1	*
31041-0-2	교통(交通)-보다		
31041-0-3	교통(交通)-을/를		
31042-0-1	효:자(孝子) -이/가	31042-0-1	*
31042-0-2	효:자(孝子) -보다		
31042-0-3	효:자(孝子) -을/를		
31043-0-1	웬일(何事)-이/가	31043-0-1	웬니레 뵤냐
31043-0-2	웬일(何事)-보다		
31043-0-3	웬일(何事)-을/를		
31044-0-1	궤:(짹)(櫃)-이/가	31044-0-1	게짜기, 게
31044-0-2	궤:(짹)(櫃)-보다		
31044-0-3	궤:(짹)(櫃)-을/를		
31045-0-1	왜란(倭亂)-이/가	31045-0-1	*
31045-0-2	왜란(倭亂)-보다		
31045-0-3	왜란(倭亂)-을/를		
31046-0-1	햇대(鷄架)-이/가	31046-0-1	달기, 달그 따레 올라 안자따
31046-0-2	햇대(鷄架)-보다		

31046-0-3	헛대(鷄架)-을/를	
31047-0-1	원망(怨望)-이/가	31047-0-1 원하디 마라라
31047-0-2	원망(怨望)-보다	
31047-0-3	원망(怨望)-을/를	
31048-0-1	권:투(拳鬪)-이/가	31048-0-1 *
31048-0-2	권:투(拳鬪)-보다	
31048-0-3	권:투(拳鬪)-을/를	
31049-0-1	의논(議論)-이/가	31049-0-1 이논한다
31049-0-2	의논(議論)-보다	
31049-0-3	의논(議論)-을/를	
31050-0-1	무늬(紋)-이/가	31050-0-1 *
31050-0-2	무늬(紋)-보다	
31050-0-3	무늬(紋)-을/를	
31051-0-1	왕(王)-이/가	31051-0-1 *
31051-0-2	왕(王)-보다	
31051-0-3	왕(王)-을/를	
31052-0-1	과자(菓子)-이/가	31052-0-1 가쥬리
31052-0-2	과자(菓子)-보다	
31052-0-3	과자(菓子)-을/를	

3.1.3 장모음 · 성조

31053-0-1	일(一)-이/가	31053-0-1 한나
31053-0-2	일(一)-보다	
31054-0-1	일:(事)-이/가	31054-0-1 이르 한다
31054-0-2	일:(事)-보다	
31055-0-1	매(鞭)-이/가	31055-0-1 매르
31055-0-2	매(鞭)-보다	
31056-0-1	매:(鷺)-이/가	31056-0-1 *
31056-0-2	매:(鷺)-보다	
31057-0-1	밤(夜)-이/가	31057-0-1 바미
31057-0-2	밤(夜)-보다	
31058-0-1	밤:(栗)-이/가	31058-0-1 밤 따개 멍는다
31058-0-2	밤:(栗)-보다	
31059-0-1	눈(眼)-이/가	31059-0-1 누니, 안지리(+존)
31059-0-2	눈(眼)-보다	
31060-0-1	눈:(雪)-이/가	31060-0-1 누니 온다
31060-0-2	눈:(雪)-보다	
31061-0-1	말(馬)-이/가	31061-0-1 마리

31061-0-2	말(馬)-보다	
31062-0-1	말(斗)-이/가	31062-0-1 *
31062-0-2	말(斗)-보다	
31063-0-1	말:(言)-이/가	31063-0-1 마리 다스하다{말이 많다}
31063-0-2	말:(言)-보다	
31064-0-1	손(客)-이/가	31064-0-1 나그네
31064-0-2	손(客)-보다	
31065-0-1	손(手)-이/가	31065-0-1 소니
31065-0-2	손(手)-보다	
31066-0-1	손:(孫)-이/가	31066-0-1 손제더리 만타
31066-0-2	손:(孫)-보다	
31067-0-1	배(梨)-이/가	31067-0-1 배르
31067-0-2	배(梨)-보다	
31068-0-1	배:(倍)-이/가	31068-0-1 고비
31068-0-2	배:(倍)-보다	
31069-0-1	벌(罰)-이/가	31069-0-1 버르 세워따
31069-0-2	벌(罰)-보다	
31070-0-1	벌:(蜂)-이/가	31070-0-1 버리 쏜다
31070-0-2	벌:(蜂)-보다	
31071-0-1	솔(松)-이/가	31071-0-1 소리, 솔바티
31071-0-2	솔(松)-보다	
31072-0-1	솔:(刷)-이/가	31072-0-1 소리, 소리질 해라
31072-0-2	솔:(刷)-보다	
31073-0-1	줄(鉉)-이/가	31073-0-1 주리, 주레다 건다
31073-0-2	줄(鉉)-보다	
31074-0-1	줄:(연장)-이/가	31074-0-1 △
31074-0-2	줄:(연장)-보다	
31075-0-1	돌:(石)-이/가	31075-0-1 도리 만타, 도르 뿌린다
31075-0-2	돌:(石)-보다	
31076-0-1	담(牆)-이/가	31076-0-1 *
31076-0-2	담(牆)-보다	
31077-0-1	담:(膽)-이/가	31077-0-1 *
31077-0-2	담:(膽)-보다	
31078-0-1	들:(野)-이/가	31078-0-1 *
31078-0-2	들:(野)-보다	
31079-0-1	달-(懸)-고	31079-0-1 달구 이따
31079-0-2	달-(懸)-더라	31079-0-2 다라 매라, 다라매애쑤
31080-0-1	달-(甘)-고	31080-0-1 다다, 다라셔

31080-0-2	달-(甘)-더라	
31081-0-1	달:-(熱)-고	31081-0-1 다라따
31081-0-2	달:-(熱)-더라	
31082-0-1	갈-(換)-고	31082-0-1 갈구 이따, 간다
31082-0-2	갈-(換)-더라	
31083-0-1	갈-(磨)-고	31083-0-1 간다
31083-0-2	갈-(磨)-더라	
31084-0-1	갈:-(耕)-고	31084-0-1 갈구 이따, 가라라, 간다
31084-0-2	갈:-(耕)-더라	
31085-0-1	걷-(收)-고	31085-0-1 거더라
31085-0-2	걷-(收)-더라	
31086-0-1	걸:-(步)-고	31086-0-1 걸꾸
31086-0-2	걸:-(步)-더라	
31087-0-1	적-(書)-고	31087-0-1 쳐꾸 이따
31087-0-2	적-(書)-더라	
31088-0-1	적:-(小)-고	31088-0-1 적따, 작따
31088-0-2	적:-(小)-더라	

3.2. 음운과정

3.2.1 활용

32001-0-1	막-(防)[ㄱ]-지	32001-0-1 막떠 마라
32001-0-2	막-(防)[ㄱ]-고	32001-0-2 막꾸 이따
32001-0-3	막-(防)[ㄱ]-더라	32001-0-3 막떠라
32001-0-4	막-(防)[ㄱ]-으니까	32001-0-4 머그니
32001-0-5	막-(防)[ㄱ]-아/어(-았/었다)	32001-0-5 마가따
32002-0-1	흐르-(流)[ㅡ] -지	32002-0-1 흐른다
32002-0-2	흐르-(流)[ㅡ] -고	32002-0-2 흐르구 이따
32002-0-3	흐르-(流)[ㅡ] -더라	32002-0-3 흐르더라
32002-0-4	흐르-(流)[ㅡ] -으니까	
32002-0-5	흐르-(流)[ㅡ] -아/어(-았/었다)	32002-0-5 흘러 간다
32003-0-1	오-(來)[ㅁ]-지	32003-0-1 오디 마라
32003-0-2	오-(來)[ㅁ]-고	32003-0-2 오구 이따
32003-0-3	오-(來)[ㅁ]-더라	32003-0-3 오더라
32003-0-4	오-(來)[ㅁ]-으니까	32003-0-4 오니
32003-0-5	오-(來)[ㅁ]-아/어(-았/었다)	32003-0-5 봐쑈, 판느디

32004-0-1	듣-(聞)[ㄷ 변]-지	32004-0-1 들떠
32004-0-2	듣-(聞)[ㄷ 변]-고	32004-0-2 들꾸 이따
32004-0-3	듣-(聞)[ㄷ 변]-더라	32004-0-3 들떠라
32004-0-4	듣-(聞)[ㄷ 변]-으니까	32004-0-4 드르니
32004-0-5	듣-(聞)[ㄷ 변]-아/어(-았/었다)	32004-0-5 드러라, 드러따
32005-0-1	많:-(多)[ㄴᄇ] -지	32005-0-1 만티
32005-0-2	많:-(多)[ㄴᄇ] -고	32005-0-2 만꾸
32005-0-3	많:-(多)[ㄴᄇ] -더라	32005-0-3 만터라
32005-0-4	많:-(多)[ㄴᄇ] -으니까	32005-0-4 마나니 도터라
32005-0-5	많:-(多)[ㄴᄇ] -아/어(-았/었다)	32005-0-5 마내셔
32006-0-1	말-(任)[ㅌ]-지	32006-0-1 마찌 마라
32006-0-2	말-(任)[ㅌ]-고	32006-0-2 마꾸
32006-0-3	말-(任)[ㅌ]-더라	32006-0-3 마떠라
32006-0-4	말-(任)[ㅌ]-으니까	
32006-0-5	말-(任)[ㅌ]-아/어(-았/었다)	32006-0-5 마타따
32007-0-1	알:-(知)[ㄹ]-지	32007-0-1 아지 모탄다
32007-0-2	알:-(知)[ㄹ]-고	32007-0-2 알구 이따
32007-0-3	알:-(知)[ㄹ]-더라	32007-0-3 아더라
32007-0-4	알:-(知)[ㄹ]-으니까	32007-0-4 아니 도터라
32007-0-5	알:-(知)[ㄹ]-아/어(-았/었다)	32007-0-5 아라셔
32008-0-1	감:-(閉眼)[ㄱ]-지	32008-0-1 감지 마라
32008-0-2	감:-(閉眼)[ㄱ]-고	32008-0-2 감구 이따
32008-0-3	감:-(閉眼)[ㄱ]-더라	
32008-0-4	감:-(閉眼)[ㄱ]-으니까	32008-0-4 가무니
32008-0-5	감:-(閉眼)[ㄱ]-아/어(-았/었다)	32008-0-5 가마따, 가마쑈
32009-0-1	벗-(脫)[ㅍ]-지	
32009-0-2	벗-(脫)[ㅍ]-고	32009-0-2 버꾸 이썰라
32009-0-3	벗-(脫)[ㅍ]-더라	32009-0-3 버떠라
32009-0-4	벗-(脫)[ㅍ]-으니까	32009-0-4 버스니
32009-0-5	벗-(脫)[ㅍ]-아/어(-았/었다)	32009-0-5 버떠라, 버서셔
32010-0-1	옴-(可)[ㄹᄇ]-지	32010-0-1 올타, 올티 안타, 올태니타
32010-0-2	옴-(可)[ㄹᄇ]-고	32010-0-2 올꾸
32010-0-3	옴-(可)[ㄹᄇ]-더라	
32010-0-4	옴-(可)[ㄹᄇ]-으니까	
32010-0-5	옴-(可)[ㄹᄇ]-아/어(-았/었다)	32010-0-5 오라셔
32011-0-1	입-(着衣)[ㅂ]-지	
32011-0-2	입-(着衣)[ㅂ]-고	32011-0-2 님꾸
32011-0-3	입-(着衣)[ㅂ]-더라	32011-0-3 님떠라

32011-0-4	입-(着衣)[ㅂ]-으니까	32011-0-4	니부니
32011-0-5	입-(着衣)[ㅂ]-아/어(-았/었다)	32011-0-5	니버라
32012-0-1	바꾸-(換)[ㅌ]-지		
32012-0-2	바꾸-(換)[ㅌ]-고	32012-0-2	바꾸구
32012-0-3	바꾸-(換)[ㅌ]-더라	32012-0-3	바꾸더라
32012-0-4	바꾸-(換)[ㅌ]-으니까	32012-0-4	바꾸니
32012-0-5	바꾸-(換)[ㅌ]-아/어(-았/었다)	32012-0-5	바까라
32013-0-1	덮-(覆)[ㅍ]-지		
32013-0-2	덮-(覆)[ㅍ]-고	32013-0-2	덮꾸 이따
32013-0-3	덮-(覆)[ㅍ]-더라		
32013-0-4	덮-(覆)[ㅍ]-으니까	32013-0-4	더푸니
32013-0-5	덮-(覆)[ㅍ]-아/어(-았/었다)	32013-0-5	더퍼라, 더퍼따
32014-0-1	묻:- (問)[ㄷ 변]-지		
32014-0-2	묻:- (問)[ㄷ 변]-고		
32014-0-3	묻:- (問)[ㄷ 변]-더라	32014-0-3	무떠라
32014-0-4	묻:- (問)[ㄷ 변]-으니까	32014-0-4	무르니
32014-0-5	묻:- (問)[ㄷ 변]-아/어(-았/었다)	32014-0-5	무려 바라, 무려 보구
32015-0-1	낫:- (癒)[ㅅ 변]-지		
32015-0-2	낫:- (癒)[ㅅ 변]-고		
32015-0-3	낫:- (癒)[ㅅ 변]-더라	32015-0-3	나떠라
32015-0-4	낫:- (癒)[ㅅ 변]-으니까	32015-0-4	나스니
32015-0-5	낫:- (癒)[ㅅ 변]-아/어(-았/었다)	32015-0-5	나사데따
32016-0-1	닫-(閉)[ㄷ]-지		
32016-0-2	닫-(閉)[ㄷ]-고	32016-0-2	다꾸 이따
32016-0-3	닫-(閉)[ㄷ]-더라		
32016-0-4	닫-(閉)[ㄷ]-으니까	32016-0-4	다드니
32016-0-5	닫-(閉)[ㄷ]-아/어(-았/었다)	32016-0-5	다다라
32017-0-1	쫓-(追)[ㅈ]-지	32017-0-1	쫓찌 마라
32017-0-2	쫓-(追)[ㅈ]-고	32017-0-2	쫓꾸 이따
32017-0-3	쫓-(追)[ㅈ]-더라		
32017-0-4	쫓-(追)[ㅈ]-으니까	32017-0-4	쫓추니
32017-0-5	쫓-(追)[ㅈ]-아/어(-았/었다)	32017-0-5	쫓차라
32018-0-1	베:- (枕)[ㅂ]-지		
32018-0-2	베:- (枕)[ㅂ]-고	32018-0-2	베구 이따
32018-0-3	베:- (枕)[ㅂ]-더라	32018-0-3	베더라
32018-0-4	베:- (枕)[ㅂ]-으니까	32018-0-4	베니
32018-0-5	베:- (枕)[ㅂ]-아/어(-았/었다)	32018-0-5	베에라
32019-0-1	깨:- (破)[ㄱ]-지	32019-0-1	깨지 마라

32019-0-2	깨:-(破)[ㄱ]-고	32019-0-2 깨구 이따
32019-0-3	깨:-(破)[ㄱ]-더라	
32019-0-4	깨:-(破)[ㄱ]-으니까	32019-0-4 깨애니
32019-0-5	깨:-(破)[ㄱ]-아/어(-왔/었다)	32019-0-5 깨애라, 깨애타
32020-0-1	펴-(伸)[ㅍ]-지	
32020-0-2	펴-(伸)[ㅍ]-고	32020-0-2 펴구 이따
32020-0-3	펴-(伸)[ㅍ]-더라	32020-0-3 펴더라
32020-0-4	펴-(伸)[ㅍ]-으니까	32020-0-4 펴니
32020-0-5	펴-(伸)[ㅍ]-아/어(-왔/었다)	32020-0-5 펴라
32021-0-1	밝-(明)[ㄹ]-지	
32021-0-2	밝-(明)[ㄹ]-고	32021-0-2 바르구 이따
32021-0-3	밝-(明)[ㄹ]-더라	32021-0-3 박떠라
32021-0-4	밝-(明)[ㄹ]-으니까	32021-0-4 발그니
32021-0-5	밝-(明)[ㄹ]-아/어(-왔/었다)	32021-0-5 발가따
32022-0-1	삼:-(烹)[ㅅ]-지	32022-0-1 삼는다
32022-0-2	삼:-(烹)[ㅅ]-고	32022-0-2 삼구 이따
32022-0-3	삼:-(烹)[ㅅ]-더라	
32022-0-4	삼:-(烹)[ㅅ]-으니까	32022-0-4 사무니
32022-0-5	삼:-(烹)[ㅅ]-아/어(-왔/었다)	32022-0-5 살마따
32023-0-1	읔-(吟)[ㅇ] -지	32023-0-1 *
32023-0-2	읔-(吟)[ㅇ] -고	
32023-0-3	읔-(吟)[ㅇ] -더라	
32023-0-4	읔-(吟)[ㅇ] -으니까	
32023-0-5	읔-(吟)[ㅇ] -아/어(-왔/었다)	
32024-0-1	밟:-(踏)[ㅂ]-지	32024-0-1 밟찌 마라, 밟쓰꾸마
32024-0-2	밟:-(踏)[ㅂ]-고	32024-0-2 밟부구 이따
32024-0-3	밟:-(踏)[ㅂ]-더라	
32024-0-4	밟:-(踏)[ㅂ]-으니까	
32024-0-5	밟:-(踏)[ㅂ]-아/어(-왔/었다)	32024-0-5 밟바라, 밟바 준다, 밟바다가
32025-0-1	하-(爲)[ㅏ 변]-지	32025-0-1 하디 마라
32025-0-2	하-(爲)[ㅏ 변]-고	32025-0-2 하구, 하구 이따
32025-0-3	하-(爲)[ㅏ 변]-더라	
32025-0-4	하-(爲)[ㅏ 변]-으니까	32025-0-4 이르 하니
32025-0-5	하-(爲)[ㅏ 변]-아/어(-왔/었다)	32025-0-5 해애라, 우빠~이라 해앤는지, 베지르 해애쓰꾸마
32026-0-1	맺-(結)[ㅈ]-지	
32026-0-2	맺-(結)[ㅈ]-고	
32026-0-3	맺-(結)[ㅈ]-더라	32026-0-3 매떠라

32026-0-4	맺-(結)[ㅈ]-으니까	32026-0-4 매즈니
32026-0-5	맺-(結)[ㅈ]-아/어(-왔/었다)	32026-0-5 매자따
32027-0-1	없:-(無)[ㅂ]-지	32027-0-1 업띠, 업따
32027-0-2	없:-(無)[ㅂ]-고	
32027-0-3	없:-(無)[ㅂ]-더라	32027-0-3 업떠라
32027-0-4	없:-(無)[ㅂ]-으니까	32027-0-4 업쓰니
32027-0-5	없:-(無)[ㅂ]-아/어(-왔/었다)	32027-0-5 업써셔, 업써쓰꾸마
32028-0-1	앉-(坐)[ㄴ] -지	
32028-0-2	앉-(坐)[ㄴ] -고	32028-0-2 앙꾸 이따, 앙끼만 한다
32028-0-3	앉-(坐)[ㄴ] -더라	
32028-0-4	앉-(坐)[ㄴ] -으니까	32028-0-4 안즈니, 안즈무
32028-0-5	앉-(坐)[ㄴ] -아/어(-왔/었다)	32028-0-5 안자셔, 안자라
32029-0-1	비비-(刮)[ㅣ]-지	32029-0-1 부빈다
32029-0-2	비비-(刮)[ㅣ]-고	32029-0-2 부비구
32029-0-3	비비-(刮)[ㅣ]-더라	
32029-0-4	비비-(刮)[ㅣ]-으니까	32029-0-4 부비니
32029-0-5	비비-(刮)[ㅣ]-아/어(-왔/었다)	32029-0-5 부베라
32030-0-1	끄-(消)[ㅡ]-지	
32030-0-2	끄-(消)[ㅡ]-고	
32030-0-3	끄-(消)[ㅡ]-더라	
32030-0-4	끄-(消)[ㅡ]-으니까	
32030-0-5	끄-(消)[ㅡ]-아/어(-왔/었다)	32030-0-5 주게라
32031-0-1	꺾-(折)[ㄱ]-지	32031-0-1 꺾찌 마라
32031-0-2	꺾-(折)[ㄱ]-고	32031-0-2 꺾꾸구
32031-0-3	꺾-(折)[ㄱ]-더라	
32031-0-4	꺾-(折)[ㄱ]-으니까	32031-0-4 꺾끄니
32031-0-5	꺾-(折)[ㄱ]-아/어(-왔/었다)	32031-0-5 꺾껴라
32032-0-1	신:-(履)[ㄴ]-지	32032-0-1 져나게 신디
32032-0-2	신:-(履)[ㄴ]-고	32032-0-2 싱구, 싱구 이따
32032-0-3	신:-(履)[ㄴ]-더라	32032-0-3 신더라
32032-0-4	신:-(履)[ㄴ]-으니까	32032-0-4 시느니
32032-0-5	신:-(履)[ㄴ]-아/어(-왔/었다)	32032-0-5 시너라
32033-0-1	보-(視)[ㅇ]-지	32033-0-1 보디 마라, 본다구
32033-0-2	보-(視)[ㅇ]-고	32033-0-2 보구 이셔라
32033-0-3	보-(視)[ㅇ]-더라	
32033-0-4	보-(視)[ㅇ]-으니까	32033-0-4 보니
32033-0-5	보-(視)[ㅇ]-아/어(-왔/었다)	32033-0-5 바라
32034-0-1	추-(舞)[ㅈ]-지	32034-0-1 춘다, 추디 말라지

32034-0-2	추-(舞)[ㅈ]-고	32034-0-2 추구
034-0-3	추-(舞)[ㅈ]-더라	32034-0-3 추더라
32034-0-4	추-(舞)[ㅈ]-으니까	32034-0-4 츠니
32034-0-5	추-(舞)[ㅈ]-아/어(-왔/었다)	32034-0-5 처라
32035-0-1	피우-(吸煙)[ㅈ]-지	32035-0-1 피운다
32035-0-2	피우-(吸煙)[ㅈ]-고	32035-0-2 피우구 이따
32035-0-3	피우-(吸煙)[ㅈ]-더라	
32035-0-4	피우-(吸煙)[ㅈ]-으니까	32035-0-4 피우니
32035-0-5	피우-(吸煙)[ㅈ]-아/어(-왔/었다)	32035-0-5 피워라
32036-0-1	서-(立)[ㄱ]-지	
32036-0-2	서-(立)[ㄱ]-고	32036-0-2 셔구 이써라, 셔구 이쓰니
32036-0-3	서-(立)[ㄱ]-더라	
32036-0-4	서-(立)[ㄱ]-으니까	32036-0-4 셔니
32036-0-5	서-(立)[ㄱ]-아/어(-왔/었다)	32036-0-5 셔라
32037-0-1	기-(匍腹)[ㅣ]-지	32037-0-1 기다 마라, 긴다
32037-0-2	기-(匍腹)[ㅣ]-고	
32037-0-3	기-(匍腹)[ㅣ]-더라	
32037-0-4	기-(匍腹)[ㅣ]-으니까	32037-0-4 기니
32037-0-5	기-(匍腹)[ㅣ]-아/어(-왔/었다)	32037-0-5 게에 간다
32038-0-1	이-(戴)[ㅣ] -지	32038-0-1 니디 마라
32038-0-2	이-(戴)[ㅣ] -고	32038-0-2 니구 땡긴다
32038-0-3	이-(戴)[ㅣ] -더라	32038-0-3
32038-0-4	이-(戴)[ㅣ] -으니까	32038-0-4 니구니
32038-0-5	이-(戴)[ㅣ] -아/어(-왔/었다)	32038-0-5 녀어따
32039-0-1	아니-(否)[ㅣ]-지	32039-0-1 아니다
32039-0-2	아니-(否)[ㅣ]-고	
32039-0-3	아니-(否)[ㅣ]-더라	
32039-0-4	아니-(否)[ㅣ]-으니까	32039-0-4 아니니
32039-0-5	아니-(否)[ㅣ]-아/어(-왔/었다)	
32040-0-1	되-(升)[ㅊ]-지	32040-0-1 대디 마라, 대앤다
32040-0-2	되-(升)[ㅊ]-고	32040-0-2 대구 이따
32040-0-3	되-(升)[ㅊ]-더라	32040-0-3 되더라
32040-0-4	되-(升)[ㅊ]-으니까	32040-0-4 대애니
32040-0-5	되-(升)[ㅊ]-아/어(-왔/었다)	32040-0-5 대애라, 대애따
32041-0-1	있-(有)[ㅍ] -지	32041-0-1 이떠 말구
32041-0-2	있-(有)[ㅍ] -고	32041-0-2 이꾸
32041-0-3	있-(有)[ㅍ] -더라	32041-0-3 이떠라
32041-0-4	있-(有)[ㅍ] -으니까	32041-0-4 이스니

32041-0-5	있-(有)[쓰] -아/어(-왔/었다)	32041-0-5 이서라
32042-0-1	놓-(放)[ㅎ]-지	32042-0-1 노티 마라
32042-0-2	놓-(放)[ㅎ]-고	32042-0-2 노꾸
32042-0-3	놓-(放)[ㅎ]-더라	32042-0-3 노터라
32042-0-4	놓-(放)[ㅎ]-으니까	32042-0-4 노오니
32042-0-5	놓-(放)[ㅎ]-아/어(-왔/었다)	32042-0-5 노아라
32043-0-1	홀-(扱)[ㅈ] -지	32043-0-1 홀티 마라
32043-0-2	홀-(扱)[ㅈ] -고	32043-0-2 홀꾸 이따, 홀툴구 이따
32043-0-3	홀-(扱)[ㅈ] -더라	
32043-0-4	홀-(扱)[ㅈ] -으니까	32043-0-4 홀트니
32043-0-5	홀-(扱)[ㅈ] -아/어(-왔/었다)	32043-0-5 홀터라
32044-0-1	곶:-(麗)[ㅂ 변]-지	32044-0-1 곶때니타(곶지 아니하다)
32044-0-2	곶:-(麗)[ㅂ 변]-고	32044-0-2 곶꾸
32044-0-3	곶:-(麗)[ㅂ 변]-더라	32044-0-3 곶떠라
32044-0-4	곶:-(麗)[ㅂ 변]-으니까	
32044-0-5	곶:-(麗)[ㅂ 변]-아/어(-왔/었다)	32044-0-5 고바셔
32045-0-1	쥐:-(握)[ㄱ]-지	32045-0-1 지디 마라, 쥐디 마라(+‘쥐’의 ‘ㄱ’는 [wi])
32045-0-2	쥐:-(握)[ㄱ]-고	32045-0-2 지구, 지구 이쓰니
32045-0-3	쥐:-(握)[ㄱ]-더라	32045-0-3 지더라
32045-0-4	쥐:-(握)[ㄱ]-으니까	32045-0-4 지니
32045-0-5	쥐:-(握)[ㄱ]-아/어(-왔/었다)	32045-0-5 췌에따, 제에따
32046-0-1	가-(去)[ㄱ]-지	32046-0-1 가디 마라
32046-0-2	가-(去)[ㄱ]-고	32046-0-2 가구
32046-0-3	가-(去)[ㄱ]-더라	32046-0-3 가더라, 가거라
32046-0-4	가-(去)[ㄱ]-으니까	32046-0-4 가니
32046-0-5	가-(去)[ㄱ]-아/어(-왔/었다)	32046-0-5 가따
32047-0-1	"먹-(食)"	32047-0-1 머꾸
32047-0-2	"먹-(食)"	32047-0-2 머거라
32048-0-1	"뜯-(摘)"	32048-0-1 뜨꾸
32048-0-2	"뜯-(摘)"	32048-0-2 뜨더라
32049-0-1	"갈-(如)"	32049-0-1 가티{같이}
32049-0-2	"갈-(如)"	32049-0-2 가태셔, 가트니, 가따
32050-0-1	"얕-(淺)"	32050-0-1 나타
32050-0-2	"얕-(淺)"	32050-0-2 나떠라, 나자셔
32051-0-1	"흩-(散)"	
32051-0-2	"흩-(散)-"	32051-0-2 헤에데따, 헤에디더라
32052-0-1	"날:-(飛)"	32052-0-1 난다, 날구 이따

32052-0-2	"날:-(飛)-"	32052-0-2 나라와따
32053-0-1	"울:-(泣)"	32053-0-1 울구
32053-0-2	"울:-(泣)-"	32053-0-2 우리따
32054-0-1	"일:-(淘)"	32054-0-1 일구
32054-0-2	"일:-(淘)-"	32054-0-2 이러따, 이러라
32055-0-1	"얼:-(凍)"	32055-0-1 얼구 이따
32055-0-2	"얼:-(凍)-"	32055-0-2 어러따, 얼어떠라{얼었더라}
32056-0-1	"넘:-(越)"	32056-0-1 넘는다, 넘구
32056-0-2	"넘:-(越)-"	32056-0-2 너머따
32057-0-1	"숨:-(隱)"	32057-0-1 숨구 이따, 곰치우구
32057-0-2	"숨:-(隱)-"	32057-0-2 곰치와따, 곰치와라
32058-0-1	"쉽:-(易)"	32058-0-1 헐구
32058-0-2	"쉽:-(易)-"	32058-0-2 허래서
32059-0-1	"눅:-(臥)"	32059-0-1 눅꾸
32059-0-2	"눅:-(臥)-"	32059-0-2 느버라, 닌버라
32060-0-1	"깁:-(縫)"	32060-0-1 깁띠, 깁찌 마라
32060-0-2	"깁:-(縫)-"	32060-0-2 기버라
32061-0-1	"밧:-(憎)"	32061-0-1 밧따
32061-0-2	"밧:-(憎)-"	32061-0-2 미버한다
32062-0-1	"높:-(高)"	32062-0-1 노푸다
32062-0-2	"높:-(高)-"	32062-0-2 노파서
32063-0-1	"짓:-(作)"	32063-0-1 진는다, 지쿠 이따
32063-0-2	"짓:-(作)-"	32063-0-2 제에두{지어도}
32064-0-1	"붓:-(腫)"	32064-0-1 부떠라
32064-0-2	"붓:-(腫)-"	32064-0-2 부서따
32065-0-1	"웃:-(笑)"	32065-0-1 웃꾸 이따
32065-0-2	"웃:-(笑)-"	32065-0-2 우서라
32066-0-1	"짖:-(吠)"	32066-0-1 즈꾸, 즈는다(+‘즈’은 치조음)
32066-0-2	"짖:-(吠)-"	32066-0-2 즈서라
32067-0-1	"꽂:-(插)"	32067-0-1 꼬꾸이따
32067-0-2	"꽂:-(插)-"	32067-0-2 꼬바라
32068-0-1	"낱:-(産)"	32068-0-1 나쿠
32068-0-2	"낱:-(産)-"	32068-0-2 나아따
32069-0-1	"땅:-(?)"	32069-0-1 따쿠
32069-0-2	"땅:-(?)-"	32069-0-2 따아따
32070-0-1	"끓:-(切)"	32070-0-1 베에구
32070-0-2	"끓:-(切)-"	32070-0-2 베에라
32071-0-1	"괜찮:-(無妨)"	32071-0-1 이럽따

32071-0-2	"괜찮-(無妨)-"	32071-0-2	이러바서
32072-0-1	"읽-(讀)"	32072-0-1	니른다
32072-0-2	"읽-(讀)-"	32072-0-2	닐거라
32073-0-1	"땀:-(澁)"	32073-0-1	△
32073-0-2	"땀:-(澁)-"	32073-0-2	△
32074-0-1	"옮:-(遷)"	32074-0-1	옮는다, 옴태니타{옮지 않다}
32074-0-2	"옮:-(遷)-"	32074-0-2	올마따
32075-0-1	"뚫:-(貫)"	32075-0-1	듭띠, 들띠, 들찌
32075-0-2	"뚫:-(貫)-"	32075-0-2	들버라
32076-0-1	"꿇-(跪)"	32076-0-1	지르구 이서라{꿇고 있어라}, 집띠 마라
32076-0-2	"꿇-(跪)-"	32076-0-2	질거라
32077-0-1	"닿-(扞, 연필심이)"	32077-0-1	다슬더라
32077-0-2	"닿-(扞, 연필심이)-"	32077-0-2	다스려따, 다스려서
32078-0-1	"닿:-(煎, 술에서장이)"	32078-0-1	쫄구
32078-0-2	"닿:-(煎, 술에서장이)"	32078-0-2	쫄라따
32079-0-1	"짜-(鹽)"	32079-0-1	짹따
32079-0-2	"짜-(鹽)-"	32079-0-2	짜바서
32080-0-1	"말-(捲)"	32080-0-1	감다, 마르구 이따
32080-0-2	"말-(捲)-"	32080-0-2	가마따, 마라따
32081-0-1	"쓰-(書)"	32081-0-1	쓰구
32081-0-2	"쓰-(書)-"	32081-0-2	써라
32082-0-1	"오르-(登)"	32082-0-1	오르구, 오른다
32082-0-2	"오르-(登)-"	32082-0-2	올라간다
32083-0-1	"바쁘-(忙)"	32083-0-1	바뿌다
32083-0-2	"바쁘-(忙)-"	32083-0-2	바빠서
32084-0-1	"고프-(餓)"	32084-0-1	배 고푸다
32084-0-2	"고프-(餓)-"	32084-0-2	배 고파서
32085-0-1	"쏘-(射)"	32085-0-1	쏜다
32085-0-2	"쏘-(射)-"	32085-0-2	쏘놀라셔 아프다{썰서 아프다}
32086-0-1	"꾸-(夢)"	32086-0-1	끼더라
32086-0-2	"꾸-(夢)-"	32086-0-2	깨따
32087-0-1	"머무르-(留)"	32087-0-1	*
32087-0-2	"머무르-(留)-"	32087-0-2	*
32088-0-1	"다듬-(整)"	32088-0-1	다드른다, 다듬질. 해애라
32088-0-2	"다듬-(整)-"	32088-0-2	다드머라
32089-0-1	"견디-(忍)"	32089-0-1	젠딘다
32089-0-2	"견디-(忍)-"	32089-0-2	젠데서

32090-0-1	"마르-(裁)"	32090-0-1 마른다, 마르구
32090-0-2	"마르-(裁)-"	32090-0-2 말가서
32091-0-1	"끼이-(烟鎖, 안 개가)"	32091-0-1 끼우대네파{끼지 않았다}
32091-0-2	"끼이-(烟鎖, 안 개가)-"	32091-0-2 끼워따
32092-0-1	"마시-(飲)"	32092-0-1 마시구
32092-0-2	"마시-(飲)-"	32092-0-2 마세따
32093-0-1	"세:-(强)"	32093-0-1 세다
32093-0-2	"세:-(强)-"	32093-0-2 세에서
32094-0-1	"포개-(重疊)"	32094-0-1 *
32094-0-2	"포개-(重疊)-"	32094-0-2 *
32095-0-1	"두드리-(敲)"	32095-0-1 두두린다, 두두리구
32095-0-2	"두드리-(敲)-"	32095-0-2 두두레라
32096-0-1	"켜-(點燈)"	32096-0-1 케구, 케디 마라
32096-0-2	"켜-(點燈)-"	32096-0-2 케라
32097-0-1	"썰:-(바람을)"	32097-0-1 썰우구
32097-0-2	"썰:-(바람을)-"	32097-0-2 썰와라
32098-0-1	"쇠-(老)"	32098-0-1 새대네파{쇠지 않았다}
32098-0-2	"쇠-(老)-"	32098-0-2 새에서
32099-0-1	"쉬:-(饅)"	32099-0-1 시대네파{쉬지 않았다}
32099-0-2	"쉬:-(饅)-"	32099-0-2 쉼에따(+[s ^y eet'a])
32100-0-1	"희-(白)"	32100-0-1 희다(+[hīda])
32100-0-2	"희-(白)-"	32100-0-2 헤에서
32101-0-1	"볶-(炒)"	32101-0-1 △
32101-0-2	"볶-(炒)-"	32101-0-2 다까따, 다까서
32102-0-1	"안:-(抱)"	32102-0-1 양구
32102-0-2	"안:-(抱)-"	32102-0-2 아나따
32103-0-1	"묻-(埋)"	32103-0-1 파무는다, 파무꺼라
32103-0-2	"묻-(埋)-"	32103-0-2 파무더따
32104-0-1	"불:-(吹)"	32104-0-1 불디 마라
32104-0-2	"불:-(吹)-"	32104-0-2 부러라
32105-0-1	"빨-(洗濯)"	32105-0-1 *
32105-0-2	"빨-(洗濯)-"	32105-0-2 *
32106-0-1	"죽-(死)"	32106-0-1 주거서
32106-0-2	"죽-(死)-"	32106-0-2 주거따
32107-0-1	"걸:-(步)"	32107-0-1 걸구, 걸꾸
32107-0-2	"걸:-(步)-"	32107-0-2 거러간다
32108-0-1	"가물-(旱)"	32108-0-1 가물구
32108-0-2	"가물-(旱)-"	32108-0-2 가무러서

32109-0-1	"졸:-(睡)"	32109-0-1 자불구
32109-0-2	"졸:-(睡)-"	32109-0-2 자부라바서
32110-0-1	"쓸-(掃)"	32110-0-1 쓸구 이씨라, 쓸구 이서라
32110-0-2	"쓸-(掃)-"	32110-0-2 쓰러라
32111-0-1	"감:-(捲)"	32111-0-1 감구, 감디, 감지
32111-0-2	"감:-(捲)-"	32111-0-2 가마라
32112-0-1	"더듬-(摸)"	32112-0-1 *
32112-0-2	"더듬-(摸)-"	32112-0-2 *
32113-0-1	"굽:-(炙)"	32113-0-1 굶는다
32113-0-2	"굽:-(炙)-"	32113-0-2 구버라(+[kuvəra])
32114-0-1	"무겁-(重)"	32114-0-1 무겁따, 무겁떠라
32114-0-2	"무겁-(重)-"	32114-0-2 무거바서, 무거부니
32115-0-1	"잇:-(連)"	32115-0-1 니꾸, 매애라
32115-0-2	"잇:-(連)-"	32115-0-2 니서라
32116-0-1	"빗-(梳)"	32116-0-1 비꾸
32116-0-2	"빗-(梳)-"	32116-0-2 비서라
32117-0-1	"까망-(黑)"	32117-0-1 거머타, 검다
32117-0-2	"까망-(黑)-"	32117-0-2 거어매서
32118-0-1	"넣-(入)"	32118-0-1 녀꾸 이서라
32118-0-2	"넣-(入)-"	32118-0-2 녀어라
32119-0-1	"고:-(煮)"	32119-0-1 고꾸, 곤는다
32119-0-2	"고:-(煮)-"	32119-0-2 고아라
32120-0-1	"엎-(載)"	32120-0-1 언띠, 언찌 마라
32120-0-2	"엎-(載)-"	32120-0-2 언저라, 언제 노아라
32121-0-1	"귀찮-(?)"	32121-0-1 기태니타{귀찮지 않다}
32121-0-2	"귀찮-(?)-"	32121-0-2 기태네서{귀찮지 않아서}
32122-0-1	"바르-(剔, 생선 뼈를)"	32122-0-1 바르다, 발구구, 바르지, 가리구
32122-0-2	"바르-(剔, 생선 뼈를)"	32122-0-2 발가서, 가래라
32123-0-1	"맑-(淸)"	32123-0-1 말가태인타{맑지 않다}
32123-0-2	"맑-(淸)-"	32123-0-2 말가서
32124-0-1	"굶:-(膿)"	32124-0-1 곰는다
32124-0-2	"굶:-(膿)-"	32124-0-2 골마따
32125-0-1	"굶:-(太)"	32125-0-1 국따
32125-0-2	"굶:-(太)-"	32125-0-2 굴거셔
32126-0-1	"얇:-(薄)"	32126-0-1 얹떠라
32126-0-2	"얇:-(薄)-"	32126-0-2 얹바서
32127-0-1	"슌-(春, 곡식을 절구에다)"	32127-0-1 쓸구
32127-0-2	"슌-(屑)-"	32127-0-2 쓸른다

32128-0-1	"잃-(失)"	32128-0-1 일구
32128-0-2	"잃-(失)-"	32128-0-2 이러따
32129-0-1	"훅-(舐)"	32129-0-1 할कु
32129-0-2	"훅-(舐)-"	32129-0-2 하라 멍는다
32130-0-1	"짧-(短)"	32130-0-1 따르다
32130-0-2	"짧-(短)-"	32130-0-2 딸가서
32131-0-1	"놀라-(驚)"	32131-0-1 놀라구 이따
32131-0-2	"놀라-(驚)-"	32131-0-2 놀라따
32132-0-1	"자-(宿)"	32132-0-1 잔다
32132-0-2	"자-(宿)-"	32132-0-2 자서
32133-0-1	"못:하-(不爲)"	32133-0-1 모탄다
32133-0-2	"못:하-(不爲)-"	32133-0-2 모태서
32134-0-1	"모르-(不知)"	32134-0-1 모른다
32134-0-2	"모르-(不知)-"	32134-0-2 몰라서
32135-0-1	"아프-(痛)"	32135-0-1 아프니, 아프구
32135-0-2	"아프-(痛)-"	32135-0-2 아파서
32136-0-1	"크-(大)"	32136-0-1 크다, 크구
32136-0-2	"크-(大)-"	32136-0-2 커서
32137-0-1	"꼬-(索, 새끼를)"	32137-0-1 깐다, 까구
32137-0-2	"꼬-(索, 새끼를)-"	32137-0-2 까서
32138-0-1	"쭈-(造粥)"	32138-0-1 쓴다
32138-0-2	"쭈-(造粥)-"	32138-0-2 써라
32139-0-1	"맞추-(組合)"	32139-0-1 마춘다
32139-0-2	"맞추-(組合)-"	32139-0-2 마차서
32140-0-1	"테우-(燂)"	32140-0-1 데끼구
32140-0-2	"테우-(燂)-"	32140-0-2 데킨다
32141-0-1	"이:-(盖, 지붕을)"	32141-0-1 인다, 일구
32141-0-2	"이:-(盖, 지붕을)-"	32141-0-2 이러 논는다
32142-0-1	"갈기-(打)"	32142-0-1 *
32142-0-2	"갈기-(打)-"	32142-0-2 *
32143-0-1	"기다리-(待)"	32143-0-1 기대린다, 기들군다
32143-0-2	"기다리-(待)-"	32143-0-2 기대레라, 기들거라
32144-0-1	"세:-(算)"	32144-0-1 세구
32144-0-2	"세:-(算)-"	32144-0-2 세에라
32145-0-1	"빼-(拔)"	32145-0-1 빼구
32145-0-2	"빼-(拔)-"	32145-0-2 빼애라
32146-0-1	"켜-(引, 톱을)"	32146-0-1 케구
32146-0-2	"켜-(引, 톱을)-"	32146-0-2 케라

32147-0-1	"되:-(硬)"	32147-0-1 대게 한다
32147-0-2	"되:-(硬)-"	32147-0-2 대아서
32148-0-1	"쉬:-(休)"	32148-0-1 쉰다, 쉬는 나리(+‘쉬’의 ‘기’는 [ü])
32148-0-2	"쉬:-(休)-"	32148-0-2 쉬에라(+‘쉬’의 ‘기’는 [ü])
32149-0-1	"할퀴-(搔)"	32149-0-1 허빈다
32149-0-2	"할퀴-(搔)-"	32149-0-2 허베따
32150-0-1	"눌:-(焦)"	32150-0-1 *
32150-0-2	"눌:-(焦)-"	32150-0-2 *
32151-0-1	"깨닫-(覺)"	32151-0-1 깨구 이따
32151-0-2	"깨닫-(覺)-"	32151-0-2 깨애타
32152-0-1	"마렵-(오줌이)"	32152-0-1 마랍따
32152-0-2	"마렵-(오줌이)-"	32152-0-2 마라바서
32153-0-1	"부끄럽-(恥)"	32153-0-1 부끄럽다
32153-0-2	"부끄럽-(恥)-"	32153-0-2 부끄러바서
32154-0-1	"가깝-(近)"	32154-0-1 가잡따
32154-0-2	"가깝-(近)-"	32154-0-2 가차부니, 가차바서
32155-0-1	"깊-(深)"	32155-0-1 기푸다
32155-0-2	"깊-(深)-"	32155-0-2 기퍼서
32156-0-1	"긋:-(劃)"	32156-0-1 끄스다, 끄꾸
32156-0-2	"긋:-(劃)-"	32156-0-2 끄서라
32157-0-1	"씻-(洗)"	32157-0-1 시꾸
32157-0-2	"씻-(洗)-"	32157-0-2 씨처라
32158-0-1	"쪼그-(搗)"	32158-0-1 띠꾸 이서라, 띠꾸 이서라
32158-0-2	"쪼그-(搗)-"	32158-0-2 띠어라
32159-0-1	"값-(搔)"	32159-0-1 글꾸
32159-0-2	"값-(搔)-"	32159-0-2 글거 노아따, 글거 노꾸
32160-0-1	"굶:-(飢)"	32160-0-1 굶꾸
32160-0-2	"굶:-(飢)-"	32160-0-2 굴머따
32161-0-1	"닳:-(似)"	32161-0-1 담꾸
32161-0-2	"닳:-(似)-"	32161-0-2 달마따
32162-0-1	"싫-(厭)"	32162-0-1 슬타
32162-0-2	"싫-(厭)-"	32162-0-2 스러서
32163-0-1	"끓-(달갈이)"	32163-0-1 골구, 고대니타{끓지 아니하다}
32163-0-2	"끓-(달갈이)-"	32163-0-2 고라따
32164-0-1	"붓:-(注)"	32164-0-1 부띠, 부찌 마라
32164-0-2	"붓:-(注)-"	32164-0-2 부서라
32165-0-1	"타-(乘)"	32165-0-1 타구
32165-0-2	"타-(乘)-"	32165-0-2 타쏘{타소}

32166-0-1	"마르-(乾)"	32166-0-1 마르구
32166-0-2	"마르-(乾)-"	32166-0-2 말라따, 말라서
32167-0-1	"쓰-(苦)"	32167-0-1 씹따
32167-0-2	"쓰-(苦)-"	32167-0-2 쓰버셔
32168-0-1	"슬프-(哀)"	32168-0-1 슬푸기 운다
32168-0-2	"슬프-(哀)-"	32168-0-2 슬퍼셔
32169-0-1	"기쁘-(喜)"	32169-0-1 기뿌다
32169-0-2	"기쁘-(喜)-"	32169-0-2 기뿌니
32170-0-1	"쏘-(蜚, 벌이)"	32170-0-1 쏬다
32170-0-2	"쏘-(蜚, 벌이)-"	32170-0-2 쏘놀라셔 아푸다{짜셔 아프다}
32171-0-1	"주-(與)"	32171-0-1 주구 이서라
32171-0-2	"주-(與)-"	32171-0-2 줘라
32172-0-1	"키우-(飼育)"	32172-0-1 키운다, 치우구, 치운다
32172-0-2	"키우-(飼育)-"	32172-0-2 키워셔,
32173-0-1	"가두-(囚)"	32173-0-1 가둔다
32173-0-2	"가두-(囚)-"	32173-0-2 가다따
32174-0-1	"부수-(碎)"	32174-0-1 마스다, 마스구
32174-0-2	"부수-(碎)-"	32174-0-2 마사따
32175-0-1	"나누-(分)"	
32175-0-2	"나누-(分)-"	32175-0-2 농가 준다, 노나 가져라
32176-0-1	"속이-(欺)"	32176-0-1 소기구, 소긴다
32176-0-2	"속이-(欺)-"	32176-0-2 소계셔, 얼리워따
32177-0-1	"끼-(插)"	32177-0-1 끼구, 끼우니
32177-0-2	"끼-(插)-"	32177-0-2 끼구, 께에라
32178-0-1	"튀-(跳)"	32178-0-1 띨다, 찌우구
32178-0-2	"튀-(跳)-"	32178-0-2 뻘에따
32179-0-1	"괴:-(滄)"	32179-0-1 가푸구
32179-0-2	"괴:-(滄)-"	32179-0-2 가파따, 가바따, 가푸메 이따
32180-0-1	"여위-(癯)"	32180-0-1 여비대네따{여위지 앓았다}
32180-0-2	"여위-(癯)-"	32180-0-2 여베에따
32181-0-1	"맵-(辛)"	32181-0-1 맵께{맵게 (해서)}
32181-0-2	"맵-(辛)-"	32181-0-2 매바셔, 맵떠라
32182-0-1	"뀌:-(屁)"	32182-0-1 낄다
32182-0-2	"뀌:-(屁)-"	32182-0-2 꿰에따
32183-0-1	"고치-(改)"	32183-0-1 고틴다
32183-0-2	"고치-(改)-"	32183-0-2 고테라
32184-0-1	"싣:-(載)"	32184-0-1 싣꾸
32184-0-2	"싣:-(載)-"	32184-0-2 시러라, 시러따

32185-0-1	"얻:-(得)"	32185-0-1 억꾸 이따
32185-0-2	"얻:-(得)-"	32185-0-2 어더따, 어더 바따{얻어 보았다}
32186-0-1	"빡-(粉碎)"	32186-0-1 간다, 떤는다
32186-0-2	"빡-(粉碎)-"	32186-0-2 가라셔, 떤어서
32187-0-1	"파랑-(碧)"	32187-0-1 파아라타
32187-0-2	"파랑-(碧)-"	32187-0-2 파아라터라, 파아아라셔
32188-0-1	"다르-(異)"	32188-0-1 따다, 따구
32188-0-2	"다르-(異)-"	32188-0-2 따셔
32189-0-1	"푸-(汲)"	32189-0-1 푸구
32189-0-2	"푸-(汲)-"	32189-0-2 퍼라
32190-0-1	"누-(尿)"	32190-0-1 누구 이서라, 찐다
32190-0-2	"누-(尿)-"	32190-0-2 뉘라, 싸구
32191-0-1	"더:럽-(汚)"	32191-0-1 더럽따
32191-0-2	"더:럽-(汚)-"	32191-0-2 더러바셔
32192-0-1	"거두-(收)"	32192-0-1 거두구
32192-0-2	"거두-(收)-"	32192-0-2 거더라
32193-0-1	"끓-(沸)"	32193-0-1 끄리구
32193-0-2	"끓-(沸)-"	32193-0-2 끄레라
32194-0-1	"이기-(勝)"	32194-0-1 이기구
32194-0-2	"이기-(勝)-"	32194-0-2 이계따
32195-0-1	"부시-(照)"	32195-0-1 *
32195-0-2	"부시-(照)-"	32195-0-2 *
32196-0-1	"자빠지-(後倒)"	32196-0-1 자빠디구(+‘디’는 [dʷi])
32196-0-2	"자빠지-(後倒)-"	32196-0-2 자빠데따
32197-0-1	"일으키-(使起)"	32197-0-1 닐구구
32197-0-2	"일으키-(使起)-"	32197-0-2 닐귀라
32198-0-1	"당기-(引)"	32198-0-1 땡기구
32198-0-2	"당기-(引)-"	32198-0-2 당계라(+‘계’는 [gʷe])
32199-0-1	"버리-(捨)"	32199-0-1 데디구
32199-0-2	"버리-(捨)-"	32199-0-2 데데라
32200-0-1	"훔치-(盜)"	32200-0-1 훔치구 이따(+‘훔’의 ‘ㅎ’은 [ɸ])
32200-0-2	"훔치-(盜)-"	32200-0-2 훔چه 간다(+‘훔’의 ‘ㅎ’은 [ɸ])
32201-0-1	"지-(負)"	32201-0-1 지구(+‘지’의 ‘ㅈ’은 경구개음)
32201-0-2	"지-(負)-"	32201-0-2 제에라
32202-0-1	"외:-(暗誦)"	32202-0-1 왜우구
32202-0-2	"외:-(暗誦)-"	32202-0-2 왜와라
32203-0-1	"사귀-(交際)"	32203-0-1 새긴다
32203-0-2	"사귀-(交際)-"	32203-0-2 새기구

32204-0-1	"썩-(腐)"	32204-0-1 썩꾸, 썩그구
32204-0-2	"썩-(腐)-"	32204-0-2 썩거셔, 썩거따
32205-0-1	"질-(泥)"	32205-0-1 즈다
32205-0-2	"질-(泥)-"	32205-0-2 즈러셔
32206-0-1	"까불-(箕)"	32206-0-1 *(+까분다){아이들이 까분다}
32206-0-2	"까불-(箕)-"	32206-0-2 *(+까부레라){(아이들아) 까불어라}
32207-0-1	"드물-(稀)"	32207-0-1 드무다
32207-0-2	"드물-(稀)-"	32207-0-2 드무러셔
32208-0-1	"줄:-(縮)"	32208-0-1 줄구
32208-0-2	"줄:-(縮)-"	32208-0-2 쪼라따
32209-0-1	"심:-(植)"	32209-0-1 시무구
32209-0-2	"심:-(植)-"	32209-0-2 시머따
32210-0-1	"쓰다듬-(撫)"	32210-0-1 ერ르만진다
32210-0-2	"쓰다듬-(撫)-"	32210-0-2 ერ르만제셔
32211-0-1	"사:납-(猛)"	32211-0-1 사무럽따
32211-0-2	"사:납-(猛)-"	32211-0-2 사무러바셔
32212-0-1	"가볍-(輕)"	32212-0-1 해깁따
32212-0-2	"가볍-(輕)-"	32212-0-2 해까바셔
32213-0-1	"젓:-(撈)"	32213-0-1 저꾸
32213-0-2	"젓:-(撈)-"	32213-0-2 저서라
32214-0-1	"두껍-(厚)"	32214-0-1 두껍따
32214-0-2	"두껍-(厚)-"	32214-0-2 두꺼바셔
32215-0-1	"무르-(軟)"	
32215-0-2	"무르-(軟)-"	32215-0-2 물러셔, 물러따
32216-0-1	"분지르-(折)"	32216-0-1 분질구
32216-0-2	"분지르-(折)-"	32216-0-2 분질거라, 꺼꺼따, 꺼끄니
32217-0-1	"배우-(學)"	32217-0-1 배운다, 배우구
32217-0-2	"배우-(學)-"	32217-0-2 배와따
32218-0-1	"다리-(熨)"	32218-0-1 다리구
32218-0-2	"다리-(熨)-"	32218-0-2 다레따(+‘레’는 [r ^v e])
32219-0-1	"후비-(窆, 귀를)"	32219-0-1 우빈다
32219-0-2	"후비-(窆, 귀를)-"	32219-0-2 우베라(+‘베’는 [b ^v e]), 우베라
32220-0-1	"아리-(痛)"	32220-0-1 아리다
32220-0-2	"아리-(痛)-"	32220-0-2 아레셔(+‘레’는 [r ^v e])
32221-0-1	"그리-(畫)"	32221-0-1 그린다, 그리구
32221-0-2	"그리-(畫)-"	32221-0-2 그레라
32222-0-1	"저리-(癡)"	32222-0-1 저린다
32222-0-2	"저리-(癡)-"	32222-0-2 저레셔

32223-0-1	"불리-(增)"	32223-0-1 불군다
32223-0-2	"불리-(增)-"	32223-0-2 불거셔
32224-0-1	"뜨시-(溫)"	32224-0-1 따따:사다
32224-0-2	"뜨시-(溫)-"	32224-0-2 따따:사아니, 따따:새셔
32225-0-1	"끓이-(使沸)"	32225-0-1 끄리구
32225-0-2	"끓이-(使沸)-"	32225-0-2 끄레라
32226-0-1	"누비-(縫)"	32226-0-1 △
32226-0-2	"누비-(縫)-"	32226-0-2 △
32227-0-1	"구기-(皺)"	32227-0-1 꾸긴다
32227-0-2	"구기-(皺)-"	32227-0-2 꾸제라(+‘제’는 [g ^v e])
32228-0-1	"비:-(空)"	32228-0-1 비구
32228-0-2	"비:-(空)-"	32228-0-2 베에따
32229-0-1	"식히-(使冷)"	32229-0-1 시기구
32229-0-2	"식히-(使冷)-"	32229-0-2 시제라
32230-0-1	"매-(除草)"	32230-0-1 매구(+‘구’는 [ɣu])
32230-0-2	"매-(除草)-"	32230-0-2 매애라, 매:라
32231-0-1	"매:-(結)"	32231-0-1 매구, 자바맨다
32231-0-2	"매:-(結)-"	32231-0-2 매라
32232-0-1	"뛰-(走)"	32232-0-1 찌구, 찌다, 달른다(+동물이 뛰는 것)
32232-0-2	"뛰-(走)-"	32232-0-2 △
32233-0-1	"담:-(盛)"	32233-0-1 담구 이따
32233-0-2	"담:-(盛)-"	32233-0-2 다마라
32234-0-1	"가렵-(癢)"	32234-0-1 가랍따
32234-0-2	"가렵-(癢)-"	32234-0-2 가라바셔
32235-0-1	"때리-(打)"	32235-0-1 때린다, 때리구, 친다
32235-0-2	"때리-(打)-"	32235-0-2 테따
32236-0-1	"어둡-(暗)"	32236-0-1 어듭따
32236-0-2	"어둡-(暗)-"	32236-0-2 어드바셔
32237-0-1	"잡-(執)"	32237-0-1 잡꾸
32237-0-2	"잡-(執)-"	32237-0-2 자바따
32238-0-1	"차-(蹴)"	32238-0-1 차구
32238-0-2	"차-(蹴)-"	32238-0-2 차따
32239-0-1	"모자라-(不足)"	32239-0-1 모즈란다(+‘즈’의 ‘ㅈ’은 [z])
32239-0-2	"모자라-(不足)-"	32239-0-2 모즈라셔(+‘즈’의 ‘ㅈ’은 [z])
32240-0-1	"부르-(呼)"	32240-0-1 부룬다, 부루구
32240-0-2	"부르-(呼)-"	32240-0-2 불러라
32241-0-1	"따르-(注)"	32241-0-1 *
32241-0-2	"따르-(注)-"	32241-0-2 *

32242-0-1	"쫓:- (啄)"	32242-0-1 쫓꾸, 쫓는다
32242-0-2	"쫓:- (啄)-"	32242-0-2 쫓자셔(+‘자’의 ‘ㅈ’은 [z])
32243-0-1	"두-(置)"	32243-0-1 둔다, 두구
32243-0-2	"두-(置)-"	32243-0-2 두거라
32244-0-1	"시키-(使)"	32244-0-1 시킨다
32244-0-2	"시키-(使)-"	32244-0-2 시게라
32245-0-1	"지리-(漏, 오줌을)"	32245-0-1 즈리다
32245-0-2	"지리-(漏, 오줌을)-"	32245-0-2 *
32246-0-1	"던지-(投)"	32246-0-1 뿌레데딘다, 데디구
32246-0-2	"던지-(投)-"	32246-0-2 데데따
32247-0-1	"모이-(集)"	32247-0-1 모두구
32247-0-2	"모이-(集)-"	32247-0-2 모다따
32248-0-1	"만지-(搦)"	32248-0-1 어루만진다
32248-0-2	"만지-(搦)-"	32248-0-2 어루만제라
32249-0-1	"쪼:- (曬)"	32249-0-1 쪼우구
32249-0-2	"쪼:- (曬)-"	32249-0-2 쪼와라
32250-0-1	"비틀-(捻)"	32250-0-1 비탈구 이따
32250-0-2	"비틀-(捻)-"	32250-0-2 비타라라
32251-0-1	"돕:- (助)"	32251-0-1 돕꾸, 돕는다
32251-0-2	"돕:- (助)-"	32251-0-2 도바
32252-0-1	"씹-(咀)"	32252-0-1 씹꾸
32252-0-2	"씹-(咀)-"	32252-0-2 씹버, 씹버라
32253-0-1	"미끄럽-(滑)"	32253-0-1 미끄럽따, 미끄럽더라
32253-0-2	"미끄럽-(滑)-"	32253-0-2 미끄러바셔
32254-0-1	"당-(接)"	32254-0-1 *
32254-0-2	"당-(接)-"	32254-0-2 *
32255-0-1	"누르-(壓)"	32255-0-1 누룬다
32255-0-2	"누르-(壓)-"	32255-0-2 눌러 논넌다
32256-0-1	"주무르-(揉)"	32256-0-1 주문다, 주무루더라
32256-0-2	"주무르-(揉)-"	32256-0-2 주물거라, 주머 논넌다
32257-0-1	"메우-(填)"	32257-0-1 메우구
32257-0-2	"메우-(填)-"	32257-0-2 메에라
32258-0-1	"고소하-(香味)"	32258-0-1 고소:하다(+‘하’의 ‘ㅎ’은 [h])
32258-0-2	"고소하-(香味)-"	32258-0-2 고소:해셔(+‘해’의 ‘ㅎ’은 [h])
32259-0-1	"내리-(降)"	32259-0-1 네리구
32259-0-2	"내리-(降)-"	32259-0-2 네리와라
32260-0-1	"구르-(轉)"	32260-0-1 구분다
32260-0-2	"구르-(轉)-"	32260-0-2 구부러틴다

32261-0-1	"만들-(作)"	32261-0-1 맨든다
32261-0-2	"만들-(作)-"	32261-0-2 맨드러라
32262-0-1	"늡-(老)"	32262-0-1 늡따
32262-0-2	"늡-(老)-"	32262-0-2 늡거셔
32263-0-1	"앳-(痛)"	32263-0-1 앳른다, 앳쿠
32263-0-2	"앳-(痛)-"	32263-0-2 아라셔
32264-0-1	"따르-(隨)"	32264-0-1 따른다
32264-0-2	"따르-(隨)-"	32264-0-2 딸가라
32265-0-1	"사-(買)"	32265-0-1 싸구
32265-0-2	"사-(買)-"	32265-0-2 싸오나라
32266-0-1	"치우-(除)"	32266-0-1 츠구 이서라
32266-0-2	"치우-(除)-"	32266-0-2 처라
32267-0-1	"부리지-(被折)"	32267-0-1 불거딘다
32267-0-2	"부리지-(被折)-"	32267-0-2 불거데셔
32268-0-1	"다치-(傷)"	32268-0-1 *
32268-0-2	"다치-(傷)-"	32268-0-2 다테따
32269-0-1	"느리-(緩)"	32269-0-1 *
32269-0-2	"느리-(緩)-"	32269-0-2 *
32270-0-1	"무치-(和, 나물을)"	32270-0-1 메운다, 메우구
32270-0-2	"무치-(和, 나물을)-"	32270-0-2 메워라, 저서따
32271-0-1	"죄:-(締)"	32271-0-1 *
32271-0-2	"죄:-(締)-"	32271-0-2 *
32272-0-1	"팔-(賣)"	32272-0-1 판다, 팔디 마라
32272-0-2	"팔-(賣)-"	32272-0-2 △
32273-0-1	"뽑-(選)"	32273-0-1 뽑꾸
32273-0-2	"뽑-(選)-"	32273-0-2 뽑바라
32274-0-1	"뒤지-(索)"	32274-0-1 드베본다, 드빈다, 들춘다
32274-0-2	"뒤지-(索)-"	32274-0-2 △
32275-0-1	"마치-(終)"	32275-0-1 마감해따, 마치구
32275-0-2	"마치-(終)-"	32275-0-2 마테따
32276-0-1	"절이-(鹽)"	32276-0-1 절군다, 절구디 마라
32276-0-2	"절이-(鹽)-"	32276-0-2 절거따
32277-0-1	"휘-(曲)"	32277-0-1 후린다, 후리구
32277-0-2	"휘-(曲)-"	32277-0-2 △
32278-0-1	"줍:-(拾)"	32278-0-1 주꾸
32278-0-2	"줍:-(拾)-"	32278-0-2 주서따
32279-0-1	"빼앗-(奪)"	32279-0-1 아사빼디 마라
32279-0-2	"빼앗-(奪)-"	32279-0-2 아사빼따

32280-0-1	"기울-(傾)"	32280-0-1 기분다, 기불구
32280-0-2	"기울-(傾)-"	32280-0-2 기부러진다, 기부러지구, 기부러디구
32281-0-1	"아깝-(惜)"	32281-0-1 아깝따
32281-0-2	"아깝-(惜)-"	32281-0-2 아까바서
32282-0-1	"반갑-(歡)"	32282-0-1 방갑따
32282-0-2	"반갑-(歡)-"	32282-0-2 방가바서
32283-0-1	"찌-(蒸)"	32283-0-1 찌구 이따
32283-0-2	"찌-(蒸)-"	32283-0-2 찌서
32284-0-1	"노랑-(黃)"	32284-0-1 노오라타
32284-0-2	"노랑-(黃)-"	32284-0-2 노오래서, 누우러서
32285-0-1	"푸르-(靑)"	32285-0-1 푸루다
32285-0-2	"푸르-(靑)-"	32285-0-2 푸러서, 푸우러서
32286-0-1	"서두르-(忙)"	32286-0-1 △(+그피 해애라){급히 해라}
32286-0-2	"서두르-(忙)-"	32286-0-2 △
32287-0-1	"서투르-(不熟)"	32287-0-1 →서거푸다
32287-0-2	"서투르-(不熟)-"	32287-0-2 →서거퍼파서
32288-0-1	"게으르-(怠)"	32288-0-1 가즈하다(+‘ㅈ’은 [z])
32288-0-2	"게으르-(怠)-"	32288-0-2 가즈해애서(+‘ㅈ’은 [z])
32289-0-1	"따뜻하-(溫)"	32289-0-1 따따:사다, 따따:산
32289-0-2	"따뜻하-(溫)-"	32289-0-2 따따:새서
32290-0-1	"춡-(寒)"	32290-0-1 칩따
32290-0-2	"춡-(寒)-"	32290-0-2 치바서
32291-0-1	"뜨겁-(極熱)"	32291-0-1 딱따
32291-0-2	"뜨겁-(極熱)-"	32291-0-2 따가서
32292-0-1	"미지근하-(微溫)"	32292-0-1 미지하다
32292-0-2	"미지근하-(微溫)-"	32292-0-2 미지.해애서
32293-0-1	"차갑-(寒)"	32293-0-1 차갑따
32293-0-2	"차갑-(寒)-"	32293-0-2 차가바서
32294-0-1	"부럽-(羨)"	32294-0-1 불버한다
32294-0-2	"부럽-(羨)-"	32294-0-2 불버서
32295-0-1	"알밋-(憎)"	32295-0-1 *
32295-0-2	"알밋-(憎)-"	32295-0-2 *
32296-0-1	"비슷하-(類似)"	32296-0-1 비져:사다, 비져:다다
32296-0-2	"비슷하-(類似)-"	32296-0-2 비져:새애서
32297-0-1	"새롭-(新)"	32297-0-1 △
32297-0-2	"새롭-(新)-"	32297-0-2 △
32298-0-1	"서:럽-(悲痛)"	32298-0-1 섯따, 섯따
32298-0-2	"서:럽-(悲痛)-"	32298-0-2 섯버서

32299-0-1	"까다롭-(難)"	32299-0-1	바뿌다
32299-0-2	"까다롭-(難)-"	32299-0-2	바빠서
32300-0-1	"외롭-(孤)"	32300-0-1	△(+호분자 나서 쪽조가다){혼자 태어나서 적적하다}
32300-0-2	"외롭-(孤)-"	32300-0-2	△
32301-0-1	"아쉽-(不滿)"	32301-0-1	→구섭따
32301-0-2	"아쉽-(不滿)-"	32301-0-2	→구셔바셔
32302-0-1	"단단하-(固)"	32302-0-1	땅따나다
32302-0-2	"단단하-(固)-"	32302-0-2	땅따내셔
32303-0-1	"늦-(晚)"	32303-0-1	△
32303-0-2	"늦-(晚)-"	32303-0-2	느저와따, 느저따
32304-0-1	"남:- (餘)"	32304-0-1	기티지 마라, 기티개쏘
32304-0-2	"남:- (餘)-"	32304-0-2	기테라
32305-0-1	"남기-(使餘)"	32305-0-1	기티지 마라, 기티개쏘
32305-0-2	"남기-(使餘)-"	32305-0-2	기테라
32306-0-1	"넘어뜨리-(使倒)"	32306-0-1	밀구 간다
32306-0-2	"넘어뜨리-(使倒)-"	32306-0-2	미러 노아따, 미러 노쿠
32307-0-1	"쭈그러뜨리-(使凹)"	32307-0-1	쭈굴매린다
32307-0-2	"쭈그러뜨리-(使凹)-"	32307-0-2	쭈굴매레따
32308-0-1	"견주-(比)"	32308-0-1	젠준다
32308-0-2	"견주-(比)-"	32308-0-2	젠저 본다
32309-0-1	"외우-(誦)"	32309-0-1	왜운다
32309-0-2	"외우-(誦)-"	32309-0-2	왜와따
32310-0-1	"문지르-(摩)"	32310-0-1	문질구구 이서라
32310-0-2	"문지르-(摩)-"	32310-0-2	문질거라
32311-0-1	"가리키-(指)"	32311-0-1	갈치운다
32311-0-2	"가리키-(指)-"	32311-0-2	갈치위라
32312-0-1	"가르치-(敎)"	32312-0-1	배와준다
32312-0-2	"가르치-(敎)-"	32312-0-2	갈치워준다
32313-0-1	"겨누-(照準)"	32313-0-1	게는다
32313-0-2	"겨누-(照準)-"	32313-0-2	게너라
32314-0-1	"겨루-(競)"	32314-0-1	*
32314-0-2	"겨루-(競)-"	32314-0-2	*
32315-0-1	"달래-(慰撫)"	32315-0-1	달개구
32315-0-2	"달래-(慰撫)-"	32315-0-2	달개라
32316-0-1	"본받-(效)"	32316-0-1	보느 바다라
32316-0-2	"본받-(效)-"	32316-0-2	△
32317-0-1	"어지르-(散)"	32317-0-1	어즐군다, 어즐구구

32317-0-2	"어지르-(散)-"	32317-0-2 어즈럽따
32318-0-1	"달리-(走)"	32318-0-1 달른다
32318-0-2	"달리-(走)-"	32318-0-2 달쿠, 다라 가따
32319-0-1	"우기-(拗)"	32319-0-1 우긴다, 우기구
32319-0-2	"우기-(拗)-"	32319-0-2 우게서
32320-0-1	"중얼거리-(獨言)"	32320-0-1 호분자 지지버린다
32320-0-2	"중얼거리-(獨言)-"	32320-0-2 △
32321-0-1	"지결이-(騷)"	32321-0-1 지지버리구
32321-0-2	"지결이-(騷)-"	32321-0-2 지지버레서
32322-0-1	"다니-(行)"	32322-0-1 땡기구
32322-0-2	"다니-(行)-"	32322-0-2 땡게라
32323-0-1	"떨어뜨리-(使落)"	32323-0-1 떨군다
32323-0-2	"떨어뜨리-(使落)-"	32323-0-2 떨거따
32324-0-1	"깨-(覺)"	32324-0-1 깨구
32324-0-2	"깨-(覺)-"	32324-0-2 깨애나따
32325-0-1	"시-(酸)"	32325-0-1 시쿠다, 시쿠대니타{시지 않다}
32325-0-2	"시-(酸)-"	32325-0-2 시쿠러서
32326-0-1	"숫-(湧)"	32326-0-1 손는다, 소꾸 이따
32326-0-2	"숫-(湧)-"	32326-0-2 소사따
32327-0-1	"좋:-(好)"	32327-0-1 죠타
32327-0-2	"좋:-(好)-"	32327-0-2 죠아서
32328-0-1	"빨강-(赤)"	32328-0-1 바알가쿠
32328-0-2	"빨강-(赤)-"	32328-0-2 바알가서
32329-0-1	"끌:-(曳)"	32329-0-1 끄스구
32329-0-2	"끌:-(曳)-"	32329-0-2 끄서라
32330-0-1	"넓:-(廣)"	32330-0-1 너르다, 너따
32330-0-2	"넓:-(廣)-"	32330-0-2 널거서, 너버서
32331-0-1	"하양-(白)"	32331-0-1 히다, 하아야타
32331-0-2	"하양-(白)-"	32331-0-2 헤에서

3.2.2 곡용

32332-0-1	국(羹)-이/가	32332-0-1 장무리
32332-0-2	국(羹)-을/를	32332-0-2 장무르
32332-0-3	국(羹)-에(서)	32332-0-3 장무레서
32332-0-4	국(羹)-으로	
32332-0-5	국(羹)-도	32332-0-5 장물두
32333-0-1	논(沓)-이/가	32332-0-1 베바티

32333-0-2	논(沓)-을/를	32332-0-2	베바트, 놔바트
32333-0-3	논(沓)-에(서)	32332-0-3	놔바테서
32333-0-4	논(沓)-으로	32332-0-4	놔바트 가거라
32333-0-5	논(沓)-도		
32334-0-1	쌀(米)-이/가	32334-0-1	싸리 만타
32334-0-2	쌀(米)-을/를	32334-0-2	싸르
32334-0-3	쌀(米)-에(서)	32334-0-3	싸레서
32334-0-4	쌀(米)-으로		
32334-0-5	쌀(米)-도	32334-0-5	쌀두 만타
32335-0-1	봄(春)-이/가	32335-0-1	보미 도라온다
32335-0-2	봄(春)-을/를	32335-0-2	보무
32335-0-3	봄(春)-에(서)		
32335-0-4	봄(春)-으로		
32335-0-5	봄(春)-도	32335-0-5	봄두
32336-0-1	집(家)-이/가	32336-0-1	지비
32336-0-2	집(家)-을/를		
32336-0-3	집(家)-에(서)	32336-0-3	지베서
32336-0-4	집(家)-으로	32336-0-4	지부루
32336-0-5	집(家)-도	32337-0-2	집뚜
32337-0-1	옷(衣)-이/가	32337-0-3	우티, 우티 크다
32337-0-2	옷(衣)-을/를	32337-0-4	우티르 니버라
32337-0-3	옷(衣)-에(서)	32337-0-5	우테서
32337-0-4	옷(衣)-으로		
32337-0-5	옷(衣)-도		
32338-0-1	방(房)-이/가	32338-0-1	바니
32338-0-2	방(房)-을/를		
32338-0-3	방(房)-에(서)	32338-0-3	바네 이서따
32338-0-4	방(房)-으로	32338-0-4	바아네르 간다
32338-0-5	방(房)-도	32338-0-5	반두 크다
32339-0-1	낮(晝)-이/가	32339-0-1	나지다
32339-0-2	낮(晝)-을/를		
32339-0-3	낮(晝)-에(서)	32339-0-3	나제 한다
32339-0-4	낮(晝)-으로		
32339-0-5	낮(晝)-도		
32340-0-1	낯(顏)-이/가	32340-0-1	나치
32340-0-2	낯(顏)-을/를	32340-0-2	나츠
32340-0-3	낯(顏)-에(서)		
32340-0-4	낯(顏)-으로		

32340-0-5	낯(顔)-도	32340-0-5	나뭇
32341-0-1	부엌(廚)-이/가 있음)	32341-0-1	*(+이 지역의 ‘부수깨’와 의미차가
32341-0-2	부엌(廚)-을/를		
32341-0-3	부엌(廚)-에(서)		
32341-0-4	부엌(廚)-으로		
32341-0-5	부엌(廚)-도		
32342-0-1	밭(田)-이/가	32342-0-1	바티
32342-0-2	밭(田)-을/를	32342-0-2	바트
32342-0-3	밭(田)-에(서)	32342-0-3	바테다
32342-0-4	밭(田)-으로	32342-0-4	
32342-0-5	밭(田)-도	32342-0-5	베바뚜 크다
32343-0-1	앞(前)-이/가	32343-0-1	애펬, 아피
32343-0-2	앞(前)-을/를	32343-0-2	아푸 가거라
32343-0-3	앞(前)-에(서)	32343-0-3	아페 와서
32343-0-4	앞(前)-으로	32343-0-4	아푸루
32343-0-5	앞(前)-도	32343-0-5	아푸두, 압뚜
32344-0-1	넋(魂)-이/가	32344-0-1	*
32344-0-2	넋(魂)-을/를		
32344-0-3	넋(魂)-에(서)		
32344-0-4	넋(魂)-으로		
32344-0-5	넋(魂)-도		
32345-0-1	흙(土)-이/가	32345-0-1	흘기
32345-0-2	흙(土)-을/를	32345-0-2	흘그
32345-0-3	흙(土)-에(서)	32345-0-3	흘게
32345-0-4	흙(土)-으로	32345-0-4	흘글르
32345-0-5	흙(土)-도	32345-0-5	흑뚜
32346-0-1	여덟(八)-이/가	32346-0-1	야듭, 야들비다
32346-0-2	여덟(八)-을/를	32346-0-2	
32346-0-3	여덟(八)-에(서)	32346-0-3	야들베서
32346-0-4	여덟(八)-으로		
32346-0-5	여덟(八)-도	32346-0-5	야들뽀구{여덟보다}
32347-0-1	돌(遇歲)-이/가	32347-0-1	돌쌩지니
32347-0-2	돌(遇歲)-을/를		
32347-0-3	돌(遇歲)-에(서)		
32347-0-4	돌(遇歲)-으로		
32347-0-5	돌(遇歲)-도		
32348-0-1	값(價)-이/가	32348-0-1	갑씨

32348-0-2	값(價)-을/를	32348-0-2	값쓰
32348-0-3	값(價)-에(서)		
32348-0-4	값(價)-으로		
32348-0-5	값(價)-도	32348-0-5	값뚜
32349-0-1	속:(內)-이/가	32349-0-1	소기라구
32349-0-2	속:(內)-을/를	32349-0-2	소그
32349-0-3	속:(內)-에(서)	32349-0-3	소개셔
32349-0-4	속:(內)-으로	32349-0-4	소글르
32349-0-5	속:(內)-도	32349-0-5	속뚜
32350-0-1	돈:(錢)-이/가	32350-0-1	도니
32350-0-2	돈:(錢)-을/를	32350-0-2	도느
32350-0-3	돈:(錢)-에(서)		
32350-0-4	돈:(錢)-으로		
32350-0-5	돈:(錢)-도	32350-0-5	돈두
32351-0-1	발(足)-이/가	32351-0-1	바리 크다
32351-0-2	발(足)-을/를		
32351-0-3	발(足)-에(서)	32351-0-3	바레셔
32351-0-4	발(足)-으로	32351-0-4	바를르 테따{발로 찼다}
32351-0-5	발(足)-도	32351-0-5	발두 크다
32352-0-1	짐(荷物)-이/가	32352-0-1	지미
32352-0-2	짐(荷物)-을/를	32352-0-2	지무
32352-0-3	짐(荷物)-에(서)	32352-0-3	지메셔
32352-0-4	짐(荷物)-으로		
32352-0-5	짐(荷物)-도	32352-0-5	짐두
32353-0-1	입(口)-이/가		
32353-0-2	입(口)-을/를	32353-0-2	이부
32353-0-3	입(口)-에(서)	32353-0-3	이베셔
32353-0-4	입(口)-으로	32353-0-4	이부루
32353-0-5	입(口)-도	32353-0-5	입뚜
32354-0-1	낫(鎌)-이/가		
32354-0-2	낫(鎌)-을/를	32354-0-2	나드
32354-0-3	낫(鎌)-에(서)	32354-0-3	나데
32354-0-4	낫(鎌)-으로	32354-0-4	나들르
32354-0-5	낫(鎌)-도	32354-0-5	나뚜
32355-0-1	강(江)-이/가	32355-0-1	가~이
32355-0-2	강(江)-을/를		
32355-0-3	강(江)-에(서)	32355-0-3	가~에셔, 가에서
32355-0-4	강(江)-으로		

32355-0-5	강(江)-도	32355-0-5 강두
32356-0-1	젓(乳)-이/가	32356-0-1 져지
32356-0-2	젓(乳)-을/를	32356-0-2 져즈
32356-0-3	젓(乳)-에(서)	32356-0-3 져제셔
32356-0-4	젓(乳)-으로	
32356-0-5	젓(乳)-도	32356-0-5 져뚜
32357-0-1	꽃(花)-이/가	32357-0-1 꼬지
32357-0-2	꽃(花)-을/를	32357-0-2 꼬즈
32357-0-3	꽃(花)-에(서)	32357-0-3 꼬제셔
32357-0-4	꽃(花)-으로	
32357-0-5	꽃(花)-도	32357-0-5 꼬뚜
32358-0-1	팥(赤豆)-이/가	32358-0-1 파치
32358-0-2	팥(赤豆)-을/를	32358-0-2 파츠
32358-0-3	팥(赤豆)-에(서)	32358-0-3 파체셔
32358-0-4	팥(赤豆)-으로	
32358-0-5	팥(赤豆)-도	32358-0-5 파치두 만터라
32359-0-1	옆(側)-이/가	32359-0-1 여피
32359-0-2	옆(側)-을/를	
32359-0-3	옆(側)-에(서)	32359-0-3 여페, 여페셔
32359-0-4	옆(側)-으로	32359-0-4 여푸루
32359-0-5	옆(側)-도	
32360-0-1	샅(賃金)-이/가	32360-0-1 썩기
32360-0-2	샅(賃金)-을/를	32360-0-2 썩그
32360-0-3	샅(賃金)-에(서)	32360-0-3 썩게셔
32360-0-4	샅(賃金)-으로	
32360-0-5	샅(賃金)-도	
32361-0-1	닭(鷄)-이/가	32361-0-1 달기
32361-0-2	닭(鷄)-을/를	32361-0-2 달그
32361-0-3	닭(鷄)-에(서)	
32361-0-4	닭(鷄)-으로	
32361-0-5	닭(鷄)-도	32361-0-5 닥뚜
32362-0-1	밖(外)-이/가	
32362-0-2	밖(外)-을/를	32362-0-2 바가트
32362-0-3	밖(外)-에(서)	32362-0-3 바가테, 바가테셔
32362-0-4	밖(外)-으로	32362-0-4 바가틀르
32362-0-5	밖(外)-도	32362-0-5 바가뚜

제4편 문 법

4.1. 대명사

1) 인칭대명사

40101 나	40101 내 마란다
40101-0-1 내-가	40101-0-1 내 마란다, 내 해애쑤
40101-0-2 내(나-의)	40101-0-2 내게우
40101-0-3 나-를	40101-0-3 나르 차사와따
40101-0-4 나-에게	40101-0-4 내게르 가제오나라
40101-0-5 나-와	40101-0-5 내가 가티 가자
40101-0-6 나-는	40101-0-6 나는 아오
40101-0-7 나-도	40101-0-7 나두 알구
40102 저/제-가	40102
40102-0-1 -가	40102-0-1 내 먹었소.
40102-0-2 -의	40102-0-2 *
40102-0-3 -를	40102-0-3 *
40102-0-4 -에게	40102-0-4 *
40102-0-5 -와	40102-0-5 *
40102-0-6 -는	40102-0-6 *
40102-0-7 -도	40102-0-7 *
40103 우리	40103 우리 아버지
40104 저희	40104 우리 아버지
40105 너	40105 네
40105-0-1 너-가	40105-0-1 네 드러라
40105-0-2 너-의	40105-0-2 네 게냐
40105-0-3 너-를	40105-0-3 너르 데리구 간다
40105-0-4 너-에게	40105-0-4 네게 준다
40105-0-5 너-와	40105-0-5 네가 가티 간다

40105-0-6 너-는
 40105-0-7 너-도
 40106 자네
 40107 당신
 40108 너희
 40109 개
 40109-1 애
 40109-2 재
 40110 자기
 40111 당신
 지가 자기 방에서 밥을 잡숫는다)

40105-0-6 너느
 40105-0-7 너두 말해라
 40106 제, 당시니
 40107 제, 당시니
 40108 제 아바지
 40109 가, 가:느
 40109-1 야
 40109-2 닐, 자아
 40110 제 올타구
 40111 빠빠 재비 반에서 시격으 잡순는다(아버

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40112-0-1 누-가
 40112-0-2 누구-의
 히 ‘누’라는 말을 쓴다. ‘네: 집’(누구의 집))
 40112-0-3 누구-를
 40112-0-4 누구-에게
 40112-0-5 누구-와
 40113 무엇-이냐/입니까
 40113-0-1 무엇-이
 40113-0-2 무슨
 40113-0-3 무엇-을
 40113-0-4 무엇-과

40112 누기오?/누기 왔소?
 40112-0-1 누기 기랜냐?
 40112-0-2 누기 도니오? (+구술발화에서는 혼
 40112-0-3 누기르 바쑈?, 누기르 만나쑈?
 40112-0-4 누기게르 쵸냐?
 40112-0-5 누기가 겨로나냐?
 40113 무스게냐?/무스겜두?
 40113-0-1 무스게?
 40113-0-2 무슨 즈스 하나?
 40113-0-3 무스그, 무스거 가제완냐?
 40113-0-4 무스거까 비저:타다

3) 그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40115 언제
 40116 어느
 40117 왜
 40118 얼마나
 40119 어떻게
 흔히 ‘지우다’를 씀)

40114 어드메르 가냐?
 40115 언제 완냐?
 40116 어느거 싸겐능가
 40117 언제 우냐?
 40118 얼마나 걸기능가?{얼마나 걸리는가?}
 40119 어떠키 기웁두?{어떻게 지내십니까?} (+

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다구, 이거뚜 따구
40121 그것
다구
40122 저것
다고{저것도 다오}
40123 여기
여기르 맞아서 그저 데깅 앓아서 상세나구(+구술발화에서 옮겨옴), 영게 노아라, 영게 이쓰꾸마
40124 거기
경게 노아라, 경게 이서라{거기에 있어라}
40125 저기
노아라, 이보오 더기르 가오(+자연발화에서 채록)
40126 이리
40127 그리
40128 저리

40120 이게 무시기오?, 이게 무스게오?, 이거
40121 그게, 그거뚜 따구{그것도 다르고}, 그거
40122 더게 떠러데따{저것이 떨어졌다}, 더거뚜
40123 여기르 가채비 오나라, 초오 맞은 게 거저
40124 너네 거기르 가디 말아라(+구술발화에서 옮겨옴)
40125 더기르 가가라, 덩게르 가가라, 덩게다가
노아라, 이보오 더기르 가오(+자연발화에서 채록)
40126 이리 오나라
40127 거길르 가디 마압쇼
40128 더기르 가가라

4.2. 조사

1) 격조사

40201 이/가
40202 이/가
40203 을/를
40204 을/를
40205 에 게/게
40206 보고/더러
40207 보고/더러
40208 에
40209 에
40210 에서
40211 에서
40212 에서
40213 으로
40214 으로
40215 으로
40216 으로

40201 갑씨
40202 코이 크다
40203 귀떠르(+‘귀’는 [kʷi])
40204 무루 친다
40205 사름게
40206 누기르 당시니라구, 누기가 말하냐
40207 누기르 보구, 누기가
40208 지부루 가압꾸마, 집에 달려와서(+구술발화에서 옮겨옴), 나르 업구 어드메 에 밭에 나가 잇엇답더구마(+구술발화에서 옮겨옴)
40209 나쥬에 만나기오
40210 지베서 거두매르 하오{집에서 설거지를 하오}
40211 셔우래서
40212 여기서
40213 쌀르, 싸를르
40214 감지느 바불르, 지폴르
40215 오락지르{오라기로}
40216 어드메르, 어드르, 어드멜르 가냐

40217 와/과
 박과 오이를 다 가져오너라}
 40218 와/과
 40219 보다
 보다 나이가 더 많소}
 40220 처럼
 40221 만큼
 겠다}
 40222 만큼
 저라}
 40223 아/야
 40224 아/야
 40225 아/야
 40226 아/야(누님!)
 40226-1 아/야
 40227 아/야(할아버지!)
 네!’라 함}
 40227-1 아/야
 40228 이랑
 40229 커녕

40217 슈박까 배가(+[vega]) 다 가져오나라{수
 40218 내가 가티 가자{나와 같이 가자}
 40219 내보구, 네보구 나이 더 만쏘{나보다, 너
 40220 도트터르 산다{돼지처럼 산다}
 40221 네마:니 커쓰무 조캐따{너만큼 컸으면 좋
 40222 네 머글마:니 가제라{네가 먹을 만큼 가
 40223 봉나마
 40224 봉내미
 40225 영시야 오나라{영수야 오너라}
 40226 느베
 40227 클아바니{흔히 함북 지역에서는 ‘클아바
 40228 수우리랑 떠기랑 다아 머거따
 40229 *

2) 보조사

40230 은/는
 일고}, 찰떠그는 아이 머거따{찰떡은 안 먹었다}
 40231 만
 40232 도
 도 예쁘더라}
 40233 마다
 다{주일마다}
 40234 부터
 40235 까지
 40236 조차
 40236-1 조차
 40237 이야/야
 {말이야 잘 안 듣지}
 40238 을랑
 다시 하지 마라}
 40239 이라도

40230 안드레이는 금 이르구{안드레이는 금을
 40231 고기만 머거따
 40232 키두 크구 얼굴뚜 곱떠라{키도 크고 얼굴
 40233 날마디르 만난다{날마다 만난다}, 주일마
 40234 오늘부터
 40235 내엘꺼지{내일까지}
 40236 네아부라
 40236-1 *
 40237 마리야 잘 아니드떠, 마리사 잘 아니드떠
 40238 그런 마르는 다시 하디 마라{그런 말은
 40239 부재두, 부재래두

40240 밖에
밖에 없소}
40241 가지고

40240 내 믿을 사르문 제우! 제바께 업쏘{자기
40241 싸가지구

3) 문장 뒤 조사

40242 고
40243 요
40244 요

40242 오라구 한다
40243 아라쓰꾸마
40244 누기 해썬두?

4.3 종결어미?

40301 -아라
40302 -게
40303 -으오
40304 -으십시오
40305 -세요
40306 -자
40307 -세
40308 -으오
40309 -십시다
40310 -세요
40311 -니
40312 -나
40313 -오
40314 -습니까
40315 -나요
40316 -니
40317 -나
40318 -시오
중간음)
40319 -십니까
40320 -세요
40321 -는다
40322 -네
40323 -오
40324 -습니다
음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음)

40301 안자라
40302 안쏘
40303 안줍쑤
40304 안줍쑤
40305 안줍쑤
40306 내가 가티 가자{나와 같이 가자}
40307 가티 가시오
40308 형님 가티 가시오
40309 가집쑤
40310 가집쑤
40311 오더냐?, 오냐?
40312 오웁떼?, 오오?
40313 오오?, 오우?
40314 오웁떼?
40315 오웁두?
40316 어드르 가냐?
40317 어드르 가우?
40318 어드메르 가압썸도?(+‘도’는 ‘ㄱ’와 ‘ㄴ’의
40319 어드메르 가압썸도?
40320 어드메르 가압썸도?, 가압두?
40321 밥우 잘 멩는다
40322 먹쑤
40323 먹썬떼, 먹쑤
40324 먹쓰꾸마(+‘꾸’의 ‘ㅌ’는 ‘ㄱ’와 ‘ㄴ’의 중간

40325	-네요	40325	먹쓰꾸마
40326	-다	40326	작따
40327	-네	40327	작쏘
40328	-소	40328	작쏘
40329	-으 십니다	40329	작쓰꾸마
40330	-으 세요	40330	작쓰꾸마
40331	-아	40331	어드메 아푸:?
40332	-지 가나?)}	40332	가오?, 가보오, 갈께지{갈 것이지 (왜 안
40333	-이다	40333	생지니다
40334	-이니	40334	생지니니?
40335	-이네	40335	생지니우? /40335 생지니우?
40336	-인가	40336	생지니우?
40337	-이오	40337	생지니우?
40338	-이오	40338	생지니우?
40339	-입니다	40339	생지니이꾸마
40340	-입니까	40340	생지니임두?
40341	-이시지요	40341	생지니이꾸마
40342	-이시지요	40342	생지니이꾸마
40343	-이나	40343	무수게냐?(+‘수’의 ‘ㄷ’는 [ㅄ])
40344	-인가	40344	무수게오?
40345	-이오	40345	무수게오?
40346	-입니까	40346	무수젼두?(+‘두’의 ‘ㄷ’는 [ㅄ])
40347	-인가요	40347	무수젼두?(+‘두’의 ‘ㄷ’는 [ㅄ])
40348	-이야 형이 동생에게도 이 말을 씀)	40348	무수게오?, 무수게니?(+남편이 아내에게,
40349	-이어요	40349	무수게오?
40350	-습니다	40350	만쓰꾸마(+‘꾸’의 ‘ㄷ’는 [ㅄ])
40351	-습디다 썩떼(+나이가 대등할 때 씀)	40351	만쓰떠마(+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씀), 만
40352	-는구나/구나	40352	멍능구나
40353	-는구먼/구먼	40353	멍능구만
40354	-일세	40354	오란마니다
40355	-으마	40355	가푸마, 내애리 물개쏘{내일 갈겠소}
40356	-음세	40356	*
40357	-올라	40357	걸길라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40401	머꾸
40402	-으면서	40402	보메 멍는다{보면서 먹는다}
40403	-어/-어서	40403	치바셔 모까따{추워서 못갔다}
40404	-으니 /-으니까	40404	모미 노그니{몸이 녹으니}
40405	-관데	40405	무슨 이럴래 모다썸둥?
40406	-다가	40406	오다가 비르 마자따
40407	-거든	40407	혹씨르 만나무{혹시 만나면}, (+흔히 ‘-네느’를 씀)
40408	-더라도	40408	머거두 쪼끔 머거{먹더라도 조금 머거}
40409	-으려고	40409	먹짜구
40410	-도록	40410	빠디기, 빠지기 이르 해따{(빠가) 빠지게 일을 했다}, 빠디라르 이르 해애라
40411	-을수록	40411	노푸스라 올라가기 바뿌다{높을수록 올라가기 힘들다}, 먹두라 더 먹겍다{먹을수록 더 먹고 싶다}
40412	-듯이	40412	물터르 쓴다{물쓰듯 한다}
40413	-지	40413	영그만 보지{여기만 보지}

4.5 주체존대

40501	-셔	40501	안쏘
40502	-셨소	40502	해애쏘?

4.6 시제

40601	-는/ㄴ-	40601	운는다
40602	-는/ㄴ-	40602	게에 간다{기어간다}
40603	-는/ㄴ-	40603	크다
40604	-는/ㄴ-	40604	생지니다
40605	-고 있-	40605	오구 이따
40606	-왔/였-	40606	무시레 바부 머건냐?
40607	-왔였-	40607	와씨따
40608	-더-	40608	먹떠라
40609	-더-	40609	먹썸때?
40610	-는	40610	보는 동미다{만나는 친구다}
40611	-ㄴ	40611	온 동미다{온 친구다}
40612	-던	40612	만나뻘 동미르{만났던 친구를}
40613	-르	40613	만날 동미다
40614	-ㄴ	40614	크나다{큰 아이다}

40615 -던
40616 -던
40617 -겠-
40618 -겠-

40615 *
40616 커떤게 쪼라테따{크던 게 작아졌다}
40617 아니 마시개따
40618 비 퍼부께따{비가 퍼붓겠다}

4.7 부정

40701 안/않다
40702 안/않다
40703 안/않다
40704 안/않다
안 갔소}
40705 안/않다
빠쏘{아직은 어머니를 못 봤소}
40706 앓고
먹고 즐기만 한다}
40706-1 앓고
다}
40707 못
40708 안

40701 안주그 아니 머거따{아직은 안 먹었다}
40702 나리 죠태니타{날이 좋지 않다}
40703 깨까태인타{깨끗하지 않다}
40704 안주그 셔바:~ 아이 가쏘{아직은 장가를
40705 안주근 만나 아니 바쏘. 안주근 마마 모
40706 밥뚜 아이 머꾸 자불기만 한다(밥도 안
40706-1 먹때니쿠 잠만 잔다{먹지 앓고 잠만 잔
다}
40707 수우르 몸 먹쏘, 수우르 아니 먹쏘
40708 마때니우(+‘때’는 [tʰɛ])(맞지 앓소}

4.8 사동과 피동

1) 사동

40801 살리다
40802 늘리다
40803 말리다1
40804 말리다2
40805 얼리다
40806 녹이다
40807 신기다
40808 보이다
40809 알리다
40810 입히다
40811 앓히다
40812 벗기다

40801 살가따, 살균 사르미{살린 사람}
40802 널거라, 널구구
40803 말리워라, 말리우구
40804 말게라, 말기구
40805 얼군다
40806 노게라(+[nɔgʷɛra])
40807 싱게라(+[singʷɛra])
40808 배운다(+[pɛunda])
40809 알케운다, 알긴다, 알게라(+[argʷɛra])
40810 니페준다
40811 안친다
40812 빼긴다

40813 웃기다
40814 씹히다
40815 숨기다
40816 굶기다
40817 깨우다
40818 돋우다

40813 우긴다
40814 켜기구
40815 곰치운다
40816 굴메라{굶겨라} 굴미구이따{굶기고 있다}
40817 깨와라, 깨우구이따(+‘우’는 [ɯ])
40818 도꾼다, 도까라(+김을 땔 때 씹)

4.8.2. 피동

40819 잡히다
40820 꺾이다
40821 끼이다
40822 떼이다
소?}
40823 채이다
40824 달히다
40825 들리다
40826 업히다
40827 바뀌다
40828 찢히다
40829 엇히다
40830 찍히다
40831 놀리다
40832 실리다
40833 끓기다
40834 굵히다

40819 채페따
40820 깨긴다
40821 껌에테따, 끼워따
40822 이리빠려따, 띠워따, 띠와쑈((돈을) 떼엿

40823 채와따, 채우구 이따
40824 대끼워따, 대끼운다
40825 드킨다
40826 어페따
40827 배끼워따
40828 씨피워따, 씨피구
40829 언지워따, 다리워따
40830 띠키워따
40831 놀리워따
40832 시끼워 와따{실려 왔다}
40833 소식이 딱 끄너따
40834 허비와따

4.9. 보조용언

40901 싶다
40902 싶다
40903 보다
40904 버리다
40905 대다
40906 -나/는가 보다
40907 -나/는가 보다
40908 -나/는가 보다

40901 가지구 시푸냐{가지고 싶냐?}
40902 *
40903 니버 보옵쑈
40904 머거 치워따 (+‘빠리다’가 간혹 쓰임)
40905 *
40906 나리 흐리운다. 비오개따
40907 자능가투라다{자능가 보다.}
40908 치분가톨하다{추운가 보다.}

4.10. 부사

41001	실컷	41001	실큰 머거라
41002	많이	41002	마니 머그무
41003	너무	41003	지내 머그무
41004	조금	41004	조끔 머거두
41005	자주	41005	자주루(+[zazuru]) 땡긴다
41006	빨리	41006	빨리, 이쁘기
41007	얼른	41007	얼레, 빨리
41008	기어코	41008	기어나
41009	가끔	41009	드물게, 가끔
41010	먼저	41010	만저 앞서라
41011	나중에	41011	나쥬에, 두에
41012	가득	41012	까뜩
41013	몽땅	41013	여기꺼 다아 머거라
41014	모조리	41014	다아 치워따
41015	혼자	41015	홈자, 하분자
41016	항상	41016	장구 수우르 명는다{항상 술을 먹는다}
41017	똑똑히	41017	똑또기 바라
41018	겨우	41018	제에구 차마따
41019	늘	41019	늘 잔다{늘 잔다.}
41020	저절로	41020	채빌르, 저절로
41021	자꾸	41021	자꾸
41022	설마	41022	간대르사
41023	하마터면	41023	재뿌다무{자칫하면}
41024	함께	41024	가티, 함께
41025	걸핏하면	41025	툑해아서
41026	공연히	41026	꽤애니(+[k ^w ɛɛni])
41027	그냥	41027	빙게 나와따{그냥 나왔다.}, 그냥
41028	매우	41028	모지리
41029	곧장	41029	꼬꼬지
41030	벌써	41030	발써
41031	가장	41031	데이리, 제일 빠나다{제일 밝다.}
41032	가만히	41032	가마니
41033	미리	41033	미루 해애라
41034	이따금	41034	드물기, 이따 이따 온다

4.11. 관용적 표현

1) 관용어구

41101	여보	41101	이보 여기르 오오
41102	여보세요	41102	이보옵쇼
41103	들어가요	41103	*(+마르 꼬너쑈)
41104	수고하세요	41104	감사합꾸마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41105	너르 본데 오라다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41106	알령하암두?, 거저 마우재 말루 해찌{그냥 러시아 말로 했지}
41107	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에게 큰절 올리면서 하는 말	41107	*
41108	여기 있습니다(물건을 사고 돈을 주면서 하는 말)	41108	돈 여기 이쓰꾸마
41109	예(질문에 대한 긍정의 대답)	41109	예
41110	아니(질문에 대한 부정의 대답)	41110	아니, 아니다, 아니꾸마{아닙니다}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41111	이럽따
41112	내버려 둬	41112	내바려 뒤라
41113	개나 소나	41113	*

2) 속담

41114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41114	이이기 엄는 이르 한다{이익이 없는 일을 한다.}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41115	바늘 도도기 췌도도기 텐다
41116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라 이꾸야 내구리 난다(+러시아 어를 번역한 말)	41116	부리 부때니무 내구리 아니 난다, 부리